

2015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정은미 · 김병로 · 장용석 · 최규빈 · 김병조 · 강원택 · 황정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2

2015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6. 2. 19
발 행 2016. 2. 19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정은미·김병로·장용석·최규빈·김병조·강원택·황정미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5 통일의식조사 /
저자: 박명규, 정은미, 김병로, 장용석, 최규빈, 김병조, 강원택, 황정미.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2)
ISBN 979-11-955093-2-4 93340 : 비매품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600671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2

2015 통일의식조사



CONTENTS 목차

서장

1. 광복 70주년의 무게감	20
2. 2014년과 2015년	23
3. 조사 개요	27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6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38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44
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51
4. 통일과 민주주의	62
5.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66
6. 소결	70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74
1. 남북한 관계 인식	76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81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83
4. 북한의 위협 의식	87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93
6. 소결	96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00
1. 서론	100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3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112
4.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33
5. 소결	139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44
1. 서론	144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46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55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165
5. 소결	173

CONTENTS 목차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180
1. 서론	180
2. 세대의 정의와 세대 구분	182
3.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	188
4.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	205
5. 소결	217
 제6장 정파적 태도와 통일 이슈	220
1. 서론	220
2. 정파적 태도와 통일	223
3. 정파적 태도와 대북 정책	230
4. 정파적 태도와 대북 정책 성과의 평가와 책임	242
5. 소결	248
 7장 다문화 시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250
1. 서론	250
2. 탈북자에 대한 태도: 친근감, 사회적 거리와 정책 지지도	254
3.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262
4.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인식	267
5. 소결	273

결장: 2015 조사에 나타난 의식과 태도

1. 의식의 기본패턴은 지속	282
2. 통일인식의 새로운 흐름	287
3. 통일인식의 종합적 평가	291

부록

297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항 간 교차분석 (2014-2015)	47	〈표 1-4-15〉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66
〈표 1-1-2〉	통일 편익 기대감과 통일대박론 공감도의 교차분석	53	〈표 1-4-16〉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2008-2015)	168
〈표 1-2-1〉	남북한 관계 인식과 유관 변수	78	〈표 1-4-17〉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170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5)	95	〈표 1-4-18〉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172
〈표 1-3-1〉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134	〈표 1-4-19〉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172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47	〈표 2-5-1〉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184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148	〈표 2-5-2〉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정도 (2014-2015)	191
〈표 1-4-3〉	연령대별 대미친밀감	151	〈표 2-5-3〉	통일의식 유형	205
〈표 1-4-4〉	연령대별 대북친밀감	151	〈표 2-5-4〉	통일준비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208
〈표 1-4-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52	〈표 2-5-5〉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209
〈표 1-4-6〉	연령대별 대북 위협인식	154	〈표 2-5-6〉	민주화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210
〈표 1-4-7〉	미국의 국가이미지	157	〈표 2-5-7〉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211
〈표 1-4-8〉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58	〈표 2-5-8〉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에 대한 인식 (2015)	212
〈표 1-4-9〉	일본의 국가이미지	159	〈표 2-5-9〉	통일의식 유형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15)	213
〈표 1-4-10〉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160	〈표 2-5-10〉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2015)	214
〈표 1-4-11〉	중국의 국가이미지	162	〈표 2-5-11〉	통일의식 유형별 통일에 중요한 관계 (2015)	216
〈표 1-4-12〉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63	〈표 2-6-1〉	지지 정당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23
〈표 1-4-13〉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164	〈표 2-6-2〉	지지 정당별 통일에 대한 견해	224
〈표 1-4-14〉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165	〈표 2-6-3〉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226
			〈표 2-6-4〉	통일이 사회와 개인에게 이익?	227

표 목차

그림 목차

〈표 2-6-5〉 '통일대박론'에 대한 정파적 입장에 따른 태도	228
〈표 2-6-6〉 통일 위한 정책의 시급성	232
〈표 2-6-7〉 대북 정책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234
〈표 2-6-8〉 구체적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의 태도	238
〈표 2-6-9〉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	240
〈표 2-6-10〉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감	242
〈표 2-6-11〉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243
〈표 2-6-12〉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244
〈표 2-7-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평균값* (2007-2015)	256
〈표 2-7-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2015)	256
〈표 2-7-3〉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258
〈표 2-7-4〉 접촉 변인과 탈북자 친근감의 차이 (2015)	263
〈표 2-7-5〉 대북인식에 따른 탈북자 친근감의 차이 (2015)	264
〈표 2-7-6〉 탈북자 친근감과 관련 항목의 시계열 추이 (2007-2015) (4점 척도)	265
〈표 2-7-7〉 다문화 수용성의 집단별 비교 (2015)	270
〈표 2-7-8〉 탈북자 수용 - 다문화 공존에 대한 지지도 (2015)	272
〈표 2-7-9〉 다문화공존 - 탈북자 친근감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상관관계 분석	273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40
〈그림 1-1-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42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46
〈그림 1-1-4〉 통일이 가능한 시기	50
〈그림 1-1-5〉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이익이 된다' 응답 추이)	52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58
〈그림 1-1-7〉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60
〈그림 1-1-8〉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62
〈그림 1-1-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65
〈그림 1-1-10〉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67
〈그림 1-2-1〉 남북한 관계 인식	77
〈그림 1-2-2〉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_북한은 협력대상	79
〈그림 1-2-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_북한은 협력대상	80
〈그림 1-2-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지역별)	84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정치성향별)	85
〈그림 1-2-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86

그림 목차

〈그림 1-2-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9	〈그림 1-3-13〉 통일을 위한 시급성(시급함)	115
〈그림 1-2-8〉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_세대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90	〈그림 1-3-14〉 남북경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116
〈그림 1-2-9〉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_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	92	〈그림 1-3-15〉 북한 인식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117
〈그림 1-2-10〉 북한사회 인지도	94	〈그림 1-3-16〉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	118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104	〈그림 1-3-17〉 북한 인식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합의 계승(동의함)	119
〈그림 1-3-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105	〈그림 1-3-18〉 개성공단 유지	120
〈그림 1-3-3〉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106	〈그림 1-3-19〉 북한 인식별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	121
〈그림 1-3-4〉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7	〈그림 1-3-20〉 금강산관광 재개	122
〈그림 1-3-5〉 지지정당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8	〈그림 1-3-21〉 북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123
〈그림 1-3-6〉 경제 상황 만족도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9	〈그림 1-3-22〉 북핵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124
〈그림 1-3-7〉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비율	110	〈그림 1-3-23〉 북한 인식별 북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125
〈그림 1-3-8〉 한국인 자긍심 인식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111	〈그림 1-3-24〉 정부의 대북빼라살포 차단	126
〈그림 1-3-9〉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111	〈그림 1-3-25〉 북한 인식별 정부의 대북빼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127
〈그림 1-3-10〉 통일에 대한 영역별 기여도(도움됨)	112	〈그림 1-3-26〉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128
〈그림 1-3-11〉 북한 주민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기여도(도움됨)	113	〈그림 1-3-27〉 한국의 핵무기 보유	128
〈그림 1-3-12〉 북한에 대한 인식별 대북지원의 북한주민생활 기여도(도움됨)	114	〈그림 1-3-28〉 북한 인식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129
		〈그림 1-3-29〉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인식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130

그림 목차

〈그림 1-3-30〉 5.24조치 해제에 대한 인식	131	〈그림 2-5-10〉 세대별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위협’ 및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북한을 택한 비율 (2007-2015)	204
〈그림 1-3-31〉 북한 인식별 5.24조치 해제	132	〈그림 2-5-11〉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 변화추세 (2007-2015)	207
〈그림 1-3-3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크다)	133	〈그림 2-7-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시계열 변화 (2007-2015)	255
〈그림 1-3-33〉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교류협력·대북지원	135	〈그림 2-7-2〉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257
〈그림 1-3-34〉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한 개혁개방·인권신장	136	〈그림 2-7-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합) - 연령별 (2015)	259
〈그림 1-3-35〉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137	〈그림 2-7-4〉 한국으로의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5)	261
〈그림 1-3-36〉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138	〈그림 2-7-5〉 탈북자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의견 (2007-2015)	262
〈그림 1-3-37〉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평화협정체결	139	〈그림 2-7-6〉 탈북자 친근감과 관련 항목의 시계열 추이 (2007-2015)	266
〈그림 2-5-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2007-2015)	189	〈그림 2-7-7〉 탈북자 지원 등에 대한 응답 (평균값)	266
〈그림 2-5-2〉 세대별 통일과 국가이익, 개인이익 (2007-2015)	192	〈그림 2-7-8〉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다문화공존)	269
〈그림 2-5-3〉 세대별 ‘현재 만족+통일무관심’ 변화 (2007-2015)	194	〈그림 2-7-9〉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다민족 국가)	269
〈그림 2-5-4〉 통일 후 사회문제의 변화 (2007-2015)	196		
〈그림 2-5-5〉 세대별 ‘한국인 자긍심’ 변화 (2007-2015)	197		
〈그림 2-5-6〉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2007-2015)	199		
〈그림 2-5-7〉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2007-2015)	200		
〈그림 2-5-8〉 세대별 축구경기에서 응원하는 국가 (2007-2015)	202		
〈그림 2-5-9〉 세대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 (2007-2014)	203		

서 장

IPUS

서장

2015년은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던 한 해였다. 남북한 모두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분단의 질곡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미한 전환의 노력이 크게 기대되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접어든 상태인데다가 김정은 정권 역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커지던 해였다.

하지만 2015년 12월 마지막 주에 받아든 성적표는 이런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부분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예상되는 조치들이 없진 않았다. 예컨대 4월 27일에는 우리 정부가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 1일에는 통일부가 민간,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북한이 2월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시작된 임금관련 갈등이 5월 22일에는 남북이 확인서 문안에 합의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7월에 접어들어 개성

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임금 협의가 불발되고 급기야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남한은 이 사건 직후 11년간 중단했던 휴전선 일대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격렬하게 반발한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져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마침내 8월 22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긴장완화의 물꼬를 열 수 있었다. 3박 4일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를 포함하는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한반도에서 고조되던 위기가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 8.25 합의에 의해 9월 8일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었고 마침내 10월 20일에서 26일에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남북당국회담의 개최를 둘러싼 줄다리기에 끝에 마침내 12월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큰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회담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2월 12일 북한의 회담중단 통보로 결렬되고 말았다. 물론 8.25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6년 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1월 1일 북한의 공동사설에서 '핵개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5월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 준비를 고려할 때 당분간 북한의 대외정책이 온건한 대화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8.25 합의가 어떤 계기를 제공해주리라는 예측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남한정부도 부분적이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1월 6일 북한이 기

습적인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소폭탄실험의 완전성공’을 선전하고 나섬으로써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남북관계의 긴 역사 속에서 2015년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측면에서는 수십년간 익숙하게 보아온 패턴이 반복된 한 해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반복된 한 해였고 유사한 기대와 좌절이 교차되었던 2014년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11년간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되고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환으로 이행하고 있는 해로 생각되기도 한다. 2015년은 남북관계의 긴 역사 속에서 평범한 한 해였는가, 아니면 중요한 변화가 진행된 특별한 해로 보아야 할 것인가?

1. 광복 70주년의 무게감

2015년은 역사적 무게감이 큰 한 해였다. 한국민족에게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해방 후 한국현대사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도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념사업위원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국무총리와 함께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함께 하도록 한 것이었다. 상징적으로나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지향점이 ‘통일준비’라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공식적으로 광복 70주년

을 ‘분단 70년’과 병기하였던 것도 광복 70년의 역사를 분단의 역사로 성찰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환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2015년은 20세기 역사, 특히 전쟁과 평화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는 해였다. 2차대전의 참화를 겪었던 유럽에서는 전후의 질서 구축, 특히 유엔체제와 나토체제, 그리고 유럽통합의 시도 등을 중심으로 전후체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해였다. 유럽에서는 냉전의 시작과 해체 및 유럽통합의 전 과정 속에서 독일통일 25주년의 의의를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분단과 유럽의 냉전이 맞물렸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의 견인차가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역사적 이행의 소중함이 곳곳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사회주의권에서도 2차대전 종식의 역사를 기념하려는 대대적인 행사가 기획되었다. 러시아는 5월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중국 역시 9월에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로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를 거대하게 개최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기념식은 이들의 국가주의적 경향 못지않게 2차대전을 바라보는 사회주의권의 상이한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탓에 두 행사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본은 패전의 역사를 보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기려는 아베정권의 우경화로 활용하였다.

남북한 역시 2015년을 어떻게 기념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해방과 분단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남북한으로서 70주년을

성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민족사의 맥락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려는 관점에서 지난 70년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한의 민족동질성과 역사공동체의 장구함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길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강조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체제논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 정치적 실천과 이념적 대립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있다. 아쉽게도 2015년 남북한은 광복과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인식의 소통을 이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맞물려 대립적 역사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해가 되고 말았다.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고수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정당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선노동당 창립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던 것은 그 전형적 사례다. 남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앞세워 반복정서, 이데올로기적 역사인식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강화되었다.

2015년은 남북한이 광복 70년을 맞으면서 자기 체제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려고 노력한 해였다. 다시 말해 안타까운 ‘분단상태’의 지속으로서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단국가’의 존속과 발전, 대립과 갈등이라는 현상을 주목하는 역사이해가 강조되었다. 그 상징적 사건은 북한이 2015년 8월 15일을 기해 ‘평양시각’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단지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서로 다른 권역, 분리된 시간대가 만들어졌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분단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성, 주권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오비이락이겠으나 오랫동안 남북대화를 이끌어온 김양건 대남비서가 2015년 연말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예

사롭지 않게 보인다. 형식은 다르지만 남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에서 강조되었던 ‘바른 역사인식’ 논리도 대한민국 정통성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논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정치사적 계기, 미래지향적이고 문명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이해하지는 주장은 고전적인 민족 중심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북한의 현대사에 대한 경시, 체제대립을 불가피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냉전적 논리를 강화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 2015년 한국사회에서 담론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던 뉴라이트식 역사인식은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분단국가적 역사이해를 반영한다. 한마디로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역사논쟁, 분단을 바라보는 인식투쟁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2. 2014년과 2015년

2014년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담론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 해였다. 1년 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특징으로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안보불안이 증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중도층이 보수화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둘째, 남북관계에서 극단적인 대결이나 무조건적 화해가 아닌, 긴장완화와 갈등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주변국인식에서는 미국에 대한 높은 신뢰와 일

본에 대한 불신의 증가, 그리고 중국의식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미래의 통일전망에 대해 젊은 세대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통일보다는 20-30년 이후의 중장기적 과제로 통일을 고려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관심은 세대별, 계층별, 정치지향별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준비는 대내적인 양극화, 남남갈등을 해소하려는 종합적 사회통합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2014년의 이런 특징과 비교할 때 2015년의 결과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몇 가지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안보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 인식은 45.3%에서 35.2%로 무려 10.1%p 급락했고,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13.9%에서 16.5%로 높아졌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관적 인식에 공감하는 비율도 55.7%에서 61.7%로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내면의 흐름, 집단의식의 추이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2014년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통일담론의 효과로 인해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수준이 여전히 36.4%에 머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36.8%로 더 높다. 통일의 시기도 20년 이상 장기적인 미래로 전망하고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통일을 추진할 것을 바라는 태도가 주를 이룬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통일불가론이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도 늘어나고 있

는 현상이 확인된다.

분단이 국제정치의 소산이듯 통일 역시 주변국의 협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부각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지난 수년간 진행된 변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거부감 및 안보불안심리의 증대와 연동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불신과 낮은 호감도 수준은 여전히였다. 한편 중국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유동적임이 확인되는데 종합적으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편들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래 이런 인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2015년도 국민들의 의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목한 측면은 세대별 격차의 성격이다.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의 소극적 태도가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고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며 세대별 격차 못지않게 세대 내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변화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민주적 감성과 다문화적 개방성이 포괄적으로 통일지향적인 문화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탐구해볼 일이다. 결국 세대간 차이를 주목하되 이것을 단순한 ‘청년보수화’로 단정 짓지 않고 세대맞춤형 통일논리와 평화담론을 발전시킬 조건을 구상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 취업위기 등을 분단구조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포괄적인 교육과 대안제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념갈등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고자 했다. 이념적인 시각차가 있고 세대별, 계층별 생각의 차이도 뚜렷하지만 이것이 과연 소통불가능하거나 양립불가능할 정도의 균열을 구조화하고 있는지,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는 내부의 대립구조를 완화할 길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들에게는 ‘양면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대한 비판과 이해, 대북정책에서의 제재와 대화, 이념적 보수와 진보를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있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내부의 이견을 정파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이념적 과잉대립을 조장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민주적 소통과 실사구시적 정책구상을 통해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다인종화 현상이 북한에 대한 태도,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지향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했다. 다행히 한국사회는 다문화화 흐름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런 경향이 확인되고 탈북자들의 수용과 정착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적 관용과 포용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고전적 의미에서의 혈통적 민족논리와 대립하는 지점이 있고 실제로 이런 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문화적 통합의 방안이 남북통합의 흐름과 연계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문명론적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3. 조사 개요

이 책은 통일, 북한, 남북관계에 대한 2015년도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되는데, 연례조사이기 때문에 격주 간 조사 혹은 월례조사보다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긴 시간의 축에서 장기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매년 동일한 시기에 조사하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유지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및 남북관계,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집합적 태도나 인식은 조사시점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례조사 자료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서 이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 관련 문항 신설이 요구되지만, 해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통일과 북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내용과 항목이 일관적일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쟁점 이슈에 대해서 소수의 문항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원칙은 조사문항의 기본적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2015년 통일인식조사의 내용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부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남북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의 정도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지식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

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향후 안정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조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이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지원의 복핵 연계, 대북 뼈라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조사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문항들도 계속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위상이 무엇이며 이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의 근간을 이루는 다섯 가지 영역이외에도 통일인식조사는 기초적인 배경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적인 배경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교차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인구학적 배경변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교차 분석과 심층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통일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질문들은 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평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지 여부, 정당지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통일인식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24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2015년 조사가 기존의 조사와 다른 점은 모집단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5세 이하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인식 형성에서 고령층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모집단의 연령을 확대했다. 유효 표본의 수는 1,200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표본추출

은 다단계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2015년 6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 낮은 제주도와 강원도는 충분한 통계분석이 가능할 만큼 우선 할당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할당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 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 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

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인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와 코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제기한 이후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여 폐회식 날에는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적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등 오랜만에 전 사회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북한은 새해 벽두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관계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고위급회담’의 가능성까지 운운하는 등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공동행사를 다채롭게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8.15 광복절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군사분계선 우리 측 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통일 또는 남북화해를 바랐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응징 차원에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

개했다. 이에 북한 인민군은 8월 15일 남한의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하기 위한 타격전을 벌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물론 북한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티엄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을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북한과 남한 간의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는 다행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8월 22일~25일에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 당국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였으며, 남한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은 대체로 남북관계의 정세나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DMZ 지뢰 폭발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글에서 분석 기술된 국민의 통일인식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일 인식과 다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 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그리고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와 관련한 기초 통계분석을 다룬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특징적인 양상은 무엇인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2015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20.6%, ‘약간 필요하다’ 30.4%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1.0%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4.3%, ‘별로 또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물론 사회 여러 영역들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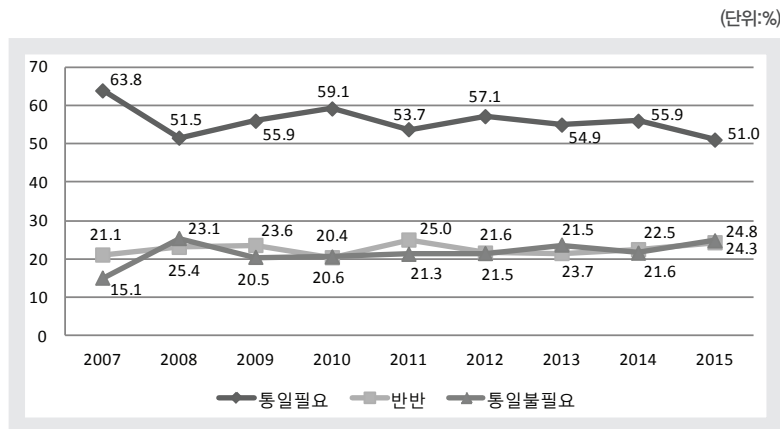
〈그림 1-1-1〉에서 보이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통일의식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7년 63.8%에서 2008년 51.5%로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를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응답률 격차는 크게 줄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54.9%, 여성은 46.9%로 성별 격차가 8.0%p로 지난해 성별 격차가 12.3%p였던데 반해 더 줄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

답률이 여성의 경우 전년대비 2.7%p 감소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전년대비 7.0%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지난 몇 년간에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모든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가장 젊은 응답집단인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와 40대 사이에서 분기가 나타났다. 상세히 설명하면, 2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43.1%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30.7%로 12.4%p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지난해 50.3%에서 올해 36.2%로 1년 사이에 14.1%p가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전년도 56.5%에서 올해 52.0%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조사부터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그룹을 분리한 결과, 50대 연령층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66.2%에서 올해 63.8%로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지난해 74.1%에서 올해 73.1%로 감소했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44.7%)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평균 응답률 5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점은 통일의 동력 감소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이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데 반해, 올해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지역별 분포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호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중졸의 경우 71.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고졸은 52.7%, 대재 이상은 45.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업별 응답분포를

비교해보면, 지난해에 블루칼라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간에 응답률 격차가 매우 컸던데 반해 올해는 그 격차가 매우 좁혀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루칼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48.2%로, 화이트칼라의 경우 응답률이 지난해 61.0%에서 올해 44.3%로 나타났으며, 블루칼라에 비해 화이트칼라에서의 응답률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감소한데는 남성, 젊은 층, 수도권, 대학교, 화이트칼라 응답자 집단에서의 응답률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은 40.7%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9년간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7%→2008년 58.7%→2009년 44.3%→2010년 43.3%→2011년 41.9%→2012년 46.0%→2013년 40.4%→2014년 42.1%→2015년 40.7%로 변화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 패턴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유 응답률 역시 2007년부터 8년 연속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09년에 50%대에서 40%대로 급락한 이후 아직까지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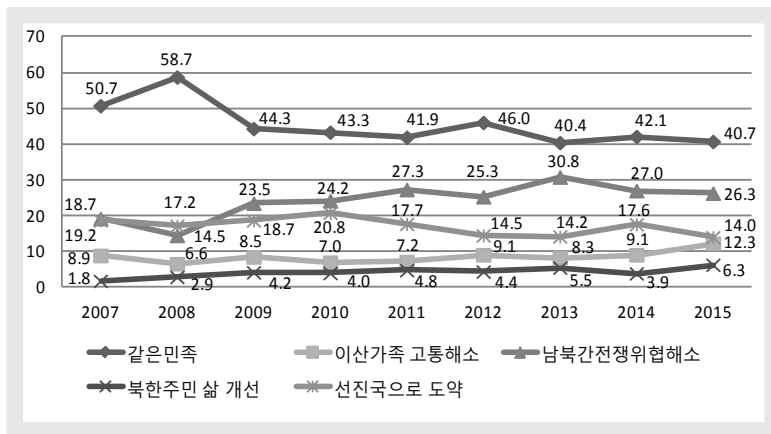
한편,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이유인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의 비율은 26.3%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 19.2%→2008년 14.5%→2009년 23.5%→2010년 24.2%→2011년 27.3%→2012년 25.3%→2013년 30.8%→2014년 27.0%→2015년 26.3%로 2013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은 14.0%로 전년대비 3.6%p 감소했다. 반면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12.3%로 전년보다 3.2%p 증가했고,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률 역시 전년도 3.9%에서 올해 6.3%로 증가했다. 그동안 통일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산가족 문제가 올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 중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던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림 1-1-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단위: %)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항목에서만 여성 응답자보다 확실한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보면, 20대 경우는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젊은 세대의 현실주의적 통일관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항목의 경우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라는 항목에서는 5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의 이유 중 하나인 북한과의 상생공영(相生共榮)에 대한 인식은 60대 이상의 고령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40대로 응답률이 9.4%인 반면에 60대 이상의 응답률은 1.7%에 불과했다.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응답분포의 특징도 뚜렷하게 보였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응답자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같은 민족이니까’(56.2%)를 선택했다. 반면에,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 경우에는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올해 지역별 응답분포는 지난해와 거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들이 호남권과 영남권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강원과 충청권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지난해 강원이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반해, 올해는 수도권
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라
는 응답률 또한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의 경우 지난해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반해, 올해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23.7%로 다른 지역들보다 두
배 가까이 또는 두 배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 응답분포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같
은 민족이니까’의 이유에서 보수 성향의 응답률은 45.6%, 진보 성향의 응
답률은 34.4%로 두 진영간의 응답률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이산가
족의 공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와 같은 인도주의적 이유에서는 진보 성
향의 응답률 13.7%, 중도 성향의 응답률 13.5%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보수 성향의 응답률은 8.6%로 낮았다. ‘남북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의 이유는 보수 성향의 응답률 29.4%, 진보 성향의 응답률 29.4%로 같은
응답률을 보여 안보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념적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지난 9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대
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항목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로, 연도별 응답률의 추이는 2007년 70.6%→2008년 64.8%→2009년
68.3%→2010년 67.0%→2011년 67.0%→2012년 65.1%→2013년
61.8%→2014년 61.3%→2015년 57.5%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50%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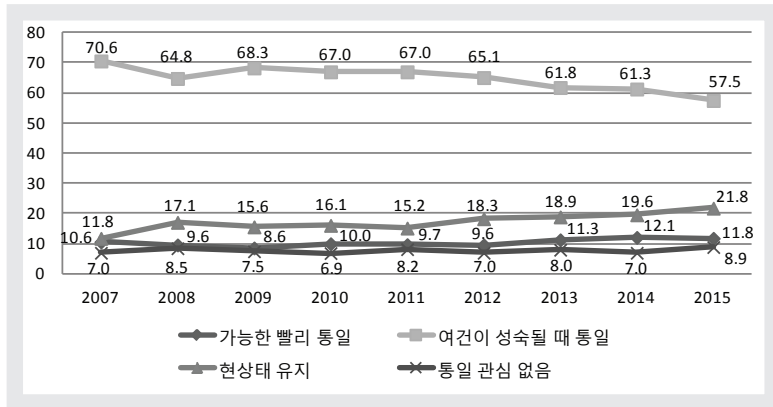
점진적 통일 추진에 대한 견해가 줄어드는 대신 현상태 유지 견해
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좋다’ 견해는 2007년 11.8%→2008년 17.1%→2009년 15.6%→2010년
16.1%→2011년 15.2%→2012년 18.3%→2013년 18.9%→2014년
19.6%→2015년 21.8%로 나타나 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결
과는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 통일보다는 남북한 공존을 바라는 인식이 증
가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
다’는 급진적 견해로서 대체로 10%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
도별 응답률의 추이를 보면, 2007년 10.6%→2008년 9.6%→2009년
8.6%→2010년 10.0%→2011년 9.7%→2012년 9.6%→2013년
11.3%→2014년 12.1%→2015년 11.8%로 지난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반해 올해는 소폭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은 2007년
7.0%→2008년 8.5%→2009년 7.5%→2010년 6.9%→2011년
8.2%→2012년 7.0%→2013년 8.0%→2014년 7.0%→2015년 8.9%로 올
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조사가 첫 시작된 2007년 결과와 9년이 지난 올해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통일 추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점진적 통일의 견해는 2007년 70.6%에서 2015년 57.5%로 9년 동안에 13.1%p가 감소했다. 반면에 현상 유지의 견해는 2007년 11.8%에서 2015년 21.8%로 9년 동안에 10.0%p가 증가했다. 이러한 대조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면서 동시에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로서 앞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문항과 통일의 추진 속도에 관한 설문 문항을 교차 분석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1-1〉에서 보듯이,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

답한 비율이 57.3%로 나타났으며,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나타났다. 통일 무관심자들의 통일 무용론 견해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92.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표 1-1-1〉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항 간 교차분석(2014-2015)

(단위:%)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2014	89.6	68.0	12.0	15.1
	2015	92.8	64.8	9.6	9.2
반반/그저그렇다	2014	6.3	22.7	32.1	23.3
	2015	5.7	25.4	33.2	19.4
통일이 필요없다	2014	4.2	9.2	56.0	61.6
	2015	1.4	9.8	57.3	71.3

성별 응답분포의 경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성과 여성간의 응답률 격차가 거의 없다. ‘가능한 빠른 통일’에 대한 응답률의 경우 남성은 12.0%, 여성은 11.5%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남성 14.8%, 여성 9.3%였던 것과 매우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남성 21.9%, 여성 21.8%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 조사에서 남성 16.9%, 여성 22.4%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변화이다. 이밖에도 나머지 항목들에서도 성별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견해가 많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빠른 통일’의 경우 20대 6.6%, 30대 8.5%, 40대 6.6%, 50대 15%, 60대 이상 23.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를 기준으로 통일 추진 속도에 대한 견해가 분기가 나타났다. 20대~40대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는 급진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현재상태가 좋다’의 경우는 20대 30.9%, 30대 28.6%, 40대 20.5%, 50대 18.1%, 60대 이상 10.3%로 나타났다. 20대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견해의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3배나 더 많다. 또한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20대로 전년도 10.2%에서 올해 15.5%로 증가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4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응답률은 각각 2014년 66.8%, 2015년 65.8%이다.

지역별 응답분포의 경우 9년 동안에 주요 트렌드를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응답의 경우 전년도에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강원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29.1%)을 보였다. 급진 통일을 바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남권(8.0%)으로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점진적 통일을 바라는 응답은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8.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54.7%)이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수도권(26.1%)이고,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호남권(8.6%)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10.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호남권(3.5%)이다. 이처럼 한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지역주민들이 현상유지를 바라거나 아니면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것은 통일의 동력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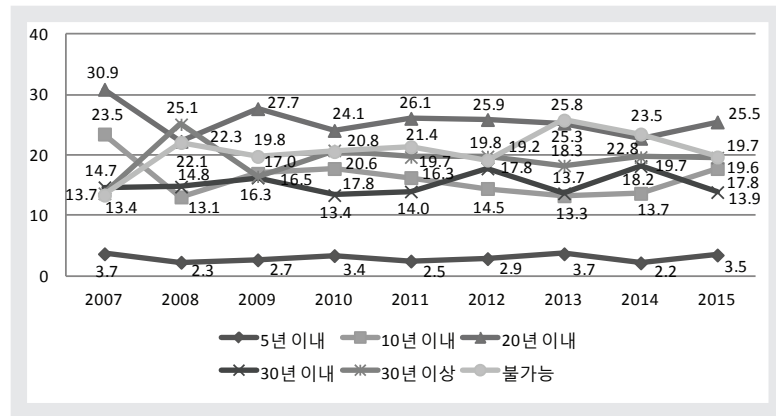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준비 또는 통일대박 등의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예상 시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는 통일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년대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년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3.5%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19.7%로 줄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2년 연속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데 따른 우려가 컸으나 올해에는 다행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올해도 여전히 상당히 먼 미래로 예상하고 있다.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20년 이내(25.5%)>30년 이상(19.6%)>10년 이내(17.8%)>30년 이내(13.9%)>5년 이내(3.5%)이다. 하지만 ‘5년 이내’와 ‘10년 이내’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을 내다보는 예상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이 올해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4〉 통일이 가능한 시기

(단위: %)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남성 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줄었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도에 여성 25.3%, 남성 21.7%였으나, 올해는 여성 21.9%, 남성 17.5%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응답률 변화가 크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에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예상의 경우 20대의 응답률은 7.3%에 불과한 반면에, 60대 이상의 응답률은 30.8%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반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예상의 경우에는 20대의 응답률이 28.0%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12.2%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통일 가능 시기보다는 통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에서 통

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응답분포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단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비중이 많으면서 동시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의 비중도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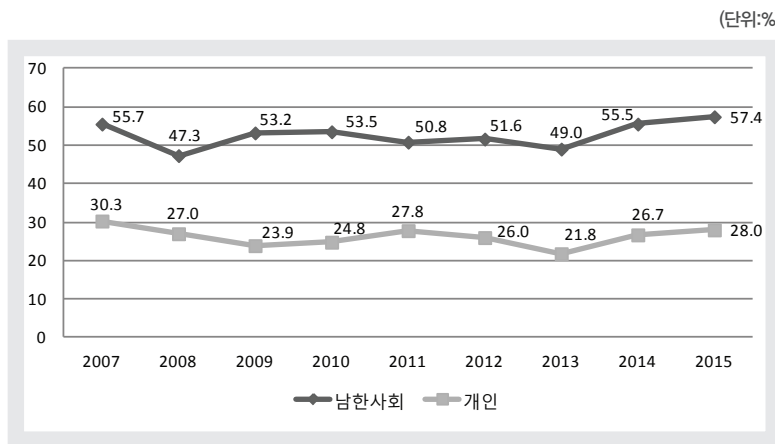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7.4%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55.5%에 비해 증가했다. 올해 응답률은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5.7%→2008년 47.3%→2009년 53.2%→2010년 53.5%→2011년 50.8%→2012년 51.6%→2013년 49%→2014년 55.5%→2015년 57.4%이다.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8.0%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26.7%보다 높아졌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9년간 응답률 추이는 2007년 30.3%→2008년 27.0%→2009년 23.9%→2010년 24.8%→2011년 27.8%→2012년 26.0%→2013년 21.8%→2014년 26.7%→

2015년 28.0%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에서 기대감이 상승한데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던 ‘통일 대박’ 담론이 올해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5〉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이익이 된다’ 응답 추이)



〈표 1-1-2〉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를 교차분석 해본 결과이다. 표에서 나타나듯 지난해보다 올해에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 반대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통일대박론에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81.8%에서 2015년 83.3%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통일대박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66.4%에서 2015년 74.8%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통일대박론에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55.8%에서 올해 57.5%로 증가했고, 통일대박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38.6%에서 올해 40.8%로 증가했다.

〈표 1-1-2〉 통일 편익 기대감과 통일대박론 공감도의 교차분석

(단위:%)

통일대박 공감도 통일편익 기대감		매우 공감됨	대체로 공감됨	보통	별로 공감안됨	전혀 공감안됨
남한사회 이익	2014	81.8	66.4	53.0	47.1	36.0
	2015	83.3	74.8	50.0	42.3	39.7
개인 이익	2014	55.8	38.6	23.5	14.2	20.0
	2015	57.5	40.8	21.5	14.4	21.0

다른 한편, 올해에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양자 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남한 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간의 기대감 격차는 2013년 27.2%p→2014년 28.8%p→2015년 29.4%p로 해가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일이 남한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통일의 편익이 국민 모두에

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한 우려는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 편익에 대한 양자의 격차는 통일 및 대북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면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통일편익 기대감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올해는 성별 격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서 남성 응답률은 각각 60.2%와 30.3%이며, 여성 응답률은 54.5%와 25.6%로 나타났다. 여전히 통일 편익에 대한 남성의 기대감이 여성의 기대감보다 높지만 과거 8년 동안 성별간 응답률 격차가 10%p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4~5%p 정도의 격차를 나타낸 것은 큰 변화이다. 이는 1년 사이에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응답분포는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은 20대 49.7%, 30대 52.6%, 40대 57.1%, 50대 64.4%, 60대 이상 63.0%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 역시 20대 24.0%, 30대 26.3%, 40대 26.6%, 50대, 29.8%, 60대 이상 35.1%로 나타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수준은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별 집단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올해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이상의 응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중졸 이하와 고졸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모두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중졸 이하는 2013년 36.8%→2014년 49.1%→2015년 60.0%로 2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졸의 경우 역시 2013년 45.6%→2014년 55.5%→2015년 57.4%로 계속 증가세이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에는 2013년 55.6%→2014년 56.3%→2015년 56.8%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 비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통일이 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학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확대에서 오는 이익보다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분담금의 증가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직업별 응답분포의 결과는 교육수준과는 상이한 응답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직종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육

수준에서 나타난 응답패턴과 달리 블루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낮고, 반대로 화이트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기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51.6%로 전년(54.1%)보다 더 낮아졌으며, 더욱이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은 59.9%로 전년(60.7%)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22.4%로 전년(26.7%)보다 더 낮아졌고,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은 28.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블루칼라의 응답률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 역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블루칼라의 직종의 경우 저임금의 북한주민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반면에, 화이트칼라의 직종의 경우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남한주민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일편익에 대한 직종간 기대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에서는 호남권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제주도와 강원지역의 응답률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응답률이 68.5%로 가장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4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지역 역시 응답률이 지난해 66.3%에서 올해 53.2%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지역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과 지역별 응답률의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작년에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들은 올해 응답률이 감소했고, 반대로 지난해 응답률이 낮았던 지역들은 올해 응답률이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영남권과 수도권은 지난해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었으나 전년대비 올해 응답률이 증가한 유일한 두 지역들이다. 영남권은 2014년 23.6%에서 2015년 27.2%로, 수도권은 2014년 25.1%에서 2015년 28.9%로 증가했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응답률이 전년대비 올해 감소했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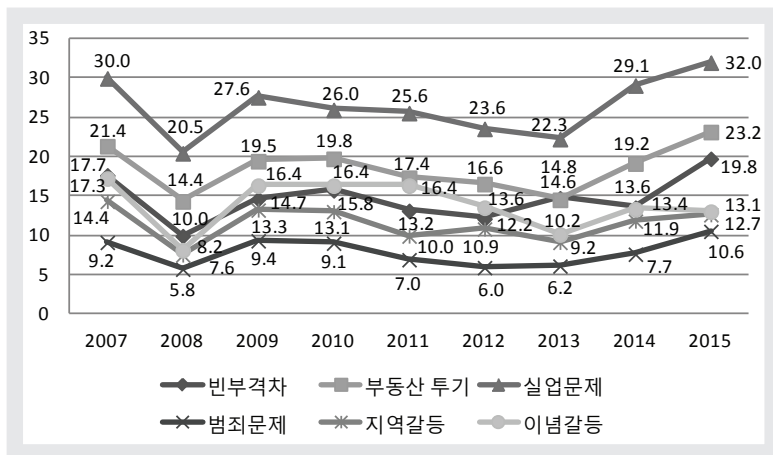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하는 것은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추상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 그것은 분명히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 데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 올해 조사 결과의 특징은 이념갈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올해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응답률이 전년대비 6.2%p 올라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별 개선 기대수준에 대한 응답률의 순위로 살펴보면, <그림 1-1-6>에서 보이듯 실업문제 32.0%>부동산투기 23.2%>빈부격차 19.8%>이념갈등 13.1%>지역갈등 12.7%>범죄문제 10.6%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실업문제를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동시에 통일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8년 연속 개선 기대감이 최하위였던 범죄문제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에 응답률이 10%대를 넘었다. 하지만 이념갈등의 경우 2014년 13.4%에서 2015년 13.1%로 오히려 후퇴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단위: %)



하위집단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서 연령별 응답분포는 60대 이상 34.0%>30대 33.7%>50대 33.1%>40대 30.9%>20대 28.4%로 나타나, 60대 이상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고, 20대에서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항목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앞서 살펴본 통일 편익과 관련해 20대의 기대감이 낮았던 것처럼 통일 이후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통일 후 사회 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응답자들에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지역들 중에서는 영남권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대체로 낮았으며, 정치적 성향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의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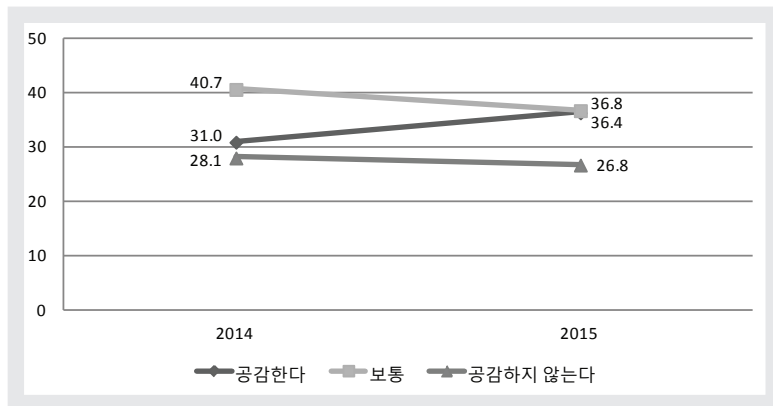
3)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이라고 언급한 이후 통일대박에 대한 공론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따라서 올해에도 설문지에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그림 1-1-7>에 나타나듯, '공감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31.0%에서 2015년 36.4%로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수준

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공감이 안 된다’라는 응답률은 2014년 28.1%에서 2015년 26.8%로 소폭 하락했다. 판단을 유보한 ‘보통’의 응답률은 36.8%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7〉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단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통일대박론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남성의 응답률은 38.1%로 작년의 32.4%에서 더 상승했으며, 여성의 응답률 역시 34.7%로 작년에 29.6%에서 더 올랐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경우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고 응답한 20대는 26.3%, 30대 33.8%, 40대 30.6%, 50대

45.1%, 60대 이상 47.6%로 나타나, 가장 젊은 20대와 가장 고령인 6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40대를 제외하고 작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특히 30대의 경우 지난해 24.3%에서 올해 33.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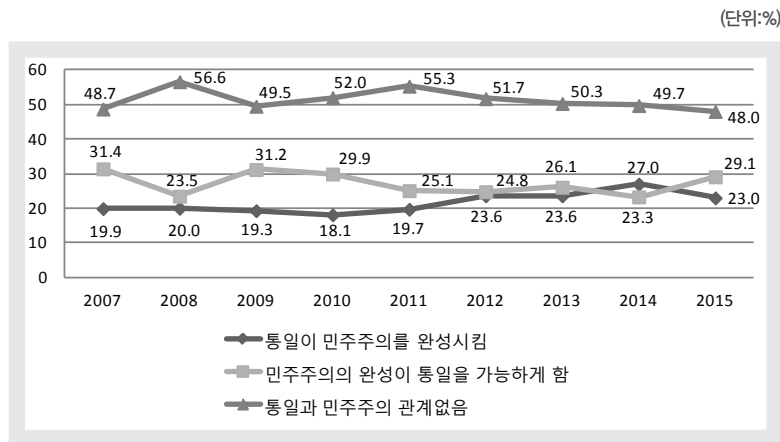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에 중졸 이하 47.3%, 고졸 38.5%, 대학교 이상 32.4%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들에서 통일대박론 공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별 각 응답집단의 공감 수준은 공통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응답집단에서의 응답률이 지난해 33.6%에서 올해 47.3%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56.1%로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35.6%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모든 직업군에서 공감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했고, 특히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통일대박에 공감하는 응답률은 지난해 응답분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제주지역의 공감 응답률이 51.3%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19.8%로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공감 응답률은 47.9%로 지난해 3순위에서 올해 1순위로 올랐다. 지난해 공감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충청권은 올해 33.9%로 지난해 20.5%에서 13.4%p 상승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감하는 응답률은 보수 45.5%>진보 34.4%>중도 30.8%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의 공감 응답률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7.4%p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에서 각각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률이 23.0%,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9.1%로 나타나 작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자의 응답률이 27.0%, 후자의 응답률이 23.3%였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48.0%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1-1-8>에서 보이듯 무관계의 응답률은 200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1-1-8>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연도별 응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통일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통일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응답이 매년 경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9년 연속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또는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연계하여 접근하던 인식의 틀에서 탈피하여 통일과 민주주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응답이, 젊은 층일수록 ‘민주주의가 완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30대의 경우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응답률은 20대 19.5%>30대 16.6%>40대 23.3%>50대 29.2%>60대 이상 26.0%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는 응답률이 20대 30.1%>30대 36.1%>40대 27.8%>50대 26.0%>60대 이상 25.2%로 나타나 대조적인 응답패턴을 보였다.

지역별 응답패턴의 경우,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제주와 충청권의 응답률(각각 38.3%, 31.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영남권의 응답률(34.5%)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는 관계없다는 견해에서는 강원 지역의 응답률(5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패턴은 작년

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26.3%)이 가장 높았으나,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에서는 지난해에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중도적 성향의 응답률(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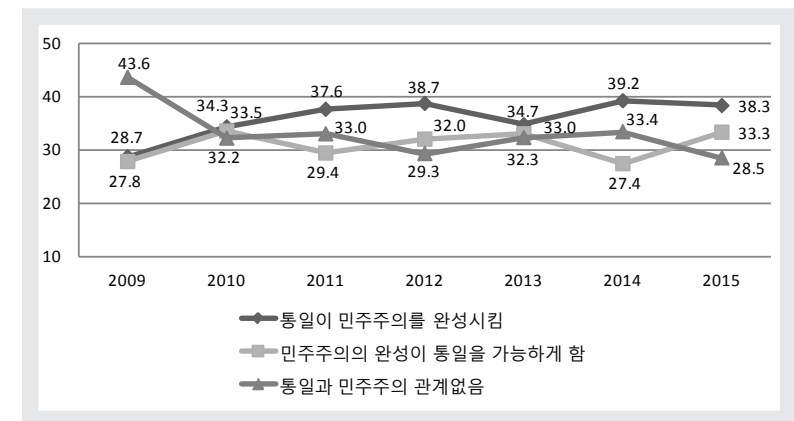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는 작년과 달리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과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근접하게 나타났다. <그림 1-1-9>에서 나타나듯 전자의 응답률은 2014년 39.2%에서 2015년 38.3%로 소폭 하락했으나, 후자의 응답률은 2014년 27.4%에서 2015년 33.3%로 크게 상승했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28.5%로 줄어들었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의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의 경우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민주화의 선행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적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 민주화의 선행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북한 민주화를 위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주와 호남권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민주화의 선행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의 경우,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수 41.7%, 중도 38.1%, 진보 34.8%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중도와 보수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0%p 차이 났던 것에 비해 올해는 두 성향 간의 응답률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북한의 민주화 선행에 대한 인식은 진보 35.1%, 중도 34.4%, 보수 2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모든 정치적 성향 집단들에서 응답률이 높아졌다. 특히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중도 성향의 응답률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작년에 25.4%에서 올해 34.4%로 9.0%p 상승했다.

<그림 1-1-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단위:%)



5.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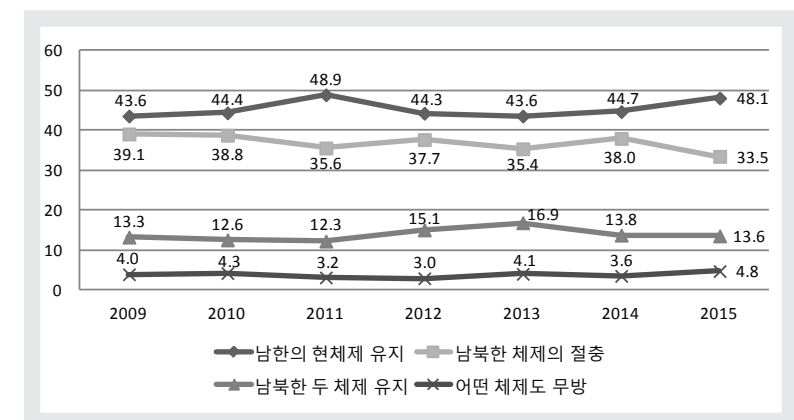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8.1%로 가장 많았다.¹⁾ 이 응답률의 추이는 2009년 43.6%→2010년 44.4%→2011년 48.9%→2012년 44.3%→2013년 43.6%→2014년 44.7%→2015년 48.1%로 7년 동안 40%대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의 비율 역시 2009년 39.1%→2010년 38.8%→2011년 35.6%→2012년 37.7%→2013년 35.4%→2014년 38.0%→2015년 33.5%로 7년 동안 응답률 30%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두 항목 즉, ‘남한의 현체제 유지’와 ‘남북한 체제의 절충’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의 7년간 평균 응답률은 45.4%

이고, 후자의 7년간 평균 응답률은 36.9%로 두 항목간의 응답률 격차가 8.5%p 수준이다. 또한 두 응답률 격차가 작년에 7.5%p에서 올해에 8.5%p로 증가했다는 점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절충체제의 응답이 7년 동안 내내 두 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국민들은 통일 이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사회갈등과 모순을 내포한 남한의 사회체제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림 1-1-10〉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 후 입국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 안팎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48.6%로 남한 주민의 통일인식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규빈, “주민의 통일·주변국 인식”,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2015년 8월 26일), p.120.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응답분포는 표본오차 $\pm 2.8\%$ 안에서의 응답률 격차를 보일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응답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 항목의 경우 20대(52.3%)와 60대 이상(56.8%)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난해 두 연령대의 응답률이 각각 48.8%, 40.7%였던 것에 비해 올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30대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40대의 경우는 올해 정반대의 변화를 보였다. 30대의 경우는 지난해 49.3%에서 올해 46.3%로 감소했고, 40대는 지난해 39.3%에서 올해 44.8%로 증가했다. ‘남북한 두 체제의 절충’ 견해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40대이고,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50대로 나타났다.

직업별 응답분포의 경우 블루칼라 종사자와 화이트칼라 종사자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 견해에서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남북한 체제 절충’과 ‘남북한 두 체제 유지’ 견해에서는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응답률 분포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남북한 체제 절충’을 선호하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고소득층(400만원 이상)의 경우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는 응답률이 가장 낮고, 반대로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난해와 마

찬가지로 올해 역시 영남권으로 응답률이 53.0%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응답률이 63.4%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에는 10%p 가까이 감소했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충청권으로 응답률이 36.0%이다. ‘남북한 체제 절충’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로 응답률이 지난해 52.1%에서 올해 36.4%로 15.7%p가 감소했다.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영남권(31.1%)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두 체제 유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강원으로 응답률은 18.0%이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모든 항목들에서 지역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는 보수 52.0%, 중도 49.8%, 진보 40.5%로 나타났고,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는 보수 28.9%, 중도 31.8%, 진보 41.7%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중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는 지난해 42.1%에서 올해 49.8%로 증가했고, 반대로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도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8%로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중도적 성향의 응답패턴이 보수적 성향과 더 가까워졌다.

6. 소결

올해의 통일 인식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12.4%p, 14.1%p가 감소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의 비중이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60대 이상의 비중보다 3배 더 많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2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이 가장 관심이 많은 실업문제의 경우 통일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도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고 기대감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변화는 통일의 이유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라는 이유가 9년 동안의 조사가 진행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당국간 회담의 의제로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이 국민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그동안 통일의 이유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인 ‘남북간에 전

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이란 이유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9년간 조사 결과 중 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이유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 중 하나는 통일의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다른 어떤 항목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2순위로 물러났다. 대신에 2013년 이후 2순위로 밀려났던 ‘20년 이내’가 올해 다시 1순위에 올랐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 통일이 가져다줄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 자신의 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증가세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문항에서도 이념갈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빈부격차, 실업문제, 부동산투기, 범죄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9년간의 조사에서 올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직 통일대박 담론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에도 실업문제의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통일을 실업문제 해소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처음 제기된 지난해보다 올해 더 증가했다는 점에서 담론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감한다는 비율이 36.4%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36.8%의 응답자들이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젊은 세대에서의 공감도가 매우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인구비중이 많은 중도적 성향에서 공감도가 가장 낮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 속에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그 갈등과 모순은 해소되기도 하고 반대로 증폭될 수도 있다. 통일인식을 제고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성과나 실체 없는 구호로만 존재하는 ‘통일준비’의 강조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신뢰받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2015년은 연초부터 분단·광복 70년을 맞는 해로 남한과 북한 모두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대화와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매우 높았다. 2014년 10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정치실세 3인의 전격적인 남한방문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에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는 듯했고, 이에 화답하듯 남한의 통일부장관은 2014년 12월 29일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1월 중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하였다. 이처럼 연초에는 분단·광복 70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남북 간 화해의 분위기가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북공동행사와 회담이 무산되고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 계획을 임시 중지하겠다는 제안(2015.1.10.)을 하여 대미압박을 시도했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제안을 한미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하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2월 4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핵무기 개발을 제

천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3월 2일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Goal Eagle) 연습을 시작, 4월 13일까지 키리졸브가 진행되고 4월 24일까지 독수리연습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내내 대미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경제개혁 관련 소식은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측면에서 2015년 4월 30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에 대한 전격 처형은 남한과 외부세계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장성택 부장의 처형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2015년에 발생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활력이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시장화나 경제개혁보다는 군사적 도발이나 독재체제의 잔혹함이 더 부각되었다.

한편, 남한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5년 6월 15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남한의 '체제통일'을 비난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마련,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및 실천적 조치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한의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일(2015.6.23)에 맞추어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주민 2명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남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남북 간의 대립이 2015년 7월 조사에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북 간에 지뢰폭발, 대북확성기 타격 등의 긴장이 조성되었고, '8.25합의'와 이산가족상봉 등 극적인 대화국면이 형성되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이러한 최근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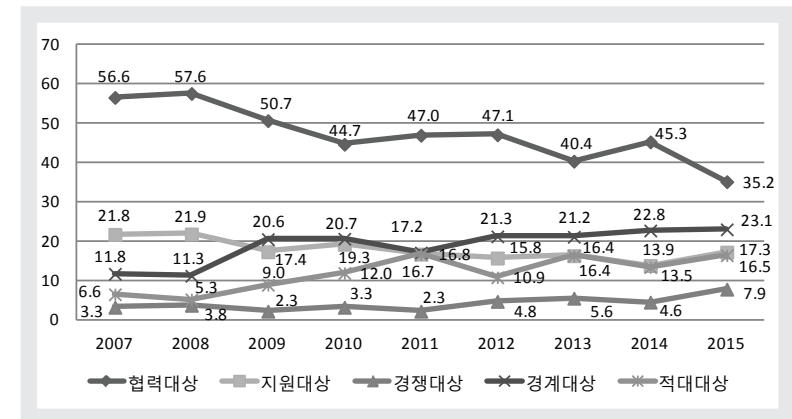
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2%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23.1%, ‘지원대상’이라는 대답은 17.3%,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16.5%,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7.9% 등이었다. 아래의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45.3%→35.2%로 10.1% p 급락했으며, 작년에 16.4%→13.9%로 누그러졌던 대북 ‘적대의식’은 다시 13.9%→16.5%로 2.6% p 상승했다. 대북 ‘협력의식’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적대의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분단·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기대했던 남북공동행사가 모두 무산되고 남북 간 격렬한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2-1> 남북한 관계 인식

(단위: %)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성별, 직업, 종교 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연령, 지역, 교육, 소득수준, 사회계층, 도시화, 정치성향 등은 아래의 <표 1-2-1>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북한발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어 지역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를 잠식하여 대북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위기의식이 완화됨에 따라 연령과 지역, 계층, 정치성향 등에 따라 의식의 분화가 뚜렷이 진행되었다.

〈표 1-2-1〉 남북한 관계 인식과 유관 변수

(단위:%)

변수 구분	협력 지원 경계 적대 대북인식	
연령	$\chi^2 = 34.971$	p=0.004
지역	$\chi^2 = 88.438$	p=0.0000
교육	$\chi^2 = 23.387$	p=0.003
소득수준	$\chi^2 = 39.382$	p=0.001
사회계층(상/중/하)	$\chi^2 = 37.528$	p=0.010
도시화(대도시/중소도시/읍면)	$\chi^2 = 37.946$	p=0.0000
정치성향	$\chi^2 = 32.879$	p=0.008
지지정당	$\chi^2 = 29.305$	p=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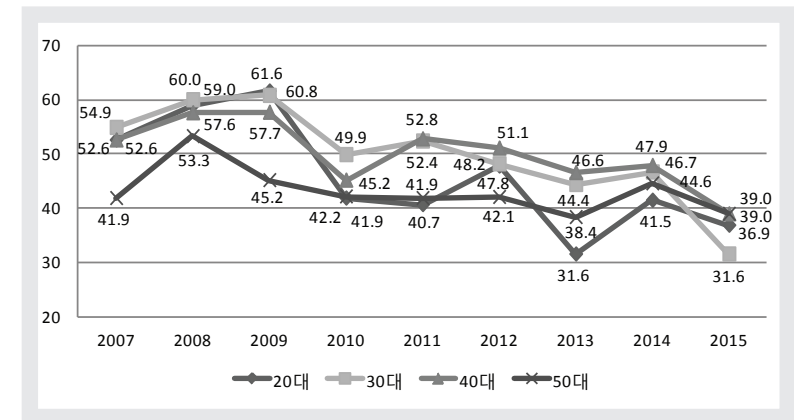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60대(27.6%)의 대북 협력인식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30대(31.6%) < 20대(36.9%) < 40대(39.0%)=50대(39.0%)의 순으로 30대 연령층의 대북 협력인식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대북 적대대상 인식에서는 20대(19.7%)의 젊은층이 가장 높고, 30대(16.8%)=60대(16.7%) > 40대(15.7%) > 50대(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2〉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에는 안보위기가 고조됨으로써 대북 협력인식에서 연령별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연령별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30대의 의식이 뚜렷하게 달라졌다. 지난 수년 동안 높은 수치를 보였던 30대의 대북 협력인식이 올해 46.7%→31.6%로 15.1%p 급락한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20대의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아졌는데 올해는 20대보다 30대가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앉았다. 젊은층의 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20대에서

30대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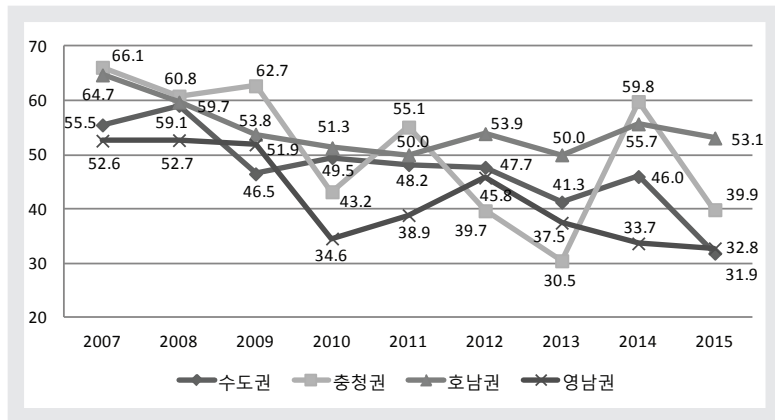
〈그림 1-2-2〉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_북한은 협력대상

(단위:%)



지역별로는 호남권(53.1%)의 대북 협력의식이 가장 높고 충청권(39.9%) > 영남권(32.8%) = 수도권(31.9%)의 순인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은 대북 적대인식이 21.5%로 영남(12.4%), 호남(14.1%), 충청(7.0%)에 비해 매우 높다. 1년 사이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그림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협력대상 인식은 59.8%→39.9%, 46.0%→31.9%로 각각 19.9%, 14.1%p씩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적대대상 쪽으로 이동했고, 충청권에서는 지원대상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1-2-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_북한은 협력대상
(단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높은 반면 지원대상 인식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그러나 대재이상 고학력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동시에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하다. 또 저소득층(13.0%)이나 중간층(14.2%)에 비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대북 적대인식이 20.1%로 매우 높은데, 이는 우리사회 상류계층이 상대적으로 대북 적대의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중소도시 거주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도시 거주자와 읍면 단위 농촌거주자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도 올해에는 뚜렷하게 드러나,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진보(40.6%) > 중도(35.3%) > 보수(35.1%)의 순으로, 대북 적대대상 인식은 보수(21.3%) > 중도(15.7%) > 진보(13.2%)의 순으로 갈라

졌다. 진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수는 적으로 보는 경향이 올해에도 반복되었다.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61.7%로 ‘변하고 있다’(38.2%)는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44.3%→38.2%로 6.1%p 줄어든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은 55.7%→61.7%로 늘어났다. 즉 북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낮아지고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은 2007년(68.9%) 이후 줄곧 낮아져 2013년 35.7%로 최저점을 찍고 작년에 잠깐 반등했다가 올해 38.0%로 다시 내려앉았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 계층 등의 변수와는 무관하였으며, 지역($\chi^2=65.3$, $p=0.000$), 정치적 성향($\chi^2=37.1$, $p=0.002$), 지지정당($\chi^2=23.7$, $p=0.022$) 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이 53.8%로 수도권(35.0%)과 충청권(31.6%), 영남권(39.9%)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6.1%p 하락하여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인식에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은 45.3%→31.6%로 13.7% p가 급락했으며, 수도권은 42.8%→35.0%로, 호남권은 61.1%→53.8%로 각각 7.8%, 7.6% p 감소하였다. 반면, 영남권은 40.7%→39.9%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진보(40.6%) > 중도(38.7%) > 보수(34.8%)의 순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정권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이 59.9%로 안정될 것(14.4%)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 많았다. 25.7%는 ‘그저 그렇다’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32.2%→25.7%로 6.5% p 줄고, ‘안정될 것이다’(12.4%→14.4%)와 ‘불안정해질 것이다’(55.4%→59.9%)는 응답이 모두 늘어났다. 즉 북한정권 안정화에 대한 미래예측의 엇갈림이 조금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안정화’는 지역($\chi^2=46.4$, $p=0.001$), 직업($\chi^2=32.0$, $p=0.043$), 가구소득수준($\chi^2=61.6$, $p=0.000$), 도시화수준($\chi^2=24.0$, $p=0.002$), 정치적 성향($\chi^2=35.7$, $p=0.003$)과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즉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자영업, 대도시와 읍면지역,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수도권(17.9%)에서 가장 높고 충청권(13.0%) > 호남권(11.7%) > 영남권(9.9%)의 순으로 낮으며,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호남권이 63.7%로 가장 높으며, 영남권(60.3%)과 수도권(59.0%)이 비슷하고, 충청권은 49.0%로 가장 낮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충청권은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 평가에 많은 의견(38.0%)이 집중되었으며, 작년에는 호남권이 북한정권을 안정될 것(15.5%)으로 보았는데, 올해는 11.7%로 낮아진 반

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50.6%→63.7%)로 대폭 이동하였다. 대신 수도권이 북한정권의 안정화(17.9%)를 가장 높게 보는 쪽으로 지형이 변화하였다.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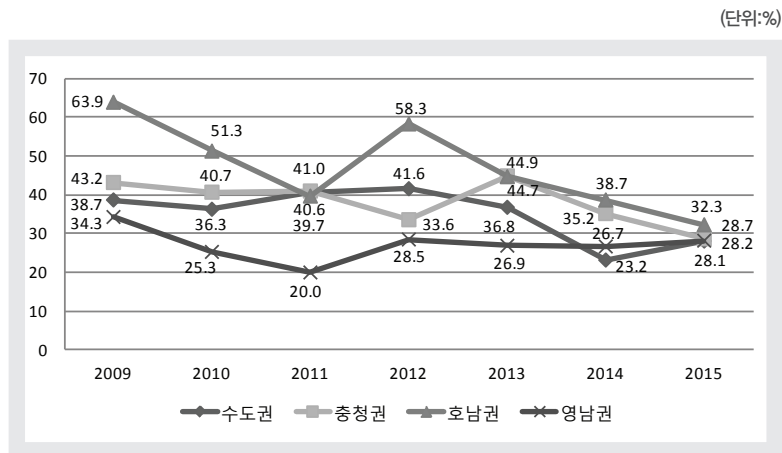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신뢰도)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71.3%로 ‘가능하다’(28.7%)는 응답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40.9%) 이래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2년 39.3%로 반등했다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7.5%, 28.7%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가구소득($\chi^2=29.3$, $p=0.004$), 사회계층($\chi^2=34.2$, $p=0.003$), 도시화수준($\chi^2=19.5$, $p=0.003$), 정치성향($\chi^2=45.3$, $p=0.000$), 지지정당($\chi^2=28.4$, $p=0.001$) 변수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작년까지는 지역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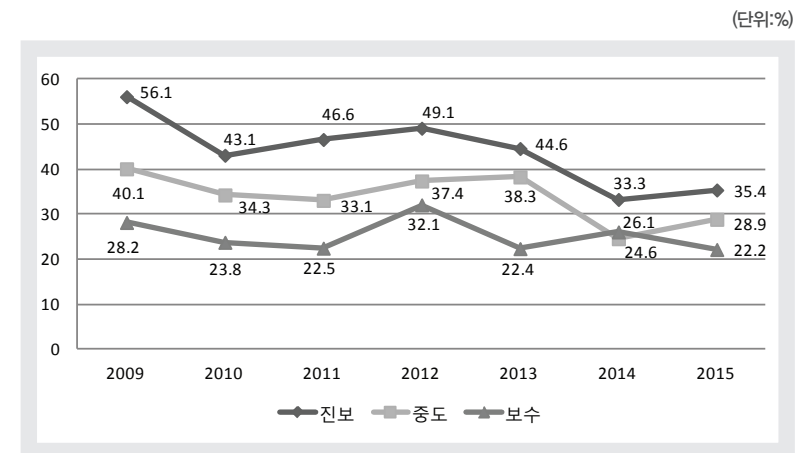
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올해는 지역 간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림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신뢰도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 간 차이가 좁혀지고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던 수도권이 23.2%→28.1%로 올라섬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대북 신뢰도를 보였고 충청권과 호남권이 대북신뢰를 급격히 철회함으로써 지역 간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다. 호남권과 충청권의 인식변화는 북한에 대한 불신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영남권과 수도권의 대북신뢰도 상승은 북한변수라기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정권 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1-2-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지역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chi^2=45.3, p=0.000$)를 갖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유지하였고 작년에 중도가 보수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올해 다시 중간으로 되돌아와 전형적인 이념지형을 형성하였다. 즉 지난 수년 동안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양상이 유지된 것이다. 작년에 안보위기의 증대로 중도가 보수의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간적 위기를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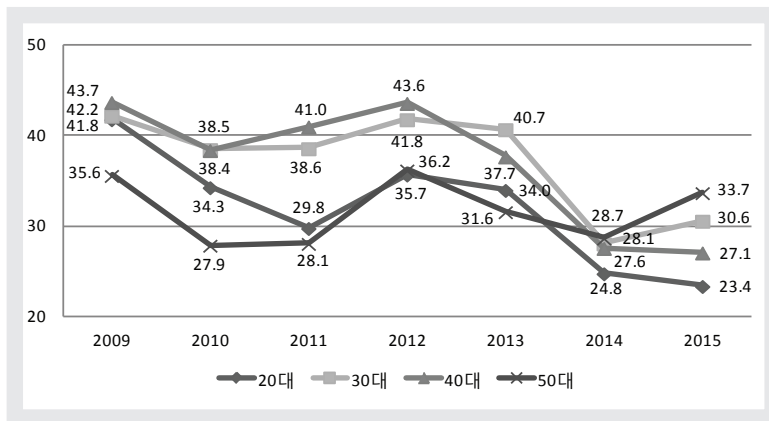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정치성향별)



세대별 인식의 차이는 $\chi^2=12.5$, $p=0.407$ 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각 세대별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였으나 올해는 각 연령대별로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23.4%)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반면, 50대(33.7%)는 높은 신뢰를 보였고, 30대(30.6%) > 60대이상(28.7%) > 40대(27.1%) 순으로 이어졌다.

<그림 1-2-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_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단위:%)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6.3%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으며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최근 몇 년 사이 84.6%, 88.0%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변수와의 상관성($\chi^2=63.8$, $p=0.000$)은 매우 높으며 특히 호남권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다른 지역(수도권 84.8%, 충청 84.5%, 영남 87.4%)에 비해 93.4%로 높은 편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1.7%—83.7%로 12% p 늘어났으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는 85.9%—84.6%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하였고 2013년 3월부터 ‘경제-핵 개발 병진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다.

4. 북한의 위협 인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8.9%, ‘다소 위협을 느낀다’ 55.1%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78.4% 보다 10.9% p나 높은 수치이며, 작년의 89.3%보다는 5.3% p 낮은 수치이다. 북한이 ‘경제-핵개발병진노선’에 대한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다 미국에 대한 핵군축회담 제의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경고 등의 보도가 나오으로써 국민들이 북핵의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연령($\chi^2 = 26.4$, $p=0.010$), 지역($\chi^2 = 64.9$, $p=0.000$), 정치적 성향($\chi^2 = 24.2$, $p=0.019$) 등의 변수와 상관성이 있다. 즉 50대(86.6%)과 60대이상(90.1%)이 다른 연령층(81.0%)에 비해 높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권(88.8%)이 다른 지역(82~84%)에 비해 약간 높으며, 보수(89.2%)가 진보(84.5%)나 중도(81.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시계열로 보면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 61.3%→74.3%로 70%대에 올라선 후,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에 73.8%→80.7%로 급등했으며, 작년에 89.4%로 최고로 높아졌다가 올해 조금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작년(55.3%)과 비슷한 55.8%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핵무기 보유 의견에 공감하였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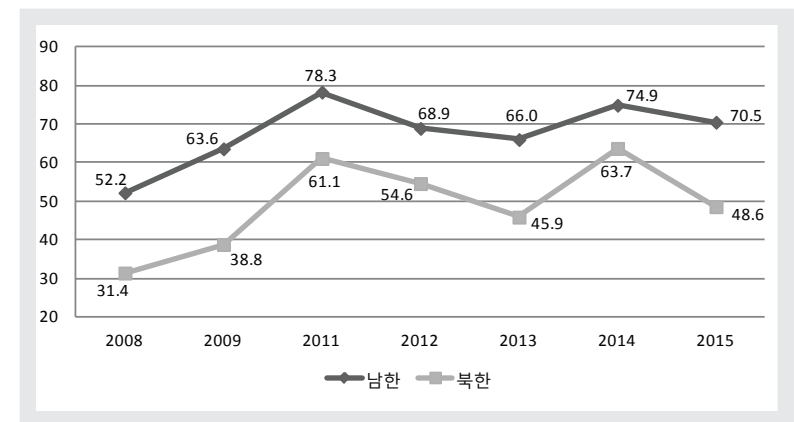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은 대북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5%로 ‘없다’(29.5%)는 응답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작년의 74.9%에 비하면 4.4% p 떨어졌다. 작년 10월 북한의 정치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서울 방문으로 안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2015년 3~4월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친 반발과 위협적 발언,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전격적인 처형(2015.4.30.) 등의 도발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한편,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대해 ‘있다’는 응답이 48.6%로 ‘없다’는 응답(51.3%)보다 낮았다.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63.7%→48.6%로 15.1% p 떨어졌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이전 해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물리적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 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을 비교해 보면 <그림 1-2-7>에 볼 수 있듯이, 등락의 패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한주민들의 낮은 안보불안 의식이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남북한 주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이 실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는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2-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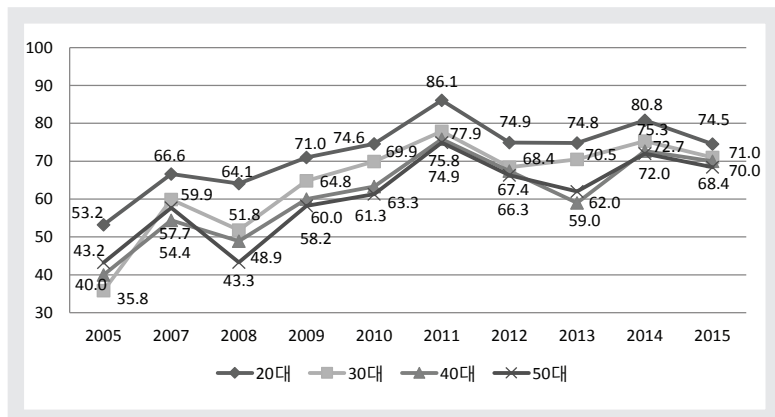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교육($\chi^2=32.7$, $p=0.00$), 가구소득($\chi^2=26.7$, $p=0.009$), 사회계층($\chi^2=33.2$, $p=0.004$), 연령($\chi^2=35.4$, $p=0.000$), 지역($\chi^2=83.4$, $p=0.000$), 도시화($\chi^2=16.8$, $p=0.010$)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대재이상(75.1%), 4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74.4%)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8>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로는 20대의 안보불안감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예년 그대로 유지되었다.²

즉 20대는 74.5%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71.0%, 70.0%, 50대와 60대이상은 각각 68.4%, 68.8% 등으로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8>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_세대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단위:%)



2]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0.0000), 가구소득(0.000), 사회계층(0.000), 정치적 성향(0.000) 변수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미성($\chi^2=17.1$, $p=0.146$)이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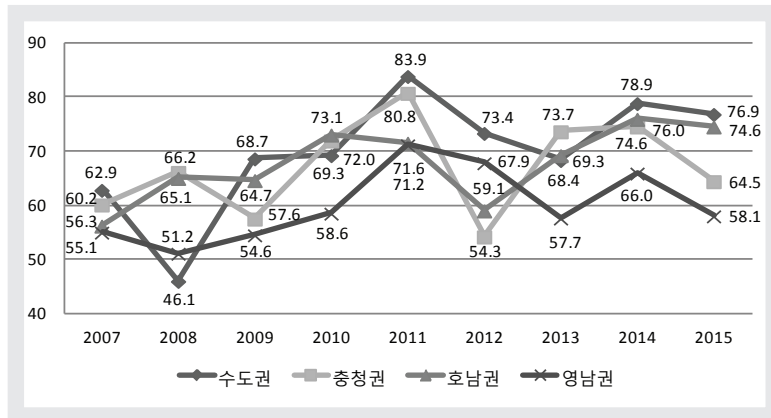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은 전반적으로 4.4% p 낮아진 가운데, 수도권(76.9%)>충청권(74.6%)>충청권(64.5%)>영남권(58.1%)의 순위는 작년과 비슷하게 이어졌다.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이 북한발 안보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예측하였다. 안보불안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를 고려하면 영남권이 낮은 수치로 나온 이유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에 대한 신뢰의 배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³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chi^2=32.9$, $p=0.000$)가 있고, 대북정책 만족도는 지역과 높은 상관관계($\chi^2=67.3$, $p=0.000$)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남권과 함께 충청권이 지난 1년 사이 74.6%→64.5%로 10.1% p 떨어진 것은 충청권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호남권의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71.9%로 다른 지역(수도권 48.7%, 충청 55.2%, 영남 42.0%)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북한발 안보위기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안보불안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안보위기 의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진보정권 집권 기간에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진보정권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발 안보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진보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보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보수세력은 보수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북한발 안보위기를 낮게 보지만, 진보세력은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무력충돌과 그로 인한 안보위기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박명규·김병조·김병조 외, 『2008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08), pp. 51, 64; 『2009 통일외식조사』, pp. 51~52; 『2014 통일외식조사』, pp. 87~91.

〈그림 1-2-9〉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_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

(단위:%)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은 $\chi^2=19.6$, $p=0.074$ 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으나, 비교적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보(72.6%)>중도(71.3%)>보수(67.1%)로 진보가 높은 안보불안감을 표출하였다. 작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작년에는 중도(76.5%)>보수(75.9%)>진보(71.2%)의 순이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무력도발 위기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중도와 보수가 영향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위기의식이 완화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보위기를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안보불안인식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 한 반면,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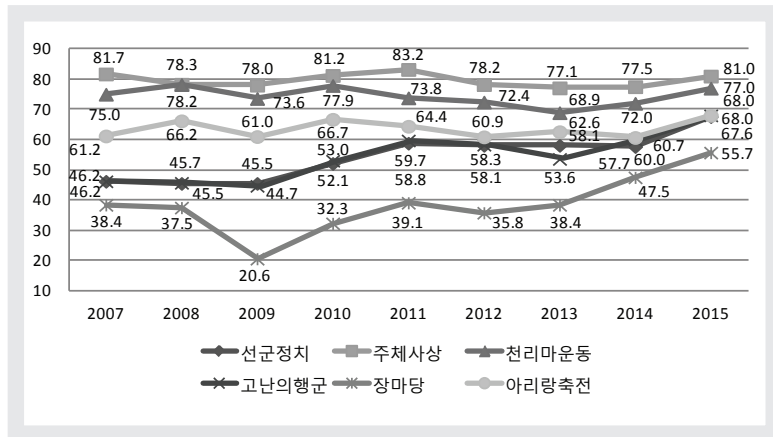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는 장마당, 선군정치, 아리랑축전 등 모든 분야에서 사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군정치 인지도는 57.7%→67.6%로 9.9% p 높아졌고, 장마당 인지도는 47.5%→55.7%로 8.2% p 높아졌으며, 고난의 행군 인지도는 60.0%→68.0%로 8% p 상승했다. 〈그림 1-2-10〉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북한사회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 2년 동안 북한관련 사건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작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관련 소식을 빈번하게 보도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2-10〉 북한사회 인지도

(단위:%)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3%), 생활수준(94.5%), 역사인식(80.7%), 언어사용(84.2%), 생활풍습(82.1%), 가치관(91.0%) 등 모든 분야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북의 이질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2011년 91.9%→2012년 90.6%→2013년 88.9%→2014년 87.8%→2015년 87.6%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남북 간에 전반적으로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이질성 인식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주민들의 평균은 93.6%로 남한(87.6%)보다 6.0%p 높다(표 1-2-2). 이것은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사회를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북한관련 경험은 탈북자(새터민)을 만나본 경험과 금강산·개성·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은 각각 13.9%→18.4%, 2.8%→3.7%로 증가한 반면, 대북지원활동 등 단체 참여 경험과 북한방송·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은 각각 0.9%→0.6%, 31.5%→23.2%로 감소하였다. 탈북자의 국내입국이 연간 1,500명씩 늘어나 2015년 6월 현재 28,133에 이르러 탈북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폐쇄되어 있지만 평양과 개성 방문은 개방되어 있어 미미하지만 방문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터넷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북한관련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어 있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어 있어, 북한의 방송이나 미디어의 접촉 경험, 대북지원 활동 경험은 줄어들었다.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5)

(단위:%)

	남한	북한
선거방식	93.3	97.9
생활수준	94.5	98.3
역사인식	80.7	92.5
언어사용	84.2	93.8
생활풍습	82.1	87.0
가치관	91.0	91.8
평균	87.6	93.6

6. 소결

2015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첫째, 북한발 안보불안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소폭으로 낮아졌다. 작년에 74.9%로 상승했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은 지난 1년 사이 70.5%로 4.4%p 감소했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대북신뢰도’는 27.5%→28.7%로 1.2%p 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년 10월 북한 고위급 정치인의 전격적인 서울방문과 분단·광복 70년을 맞는 기대감 등으로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무력대응 위협,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등으로 안보위기와 대북불신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88.0%→86.3%로 소폭 낮아져 여러 면에서 위기가 고조되었던 작년에 비하여 올해는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이 소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력인식이 떨어지고 적대의식이 높아졌다. 즉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45.3%→35.2%로 10.1%p 급락했고, 대북 ‘적대의식’도 13.9%→16.5%로 2.6%p 상승했다. 안보위기가 소폭 완화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2014.12.18)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서울개소 등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대북비판여론이 높아진데다, 현영철 처형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부정적 응답이

55.7%→61.7%로 6%p 상승한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의 완화가 대북 적대의식의 완화 및 협력인식 상승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과는 조금 달라진 현상이다. 즉 안보불안 및 대북불신 해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상승하는 역진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진현상은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소폭 변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일 수 있다. 작년의 경우처럼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북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대북 ‘협력인식’을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향후 변화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완화됨으로써 세대, 지역, 교육, 계층, 정치적 성향, 도시화 등 여러 사회학적 변수에서 뚜렷한 의식의 분화가 나타났다. 작년에는 안보불안이 여러 변수의 차이를 잠식하여 의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세대,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올해조사는 연령대 구분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반영한 결과 각 세대별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즉 20대(74.5%)는 북한발 안보위기를 가장 높게 인식했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가장 낮으며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 30대는 대북 ‘협력인식’이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적대대상’ 인식은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지난 1년 사이 ‘협력대상’ 인식이 15.1%p가 급락하여 강한 대북 비판의식을 획득한 세대로 발전하였다. 40대와 50대는 386세대의 특징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즉 40대는 50대와 함께 대북 ‘협력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북한정권에 대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며 대북 ‘협력인식’도 가

장 높았고, 60대와 함께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절반의 인구가 386세대로 진입한 50대의 특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0대 이상은 적대대상 인식이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30대와 비슷한 반면, 협력대상 인식은 가장 낮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20대나 30~40대와 다르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다른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에서는 소폭 하락한 반면, 충청권은 59.8%→39.9%로 19.9%p라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도권(46.0%→31.9%)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충청권의 안보위기 의식은 74.6%→64.5%로 10.1%p 하락하여 영남권과 함께 안보불안 우려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대북 의식의 역진현상, 즉 안보불안이 해소되면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관적 의식이 높아지는 현상이 충청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섯째, 대북 협력 혹은 적대 인식, 북한변화, 북한정권 안정화, 정권신뢰도 등 거의 모든 대북인식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식의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정권신뢰도’ 항목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다시 보수-중도-진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의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2015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

안인식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소폭으로 완화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관적, 적대적 의식이 상승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안보불안감과 대북불신이 완화되면서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대북인식의 분화가 다시 진행되었다. 50대의 주류로 진입한 386세대의 의식분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충청권의 부정적 대북인식 강화와 정치성향별 의식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비관적 대북인식의 강화와 변수별 의식의 분화가 어떠한 정책요구로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5년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다. 우선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이 나온 지 15주년이 되는 해였다. 비록 남북 분단으로 귀결되었으나 광복 70주년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계기였기에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측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북측이 7.4공동성명 및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정상선언과 함께 통일의 대강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합의이다. 그래서 6.15공동선언 채택 15주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뿐 아니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3년 차를 맞으면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가 되도록 실질적 통일

준비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는 계기를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기조 하에서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을 사실상 중단시킨 5.24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려는 조치도 취하였다.⁵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무엇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을 맞으면서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⁶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기는 했으나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언급들이었다. 특히 북한은 연초부터 한미연합군

4] 통일부, “2015년 업무보고: 통일준비” 통합 보도자료, 2015년 1월 19일,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sbw_writdate=writdate&searchField=title&searchValue=%EC%97%85%EB%AC%B4%EB%B3%B4%EA%B3%A0&x=24&y=8&mode=view&page=1&cid=42174> (검색일: 2015년 12월 5일).

5] 통일부, “광복 70주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 2015년 5월 1일,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sbw_writdate=writdate&searchField=title&searchValue=%EB%AF%BC%EA%B0%84%EA%B5%90%EB%A5%98&x=0&y=0&mode=view&page=1&cid=42814> (검색일: 2015년 12월 5일).

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사훈련을 중단하면 추가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화도 제의하였다.⁷⁾

그러나 연초부터 이렇게 진행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일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재개를 제외하면 당국 차원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대치와 경색으로부터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시키지도 못하였다. 이 조사가 진행된 7월 이전까지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가 6월부터 재개되는 등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와 대북지원사업이 일부 성사되었으나, 기대를 모았던 6.15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8.15 광복절 공동행사도 열리지 못하였다. 남북은 10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과 남한의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로 인해 발생하였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으면서 성사되었던 대화의 결과물이었다.

이하에서는 2015년 남북관계의 흐름을 배경으로 출범 3년 차였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바람을 살펴본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지를 살펴본다.

7)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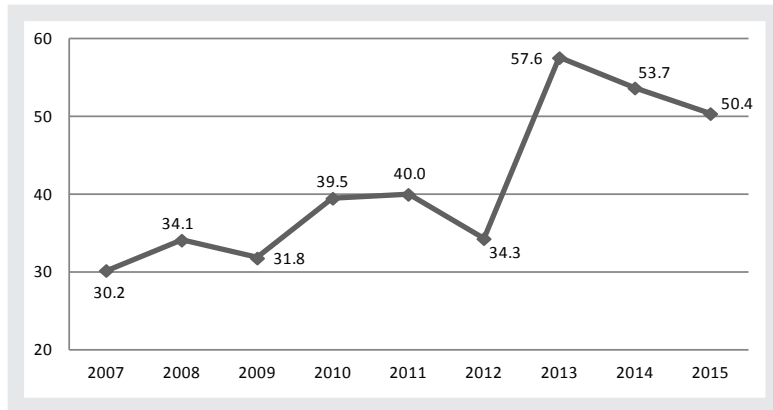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출범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4년보다 3.3% 하락하였으나 50.4%로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대남위협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비록 5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이기에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점차 정책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국민은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정책 목표가 가시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특히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대치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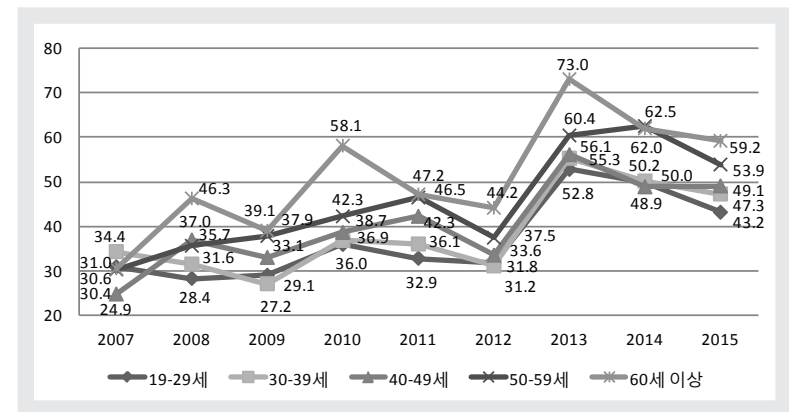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40대 이외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보다 하락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대(19~29세)에서 2014년 50.0%보다 6.8% 하락한 43.2%를 기록하였다. 30대에서도 2014년 50.2%보다 2.9% 하락한 47.3%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서는 2014년 48.9%보다 0.2% 상승한 49.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0대에서는 다시 2014년 62.5%보다 8.6% 하락한 53.9%를 기록하였다.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2014년 62.0%보다 2.8% 하락하여 59.2%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변동 폭의 편차로 인해 모든 연령대별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양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

도가 낮아지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둘째, 2014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분산되는 양상이다. 2014년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가 50% 전후로 수렴되고 50대와 60대가 60% 초반대로 수렴되어 5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차별화되는 양상이었다. 반면 2015년의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4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50대와 20대에서 다소 크게 하락함으로써 50대 이상과 40대 이하로 차별화되었던 2014년의 양상이 사라졌다.

〈그림 1-3-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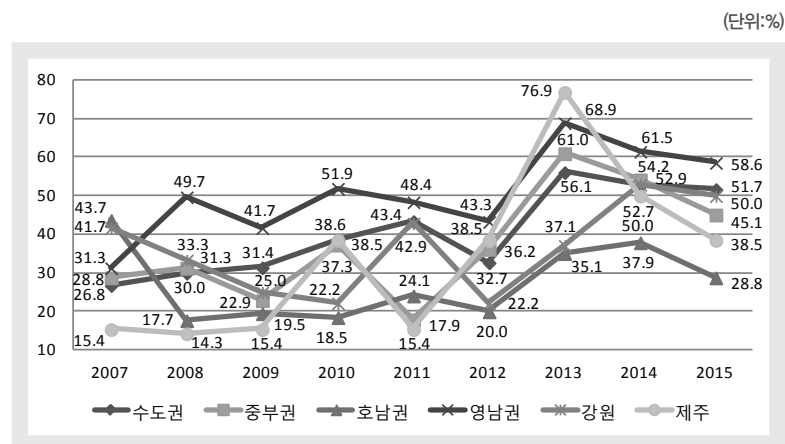


지역별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락 폭이 중부권과 호남권, 제주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컸지만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도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중부권과 호남권은 각각 9.1% 하락하였고 제주도는 11.5% 하락하였다. 반면 수도권은 1.0%, 영남권과

강원권은 각각 2.9%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소폭의 변화를 보였다. 중부권-호남권-제주도로 이어지는 서부 벨트에서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강원권-영남권으로 이어지는 동부 벨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가 분화되는 양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영남권에서의 만족도가 60% 초반대로 가장 높고 호남권에서는 30%대로 가장 낮은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권, 제주도가 50% 초반대로 수렴되던 양상이었다. 2015년의 경우는 영남권->수도권->강원권->중부권->제주권->호남권 순으로 50% 후반대에서 20% 후반대까지로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다.

〈그림 1-3-3〉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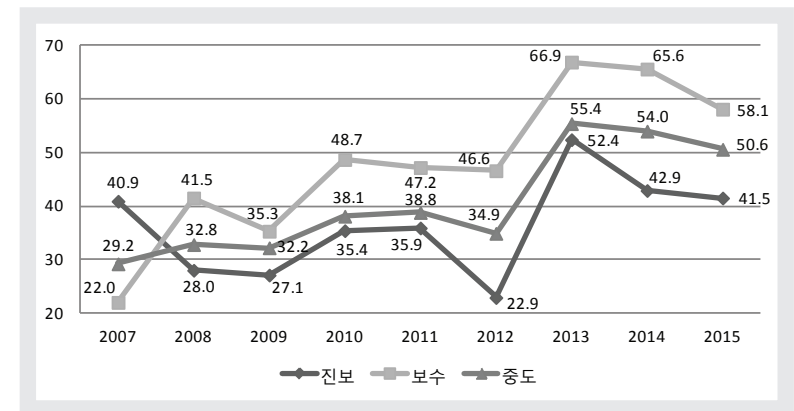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을 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각각 1.4%와 3.4% 하락하였으나, 보수층에서는 7.5%나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였다.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은 2008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대체로 진보층보다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도층은 글자 그대로 보수와 진보의 중간 수준에서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정치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4〉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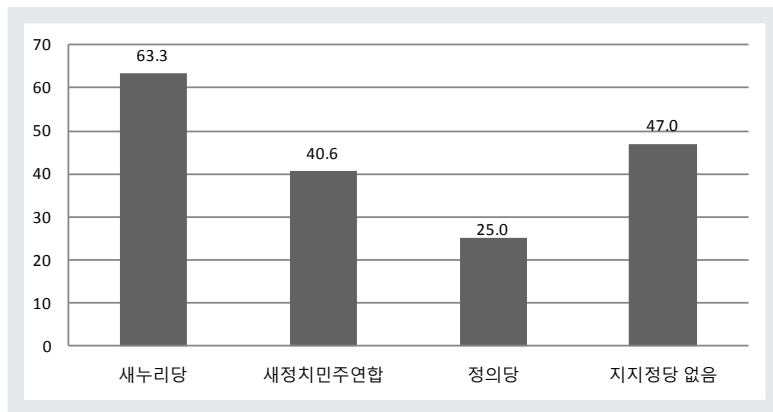
지지정당에 따른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은 63.3%로 가장 높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0.6%로 새누리당보다 22.7% 낮았고, 정의당은 25.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

당파층은 새누리당보다 16.3% 낮지만,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6.4% 높은 47.0%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존재하였던 2014년 조사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 비교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는 2015년 만족도가 2014년 71.5%에서 63.3%로 8.2% 하락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39.7%에서 40.6%로 0.9% 상승하였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에서는 2014년 51.2%에서 2015년 47.0%로 4.2% 하락하였다.

〈그림 1-3-5〉 지지정당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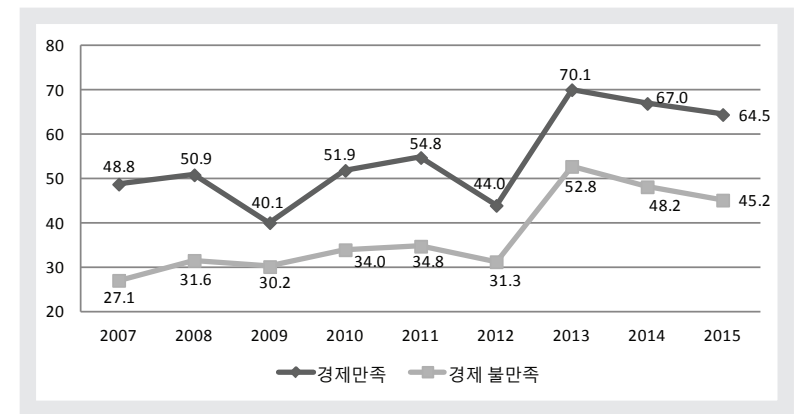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층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이 2.5% 하락하여 64.5%를 기록하였고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 층에서는 만족 비율이 3.0% 하락하여 45.2%를 나타냈다.

대체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사실상 무관하게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층보다 높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6〉 경제 상황 만족도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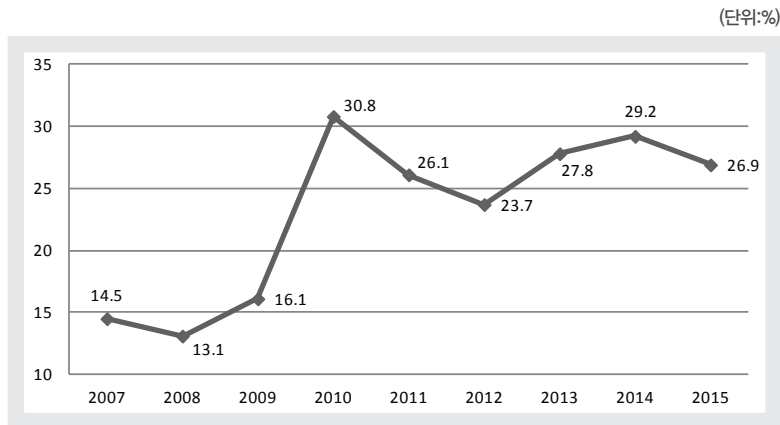
(단위:%)



참고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0년 30.8%를 제외하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지속해서 20%대 이하로 나타나

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를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상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20% 후반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시기 경제 상황 만족도가 2013년 27.8%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보다 4.1% 상승하고 2014년에도 1.4% 상승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 2.3% 하락하여 상승추세가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7〉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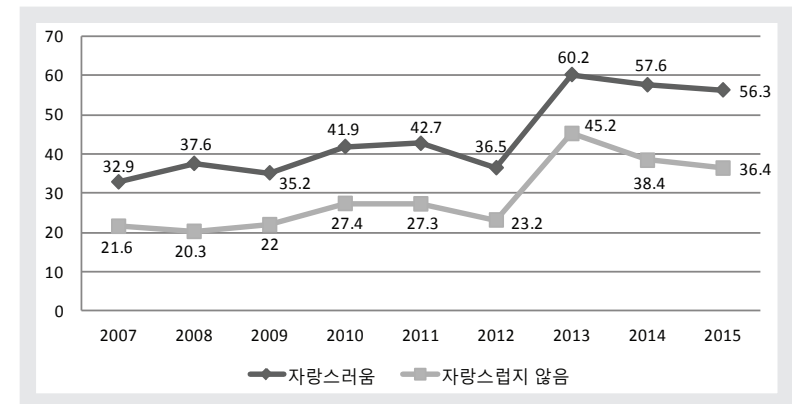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자랑스럽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1.3%, 자랑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2.0%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가 10~20% 정도 차이 나는 양상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림 1-3-8〉 한국인 자긍심 인식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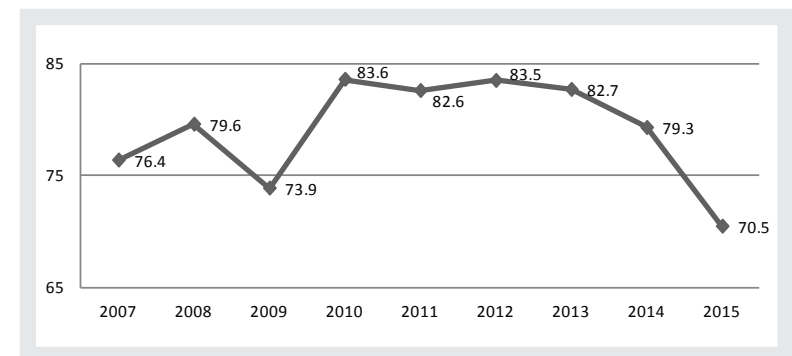
(단위:%)



참고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 첫해인 2013년 82.7%에서 지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조사에서는 70.5%를 기록하여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9〉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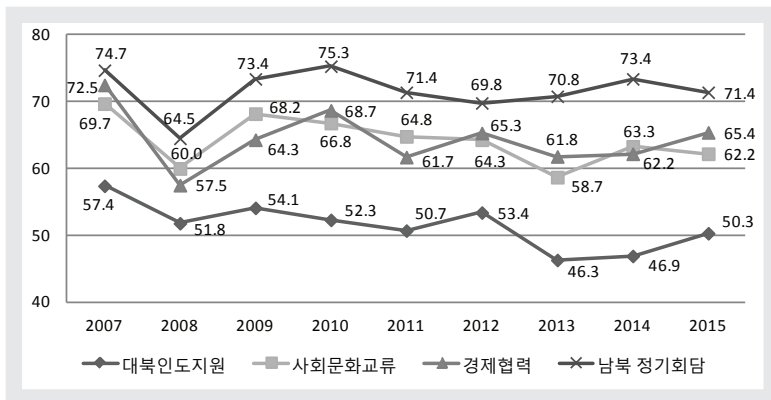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먼저 정치적인 영역의 남북 간 정기회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주요 영역이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대북인도지원과 경제협력은 다소 증가하였고 남북 간 정기회담이나 사회문화교류는 다소 감소하였다. 먼저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우 2014년보다 3.4% 증가한 50.3%, 경제협력의 경우 3.2% 증가한 65.4%를 기록하였다. 반면 사회문화교류는 2014년보다 1.1% 감소한 62.2%, 남북 간 정기회담은 2.0% 하락한 71.4%를 기록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는 추세로, 남북 간 정기회담이 가장 높은 70% 전후를,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장 낮은 50% 전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은 시기에 따라 대북인도지원과 남북 간 정기회담 사이에서 앞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10〉 통일에 대한 영역별 기여도(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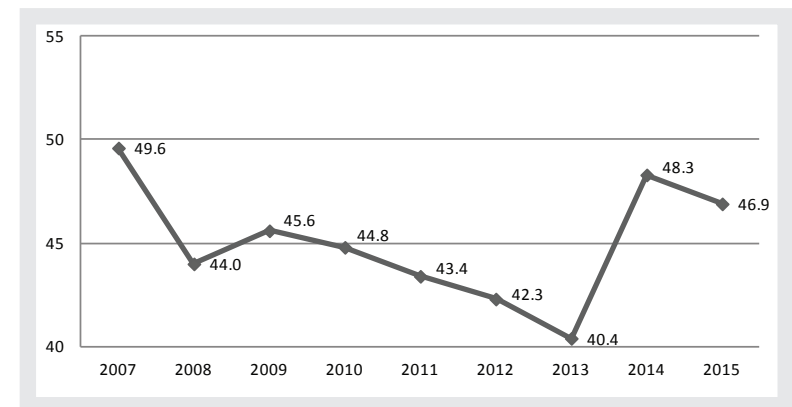
(단위:%)



국민은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를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1.4% 하락한 46.9%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2009년 이후 하락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7.9% 상승하면서 50%에 근접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 미약하나마 다소 하락하였다.

〈그림 1-3-11〉 북한 주민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기여도(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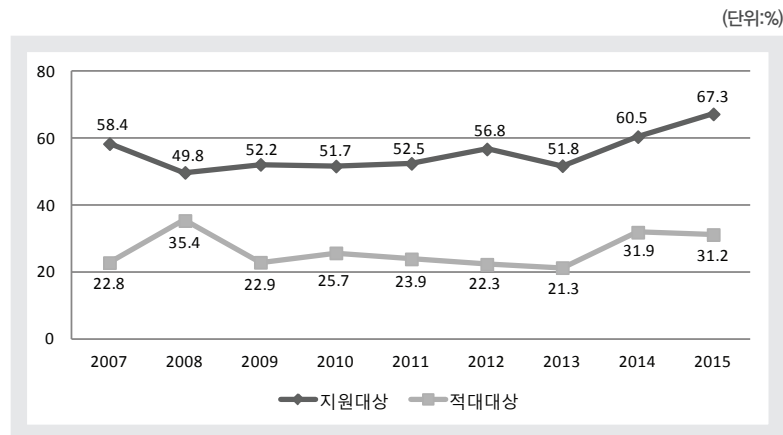
(단위:%)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무엇보다 대북지원 자체보다 분배 투명성 문제를 포함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하면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지속하고 대남 군사도발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보다 약 15~36%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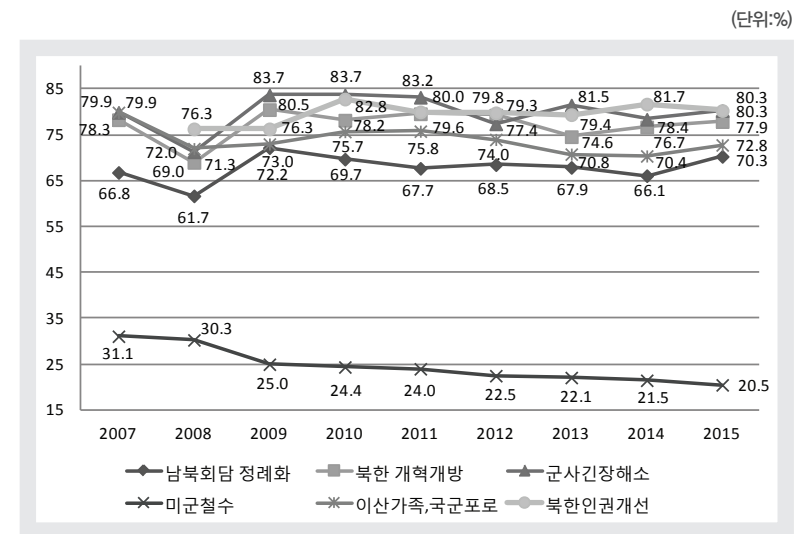
〈그림 1-3-12〉 북한에 대한 인식별 대북지원의 북한주민생활 기여도(도움됨)



통일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남북회담 정례화, 북한 개혁개방, 군사적 긴장해소,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다소 상승하고 미군철수와 북한 인권 개선이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2015년 조사에서 남북회담 정례화는 4.2% 상승한 70.3%, 북한 개혁개방은 2.2% 상승한 77.9%, 군사적 긴장해소는 1.9% 상승한 80.3%,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2.4% 상승한 72.8%로 나타났다. 반면 미군철수는 2014년보다 1.0%, 북한인권 개선은 2014년보다 1.4% 하락하여 각각 20.5%와 80.3%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군사적 긴장해소와 북한 인권 개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북한 인권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군사적 긴장해소가 북한인권 개선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는 미군철수보다는 높지만 다른 현안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31.1%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의 경우 2007년보다 10.6% 하락하였다.

〈그림 1-3-13〉 통일을 위한 시급성(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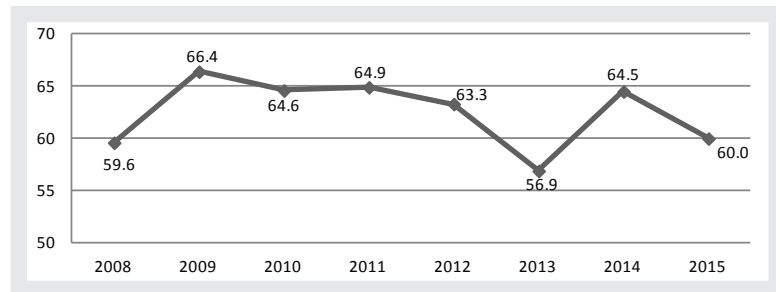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의 기여 정도 인식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4.5% 하락

한 60.0%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던 2013년의 56.9%보다는 높지만, 그보다 7.6% 상승하였던 2014년에 비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이다.

〈그림 1-3-14〉 남북경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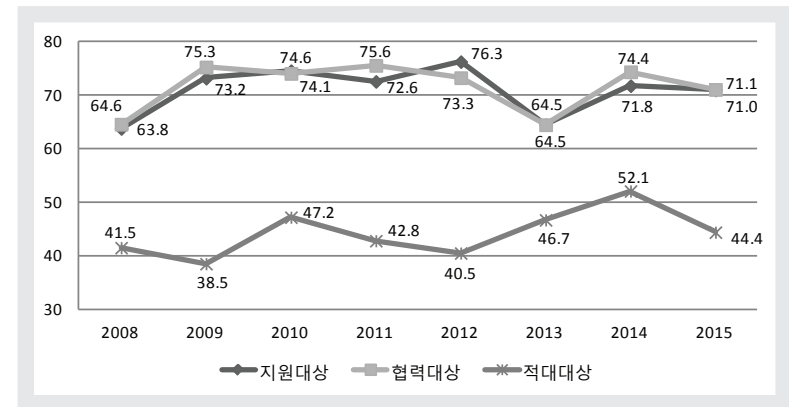
(단위:%)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층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2008년 최저 63.8%에서 2011년 최고 75.6% 내에서 변동하고 있지만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2014년 최고 52.1%였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그림 1-3-15〉 북한 인식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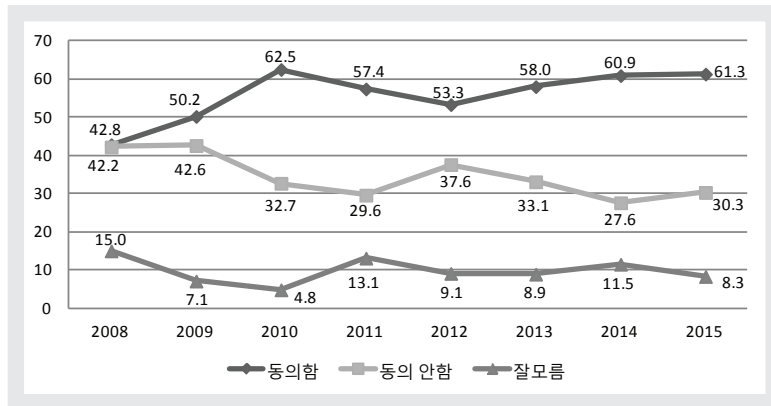
(단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0.4% 증가한 61.3%로 사실상 같은 수준을 보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 증가한 30.3%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3.2% 하락한 8.3%였다. 이는 2014년 ‘잘 모른다’고 응답했던 층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42.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동의 비율이 2009년 이후 대체로 50% 후반대로 상승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그림 1-3-16〉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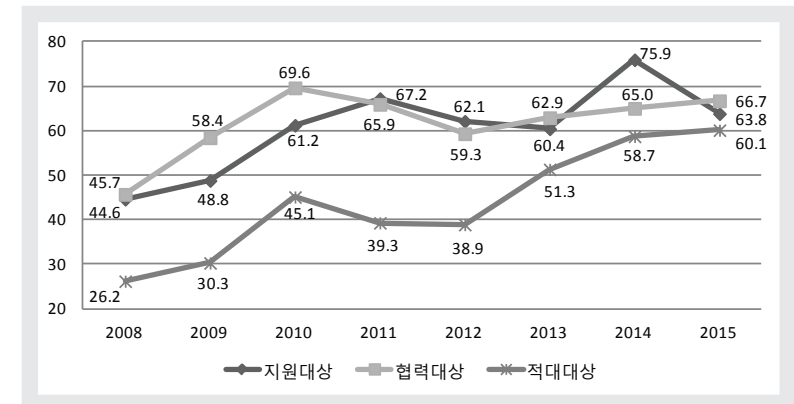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을 보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와 밀접히 연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2015년의 경우 각각 63.8%와 66.7%로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일관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로 지원이나 협력대상보다 낮은 동의비율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에서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조사에서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모두 60%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1-3-17〉 북한 인식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합의 계승(동의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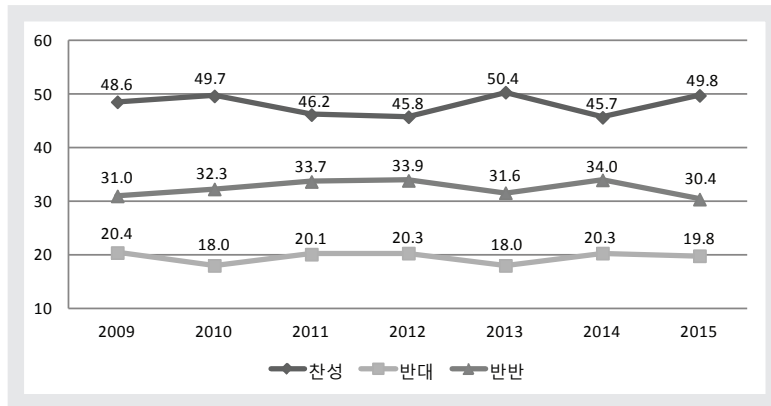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1% 증가한 49.8%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 유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과 비슷한 19.8%를 차지하였고 반반이라는 판단 유보층은 2014년보다 3.6% 하락한 30.4%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40% 후반대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개성공단 유지에 반대하는 응답도 20% 전후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층도 30% 초반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18〉 개성공단 유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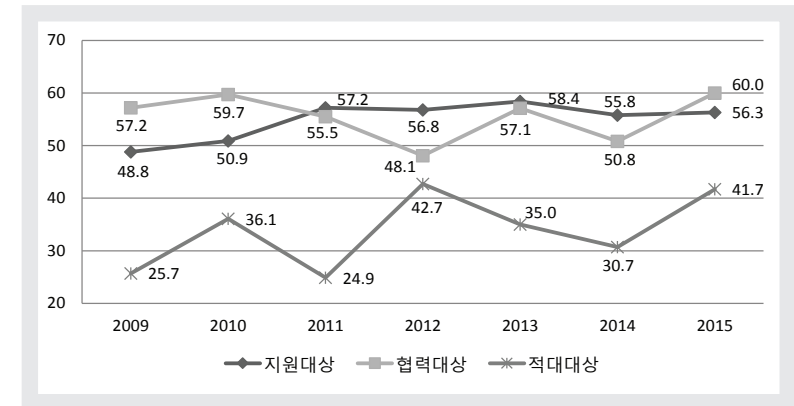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층 모두에서 각각 9.2%와 11.0% 증가하였고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층에서는 0.5%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에서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이 50% 후반대를 보인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40% 초반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그림 1-3-19〉 북한 인식별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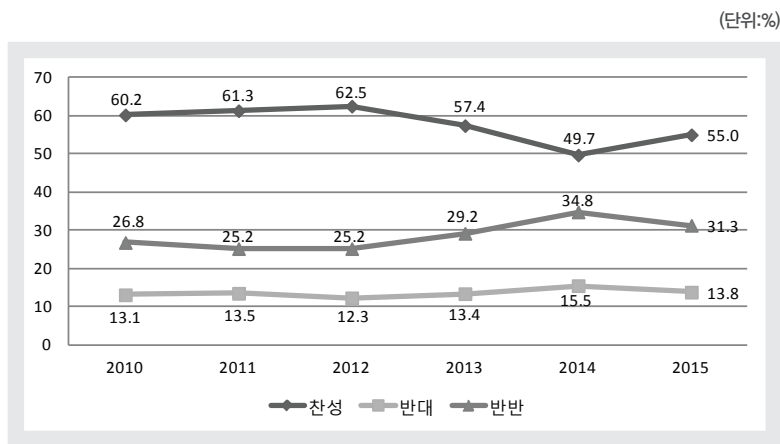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측에 제기하는 핵심 이슈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행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라면 김정은 정권이 남측에 제기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이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⁸이 2015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성과와도 밀접히 관련된 것이다. 그만큼 북측에서는 중요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실제 2015년 12월 11~12일 열렸던 1차 남북당국회담에서도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기하였다.⁹

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9]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과 수석대표 브리핑,” 2015년 12월 12일. (<http://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 (검색일: 2015년 12월 15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은 5.3% 증가한 55.0%로 다시 절반을 넘어선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 하락한 13.8%를 기록하였다. 반반이라는 판단 유보층은 3.5% 하락한 31.3%를 차지하였다.

〈그림 1-3-20〉 금강산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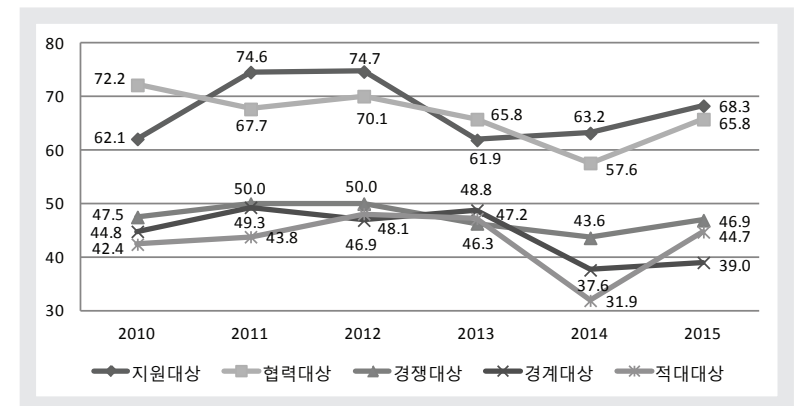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지원대상 층에서 5.1%, 협력대상 층에서는 8.2% 상승하였고 적대대상 층에서도 12.8% 증가하였다.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층에서는 각각 3.3%와 1.4% 상승하여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의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은 대체로 60% 이상을 보이는 반면 경쟁이나

경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은 50% 이하를 보이는 경향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림 1-3-21〉 북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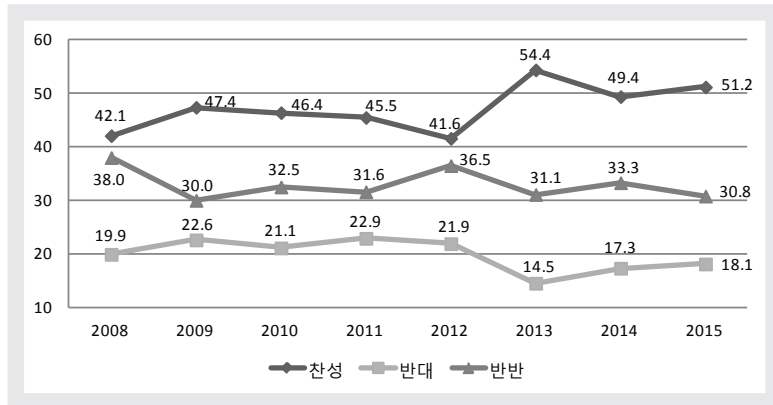
(단위:%)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1.8% 증가한 51.2%로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13년에 이어 다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북한 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은 0.8%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 전후로,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단을 유보한 층도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22〉 북핵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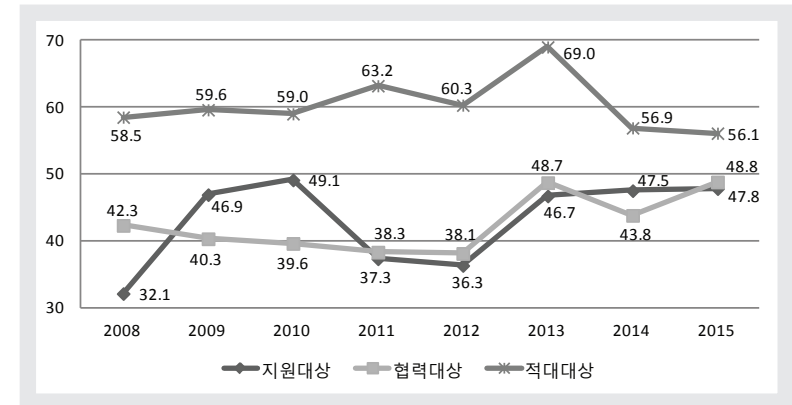
(단위: %)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였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미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대남 행태로 인한 부정적 대북인식 탓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찬성 비율이 40%대로 나타나지만,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6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23〉 북한 인식별 북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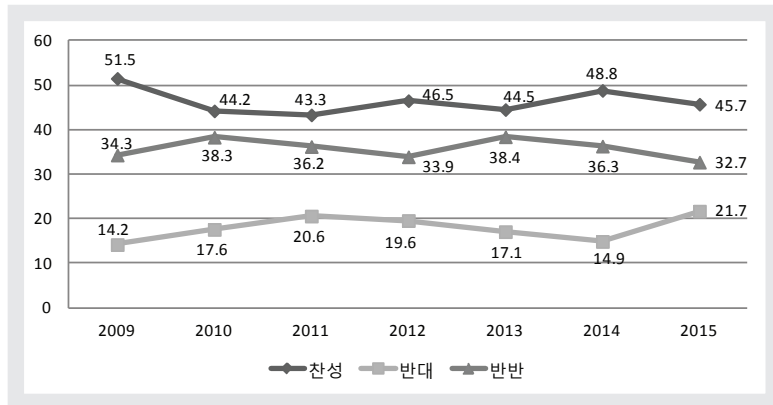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1% 감소한 45.7%를 차지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8% 증가한 21.7%를 기록하였다. 반반이라는 판단 유보층은 2014년보다 3.6% 감소한 32.7%였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찬성 비율은 40% 중후반대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비율은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층이 30%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찬반 비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24〉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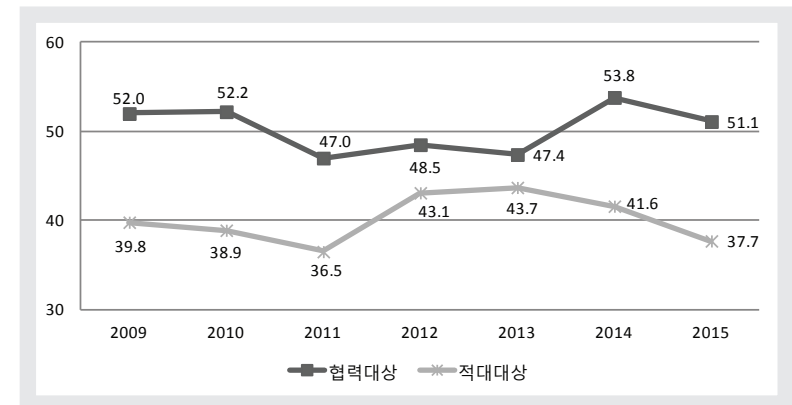
(단위:%)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도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부의 대북빠라 살포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50% 전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40% 전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에서 정부의 대북빠라 살포 차단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림 1-3-25〉 북한 인식별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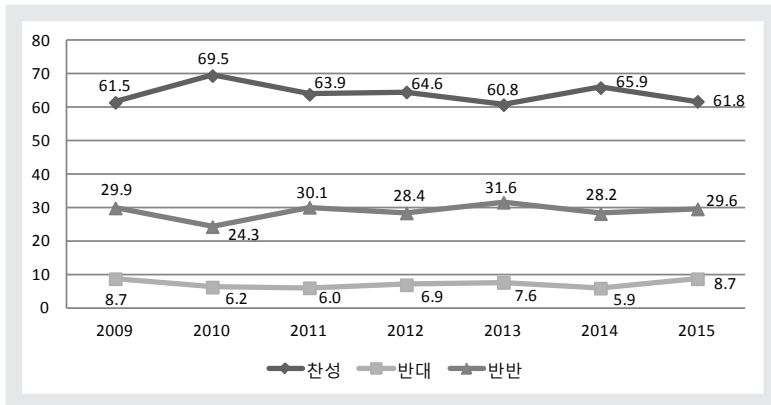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감소한 61.8%를 나타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8% 증가한 8.7%로 나타났다. 판단을 유보한 반반이라는 응답은 1.4% 증가한 29.6%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대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절대다수는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반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그치고 있다.

〈그림 1-3-26〉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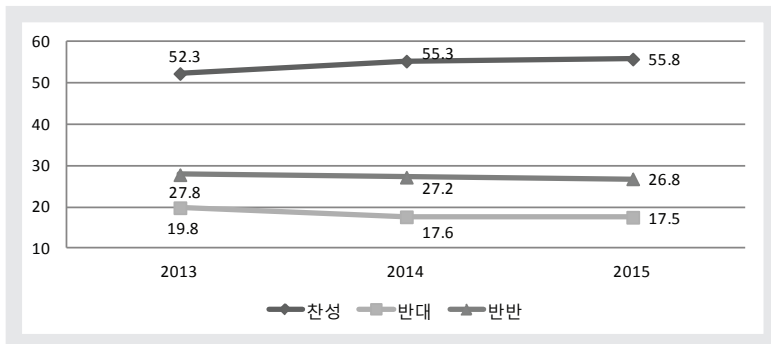
(단위:%)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찬성 비율은 0.5% 증가한 55.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 비율은 0.1% 하락한 17.5%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50% 중반대의 찬성 비율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27〉 한국의 핵무기 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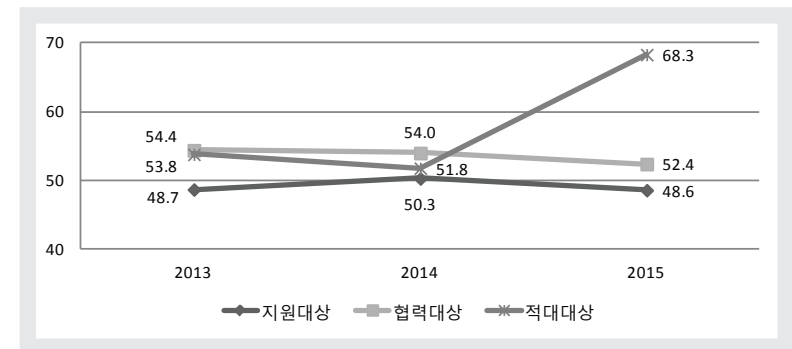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공직자로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던 고위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응답이 18.2%였다.¹⁰ 이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국민의 정서적 인식과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정책결정자들 간의 현실적 인식 간에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2014년까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2015년 조사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의 핵무기 보유 찬성비율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보다 15.9%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이 향후 추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림 1-3-28〉 북한 인식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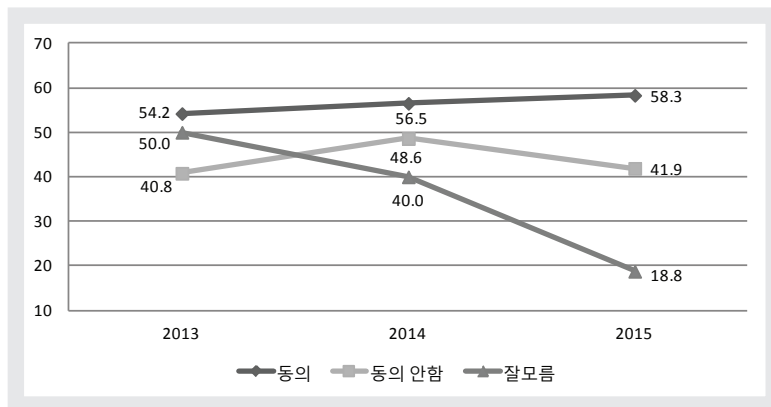
(단위:%)



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정책가들이 보는 통일 환경과 전략 (자료집),” (2015년 5월 11일 발표), P. 44.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층의 찬성 비율이 50% 중후반대로 가장 높고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층의 찬성 비율은 40%대로 양 집단 간에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불포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4년보다 각각 6.7%와 21.2%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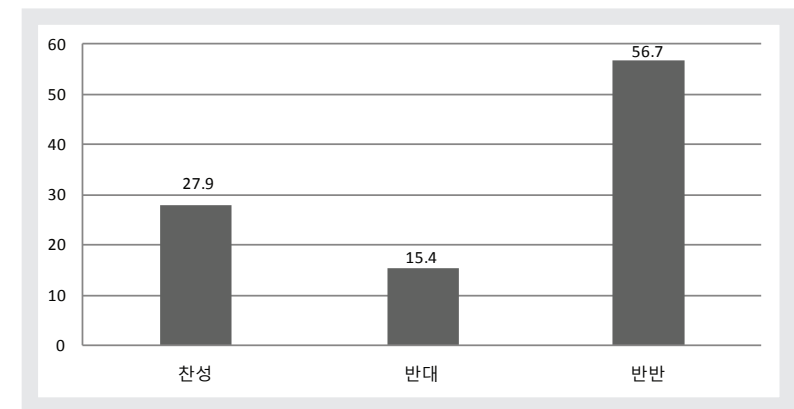
〈그림 1-3-29〉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인식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단위:%)



2015년 처음 조사를 한 5.24조치 해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4 해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27.9%로 전체 조사대상의 1/4 정도였고 해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찬성보다 12.5% 낮은 15.4%로 나타났다.

〈그림 1-3-30〉 5.24조치 해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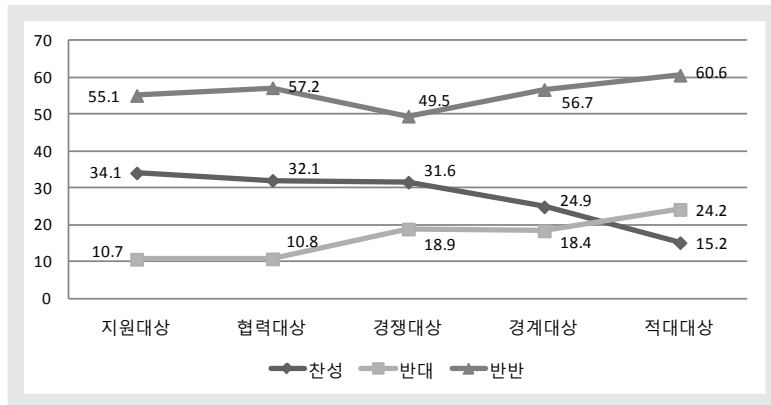
(단위:%)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5.24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5.24조치 해제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높고 반대하는 응답비율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대상과 적대대상 간의 편차는 찬성 비율이 18.9%, 반대 비율은 13.5%이다.

〈그림 1-3-31〉 북한 인식별 5.24조치 해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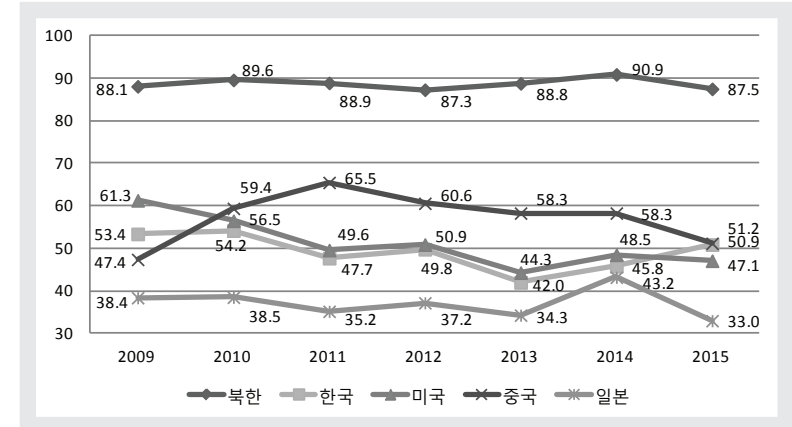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의 마지막 항목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관련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북한이라는 응답은 3.4% 감소한 반면 한국이라는 응답은 5.1% 증가하였다. 미국은 1.4%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인 47.1%, 중국은 7.1% 감소한 51.2%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10.2% 감소한 33.0%를 기록하였다.

대체로 북한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은 감소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2013년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출범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이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1-3-3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크다)

(단위:%)



4.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은 약간 감소하고, 적극적 통일정책 및 통일재원 준비와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2014년보다 2.9% 감소한 16.4%로 다섯 가지 과제 중 네 번째를 차지해 2014년 세 번째보다 하락하였다.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 신장은 2014년에 비해 0.5% 하락한 31.5%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는 2014년보다 1.5% 상승하여 18.3%를 차지하면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보였다.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2014년보다 2.1% 상승한 20.5%로 두 번째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체결은 2014년보다 0.3% 하락하여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체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통일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양상이 주목된다.

〈표 1-3-1〉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단위:%)

구분	교류협력· 대북지원	북한 개혁개방· 인권신장	적극적 통일정책· 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전체
2013	17.4	25.2	13.6	26.5	17.2	100.0
2014	19.3	32.0	16.8	18.4	13.6	100.0
2015	16.4	31.5	18.3	20.5	1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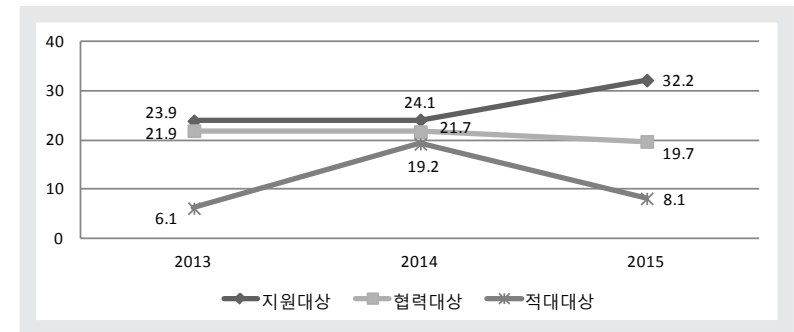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빈도에서는 2014년과 2015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8.1% 증가하였으나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11.1%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4년의 경우 북한에 대한 인식과 다소 무관하게 20% 전후에서 수렴되던 양상이 32.2%와 8.1% 사이에서 크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에서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이 우

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적대대상보다 높은 가운데 지원대상에서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협력대상에서는 20% 전후의 일관된 흐름을 보이며 적대대상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림 1-3-33〉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교류협력·대북지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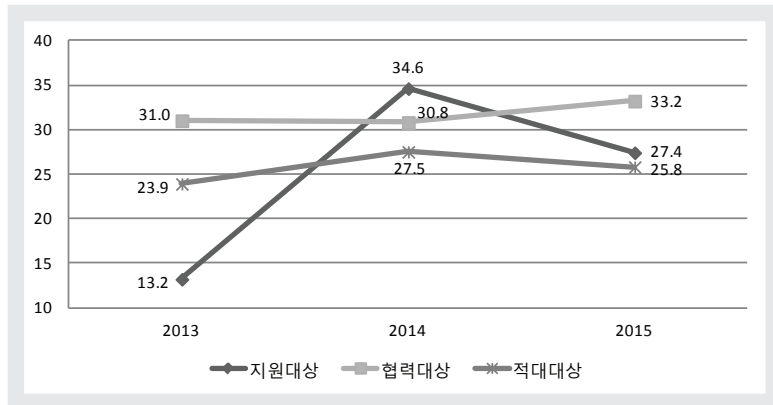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지원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7.2% 감소하였고 협력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2.4% 증가하였으며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1.7% 감소하였다. 대체로 지원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에서는 각각 30% 초반대와 20% 중반대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층에서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층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이라는 북한 변화 촉진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34〉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한 개혁개방·인권신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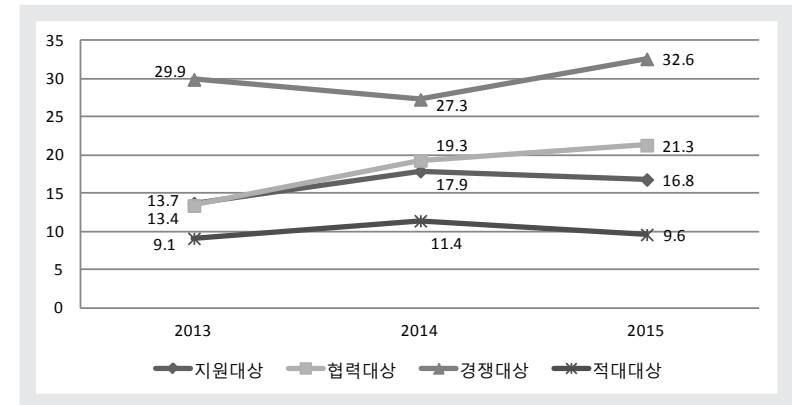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1.1~2.0%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경쟁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5.3%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쟁대상에서 30% 전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원대상에서는 10% 후반대, 협력대상에서는 20% 전후, 적대대상에서는 1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35〉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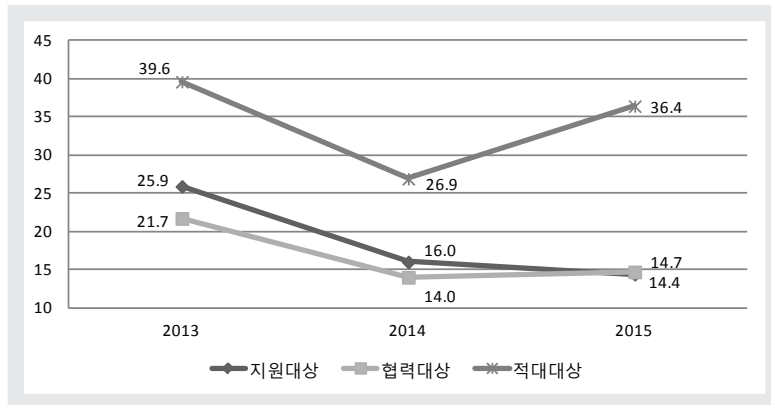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 9.5% 증가하여 36.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1.4% 감소하고 협력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0.7% 증가하여 각각 14.4%와 14.7%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적대대상에서 30% 후반대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에서는 10% 중반대의 수준을 보임으로써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36〉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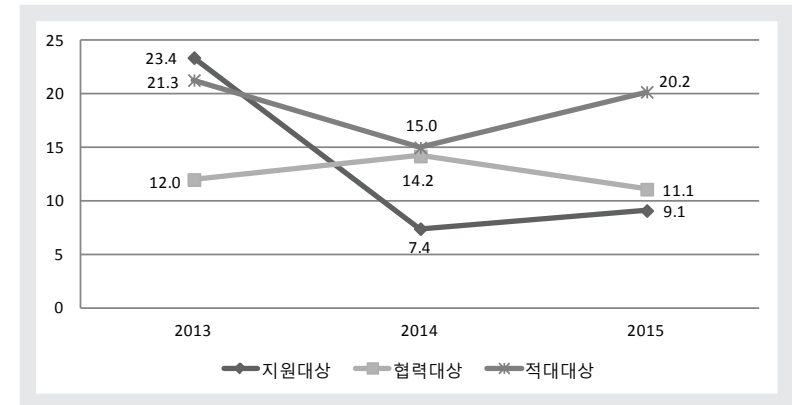
(단위:%)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3.1% 감소하였으나 적대대상이라는 인식 층에서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층에서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 결과 평화협정체결이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적대대상에서 가장 높고, 지원이나 협력대상은 그 절반 수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37〉 북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평화협정체결

(단위:%)



5. 소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후하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되는 현상이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주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정부에 비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였다. 정책구상이나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필요한 해였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경색과 대치에서 벗어나 협력관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한국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정책 현안으로 들어가면 다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찬성은 30% 미만에 불과하고 판단을 유보한 층이 60% 가까이 된다. 반면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나 되고 특히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대북빠라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의 두 배를 넘고 있다. 국민은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의 강경한 대북태도를 지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나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간 증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

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2014년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인권신장과 같은 북한 변화 촉진이고 그 다음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며 2014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적극적인 통일정책 및 통일재원준비에 밀려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민이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또는 관리보다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변화 촉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대북정책 현안이나 바람직한 대북정책 과제와 방향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보는 층에서는 적대대상으로 보는 층보다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거나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높으며 개성공단 유지나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층에서는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보는 층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찬성 비율이나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북한 책임론을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은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차로서 박대통령 임기도 후반으로 들어선다. 북한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차치하더라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초기 구상이나 담론을 넘어서 남북관계 관리와 전환, 특히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 서론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본격화하였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논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였고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의 신뢰 수준을 높이며 협력관계를 확대·발전하고자 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이끌어 냈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외교’¹¹⁾를 목표로 긴밀하게 움직인 대미, 대중 관계에 비해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 김구륜 외,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4).

2015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게 개최되었지만 위안부,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즉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비용 등을 완화시킴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부분은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¹²⁾ 한반도와 주변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역학관계는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증진 및 평화구축과도 직결되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분단관리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첩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반한다. 한중 FTA 타결,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가입, 열병식 참석 등은 한중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지만 ‘중국 경사론’에 대한 내외부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었다. 한미관계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 재검토,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및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지지 확인 등은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며 전통적인 우방으로써의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은 단순히 북한

12) 박종철 외,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서울: 통일연구원, 2012).

과 북핵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인식 문제는 언제 든지 한·중·일관계를 대립적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환경 변화 및 상호작용에 의한 주변국들의 위상 변화는 국민들의 이들 국가에 갖는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과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변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통일과 관련된 주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게 된다. 관련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주변국 인식의 특징과 변화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변국은 미국이었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3%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였고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친밀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1-4-1>에 나타나듯

2012년까지 다소 하락하던 대미 친밀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5년에는 78%를 넘어섰다. 반면 북한과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하락하고 있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8.1%로 작년의 8.9%에서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 까지 증가하던 대북친밀도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3.9%로 작년에 비해 0.4% 하락하였다.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주변국 친밀도를 국가별 선호도로 분석하였을 때 중국과 일본의 이미지에 변화가 감지된다. <표 1-4-2>에서 나타듯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변국 친밀도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고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 북한이 세 번째, 일본에 네 번째의 친밀도를 보였다. 즉 2007-2012년 역대 네 번째 선호도였던 중국의 친밀

도가 2014, 2015년 들어 두 번째로 친밀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고 같은 기간 세 번째 선호도를 유지했던 일본은 2013년 이래로 네 번째 국가가 되면서 친밀도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 증가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북한	2	2	2	2	2	2	2	3	3
중국	4	4	4	4	4	4	3	2	2
러시아	5	5	5	5	5	5	5	5	5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변국가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로 줄곧 미국이었고 다른 주변국과도 그 차이는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대미친밀도는 소폭 하락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¹³⁾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한미관계를 가장 우선시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8.8%로 2015년 들어 다소 하락하긴 하였으나 201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2007년 10.2%였던 대중 친밀도는 2010년 4.2%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서해 어민들의 어업권을 둘러싼 잦은 충돌, 천안함 사건 이후의 중국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그 이후 대중친밀도는 2014년 10.3%까지 높아졌다. 국민들의 최근 대중국 인식변화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2012년 시진핑 정부 이후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확대되는 인적교류, 연속된 정상회담 등은 한중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 공고화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심화하려는 한국정부 차원의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이후 감소하는 한국인들의 대일친밀도는 아베 정부의 이후 일본과 빚어진 여러 마찰과 관련이 있다. 위안부, 교과서, 야스쿠니 문제,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양국 간의 역사인식에 관한 갈등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아베 내각 이후에 두드러진 일본 우경화 노선은 한국인들의 국민감정 및 여론을 악화시키며 대일친밀도를 약화시키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13] 박명규 외, 『2009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 124.

14] 박명규 외, 『2014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79.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은 사실상 매우 미미하다.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9년 동안의 조사에서 친밀감은 1%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수교 25주년을 기해 러시아를 유라시아 시대의 주요 파트너로 상정함으로써 한러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2008년 9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선언하고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른 주변국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제, 에너지, 교통, 문화 영역 등을 포함한 다면적 협력은 한국인들의 대러친밀도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살펴볼 때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표 1-4-3>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20대의 대미친밀감이 46.7%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나타냈지만 2015년 들어 82.5%으로 60대 이상과 함께 가장 높은 대미친밀도를 보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7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별 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미국친밀도가 세대적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4-4>에 의하면 대북친밀도의 경우 2012년 이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0대가 3.5%으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7.1%), 60대(7.8%), 40대(9.1%), 50대(12.3%) 순으로 높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의 대북친밀도 하락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숙청을 통한 공포

정치의 지속, 북핵 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의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1-4-3> 연령대별 대미친밀감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29세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30-39세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40-49세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50-59세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60대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표 1-4-4> 연령대별 대북친밀감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29세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30-39세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40-49세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50-59세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60대이상	14.1	10.0	9.3	12.8	9.0	14.7	7.0	5.9	7.8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앞서 살펴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상승과 하락이 반드시 국가안보의 안전과 위협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 국가를 가깝게 여기는 정서적 판단을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국가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통일인식조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평가하고 있다. 앞선 항목과 같이 단수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 하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인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한다.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5년 54.8%로 이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대미위협인식은 4.7%로 러시아(1.3%) 다음으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4-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5.4	4.7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중국	15.6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2.6	1.3
합계(N)	1,196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즉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 무드가 일정기간 조성된다

하더라도 냉전 대결 양상이 지속되는 한 위협인식은 쉽게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안보 불안을 조장시킴과 동시에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통일인식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대북위협인식은 다른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 변화의 폭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퇴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2008년의 대북위협인식은 33.7%로 일본의 34.5%보다 낮았다. 하지만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에는 52.9%,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은 55.6%, 그리고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는 56.9%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증가했다. 2014년에는 49.8%로 위협인식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다시 5%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들의 대북위협인식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핵프로그램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고조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국민들의 대북위협인식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연령대로 살펴보았을 때도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세대별 평균으로 보았을 때 60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대북 위협인식이 연령대별 편차에 있어서도 2008년에 수렴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 다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5년 들어 다시 수렴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은 모든 세대에 걸쳐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1-4-6〉 연령대별 대북 위협인식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19-29세	32.9	32.8	51.7	50.7	52.3	44.7	59.2	54.4	57.5	48.1
30-39세	34.6	31.8	50.0	51.9	43.0	40.8	58.5	48.1	52.5	45.4
40-49세	32.8	34.0	51.8	57.6	35.5	45.6	49.8	43.4	57.5	45.0
50-59세	43.5	37.1	58.5	61.7	52.0	51.7	59.6	51.1	53.0	52.1
60대이상	48.2	33.8	58.6	66.3	56.2	67.4	61.0	58.8	52.9	55.9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국민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는 응답은 2011년 33.6%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위협인식을 보였으나 2014년 17.6%까지 하락하다가 2015년 다시 23.3%로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은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동반자’(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 설정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어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은 국민들의 대중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대중위협인식이 2011년 이래 3년 연속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군사력의 증강, 방공식별구역 선포, 영토분쟁을 통해 중국은 동북아 평화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2015년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같은 경제·통상협력에서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군사, 안보, 북핵문제 있어 충분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군사안보와 경제사

회문화의 두 축에서 복합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는 다소 상반되는 패턴이 발견된다. 2009년에는 일본이 북한 다음으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중국보다 덜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응답이 10.4%에서 2014년 24.6%까지 증가하여 일본에 대한 위협도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중국의 위협도는 다시 증가하고 일본의 위협도는 감소하였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국민들의 위협인식 상승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5년 들어 대일위협도가 다시 하락한 것은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내각의 우익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관한 현실적인 판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를 통한 보통국가 지향,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가 2012년 이래 한국인들의 대일위협도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미일동맹 강화, 북핵 위협 상시,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로 단정 짓지 않는 인식 또한 존재함을 보여준다.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인식을 선택과 순위의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개별국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응답자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임”으로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접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¹⁵ 국가 단위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인식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이미지는 상대 국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 될 수도 있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2015년 미국이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77.3%으로 작년 2014년 81.0%에 비해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 회복과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5]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1호 (2011), pp. 129-173

〈표 1-4-7〉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협력대상	53.2	70.2	73.6	76.4	75.0	77.3	79.9	81.0	77.3
경쟁대상	22.0	13.0	13.7	14.6	14.2	11.0	11.8	11.7	15.3
경계대상	22.0	14.8	11.7	8.2	9.7	10.9	7.8	6.8	6.9
적대대상	2.9	2.0	0.9	0.8	1.1	0.8	0.6	0.5	0.5
합계(N)	1198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표 1-4-7〉에서 보듯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 항상성을 나타낸다. 2008년 이후 미국을 ‘협력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70%를 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이며, 협력자이자 동맹자라는 강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내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3년 동안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도 대미이미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기간 들어 이전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미국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 추진, 중국의 부상과 한일관계의 악화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변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인식보다는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 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8>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을 도움	50.6	57.4	65.1	74.7	72.4	72.8	75.2	74.0	70.5
북한을 도움	1.3	1.4	0.7	0.7	1.6	1.8	1.6	1.8	4.9
자국의 이익에 따름	45.5	37.4	32.3	23.0	24.1	23.8	20.9	22.6	22.6
중립을 지킴	2.6	3.8	2.0	1.7	1.9	1.6	2.3	1.6	2.0
합계(N)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응답자의 70.5%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22.6%이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은 각기 4.9%, 2.0%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전쟁 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⁶⁾ 2015년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동맹국으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 박명규 외, 『2014 통일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86.

2) 일본의 국가이미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많은 가치지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국가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이 ‘협력대상’이라는 판단은 12.3%에 그친 반면 ‘경쟁대상’은 35.3%, ‘경계대상’이라는 판단은 40.6%에 이르렀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 보다 ‘경계와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적대대상 이미지는 17.5%에서 11.9%로 5.6% 하락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도 44.0%에서 40.6%로 3.4%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9> 일본의 국가이미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협력대상	14.6	16.7	19.5	14.3	13.8	16.9	11.8	11.4	12.3
경쟁대상	46.6	35.6	49.4	50.9	40.8	35.3	41.4	27.0	35.3
경계대상	30.3	31.0	26.2	28.0	34.6	35.8	35.3	44.0	40.6
적대대상	8.5	16.7	4.9	6.8	10.7	12.0	11.4	17.5	11.9
합계(N)	1,196	1,211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화 노력, 엔저정책 등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에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이미지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은 주목할 점이다. 즉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 대해 경쟁의식이 경계의식보다 전체적으로 우위였으나 2014년 경계대상 인식이 44.0%로 경쟁 인식 27.0%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협력대상 이미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2년 동안 악화된 한일관계의 영향이 국민들의 대일이미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일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화는 한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동아시아 협력과 번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찰과 신중한 국가정책 방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1-4-10〉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을 도움	16.2	14.7	24.6	17.1	15.3	11.6	11.3	7.8	7.7
북한을 도움	3.3	4.3	3.7	2.3	3.2	5.0	2.9	7.5	9.2
자국의 이익에 따름	72.7	69.4	66.0	71.6	74.3	75.4	75.1	74.9	71.6
중립을 지킴	7.9	11.6	5.7	9.1	7.2	8.0	10.7	9.8	11.5
합계(N)	1,200	1,211	1,201	1,200	1,201	1,199	1,200	1,199	1,201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도움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5년 7.7%으로 2009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응답은 71.6%로 2014년의 74.9%보다는 다소 줄어든긴 하였으나 이는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2014년 들어 ‘한국을 도움 것이다’는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국민들은 한일관계를 협력적이라기보다 경계 혹은 경쟁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중국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향후 통일문제의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보다 긴밀해진 양국의 관계는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인식은 대미인식과 달리 많은 유동성을 내포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정형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국력 증대, 신흥 강대국으로써의 위상 변화 및 한중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중첩되어 형성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외식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가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인식

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표 1-4-11〉 중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협력대상	19.3	23.7	21.1	19.7	20.5	22.4	28.5	34.0	33.9
경쟁대상	46.4	38.2	42.0	45.1	40.2	36.9	43.9	34.3	39.9
경계대상	31.0	32.9	33.3	31.8	34.9	35.3	24.5	29.5	24.2
적대대상	3.3	5.1	3.6	3.4	4.4	5.4	3.1	2.2	2.0
합계(N)	1,197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2015년의 결과로 볼 때, 우리 국민은 중국을 경쟁대상 이미지로 보는 것이 39.9%로 가장 높으며, 협력대상 이미지가 33.9%, 경계대상 이미지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대상 이미지는 2.0%로 매우 낮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협력, 경쟁, 경계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실 국민들의 대중국이미지는 2011년까지는 고정된 패턴이 존재했었다. 즉 경쟁과 경계의 대상 이미지가 우세하였고 협력대상 이미지는 20% 전후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협력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계와 적대대상 이미지는 하락하게 된다. 2015년의 경우 경쟁대상 이미지가 2014년 34.3%에 비해 5.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경계대상 이미지는 29.5%에서 24.2%로 5.3%로 감소한다.

2011년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위협인식 감소, 대중친밀감 증가, 한중 상호의존성 심화 등이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표 1-4-12〉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을 도움	5.3	4.5	3.1	3.3	2.4	1.3	3.3	5.2	5.8
북한을 도움	26.8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자국의 이익에 따름	56.4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중립을 지킴	11.4	13.0	7.7	3.8	3.8	2.8	5.6	5.9	4.5
합계(N)	1,200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을 돕는다’가 4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자국의 이익에 따름다’ 43.4%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다. 여기에 비해 ‘한국을 돕는다’는 5.8%로 앞선 두 응답이 89.7%임을 고려할 때에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62.8%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42.9% 까지 내려갔다가 2015년 46.3%로 다시 3.4% 증가한 점은 차후 북중 관계 변화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우리나라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경쟁대상 이미지는 작년도 30.2%에서 39.9%로 증가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는 2014년 43.3%에서 35.4%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비중에서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의 역전 현상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실제 협력대상 이미지도 20% 초반대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점도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북러, 한러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며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과 그 성과에 따라 북중 관계, 남북 관계에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4-13〉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협력대상	22.8	28.8	28.1	21.7	24.7	24.0	22.8	22.6	21.3
경쟁대상	40.3	35.2	39.8	40.6	39.3	32.9	38.5	30.2	39.9
경계대상	32.1	31.9	29.8	33.5	33.1	38.1	34.8	43.3	35.4
적대대상	4.7	4.1	2.3	4.3	2.8	5.0	4.0	4.0	3.4
합계(N)	1,195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특별한 인식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5년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이 23.8%로 ‘한국을 도울 것이다’의 3.3%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59.2%로 다른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도 가장 높다. 즉 한반도 상황에 변화에 따라 러시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1-4-14〉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을 도움	3.7	6.0	4.3	5.8	4.2	3.7	3.8	3.3	3.3
북한을 도움	19.0	20.9	22.5	19.2	15.4	11.8	12.4	14.5	23.8
자국의 이익에 따름	59.1	54.7	57.7	59.5	61.7	68.1	67.4	68.5	59.2
중립을 지킴	18.2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3.8
합계(N)	1,199	1,21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1	1,200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통일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인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주변국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관련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은 필수적

인 사항이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현상 유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변국에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파악하며 잠재적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국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인식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15>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매우 필요하다	42.0	45.2	51.5	48.2	45.5	45.8	47.5	44.7
필요한 편이다	48.9	47.7	42.8	43.7	44.8	46.1	45.7	45.9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1	5.2	4.7	5.7	6.8	6.6	5.5	8.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1.8	1.0	2.3	3.0	1.5	1.3	1.3
일본								
매우 필요하다	18.5	20.4	19.2	19.7	16.8	14.0	13.7	13.1
필요한 편이다	52.4	58.9	57.4	52.0	51.2	51.8	51.7	47.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2.9	16.2	19.8	22.8	25.1	27.8	26.7	3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4.5	3.7	5.4	6.9	6.4	8.0	8.3
중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필요하다	25.3	29.7	36.4	43.2	31.4	34.8	35.5	30.8
필요한 편이다	55.4	53.6	52.5	41.5	48.7	49.7	53.0	51.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5.2	13.3	9.5	11.4	15.3	13.0	9.6	15.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3.4	1.6	3.9	4.6	2.6	1.9	2.3
러시아								
매우 필요하다	17.2	19.9	18.8	21.3	17.3	15.5	15.3	14.0
필요한 편이다	57.9	53.6	55.3	51.1	50.8	51.5	56.6	51.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9	22.6	22.8	23.4	25.8	28.5	23.9	28.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3.9	3.1	4.2	6.1	4.5	4.3	6.1
합계(N)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1	1,200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경우 ‘매우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한,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2008년 이후 줄곧 90.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미국의 응답률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높다. 중국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5년 82.1%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65.4%, 60.4%의 응답자들만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의 20.7%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39.6%에 이르렀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5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년도 71.9%에서 다소 감소하여 65.4%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은 러시아의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16〉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2008-2015)

(단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15	2008-2015	2015	2008-2015
미국	90.6	92.0	9.4	8.0
일본	60.4	69.7	39.6	30.3
중국	82.1	84.1	18.1	15.9
러시아	65.4	70.9	34.7	29.1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 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1-4-16〉에 의하면 2015년 주변국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90.6%), 중국(82.1%), 러시아(65.4%), 일본(60.4%) 순서이며 2008년-2015년 기간의 평균 응답률도 같은 국가 순서로 나타났다. 주변국 중 2015년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률이 높은 국가 순서는 일본(39.6%), 러시아(34.7%), 중국(18.1%), 미국(9.4%)이었고 2008년-2015년 전체 평균 응답률도 같은 순서였다.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개별국가에 대한 국민들이 집합적인 태도와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과 주변국을 병렬로 한 설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발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주변국 가운데 친밀감이 가장 높으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미국과 분단과 통일의 대상이자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가치 판단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은 2015년 52.0%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양 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1%으로 2014년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가상의 스포츠 경기 상황을 설정하긴 하였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결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국민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친근감과 평화위협국가 인식에서 대척점에 있는 미국과 북한이지만 한국인들은 스포츠 경기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적인 정서가 이러한 인식의 간격에 일정부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변화도 동시에 관찰된다. 즉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전개에 대한 관찰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제도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왔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 등이 있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의 스포츠 교류가 있어왔다. 즉 분단 상황에 있지만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위해 스포츠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해 온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남북한의 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를 상호공존하며 발전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17〉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팀	81.0	76.6	68.0	70.4	61.7	66.2	56.7	60.4	52.0
미국팀	4.0	7.0	8.4	8.6	12.9	11.3	13.4	11.5	12.5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6.1	6.4	9.8	9.9	10.9	9.8	11.2	11.7	15.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8.9	10.0	13.6	11.0	14.3	12.8	18.7	16.4	20.1
기타	0.0	0.0	0.1	0.1	0.2	0.0	0.0	0.0	0.0
합계(N)	1,197	1,212	1,198	1,196	1,201	1,200	1,199	1,199	1,200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협력 부분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와 안보의 중심축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포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던 기간에는 한미 간 협력과

남북 간 협력이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적잖이 노출되었다. 특별히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관해 한미간의 이견이 있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무역, 투자, 그리고 원조의 확대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의 수준을 넘어 한미관계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인한 ‘남남갈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냈다.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던 중국은 1990년대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2000년 중반 중국이 소위 ‘G2’로 부상하게 됨으로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파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증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시진핑 정부 이후 중미간의 상호 이해와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한중 간의 협력은 기존의 한미 간의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었다. 한국에게 이 두 가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개별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 〈표 1-4-18〉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통일외교조사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두 가지의 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2015년 처음으로

‘한중 간의 협력’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18〉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북관계	38.3	29.8	39.1	38.1	39.2	35.9	33.8	31.0
한미공조	17.6	20.2	19.0	19.2	20.8	19.4	20.2	23.9
똑같이 중요하다	44.1	50.0	41.9	42.8	40.0	44.7	46.0	45.1
합계(N)	1,196	1,206	1,200	1,195	1,200	1,200	1,200	1,194

〈표 1-4-19〉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단위:%)

	2015
남북 간 협력	32.8
한미 간 협력	24.6
한중 간 협력	6.6
모두 중요하다	36.0
합계(N)	1,200

〈표 1-4-19〉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한 협력’과 ‘한미 간의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그리고 ‘한미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다.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2.8%, ‘한미 간 협력’이라는 응

답은 24.6%로 각각 나타났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판단보다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64.0%로 우세함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남북 간 협력’을 ‘한미 간 협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해 관련 이익을 조정하고 우려를 불식시킴으로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주변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통일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의 부침,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기대 또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2015년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인식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대미친밀감은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5년에는 80%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북한과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하락하였다. 특별히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에서 20대 인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가장 낮았던 20대의 대미친밀도는 2015년 60대와 더불어 가장 높은 친밀도를 보인 반면 북한에 대한 20대의 친밀도는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주변국의 선호도에 있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국민들은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친근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 연령대별 특징에서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대중, 대일 위협인식은 다소 유동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결과 중국이 일본보다 덜 위협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2015년 다시 역전하여 중국이 북한 다음으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는 가장 높다. 이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악화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대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면서도 주변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질서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량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통일의식조사는 먼저 국민들이 북한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의 주요한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직접적인 결정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기대는 향후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지형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직면하고 있다. 1992년 수교이후 한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중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변화로도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대중호감도는 증가하고 협력대상 이미지는 상승하였다. 다만 국민들의 대중인식은 미국과는 달리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냉각되어 있는 한일관계는 국민들의 대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약화되고 있으며 경

계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에 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변국과의 협력구도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에는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은 향후 국민들의 주변국 인식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과 북핵문제 진척 여부는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변화와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창의적이며 명민한 국가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 인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분단을 극복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및 통일외교정책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제6장 정파적 태도와 통일 이슈

제7장 다문화 시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IPUS

제5장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1. 서론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으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회변동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화시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한국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남북분단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단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상태가 정상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대신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에 대해 논의하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통일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조금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인식을 알아보면 개인별로 편차가 큼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 상대자인 북한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역시 매우 다르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남남갈등’은 우리 국민내부에 통일인식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첫머리에서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생활세계가 크게 다른 여러 세대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분석이 이를 웅변해 준다. 이에 이 글은 ‘세대(gener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인식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 통일의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정부 통일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세대별로 통일인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편, 세대별 통일인식을 비교한 다음에는, 세대내 존재하는 통일인식의 분화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통일인식이 다를 것이 예상된다. 통일인식과 관련해서 세대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통일정책 추진 면에서도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통일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내 분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성, 강도, 속도 등을 고려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쟁점별로 나타나는 세대별 통일인식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통일에 대한 입장, 통일이유와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서 세대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같은 세대 내에서 통일인식에 분화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내 통일이유의 분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일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통일인식 유형을 구성해서 통일인식 유형이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이념성향별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통일인식 유형에 따라 세대내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세대의 정의와 세대 구분

통상 한국에서 20대, 30대, 40대 등 연령구분을 세대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세대는 동일 연령집단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세대로 정의하고자 한다.¹⁷ 세대를 이상과 같이 정의하면 세대구분은 이질적인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정 역사적 경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역사적 경험을 넘어서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세대 연구의 선구자인 만하임¹⁸의 주장을 빌리고자 한다. 만하임은 개인들이 청소년기(17~25세 경)에 발생한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경우 유사한 의식구조 및 행위양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등장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세대를 설정하되, 만하임의 세대구분 논의를 받아들여 청소년기의 경험을 중시한다. 박재홍¹⁹은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경험,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그리고 사회운동 경험과 국내외 정치상황에 기초하여 세대를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 민주화/산업화 2세대, 탈냉전/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으며, 홍덕률²⁰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과정이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로 요약된다고 보고 세대를 산업

17] 세대 정의 및 기존 연구에서의 세대구분에 대한 검토는 김병조·김수정·조성남, “군(軍)에 대한 인식격차 연구: 성별·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2013), pp. 213~242 참조.

18] Mannheim, K.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Mannheim, K.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1952).

19] 박재홍,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2003), pp. 1~24.

20] 홍덕률,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제64호 (2003), pp. 150~191.

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다. 함인희²¹⁾는 그동안의 세대구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세대를 근대화/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분하였다. 학자별로 사용하는 세대의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이나 유신체제, IMF경제위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화 혁명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들을 종합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인식을 분석하는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사건을 종합하여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세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표 2-5-1>은 세대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나이, 그리고 청소년기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경험을 고려하여 ‘체제경쟁세대’, ‘민주화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준비세대’ 등 총 4개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표 2-5-1>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세대 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체제경쟁세대	1941~1960년	나이(만)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사태, 7.4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 베트남 패망
민주화통일세대	1961~1970년	55~74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한바로알기
탈냉전통일세대	1971~1980년	45~54세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한이탈주민, 금강산 관광
통일준비세대	1981~1995년	35~44세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1]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층들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저,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서울: 인간사랑, 2007), pp. 241~272.

‘체제경쟁세대’는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집단으로 2015년 기준 55세 이상 연령층으로 구성된다. 이 세대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표적인 통일·남북관계 역사경험으로는 한국전쟁 복구, 5.16 군사정변 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운영, 북한으로부터의 잦은 무장공비 침투와 1.21 청와대 습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한국은 유신체제, 북한은 주석제 채택식으로 체제 대결이 지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산화는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군을 파병하였지만 결국에는 월남이 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이 세대는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통일은 체제대립과 체제경쟁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개인생활과 연관시켜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통일방안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하면서도 통일은 한국 민족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주입되었던 세대이다.

‘민주화통일세대’는 6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기를 지냈던 세대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에서 시작하여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민주화과정을 지켜본 세대이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통해 국력 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강해졌음을 실감했고, 국내 민주화에 성공했던 그 기세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세대이다. 이들이 1990년대 말 소위 말하는 ‘386’세대로 지칭되는

집단이 된다.²² 민주화통일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여 다른 세대 보다 진보적인 정치 사회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이다. 그리고 반정부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하였기에 정부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한다. 이들은 통일이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쉽지 않은 민주화를 이룩한 만큼 통일도 ‘운동’ 방식으로 추진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세대이다.

‘탈냉전통일세대’는 7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이 청소년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88서울올림픽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짧은 기간에 무너진 시기이다. 이들 세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독일통일과 겹쳐서 상상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탈냉전의 여세가 한반도에도 불어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 소련과 국교정상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남북한 간에도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또한 이전과 다른 북한을 경험한 세대이다. 1993년에 계획된 남북정상이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김일성 사망이 북한내부의

큰 변화로 이어져 통일이 진전될 것을 기대하였던 세대이다.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지만 북한은 크게 변했다. ‘고난의 행군’ 전후로 김일성 사망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바라보는 한편, 금단의 땅인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탈냉전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세대이다. 큰 조류에 밀리듯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세대이다.

‘통일준비세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경험한 세대이다. 청소년 시기 비교적 활발한 남북대화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이 식량과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체제를 정비하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과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적으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²³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북한이 체제위기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미사일발사,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통일보다는 남북대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청소년기 경험한 한국사회는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고도성장이 멈춘 사회로, 개인 간 경쟁이 심하고, 장래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사회이다. 미래의 통일보다 현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22]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을 의미하는 ‘386’세대라는 용어는 1997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1997년 8월 2일 한겨레신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해당 용어가 크게 유행한 것은 2001년 7월 조선일보에서 사용하고부터이다.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2009), 제2호 pp. 140~161.

를 우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일을 고려하는 경우도, 통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한다. 즉, 통일에 적대적인 북한,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통일이 초래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통일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한국인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기초하여 북한 및 통일을 둘러싼 집단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세대를 구분해 보았다. 이어서 각 세대가 『통일의식조사』에서 어느 정도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대별 통일인식이 2007년도에서 2015년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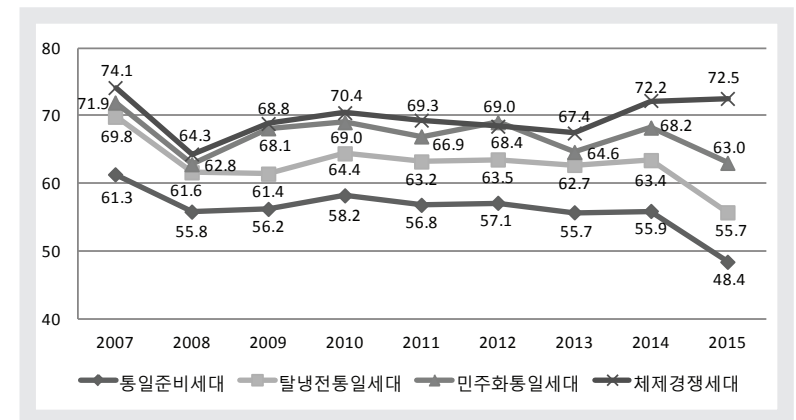
3.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

1)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그림 2-5-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드러나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체제경쟁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통일준비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체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그림 2-5-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2007-2015)

(단위: %)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 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로 '체제경쟁세대 > 민주화통일세대 > 탈냉전통일세대 > 통일준비세대' 구분된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체제경쟁세대와 민주화통일세대 간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세대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의 효과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²⁴

24] 실제로는 통일대박론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 변화 등이 포함되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지향변화(2007년-2008년)나 새로운 통일정책의 발표(2014년) 등이 통일의 필요성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세대별 경험이 다르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달리 평가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등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반대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두 번째 특징과 연계된 것으로 통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세대별로 갖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도와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5-2〉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정도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2014년,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비공감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체제경쟁세대를 제외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공감’과 ‘비공감’ 비율을 비교할 때, 통일준비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많고, 민주화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 2-5-2〉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정도 (2014-2015)

(단위:%)

	2014년				2015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남북관계	21.2	47.2	31.6	100.0	26.6	36.7	36.7	100.0
한미공조	27.7	40.7	31.7	100.0	34.5	36.5	29.0	100.0
똑같이 중요하다	35.6	37.6	26.7	100.0	34.3	39.1	26.6	100.0
합계(N)	42.9	36.2	20.6	100.0	49.8	34.1	16.1	100.0

비고: ‘공감=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비공감=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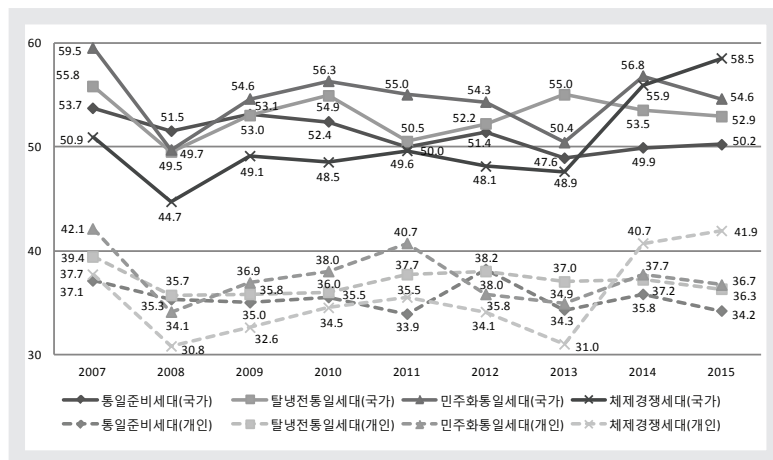
2015년이 되면, 통일준비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줄면서 통일준비세대는 비공감이 많아지고, 탈냉전통일세대는 공감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고, 체제경쟁세대는 공감이 많아졌다.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세대별로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변화하였다.

체제경쟁세대는 통일문제에 있어 정부 정책 변화에 쉽게 따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화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다. 민주화통일세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진단했었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과가 나와야 공감에 대한 판단 변화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냉전통일세대는 통일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통일대박론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층이 늘고 있다. 그리고 통일준비세대는 공감 비율이 높아졌지만, 비공감 비율도 높아졌다. 통일준비세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통일대박론은 결국 통일이 국가 혹은 개인에 큰 이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통일과 이익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때,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림 2-5-2>는 세대별로 통일이 국가이익이 될 것인지, 개인이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2-5-2> 세대별 통일과 국가이익, 개인이익 (2007-2015)

(단위:%)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전체적으로 국가이익보다 개인이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면,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개인 삶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컸지만(<그림 2-5-1> 참조), 통일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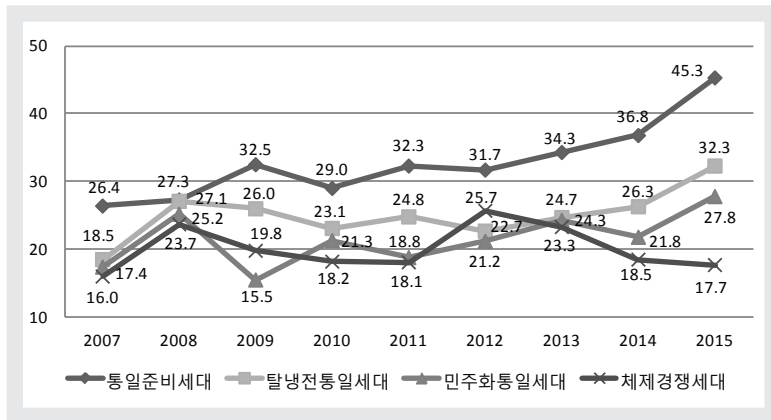
(국가 및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체제경쟁세대는 2013년까지 통일이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세대였다. 대신, 민주화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세대였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이 발표된 2014년 이후 체제경쟁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통일대박론이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이익을 새삼 인식하게 하고, 통일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통일이익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통일준비세대이다. 이들에게는 통일대박론 담론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에 대한 견해 변화

통일대박론이 회자됨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통일무관심' 및 '현재 만족'을 표명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5-3>은 통일에 대한 4가지 견해('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호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중에서 '현재 만족(현재대호가 좋다)' 또는 '통일무관심(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2-5-3〉 세대별 '현재 만족+통일무관심' 변화 (2007~2015)

(단위: %)



비고: '현재만족+통일무관심'을 합한%이다.

체제경쟁세대는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들어 낮아지는 유일한 집단이다. 나머지 3세대 중 '민주화 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현재 만족' 및 '통일무관심'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2/3 이상이 넘는다. 아직까지는 통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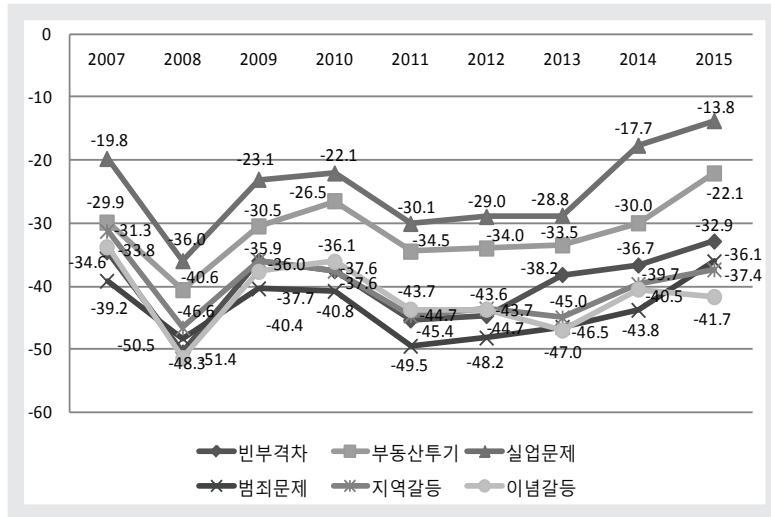
그런데 통일준비세대의 경우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40%를 넘고 있다. 통일준비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통일대박론이

대박을 터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배경에는, 통일되면 제반 사회문제(빈부격차, 실업문제, 범죄문제, 이념갈등 등)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내부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2-5-4) 참조. 그 중에서도 범죄문제,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이 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최근에 사회문제가 악화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환기에 이익추구보다 위험회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 시키는 것과 함께 통일이 초래할 사회문제 악화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림 2-5-4〉 통일 후 사회문제의 변화 (2007-201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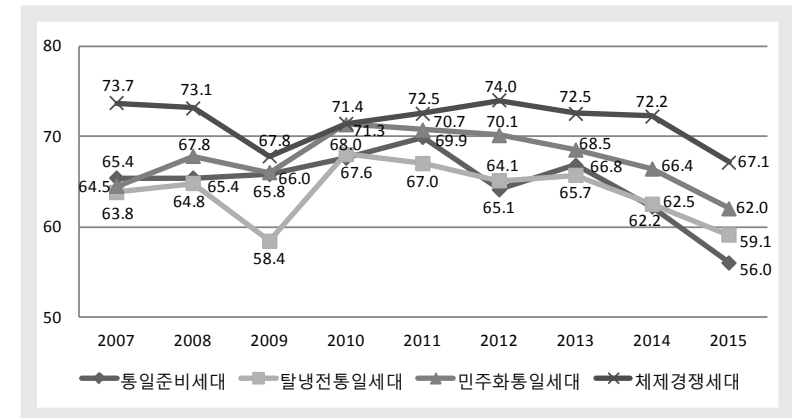


비고: 사회문제 변화는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개선=75, 차이 없음=50, 약간 악화=25, 매우악화=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러나 통일준비세대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보다 현재 만족에 치중하는 상황이 통일정책 변화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림 2-5-5〉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난에서 비롯한 3포 세대의 등장,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등 사회전반적인 활력 감퇴가 통일준비세대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통일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2-5-5〉 세대별 '한국인 자긍심' 변화 (2007-2015)

(단위:%)



비고: 한국인 자긍심은 응답별로 '매우 자랑스럽다=100, 다소 자랑스럽다=66.6,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33.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0'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3) 통일이유와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럼 과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 무엇일까? 〈그림 2-5-6〉은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년도 별로 제시한 것이다. 통일되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은 '같은 민족이니(전통적 이유)', '이산가족 고통해결(인도적 이유)', '남북전쟁위협제거(소극적 이유)', '북한주민 잘 살게(인도적 이유)',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고(적극적 이유)' 등이다.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통일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으로 민족통합이라는 전통적 이유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50%대에서 4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어서 통일해야 할 이유로 선택한 것이 '남북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남북전쟁 위협제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에서 25%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로 대치함으로써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 남북분단 상태의 가장 큰 부정적 측면이다. 그리고 통일 이유로 전쟁위험 해소 지목이 증가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력도발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해소는 분단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이유는 15%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며, 이산가족 고통해결이나 북한주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도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비율은 각기 5% 및 10%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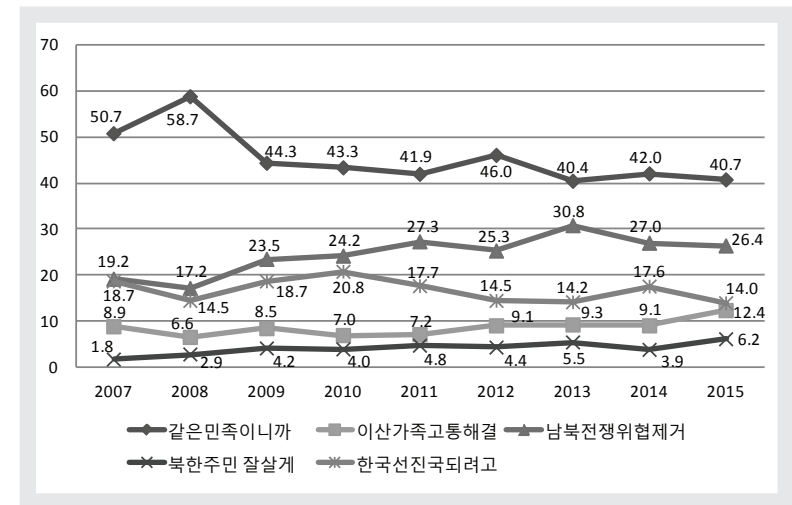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하면 통일준비세대에서 앞에서 제시한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5년 조사에서 통일준비세대의 경우 가장 큰 통일이유로 꼽은 것이 '남북전쟁위험 제거(33.2%)'로 '같은 민족이니까(30.7%)'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이유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통일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고'를 선택한 비율은 17.4%에 불과하다.

〈그림 2-5-6〉과 같이 핵심 통일이유가 변화한 부분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방

이 존재한다. 통일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변화한 데는 최근에 경험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남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림 2-5-6〉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2007-201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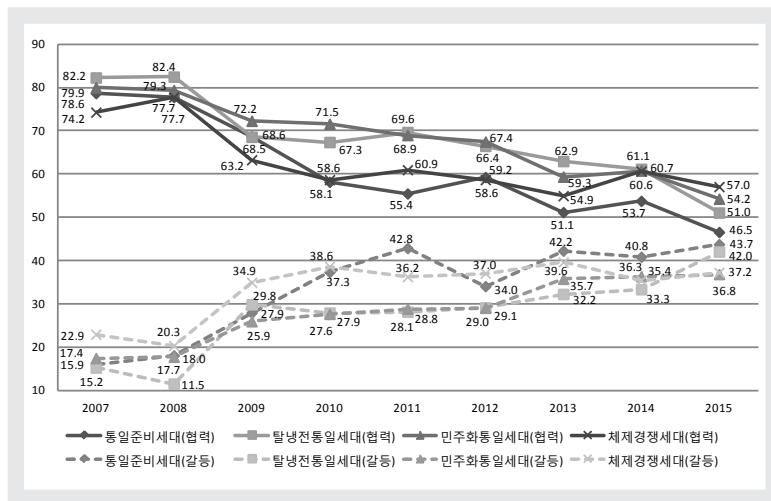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달성되려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2-5-7).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협력관계(지원+협력)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고 갈등관계(적대+경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협력과 갈등이 80%:20% 정도로 나뉘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2015년도에는 50%:40%정도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별로 북한을 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체제경쟁세대나 통일준비세대에 비해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북한을 갈등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 보다 모든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2-5-7〉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2007-2015)

(단위:%)



비고: 응답자 10%미만인 '경쟁대상'은 제외하고 '협력=협력대상+지원대상'과 '갈등=경계대상+적대대상'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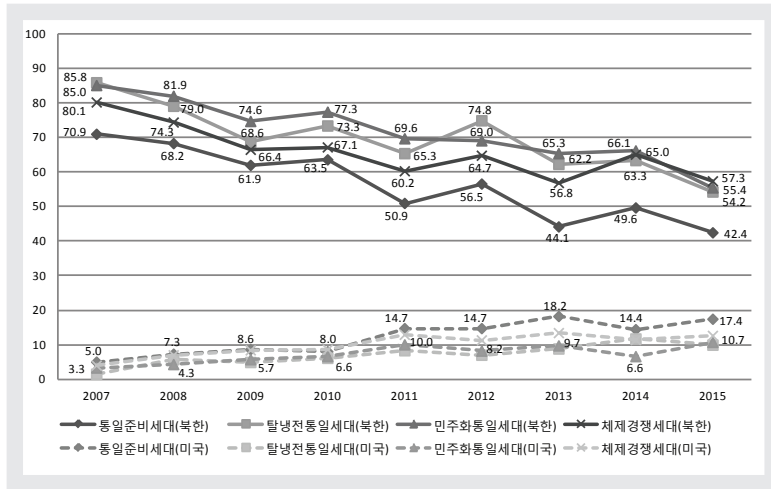
초점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다른 항목이 여러 개 존재한다. 〈그림 2-5-8〉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

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팀' 또는 '미국 팀'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2007년~2008년에는 세대별로 70~80% 정도 북한을 응원하였으나 2014년~2015년에는 그 비율이 40~60%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2007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5%이하였으나, 2015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10%가 넘게 되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응원하는 비율은 '통일준비세대'에서 많고, '민주화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에서 적다.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은 역으로 '통일준비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 세대에서 북한응원비율 저하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세대에서도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주화통일세대/탈냉전통일세대가 체제경쟁세대 보다 북한을 많이 응원한다 하였지만 2013년도 이후에는 그 비율이 비슷해졌다.

〈그림 2-5-8〉 세대별 축구경기에서 응원하는 국가 (2007-201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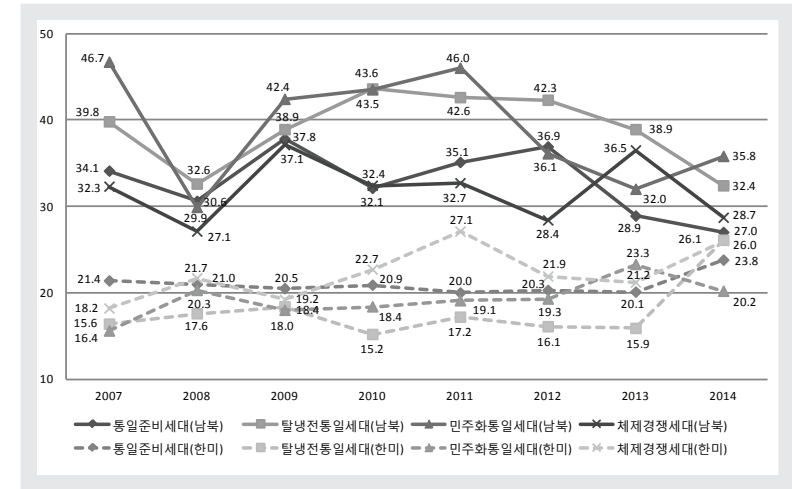
비고: 1)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를 제외하고 북한 팀, 미국 팀을 명시한 응답 %를 제시하였다.

2) 탈냉전통일세대(미국)와 체제경쟁세대(미국)의 수치는 근소한 차이의 수치라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림 2-5-9〉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민들이 민족이냐(북한), 동맹이냐(미국)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림 2-5-9〉 세대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 (2007-2014)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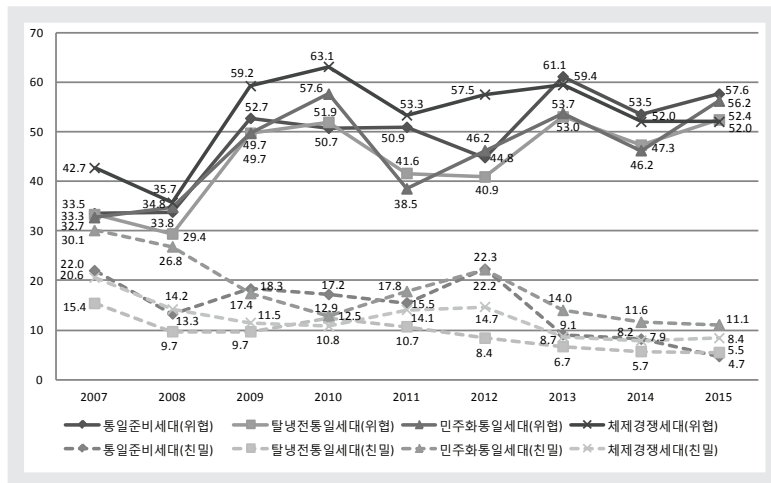
비고: '똑같이 중요하다'를 제외하고 '남북관계 개선(남북)'과 '한미공조(한미)'를 선택한 %를 제시하였다.

〈그림 2-5-10〉은 보다 범위를 넓혀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2007년~2008년에 한반도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30~40%였으나, 2015년도에는 모든 세대에서 50%이상이 북한을 선택한다. 역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변 5개국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미국으로, 2007년 50~60% 수준에서 2015년에는 70~80%로 늘어난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모든 세대에서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가장 가깝게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탈냉전통일세대와 통일준비세대에서는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림 2-5-10〉 세대별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위협’ 및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북한을 택한 비율 (2007-2015)

(단위:%)



비고: 주변 5개국 중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선택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통일보다 국가안보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른 세대보다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북한을 통일파트너로 인정하고 가깝게 느껴왔지만, 이들에게조차 북한은 통일파트너로서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거나 통일을 보다 적극적

으로 생각하는 통일의식이 확대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

1) 통일의식 유형의 세대별 분포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가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같은 세대지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대내 통일인식에 분화가 발생한다. 예컨대, 통일준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나타난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통일준비세대가 모두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교차하여 통일의식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 2-5-3).

〈표 2-5-3〉 통일의식 유형

		통일필요성	
		필요하다	반반/그렇다
통일에 대한 입장	빨리 통일/ 여건성숙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Ⅰ)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무관심	통일소극형(Ⅱ)	통일방임형

(1) 통일추진형: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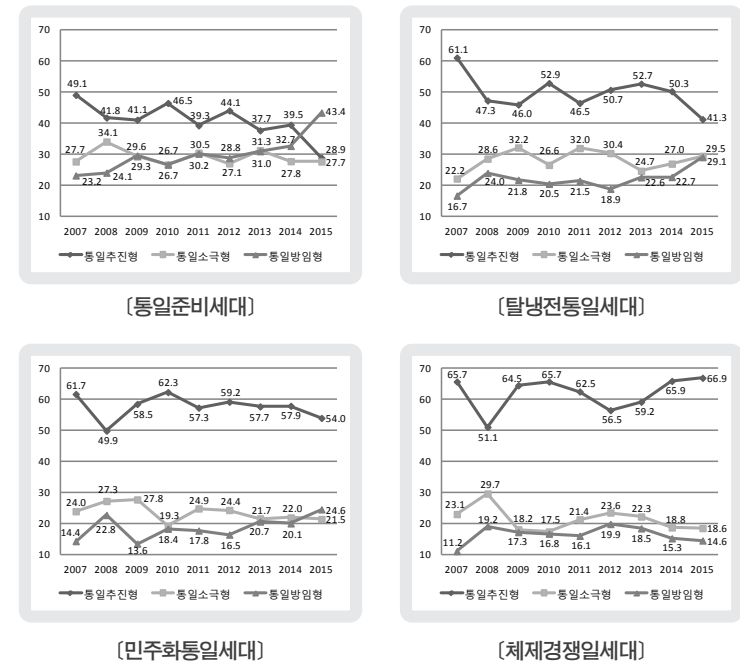
(2) 통일소극형: 통일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거나 (Ⅰ), 통일이 필요하나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Ⅱ).²⁵ (3) 통일방임형: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

〈그림 2-5-11〉은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의 변화 추세를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는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7년 23.2%였던 통일방임형이 2015년도에는 43.4%가 된다. 반대로 통일추진형은 49.1%에서 28.9%로 줄어든다. 그리고 통일소극형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통일방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탈냉전통일세대에서도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통일유형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는 2015년 통일추진형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4.0%로 대다수이며, 체제경쟁세대는 2015년에 통일추진형이 오히려 조금 늘어 66.9%이다.

〈그림 2-5-11〉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 변화추세 (2007-2015)

(단위:%)



그렇다면 세대별로 통일유형은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2015년을 사례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이념지향별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5-4)~(표 2-5-7).

〈표 2-5-4〉는 통일준비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는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일추진형 항목에서는 그 비중이 비슷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통일방임형이 많고, 여성은 통일소극형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이 통일추진형

25] 통일소극형(Ⅱ)는 매우 소수이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좌우되는 실정이다.

이 많고, 고졸이하에서 통일소극형이 많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적을수록 통일추진형이 많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통일방임형이 늘어난다. 한편 중간층 소득수준이라 할 수 있는 200~299만원 소득수준에서 통일소극형이 많았다. 이념지향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수성향이 통일추진형이 많고, 중도성향에서 통일냉소층이 많았다.

〈표 2-5-4〉 통일준비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단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29.9	21.3	48.8	100.0
	녀	27.6	34.2	38.2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6.1	38.7	45.2	100.0
	대학이상	31.8	25.1	43.1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38.5	30.8	30.8	100.0
	200~299만	31.7	43.3	25.0	100.0
	300~399만	30.7	24.0	45.3	100.0
	400만이상	26.0	23.7	50.3	100.0
이념지향	진보	31.0	29.0	40.0	100.0
	중도	26.8	27.4	45.8	100.0
	보수	34.2	26.3	39.5	100.0
전체		28.9	27.7	43.4	100.0

〈표 2-5-5〉는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인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에서는 남성의 경우 통일방임형이 많았지만, 탈냉전통일세대에서는 반대로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여성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준비세대와 달리 대학이상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은데, 이는 통일준비세대와 같은 특징이다. 그리고 이념지향별로는 보수성향이 통일방임형이 많고, 중도 및 진보성향에서 통일추진형이 많다. 이 역시 통일준비세대와 다른 양상이다.

〈표 2-5-5〉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단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46.7	26.7	26.7	100.0
	녀	35.0	33.3	31.7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41.9	32.3	25.8	100.0
	대학이상	41.0	28.0	31.1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50.0	33.3	16.7	100.0
	200~299만	53.7	24.4	22.0	100.0
	300~399만	38.7	34.0	27.4	100.0
	400만이상	38.0	28.0	34.0	100.0
이념지향	진보	47.3	24.3	28.4	100.0
	중도	42.8	31.0	26.2	100.0
	보수	20.6	35.3	44.1	100.0
전체		41.3	29.5	29.1	100.0

〈표 2-5-6〉은 민주화통일세대의 변수별 통일유형 분포이다. 성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조금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이상에서 통일추진형이 조금 많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정

도의 소득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았고, 400만 이상 소득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이념지향별로는 진보성향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았고, 보수성향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표 2-5-6〉 민주화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단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57.5	19.4	23.1	100.0
	녀	51.0	23.2	25.8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51.7	21.7	26.7	100.0
	대학이상	57.8	22.0	20.2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55.6	22.2	22.2	100.0
	200-299만	62.1	27.6	10.3	100.0
	300-399만	63.5	17.3	19.2	100.0
	400만이상	44.6	23.7	31.7	100.0
	전체	54.0	21.5	24.6	100.0
이념지향	진보	63.8	17.2	19.0	100.0
	중도	53.0	23.5	23.5	100.0
	보수	50.0	20.0	30.0	100.0
전체		54.0	21.5	24.6	100.0

마지막으로 체제경쟁세대의 경우,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여성은 통일소극형이 많다(표 2-5-7). 통일방임형은 남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에서 통일추진형이 다소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명확한 추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득이 높은 400만 이상 소득수준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념

성향별로도 명확한 특징을 찾기 어렵지만, 다른 세대와 달리 중도성향 집단에서 통일추진층이 많다.

〈표 2-5-7〉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유형 분포 (2015)

(단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72.7	13.9	13.3	100.0
	녀	60.8	23.4	15.8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65.8	19.1	15.1	100.0
	대학이상	73.3	17.8	8.9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74.1	13.6	12.3	100.0
	200-299만	59.7	29.9	10.4	100.0
	300-399만	71.4	16.9	11.7	100.0
	400만이상	62.9	15.5	21.6	100.0
	전체	66.9	18.6	14.6	100.0
이념지향	진보	64.7	17.6	17.6	100.0
	중도	71.1	17.5	11.4	100.0
	보수	64.3	19.7	15.9	100.0
전체		66.9	18.6	14.6	100.0

〈표 2-5-4〉에서 〈표 2-5-7〉까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배경 변수별 통일의식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세대를 비교하면 세대별로 배경변수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같은 배경변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대별로 통일의식에 차이가 난다.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통일유형별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은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은 탈냉전통일세대와 민주화 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과 관련성이 높다.

2)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따라서 세대별로 나타나는 통일인식의 격차와는 별도로 세대 내에서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북한 및 혹은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표 2-5-8>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민주화통일세대 중 통일추진형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입장에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합치면, 통일추진형은 70%내외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 지원대상으로 생각한다.

한편 통일소극형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과 갈등(경계+적대)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반반정도이다. 그리고 통일방임형은 북한을 갈등(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

<표 2-5-8>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에 대한 인식 (2015)

(단위:%)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민주화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냉소
지원	9.8	23.6	7.2	17.1	14.7	12.2	18.7	11.3	11.4	32.9	8.2	14.9
협력	59.8	24.7	22.5	52.4	26.7	21.6	53.5	27.4	17.1	36.1	27.9	12.8
경쟁	5.4	14.6	9.4	5.7	13.3	4.1	8.4	12.9	7.1	3.7	9.8	10.6
경계	10.9	25.8	31.2	17.1	28.0	33.8	8.4	29.0	45.7	16.7	34.4	27.7
적대	14.1	11.2	29.7	7.6	17.3	28.4	11.0	19.4	18.6	10.6	19.7	3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통일의식 유형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제시하였다(<표 2-5-9> 참조.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남북경협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내 차이가 더 크다. 세대 내에서는 대체로 '통일추진형' > 통일소극형 > 통일방임형' 순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반대로 세대별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세대내 통일의식 유형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통일의식 유형과 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2-5-9> 통일의식 유형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15)

(단위:%)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효과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효과	정부대북 정책만족
통일준비 세대	통일추진형	48.3	55.7	44.3
	통일준비세대	46.3	47.3	44.6
	탈냉전통일세대	41.5	46.8	43.9
	민주화통일세대	44.8	49.5	44.2
탈냉전 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0	61.8	48.9
	통일소극형	49.7	53.7	52.2
	통일방임형	36.6	48.6	46.1
	전체	46.8	55.6	49.1
민주화 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1.5	58.8	49.2
	통일소극형	39.7	50.0	48.8
	통일방임형	40.5	47.1	47.5
	전체	46.3	54.1	48.7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효과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효과	정부대북 정책만족
체제 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6.3	60.6	53.5
	통일소극형	38.1	48.0	51.6
	통일방임형	43.5	46.7	48.8
	전체	51.1	56.2	52.5

비고: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 효과' 및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 효과'는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으로, '대북정책만족도'는 '매우 만족=100, 다소 만족=66.6, 다소 불만족=33.3, 매우 불만족=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표 2-5-10>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통일의식 유형별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도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별로 차이가 더 크다. 세대에 관계 없이 통일추진형이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친근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통일방임형은 친근감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다.

<표 2-5-10>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2015)

		탈북자 친근감	남북한 이질화 해소	탈북자지원 확대
통일준비세대	통일추진형	51.5	58.9	54.1
	통일준비세대	46.8	53.9	54.4
	탈냉전통일세대	41.4	47.5	43.1
	민주화통일세대	45.8	52.6	49.4

		탈북자 친근감	남북한 이질화 해소	탈북자지원 확대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4.1	62.9	56.9
	통일소극형	44.9	55.3	53.0
	통일방임형	40.0	50.0	40.7
	전체	47.2	56.9	51.0
민주화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5	57.6	57.1
	통일소극형	50.3	54.2	52.4
	통일방임형	46.5	47.8	41.6
	전체	50.5	54.5	52.3
체제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3.3	58.6	52.9
	통일소극형	46.8	50.3	48.4
	통일방임형	45.0	45.5	43.8
	전체	50.9	55.2	50.7

비고: 탈북자 친근감은 응답별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100,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66.6,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3.3,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 남북한 이질화 해소 및 탈북자 지원 확대는 '매우 동의함=100, 다소 동의함=66.6, 별로 동의하지 않음=33.3, 전혀 동의하지 않음=0'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임.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그리고 '모두 중요'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2-5-11>을 보면 어느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세대효과와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 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남북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통일준비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모든 관계를 중시한다. 어떤 관계가 중요한지 판단함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세대 내에서도 통일의식 유형별로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차이가 난다. 세대 내에서 통일추진형은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통일소극형과 통일방임형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표 2-5-11〉 통일의식 유형별 통일에 중요한 관계 (2015)

(단위:%)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남북관계	41.8	32.2	24.1	31.3	37.1	42.7	28.4	36.8
한미관계	24.2	26.4	22.6	24.1	27.6	20.0	21.6	29.3
한중관계	4.4	5.7	7.3	6.0	5.7	6.7	9.5	7.1
모두	29.7	35.6	46.0	31.4	29.5	30.7	40.5	3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민주화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남북관계	41.0	37.1	32.9	38.2	32.4	13.3	13.0	26.3
한미관계	23.1	16.1	27.1	22.6	26.9	30.0	30.4	27.9
한중관계	7.1	6.5	8.6	7.3	5.1	6.7	10.9	6.2
모두	28.8	40.3	31.4	31.9	35.6	50.0	45.7	3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소결

세대별로 통인인식에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통일준비세대에서 점점 통일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준비세대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국민전체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모든 통일 관련 인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세대별 통일인식은 세대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할 수 있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통탄할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할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대별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대에 걸쳐 전환시키지는 못하였다. 통일대박론이 대박이 되려면 각 세대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이익창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정부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통일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최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변화, 특히 통일준비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저하는 세대별 특성에 더하여, 계속 되는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세대별 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세대내 통일의식의 분화가 존재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등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통일지향태도를 통일추진형, 통일소득형, 통일방임형으로 구분하는 통일의식 유형론을 시도하고,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세대별 차이 이상으로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적극적인 유형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인식이 세대효과, 통일정책효과, 북한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 통일추진형이 증가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통일추진형이 남북교류 등을 보다 지지함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립이 해소되고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제6장

정파적 태도와 통일 이슈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통일 이슈와 대북 정책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언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왔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대북 관계나 통일 정책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되어 왔다.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통일 이슈 혹은 대북 정책이 정치적인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 이후 대북 정책, 통일 이슈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및 이념적 입장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파적 입장에 따라 매우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이슈가 되어 왔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새누리당은 보다 적대적이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

을 보여 왔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성향 조사에서 대미관계,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등 대북 안보 차원의 이념 차원은 일찍부터 정치적인 갈등으로 부상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이념적 차이가 양당 간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들 두 정당의 대립적 시각은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해 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대북 정책이 이념적 이슈와 강하게 연계된 것 역시 두 주요 정당의 정파적 동원과 무관하지 않다.

샤츠슈나이더²⁷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갈등의 영역 (the scope of conflict)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갈등의 결과는 관중들이 어느 정도나 그 갈등에 개입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모든 갈등의 결과는 갈등이 전염(contagion)되는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 정책, 통일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실 정치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보면, 주요 정당이 강한 대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이러한 이슈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파적 입장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각 정당의 대립적 입장과 태도가 유권자들에 대한 ‘갈등의 전염’과 그로 인한 ‘깊은 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의 문제의식은 대북정책과 통일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가 정파적 태도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

26] 강원택,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 참여』 (서울: 나남출판사, 2010), pp. 171~191.

27]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2.

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과연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만일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시각의 차이라면 이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은 극에서 극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 수준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대북 정책이나 통일 이슈는 정파적 개입이 완화된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두 정당 지지자로 국한한 것은 이 두 정당 이외의 지지자의 비율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탓이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이들인 만큼 정파적 정향이 강한 집단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²⁸

28]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응답의 분포를 보였다.

	n	%
새누리당	316	26.3
새정치민주연합	164	13.7
정의당	12	1.0
없다	708	59.0
합계	1,200	100.0

2. 정파적 태도와 통일

남북한의 통일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파적 태도에 따라 과연 다를까?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6-1>은 지지하는 정당별로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표 2-6-1> 지지 정당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통일의 필요성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합계
새누리당	25.3	33.9	21.8	14.2	4.7	100.0 (316)
새정치민주연합	26.2	31.7	20.1	15.2	6.7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1.18$ $p = 0.88$						

전반적으로 두 집단 간 응답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25.3%)'와 '약간 필요하다(33.9%)'를 합쳐 모두 59.2%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57.9%였다. 두 정당 지지자 간 차이는 불과 1.3%로 사실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18.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21.9%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률도 조금 높았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 역시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지 정당이 없다’와 다른 소정당 지지자를 모두 포함한 경우, 각 항목별 응답의 비율은 ‘매우 필요하다’ 21.6%, ‘약간 필요하다’ 30.4%, ‘그저 그렇다’ 24.5%, ‘별로 필요하지 않다’ 17.8%,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 5.8%로 나타났다. 주요 두 정당 지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비율은 54.9%로 오히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요 두 정파 지지자들 간에 입장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비정파적 태도를 가진 이들에 비해서 오히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표 2-6-2〉 지지 정당별 통일에 대한 견해

(단위:%)

통일에 대한 견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	서두르기보다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 함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 없다	합계
새누리당	14.9	61.1	15.2	8.9	100.0 (316)
새정치민주연합	19.5	59.8	15.2	5.5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1.18$ p=0.88					

〈표 2-6-1〉에서 나타난 특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6-2〉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

주연합 지지자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도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앞의 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적인 응답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서 19.5%로 나타나 14.9%인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명백히 통일지향적인 태도에 대한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61.1%로, 59.8%의 응답을 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항목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치는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76.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78.3%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의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느냐 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정파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면 통일의 의미나 이유는 두 집단 간 매우 상이할 것이다. 〈표 2-6-3〉, 〈표 2-6-4〉는 각각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이 한국 사회 전반과 응답자 개인에게 과연 이익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은 것이다.

〈표 2-6-3〉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새누리

29) 이는 아마도 세대의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29세 연령층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80.9%, 30대는 67.9%, 40대는 61.1%, 50대는 49.4% 60대 이상은 34.3%였다.

당 지지자들 중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두 집단의 응답 패턴은 놀랄 만큼 유사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정파적 지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지 정당에 없다고 응답한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패턴은 오히려 정당지지 집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한 이들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같은 민족이니까’ 40.5%,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을 위해’ 10.3%, ‘남북한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25.6%,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6.5%, ‘한국이 지금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6.7%, 기타 0.4%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정파적 입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지금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통일을 ‘수단적, 도구적’으로 보는 응답의 비율이 이들 비정파적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2-6-3〉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단위:%)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 가족 의 고통 해결 위해	남북간의 전쟁위협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 도록	한국이 지금 보다 선진국 이 되기 위해	기타	합계
새누리당	14.9	14.0	27.6	5.7	9.2	0.3	100.0 (316)
새정치 민주연합	46.3	12.2	23.2	5.5	12.2	0.6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4.71$ $p=0.58$							
전체집단	40.5	10.3	25.6	6.5	16.7	0.4	100.0 (1,200)

〈표 2-6-4〉에서 보듯이, 통일이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역시 흥미롭다. 이익이 될 것이라는 비율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60.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경우는 61.7%로 거의 차이가 없다. 여기서도 정파적 입장에 따른 통일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잠재적 이득에 대한 차이가 사실상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경우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표 2-6-3〉에서의 응답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6-4〉 통일이 사회와 개인에게 이익?

(단위:%)

통일이 남한/개인에게 이익?						
		매우 이익 이 될 것	다소 이익 이 될 것	별로 이익 이 안된다	전혀 이익이 안 된다	합계
남한에 대해	새누리당	14.6	46.2	31.0	8.2	100.0 (316)
	새정치 민주연합	18.9	42.7	33.5	4.9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3.49$ $p=0.32$					
개인에 대해	새누리당	5.1	27.5	48.1	19.3	100.0 (316)
	새정치 민주연합	4.9	20.7	58.5	15.9	1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4.97$ $p=0.17$					

한편, 통일이 개인에게 주게 될 이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두 정파 지지 집단 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모두 32.6%로 나타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가운데 긍정적 대답의 비율 25.6%보다는 7%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매우 강한 부정의 응답 역시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 19.3%로 높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가운데 이 항목의 응답 비율 15.9%보다 새누리당보다 3.4%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도 높지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부정의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두 집단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응답의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6-5〉 ‘통일대박론’에 대한 정파적 입장에 따른 태도

(단위:%)

	통일대박론					합계
	매우 공감	다소 공감	보통	별로 공감 않는다	전혀 공감 않는다	
새누리당	7.6	37.3	35.1	17.1	2.8	100.0 (316)
새정치 민주연합	7.9	28.0	40.9	18.3	4.9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5.05$ $p=0.28$

지금까지 본대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든 통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데 있어서 두 집단 간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파적 태도가 통일 인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정파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표 2-6-5〉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파적 지지 집단 간의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룬다. 그만큼 정파적 시각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론’ 역시 정파적인 시각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44.9%로 나타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35.9%로 나타났다. 역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한 호응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 비해서 9.0%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23.2%였는데, 이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응답률 19.9%와 3.3% 정도의 상대적 차이였다. 흥미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대체로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태도를 정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해도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의 정도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실제로 두 집단 간 응답의 패턴은 매우 비슷하며,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절박성, 통일이 필요한 이유, 통일에 대한 기대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간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었더라도 그것은 선호의 '강도'에 대한 차이일 뿐,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의 기본 방향이나 당위성, 기대감에 있어서 두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통일 이슈나 대북 정책을 두고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두 정당 간 갈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정파적 태도와 대북 정책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남북 통일'은 규범적인 속성을 그 속에 담고 있다. '마땅히 이뤄야 할 민족적 목표'라는 점에서 통일은 정파 간의 시각과 무관하게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앞에서 본 정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응답의 패턴은 통일 이슈가 갖는 그 같은 속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보다 갈등적인 대북 정책과 관련된 태도의 대해서 살펴보았다. 당위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안, 곧 대북 정

책에서는 정파적 지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정책은 정파 간 격렬한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6-6>에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북한의 개혁 개방,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모두 6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질문 항목도 존재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정당 지지층 간 매우 커다란 응답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도 95%의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개혁 개방', '군사적 긴장 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책 실현의 시급성이 대한 '강도(intensity)'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것이 두 집단 간의 본질적인 차이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응답 '강도'가 좀 더 높았다. 따라서 각 정책에 대한 지지의 '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두 정파적 지지 집단 간 통일 관련된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6-6〉 통일 위한 정책의 시급성

(단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카이제곱 검정
남북정상 회담 정례화	새누리당	15.8	54.4	26.9	2.8	$\chi^2 = 5.61$ p=0.13
	새정치 민주연합	23.2	54.3	19.5	3.0	
북한의 개혁과 개방	새누리당	37.3	42.7	16.5	3.5	$\chi^2 = 3.18$ p=0.36
	새정치 민주연합	36.6	48.2	14.0	1.2	
군사적 긴장 해소	새누리당	32.6	48.7	16.1	2.5	$\chi^2 = 7.50$ p=0.06
	새정치 민주연합	43.3	39.6	16.5	0.6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새누리당	5.1	15.2	42.5	37.1	$\chi^2 = 7.59$ p=0.06
	새정치 민주연합	4.3	23.2	45.7	26.8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	새누리당	25.3	51.9	21.2	1.6	$\chi^2 = 2.84$ p=0.42
	새정치 민주연합	32.3	45.7	20.7	1.2	
북한의 인권 개선	새누리당	32.6	49.1	15.8	2.5	$\chi^2 = 3.07$ p=0.38
	새정치 민주연합	37.2	45.7	16.5	0.6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응답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6-7〉에는 네 가지 대북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여기서의 질문 항목 역시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대립의 원천이 되기도 한 갈등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정파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사이에 다소 상이한 견해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역시 기대한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네 가지 대북 지원이나 협력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누리당 지지층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12.7%만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그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두 정당 지지층 간 비율의 차이가 거의 10%에 달했다.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56.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응답률은 59.8%로 나타나 그 차이는 3.8%였다.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22.0%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13.6%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역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64.5%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70.2%였다. 두 집단 간 차이는 5.7%였다.

다. 경제협력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가운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긍정의 응답은 24.4%로 나타나 새누리당 지지층의 11.7%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인 긍정의 응답 비율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70.7%, 새누리당은 64.9%로 5.8%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간 정기 회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긍정이 29.3%로 나타나 새누리당 지지층의 응답률 20.9%보다 거의 9%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새정치민주연합 75%, 새누리당은 71.2%로 3.8%의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본 다른 항목에 대한 응답의 패턴과 매우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그 차이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2-6-7>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두 정파의 지지층 간에 시각의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7> 대북 정책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단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이제곱 검정
대북 인도적 지원	새누리당	12.7	43.7	31.0	12.7	$\chi^2 = 8.05$ $p < 0.05$
	새정치 민주연합	22.6	37.2	29.3	11.0	
사회문화 교류	새누리당	13.6	50.9	26.6	8.9	$\chi^2 = 10.04$ $p < 0.05$
	새정치 민주연합	22.0	48.2	26.8	3.0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이제곱 검정
경제 협력	새누리당	11.7	53.2	26.6	8.5	$\chi^2 = 14.7$ $p < 0.01$
	새정치 민주연합	24.4	46.3	25.0	4.3	
남북 간 정기회담	새누리당	20.9	50.3	24.4	4.4	$\chi^2 = 5.79$ $p = 0.12$
	새정치 민주연합	29.3	45.7	23.2	1.8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둘러싼 두 정파의 지지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대북 교류 협력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역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정책 모두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동의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논란이 많은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64.5%,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64.9%, 그리고 남북한 간 정기회담은 7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들이 이러한 대북 협력이나 교류에 대해서 보다 강한 긍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파 지지층 간의 차이가 대북 정책의 근본적 ‘방향’이나 ‘정책 노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

한 찬반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6-8>에는 북한과 관련된 7가지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개성 공단의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핵과 대북 지원의 연계’, ‘대북 빼라 살포’, ‘북한 인권’, ‘한국 핵무장’, ‘5.24 조치’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사안이며, 그동안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상당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를 미루어 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정파별로 좀 더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한국의 핵 무장 항목’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정파적 지지의 태도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두 정치 집단 사이에 경향성의 ‘강도’의 차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의 53.4%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59.1%가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찬성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두 집단 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비슷한 시각이 확인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 태도가 발견된다. 북핵 문제와 대북 지원의 연계는 그동안 한국의 보수층에서 강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었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은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지지의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체로 유사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반대의 입장보다는 ‘그저 그렇다’는 입장 유보 혹은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핵과 대북 지원 연계의 이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찬성하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그에 맞서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갈등을 불러올 만한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북 교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는 5.24 조치 역시 정파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그 비율은 각각 28.5%와 32.5%로 두 집단 간 차이는 4%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21.1%, 새정치민주연합 14.1%로 7%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두 집단 간 응답의 패턴에 큰 차이가 없었고,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응답은 매우 흥미롭다. 7개 항목 중 유일하게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찬성 쪽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8% 정도 높게 나타났고, 반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핵무장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두 집단 모두 5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이 58.8%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그 비율은 50.5%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 무장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보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생각할 때, 동의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핵 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카이제곱 검정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두 집단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하자면, 한국 핵무장 이슈에서도 두 집단 간 유사한 태도가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표 2-6-7>의 결과는 우리 정치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격렬한 갈등을 불러온 사안들에 대해 사실은 정파적 지지의 입장이 그다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6-8> 구체적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의 태도

(단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카이 제곱 검정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8.5	44.9	26.6	16.5	3.5	$\chi^2 = 3.16$ p=0.53
	새정치민주연합	12.8	46.3	24.4	12.8	3.7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15.8	44.0	25.9	11.4	2.8	$\chi^2 = 2.96$ p=0.56
	새정치민주연합	18.3	46.3	25.6	6.7	3.0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카이 제곱 검정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18.0	32.3	31.3	16.1	2.2	$\chi^2 = 8.80$ p=0.07
	새정치민주연합	8.5	31.7	38.4	18.3	3.0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14.9	28.2	32.0	21.5	3.5	$\chi^2 = 5.03$ p=0.28
	새정치민주연합	18.3	27.4	31.7	15.9	6.7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23.4	42.4	26.6	6.3	1.3	$\chi^2 = 4.05$ p=0.40
	새정치민주연합	18.9	48.2	27.4	5.5	0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새누리당	25.6	33.2	27.5	9.5	4.1	$\chi^2 = 11.3$ p<0.05
	새정치민주연합	18.3	32.3	25.0	19.5	4.9	
5.24 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5.7	22.8	53.5	12.7	5.4	$\chi^2 = 7.35$ p=0.12
	새정치민주연합	5.5	27.0	53.4	13.5	0.6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각 정파의 지지층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에서도 과연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살펴 보았다. ‘최우선시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6-9>에서는 바람직한 대북 정책으로 '남북 교류 협력'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 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정파적 지지 집단별로 응답의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역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9>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

(단위: %)

최우선시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						
	남북교류 협력과 대북지원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 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합계
새누리당	18.0	31.6	16.8	22.2	11.4	100.0 (316)
새정치 민주연합	20.7	29.3	19.5	17.1	13.4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2.80$ $p=0.59$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 신장'이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31.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29.3%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선호 순서는, 큰 비율의 차이는 아니지만, 두 집단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두 번째부터 순

서대로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 > 적극적인 통일 정책과 통일 재원 준비 > 평화협정 체결의 순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이었고 그 다음이 '적극적인 통일 정책과 통일 재원 준비', 그 다음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마지막이 '평화협정 체결'이었다. 북한이 개방 개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만 그 다음의 선호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정당이 그동안 대북 정책에서 서로 강조해 오던 사안이며 이것이 지지층을 통해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다시 확인되는 중요한 점은 그러한 우선순위의 다름이 결코 본질적인 시각의 차이나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각 항목별 두 집단 간 의견의 차이는 불과 2~5%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차기 정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파적 지지의 입장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정파적 태도와 대북 정책 성과의 평가와 책임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정당에 대한 지지의 차이가 통일 이슈와 대북정책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정치에서 대북 정책이 정파적 갈등과 대립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이슈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일단 ‘정치적 평가나 책임의 추궁’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면, 정파적 색채는 그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그러한 정파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2-6-10〉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감

(단위:%)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만족감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새누리당	5.7	57.0	32.3	5.1	100.0 (316)
새정치민주연합	4.3	34.8	50.0	11.0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25.4$ $p < 0.00$

〈표 2-6-10〉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별로 분석한 것이다. ‘매우 만족한다’는 적극적인 동조의 비율은 두 정파 지지자들 모두에게서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62.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서 그 만족도는 39.1%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무려 23.6%에 달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는 매우 강한 불만의 응답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11.0%로 나타나, 새누리당 지지층 응답률 5.1%의 두 배에 달했다. 결국 대북 정책이나 통일 이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러한 이슈가 정당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되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평가나 책임으로 이어질 때는 정파성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11〉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단위:%)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매우 잘 하고있다	대체로 잘 하고있다	대체로 못하고있다	매우 잘못 하고있다	합계
새누리당	13.9	61.4	23.1	1.6	100.0 (316)
새정치민주연합	0.6	20.1	48.8	30.5	100.0 (164)

카이제곱검정 $\chi^2 = 160.4$ $p < 0.00$

정파적 지지에 따라 현실 정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6-11〉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

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파적 지지별로 나눠 분석한 것이다. 두 집단 간 평가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7%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응답의 비율은 79.3%에 달했으며, 이 중 '매우 잘 못한다'는 강한 부정의 응답은 30.5%나 되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7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당 지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대북정책이나 통일 이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두 정파적 집단 간 의견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정치적 평가나 판단의 문제 혹은 정치적 지지의 문제로 전환될 때는 매우 급격히 갈등의 원천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음을 <표 2-6-10>와 <표 2-6-11>의 결과는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6-12>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단위:%)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은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카이제곱 검정
북한	새누리당	51.3	37.3	8.9	2.5	0	$\chi^2 = 4.36$ p=0.36
	새정치 민주연합	53.0	34.8	9.1	1.8	1.2	
한국	새누리당	6.6	35.8	36.1	16.8	4.7	$\chi^2 = 16.46$ p<0.01
	새정치 민주연합	12.8	47.0	29.3	9.1	1.8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은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카이제곱 검정
미국	새누리당	12.3	33.5	36.7	14.9	2.5	$\chi^2 = 10.61$ p<0.05
	새정치 민주연합	21.3	29.3	39.0	7.9	2.4	
중국	새누리당	15.2	36.4	35.8	11.7	0.9	$\chi^2 = 1.42$ p=0.84
	새정치 민주연합	14.6	37.8	36.6	9.1	1.8	
일본	새누리당	6.6	27.2	47.8	16.1	2.2	$\chi^2 = 8.05$ p=0.09
	새정치 민주연합	11.0	26.2	42.1	14.6	6.1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국가별 '책임'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치적인 평가나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는 정파적 특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념적 특성이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파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표 2-6-12>에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각 국가의 책임 정도를 평가한 것을 정리했다. 이들 국가 중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는 국가는 이들 중 한국과 미국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이른바 '남남 갈등'은 대북 정책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또한 미국이 연관되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에 대한 평가는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표 2-6-12>의 결과는 대상이 되는 5개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 매우 상이한 입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는 정파적 입장

에 따라 매우 뚜렷이 갈리고 있다. 한국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6.6%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서는 두 배 가량인 12.8%에 달했다. ‘조금 크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한국에 책임을 묻은 비율은 42.4%였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59.8%에 달했다. 두 집단 간 비율의 차이는 17.4%였다. 이들 두 집단은 한국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한국의 책임이 별로 크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21.5%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 그 비율은 10.9%에 불과했다.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한 한국 측의 책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목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45.8%였는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그 비율은 50.6%였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책임 공방에 비해서 두 정파 지지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는 강한 비판적 태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응답 비율은 21.3%로 나타나, 새누리당 지지층의 비율 12.3%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게 묻는 태도에서도 정파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 관계 악화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북한의 경우에는 정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51.3%,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53.0%가 북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소하기

는 하지만 대북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강한 비판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금 크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88.6%,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87.8%가 남북 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대다수가 공감할 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이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정파적 시각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51.6%,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52.4%가 남북 관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이 정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정당 지지자들 모두 ‘중간’이라는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일본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과 ‘거의 없다’는 응답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높은 점은 흥미롭다. <표 2-6-12>의 결과는 앞의 <표 2-6-10>에서 본 결과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이슈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정책이나 이슈가 현실 정치에 대한 평가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때는 정파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에 대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통일 이슈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에서 드러난 대로, 실제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감, 대북 정책의 방향이나 심지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두 정당 지지자간의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두 정당 간 시각의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한 정파적, 이념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까지도 50% 이상의 높은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물론 두 정치 집단 사이에 대북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각의 차이는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경향성 속에서 선호의 '강도'의 차이일 뿐 그것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수준의 본질적인 이견과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남남 갈등'은 지지층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세계관, 가치,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대북 정책이나 통일 이슈는 그 자체로서는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갈등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슈가 정치권과 연계되면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것과 같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이슈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앞의 논의에서 본 대로, 근본적인 정책적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두 집단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 정책에 대한 평가, 상황 악화의 책임 등의 이슈가 불거질 때면 어김없이 정파적 입장에 따른 시각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혹은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기보다는, 정치권은 정치적 동원에 의해 이뤄진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이를 '중북', '보수 골통' 등의 이념적 용어로 치환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당의 이념적 공세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소수의 급진 과격파'가 전반적인 정치적 담론을 이끌어 가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통일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북 정책은 이와 같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과제이다. '북한 카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동원하려는 유혹에서 정치권이 벗어나서 대북 정책이 탈정파적인 속성을 유지할 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다문화 시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1. 서론

북한을 떠나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³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명명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뒤, 중국과 동남아를 수년간 떠돌면서 기아와 인권 유린 등 힘든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생계유지나 취업 등 경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3%, 경제활동 참가율은

30]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 (2015. 6월 잠정집계 28,133명).

56.6%이다(2014년 기준).³¹

탈북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는데, 큰 흐름을 본다면 우선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그리고 탈북 이후 이들의 삶의 과정과 인권침해 경험, 정착 생활의 어려움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수용성에 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에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문항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적인 태도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2007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다문화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통일과 사회통합의 비전에 관해 몇 가지 논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매우 복잡적이다. 과도한 단순화를 무릅쓰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시선 즉, 이들을 국민, 이주민, 또는 동포로 인지하는 시선들이 서로 겹치거나 혹

31] 탈북자의 생계급여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연도별 추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통일부 자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구분	'07	'08	'08	'10	'11	'12	'13	'14
생계급여수급률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경제활동참가율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은 엇갈리면서 교차하고 있다. 첫째, 북한 출신의 주민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해 왔고 또한 민족적 염원인 통일 국가의 주민이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탈북자는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엄연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 출신의 남한 주민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다소 예외적인 위치는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에 긍정과 부정의 양 방향으로 작용한다. 70년 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 출신이므로 특별한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양쪽 사회를 모두 경험한 중간적 집단으로서 이질화를 완화하고 앞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둘째,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온 후 경제체제나 문화가 상이한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은 이주민 혹은 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대면하는 유형무형의 편견, 차별,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 등에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고, 정부차원의 외국인 정책,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 가운데 적어도 수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은 소수자 집단이다.

세 번째로, 탈북자는 같은 민족이자 동포의 일원이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인식은 탈북자를 포용하는 우호적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동포의 문제를 다루는 최근의 연구들은 민족 내부에 새로운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전지구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동포’라는 포괄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주

시기나 거주 지역에 달리 인식되고 있으며 일종의 동심원적 위계³²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중국거주 조선족, 옛 소련 지역 거주 고려인, 일본 거주 재일 동포, 그리고 미주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같은 동포로서 포용되기보다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의 한민족과 한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와 더불어 한민족 내부의 차이를 이전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남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³³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 글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먼저 2007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 탈북자 지원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령 연령이나 교육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한다. 두 번째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 등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로 전이되어 이들을 경원시키는 부정적 시각으로 표출되는지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

32] Chulwoo Lee, 2012,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 (1), pp.85-102.

33]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강원택 편, 동아시아연구원.

한다. 탈북자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간의 분단으로 남북한 사회가 상당히 이질화된 상황에서 이들은 한국에서 뜻밖의 문화적 충격이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외국인과 이주민을 포용하는 태도, 즉 다문화 수용성은 또한 탈북자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일차적으로 탈북자의 삶의 현실과 정책 필요성 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사회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2. 탈북자에 대한 태도 : 친근감, 사회적 거리와 정책 지지도

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것이다. 2015년 조사결과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낀다는 긍정적 응답은 45.6%, 친근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54.4%로 나타났다. 아직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를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 9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변동의 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친근감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탈북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36.1%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0% 중반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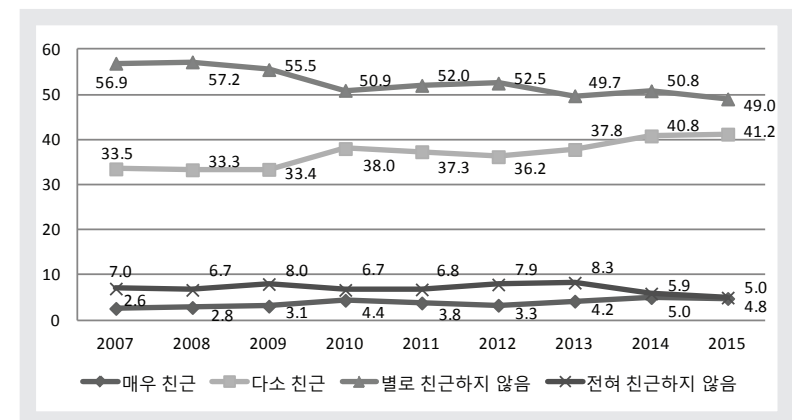
것이다.〈그림 2-7-1〉

연도별 변화 추이를 척도의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표 2-7-2〉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난다. 느리긴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4점 척도에서 2.45(2015년)의 평균점수는 긍정보다는 약한 부정에 가까우며,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친근감보다는 거리감을 다소 많이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연령별 태도의 차이다. 19~29세 젊은 연령층에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근감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표 2-7-2〉 기존 연구들을 보면 20대 청년층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확인되었다.

〈그림 2-7-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시계열 변화 (2007-2015)

(단위:%)



〈표 2-7-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평균값* (2007-2015)

연도	평균	N	표준편차
2007	2.32	1197	.63942
2008	2.32	1213	.63905
2009	2.32	1196	.66229
2010	2.40	1200	.67999
2011	2.38	1198	.67083
2012	2.35	1199	.67298
2013	2.38	1200	.69685
2014	2.40	1199	.64023
2015	2.46	1199	.66789
전체	2.37	10801	.66482

(단위:%)

* 4점 척도 : 1점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4점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표 2-7-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2015)

연령대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19-29세	2.3559	227	.67979
30-39세	2.3844	237	.69778
40-49세	2.4843	275	.61086
50-59세	2.5279	254	.67212
60세 이상	2.5350	206	.67053
전체 (F=3.562**)	2.4582	1199	.66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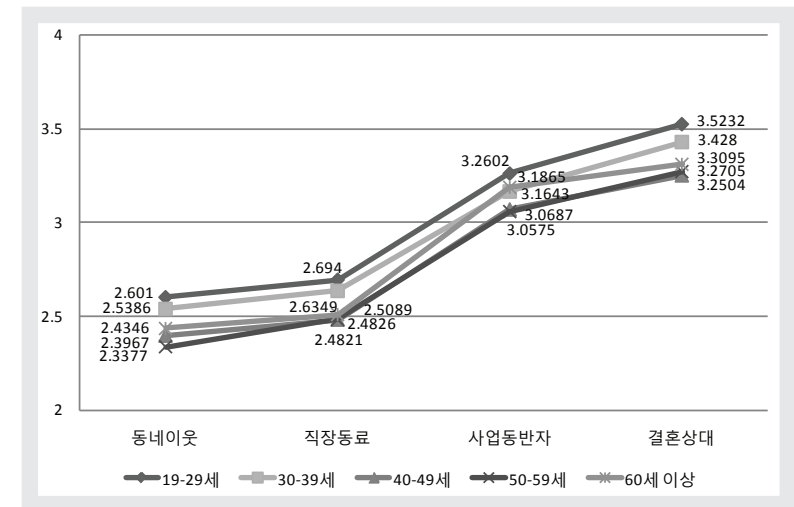
(※ p<.001: ***, p<0.01: **, p<0.05: *)

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회학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상이한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회적 거리 측정에 많이 쓰이는 보가더스 척도를 약간 변형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즉, 탈북자를 결혼상대(가족), 사업동반자, 직장동료,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혹은 꺼리는지 여부를 각각 5점 척도로 물었다.³⁴

〈그림 2-7-2〉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 5점 척도 : 5점 "매우 꺼림")

(단위:N)



34] 1점은 "전혀 꺼리지 않음", 5점은 "매우 꺼림"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원래 문항을 리코드하여 통일함). 보가더스 척도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와는 측정 방식이 다르지만,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꺼림의 정도가 크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북자를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2.46점으로, ‘반반이다’와 ‘별로 꺼리지 않는다’의 사이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며,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갈수록 꺼리는 태도는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올수록, 즉 이웃-동료-사업동반자-결혼상대로 오면서 순차적으로 더 많은 거리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상대’로 탈북자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가 혹은 꺼리는가 여부는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 ‘결혼 상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3.35 수준, 즉 ‘반반이다(중립)’에서 ‘다소 꺼림(약한 부정)’ 사이에 있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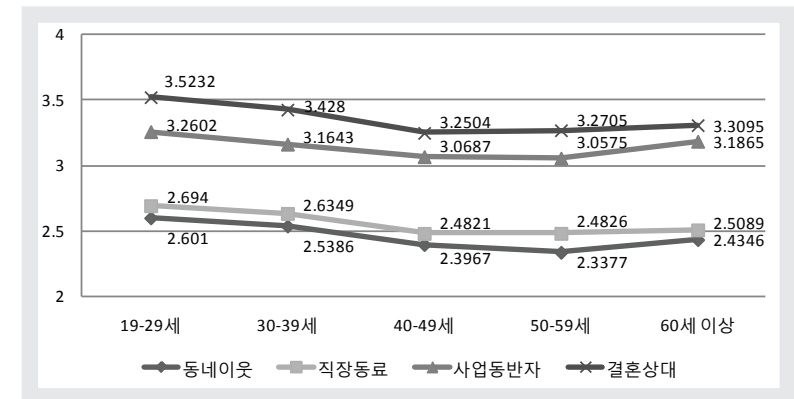
〈표 2-7-3〉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단위: N)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
19-29세	2.601	2.694	3.2602	3.5232
30-39세	2.5386	2.6349	3.1643	3.428
40-49세	2.3967	2.4821	3.0687	3.2504
50-59세	2.3377	2.4826	3.0575	3.2705
60세 이상	2.4346	2.5089	3.1865	3.3095
전체	2.4575 (F=2.765*)	2.5572	3.1418	3.3516 (F=2.427*)

〈그림 2-7-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합) - 연령별 (2015)

(단위: N)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표 2-7-3〉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거리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젊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탈북자를 결혼상대로, 또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뚜렷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대 응답자가 탈북자를 결혼상대 뿐 아니라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다른 연령층보다 거부감을 보이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 계층적 지위가 곧 거주 지역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이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입시 경쟁과 학군에 따른 이익 등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 격차를 민감하게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를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전체 4가지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더하여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9세 이하의 젊은 층

의 부정적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은 3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으며, 40대와 50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3)

3) 탈북자 수용 및 정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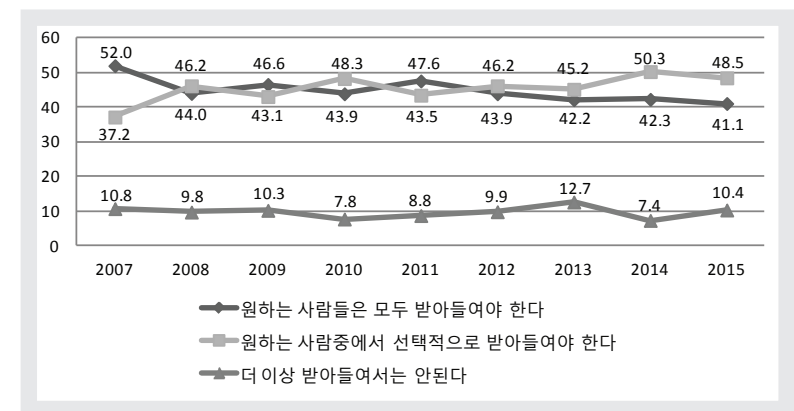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용,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탈북자를 한국사회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2007년 조사를 보면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2.0%)였다. 그런데 2015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41.1%로, 9년 사이에 11%p 감소하였다. 탈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면적인 수용 여론이 다소 약화된 반면, 탈북자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비슷한 폭으로(37.2%→48.5%) 늘어났다. 탈북자를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의견은 10% 내외로 나타난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2007년에는 59.1%가 동의하였지만 2015년에는 50.5%로 동의하는 의견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탈북자의 전면적 수용에 대한 지지가 축소되면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비슷한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40%~50%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한국으로 오려는 북한 주민을 수용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지난 9년의 흐름에서 탈북자 수용 및 정부 지원을 바라보는 응답자들의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이 대략 반반으로 나누어진 구도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50 대 50으로 의견이 반분되는 현상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여론의 분열로 정책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난 9년간 흐름에서 탈북자 지원에 적극 찬성하거나 혹은 적극 반대하는 응답이 일정한 비율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엿보인다(그림 2-7-5). 향후 대북 관계 악화나 긴장 상황,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대 등과 맞물리게 되면 탈북자 관련 정책에서도 여론이 양분되어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탈북자를 우리 사회의 소수자 중 한 집단으로 포용하는 사회통합의 전망에서 이러한 대립구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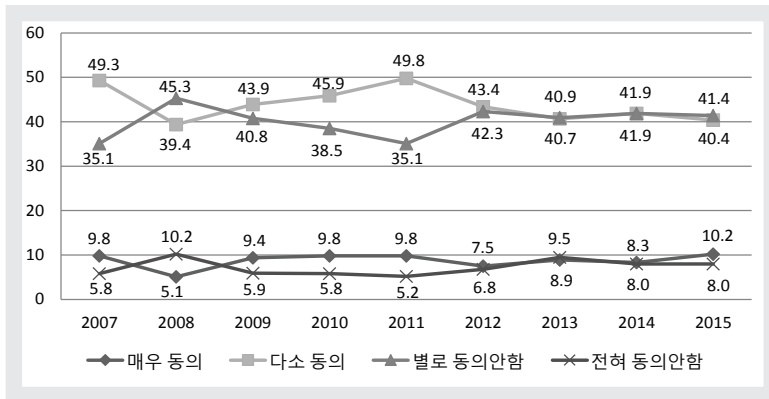
〈그림 2-7-4〉 한국으로의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5)

(단위:%)



〈그림 2-7-5〉 탈북자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의견 (2007-2015)

(단위: %)



3.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나 거리감은 어떤 요인에 의해 더 멀어지거나 혹은 더 가까워지게 될까? 탈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 매체나 언론에서 그려지는 이미지, 그리고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지적 프레임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접촉 경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방문 경험, 탈북자와 만남, 그리고 북한 문화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확연히 높았다. 하지만 북한방문 응답자의 수가 45명에 불과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탈북자와 만

난 적이 있는 사람, 북한문화를 접촉해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탈북자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과 한국 주민 간의 접촉면이 더 넓어진다면 서로간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탈북자와 만나본 사람은 응답자 중에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접촉 경험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촉면의 확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표 2-7-4〉 접촉 변인과 탈북자 친근감의 차이 (2015)

(단위: N)

접촉 변인		N	평균값	유의도
북한 방문, 관광	있다	45	2.7506	t=3.002**
	없다	1154	2.4468	
탈북자 만남	있다	221	2.5546	t=2.381*
	없다	978	2.4364	
북한문화 접촉	있다	278	2.5282	t=1.997*
	없다	921	2.437	

북한에 대한 태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탈북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을 우리가 도와줄 지원 대상 또는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북한을 선의의 경쟁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 또한 탈북자를 친근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북한을 경계

대상, 혹은 적대 집단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탈북자와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는 북한 출신의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이되어 일정하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표 2-7-5〉

〈표 2-7-5〉 대북인식에 따른 탈북자 친근감의 차이 (2015)

(단위: N)

대북인식	평균	N	표준편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559	208	0.60416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2.5416	422	0.69982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	2.5511	95	0.63378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2.2958	276	0.66636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	2.3564	198	0.62754
전체 (F=8.740***)	2.4582	1199	0.66789

이러한 태도의 시계열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통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태도의 추이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대비하여 같이 살펴보았다(그림 2-7-6).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난다. 먼저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이는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들에 의해 여론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올라갔지만 201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통일

이 나의 개인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대는 2007년 조사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다소 낮아졌다가 2014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완만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때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갑자기 악화되는 식의 동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통일에 대한 기대가 늘어날 때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도 상승하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점도 주목된다.

〈표 2-7-6〉 탈북자 친근감과 관련 항목의 시계열 추이 (2007-20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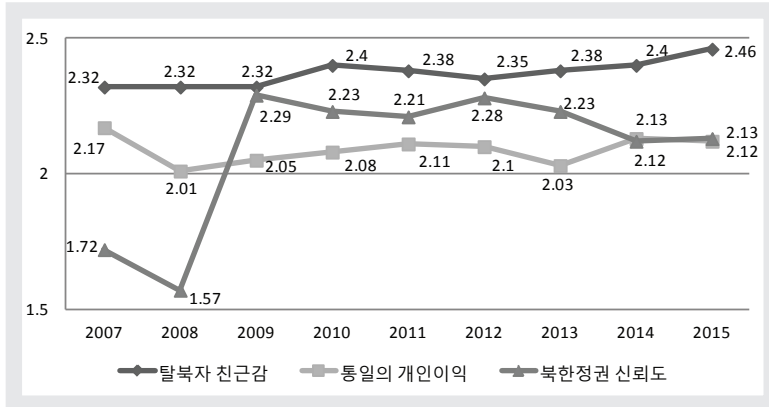
(단위: N)

연도	탈북자 친근감	통일의 개인이익	북한정권 신뢰도
2007	2.32	2.17	1.72
2008	2.32	2.01	1.57
2009	2.32	2.05	2.29
2010	2.40	2.08	2.23
2011	2.38	2.11	2.21
2012	2.35	2.10	2.28
2013	2.38	2.03	2.23
2014	2.40	2.13	2.12
2015	2.46	2.12	2.13

* 4점 척도 : 수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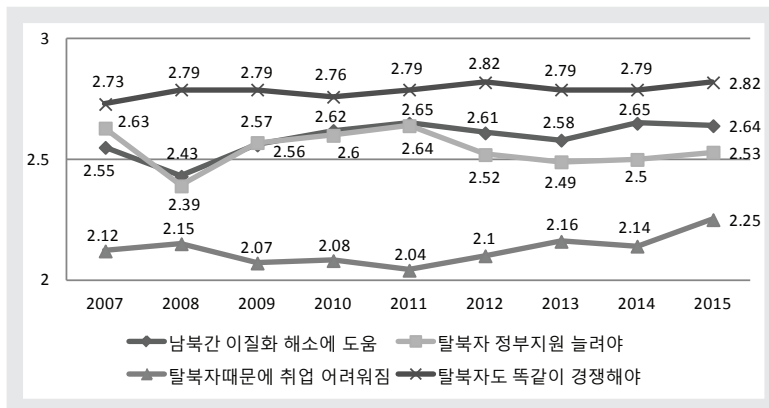
〈그림 2-7-6〉 탈북자 친근감과 관련 항목의 시계열 추이 (2007-2015) (4점 척도)

(단위: N)



〈그림 2-7-7〉 탈북자 지원 등에 대한 응답 (평균값)

(단위: N)



*4점 척도: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함"

또한 탈북자의 한국 생활이나 이들을 위한 정부지원, 탈북자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이 지난 9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탈북자가 늘어나면 남한 사람들의 취업에 위협이 된다는 데에 동조하는 여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출신 동포에 대한 경계심, 즉 이주자가 늘어나면 이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부정적 태도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탈북자는 아직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부각될 만큼 수가 많지 않고, 또 이들의 취업 문제가 미디어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 지원 정책에는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 북한출신의 탈북자들이 남북 간 이질화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지난 9년간 여론의 흐름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의 윤곽을 읽을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적고 남북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를 더 친근하게 생각한다. 또한 탈북자 지원정책과 예산 부담을 꺼리는 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탈북자들이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일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4.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인식

이번 조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종·종교·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지(다문화 공존),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는지(다민족 국가) 여부를 질문하였다. 탈북자는

같은 민족이자 국민인 동시에 새로운 공간에서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차이를 포용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해 수용적이고 인권과 시민권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도 있다.³⁵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다문화 공존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2014년에 비해 뚜렷하게 늘어났지만 2013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화다양성을 하나의 가치로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확산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반감이 표출되는 예도 적지 않다.³⁶ 이러한 경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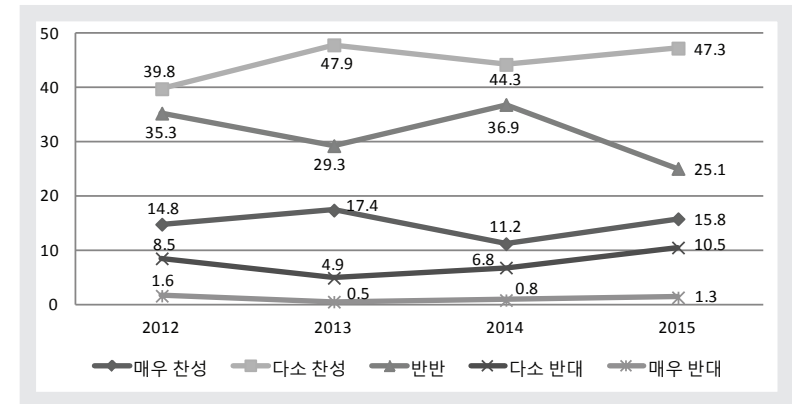
다양한 민족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이 훼손된다는 의견(다민족 국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민족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다른 한편 적극적인 반대 의견(4.3%→8.6%)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35] 손애리 · 이내영, 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36] 한건수, 2015,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윤인진 · 황정미 엮음,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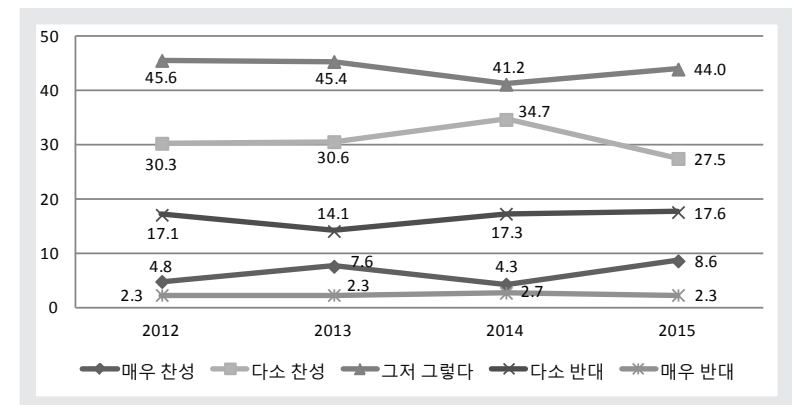
〈그림 2-7-8〉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다문화공존)

(단위:%)



〈그림 2-7-9〉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다민족 국가)

(단위:%)



다문화 수용성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척도점수(5점 척도)를 기준으로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2-7-7>.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층의 다문화 공존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런데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도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다문화 공존에 대한 지지에서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역권별로는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다문화공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7> 다문화 수용성의 집단별 비교 (2015)

(단위: N)

	구분 다문화 공존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연령	19-29세	3.7589	2.77
	30-39세	3.6404	2.72
	40-49세	3.6661	2.84
	50-59세	3.6595	2.79
	60세 이상	3.5536	2.76
교육수준 (F=8.753***)	중졸이하 (n=122)	3.4275	2.77
	고졸(492)	3.5957	2.75
	대재 이상 (584)	3.7585	2.8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7)	3.6082	2.79
	200-299만원 미만 (203)	3.7326	2.86
	300-399만원 미만 (366)	3.6742	2.79
	400만원 이상 (512)	3.6278	2.73

	구분 다문화 공존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광역권	수도권 (600)	3.6915	2.61
	중부권 (122)	3.663	2.82
	호남권 (118)	4.0095	2.90
	영남권 (310)	3.4196	3.00
	강원 (36)	3.7164	3.05
	제주 (14)	4.3407	2.62
전체	(n=1199)	3.6578	2.78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의미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즉 타문화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까? <표 2-7-8>을 보면 긍정적인 연관성이 나타난다. 즉,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다문화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문화 공존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민족 국가에 대한 지지도도 탈북자를 수용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탈북자를 모두 수용하는데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다민족 국가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민족 국가 수용도는 탈북자의 수용 중단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선택적 수용을 주장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일관된 상관관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즉,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국내로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문화 수용성에 비해 다민족 국가에 대한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아울러 다소 이질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2-7-8〉 탈북자 수용 - 다문화 공존에 대한 지지도 (2015)

(단위: N)

탈북자 수용정책	다문화 공존 (평균)	다민족 국가 (평균)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3.7684	2.91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3.629	2.67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357	2.75
F value	10.907***	9.777***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태도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표 2-7-9〉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문화 공존을 수용하는 태도는 탈북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태도와 연결되며(정의 상관관계), 또한 네 가지 항목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모두 좁혀주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협력 대상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통일의 전망 등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또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중시하는 다문화 수용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외국인, 인종·민족적 차이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이 커진다면 탈북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를 국민이자 동포로, 더 나아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이주민이자 소수자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2-7-9〉 다문화공존 - 탈북자 친근감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상관관계 분석

(단위: N)

	다문화 공존	탈북자 친근감	사회적 거리 -동네이웃	사회적 거리 -직장동료	사회적 거리 -사업동반자	사회적 거리 -결혼상대
다문화 공존	1	.080**	-.057*	-.077**	-.119**	-.130**
탈북자 친근감		1	-.240**	-.237**	-.334**	-.323**
사회적 거리 -동네이웃			1	.773**	.477**	.389**
사회적 거리 -직장동료				1	.578**	.492**
사회적 거리 -사업동반자					1	.671**
사회적 거리 -결혼상대						1

5. 소결

이 장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태도가 북한에 대한 인식, 다문화수용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에서 젊은 층,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

층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다. 이는 청년층의 통일관이나 대북관, 그리고 다른 사회적 가치관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층이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사고하며 탈북자에게도 친근감을 덜 느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이는 한마디로 지난 70년간 누적된 분단의 효과가 젊은 세대의 태도를 통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세대인 청년들은 분단 상황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령집단별 차이가 더 큰 의미의 세대 차이인지, 그리고 다른 사회경제적 의식이나 정치적 성향, 혹은 독특한 세대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 9년간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친근감은 우호적 태도보다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태도가 더 완전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도 나타난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크고 작은 무력충돌 및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악화되거나 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북한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탈북자를 바라보는 태도와 일정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9년간 탈북자의 급증, 북한관련 사건들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도가 악화되거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셋째, 그러나 전반적으로 탈북자의 남한 수용, 정책 지원에 대한 지지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주민의 증가가 노동시

장이나 경제적 기회 등에서 한국인(선주민)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구체화되고 이른바 ‘반(反)다문화’ 정서가 확대되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탈북자의 수용 및 정책 지원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잠재적 위협과 정책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부정적 태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지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연결되는 사회통합의 비전에 관해서도 중요한 논점을 함축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통일된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일반적으로 발전과 번영에의 열망, 통일을 통해 더 잘사는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발전의 잠재적 수혜층인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번 분석에서는 젊은 세대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낮고 거리감도 더 멀게 느낀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젊은 층의 거리감은 아마도 미래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잠재적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거리감이 더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장의 분석에서는 젊은층과 고학력 응답자가 다문화 공존 및 다문화 수용성은 더 높으며,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은 다문화 가치를 지지할수록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양성의 공존, 차이의 인정과 같은 가치들, 즉 경제 발전이나 물질적 번영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문화 수용성이 탈북자를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은 단지 발전과 번영

을 강조하는 경제 통합 뿐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있는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을 오래된 민족의 숙원, 즉 소중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가치로 표상하기 보다는, 지구화와 이주의 시대에 역동적으로 제기되는 차이와 다양성들을 포용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의 가치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자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결 장

IPUS

결장

2015년 조사에 나타난 의식과 태도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 동북아 국제환경에 대한 생각은 단일하지 않고 세대 간, 계층 간 견해차이가 작지 않다. 또한 북한정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대화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적으로 공존한다. 통일이 조만간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미래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통일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집단적 통일의지의 약화, 대북정책에서의 국론분열, 남남갈등의 심화가 우려될 정도다. 하지만 수 년간에 걸친 조사와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결론은 국민의 식의 복합성과 다원성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것은 민주화되고 세계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창의적 혁신역량의 기본자산이다.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

적인 이견을 종합하고 아우르는 전략구상능력, 국가적 소프트파워를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에 드는 자료만 부각시키는 아전 인수격 해석,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강조하는 이념논란, 냉전형 발전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습 부족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 미래구상, 평화와 통일의 창의적 실현을 위한 종합역량을 얼마나 구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런 복합성이 자산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

2015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지난 수년 간 발견되던 특징들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도 확인되었다. 한 해 동안 겪은 한반도의 여러 사건과 위기, 대립과 대화의 경험들이 가까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낭패감,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는 예측불가능한 행태에 대한 거부감 등도 누적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도 분명하다.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긴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도 집합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 기대들, 원망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 시기 국민들의 집합적 의식의 흐름, 마음의 행로, 태도의 변화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중국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 이런 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2015년 통일의식 조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의식의 기본패턴은 지속

지난 수년 간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과반 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0~3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형 과제로 파악하는 신중한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을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강하고 안보와 관련된 불안의식이 꽤 높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종종 사안에 따라 실용적이고 양면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고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문화적 개방성과 민주적인 감수성으로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계층적 지위가 높은 중상층에서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계층적 분화 현상도 주목되었다.

2015년도 조사결과도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첫째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 20.6%, ‘약간 필요하다’ 30.4%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51.0%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필요 없다’ 또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해오던 경향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도 단기間に 가능하거나 임박한 과제로 인식

하는 비율은 높지 않고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중장기적 과제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통일대박론을 앞세워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일논의를 광범위하게 주도했고 그로 인해 통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2015년도 국민들의 통일전망심리는 다시 신중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5.3%로부터 35.2%로 10.1% p 급락했다. 반면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9%에서 16.5%로 2.6% p 상승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대북한 적대의식을 피력한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지 수년이 흘렀고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진전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이 61.7%로 나타나 답답한 북한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44.3%→38.2%로 6.1% p 줄어든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응답은 55.7%→61.7%로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 차원을 넘어서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북한의 장성택이나 현영철의 처형소식, 핵실험에서 나타나는 군사주의적 태도, 강경한 대남, 대미 비난에서 보이는 극단적 표현 등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71.3%로 ‘가능하다’(28.7%)

는 응답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40.9%) 이래 줄곧 하락하는 추세이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7.5%, 28.7%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이래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출발 당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2012년 34.3%에서 2013년 57.6%로 급등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2015년에는 지지수준이 50.4%로 낮아졌다.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온 정책효과에 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부정적 행태로 인한 반사이익과 함께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효과에 주로 의존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긴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응답이 60% 수준이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 역시 61.3%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에 실망하고 북한정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북강경정책이나 긴장조성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지지를 이념적인 보수/진보, 친북/반북의 틀로 이분화하고 양자택일식 정책구상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집합의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로 세대별 편차가 2015년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이 중장년 세대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유

념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20대의 응답비율이 2014년에는 43.1%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30.7%로 12.4% p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지난해 50.3%에서 올해 36.2%로 1년 사이에 14.1% p가 감소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별 차이는 두드러지는데 60대(27.6%)가 가장 부정적이고 그다음으로 30대(31.6%), 20대(36.9%), 40대(39.0%)와 50대(39.0%)의 순으로 나타난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인식에서는 20대(19.7%)가 가장 높고, 30대(16.8%), 60대(16.7%), 40대(15.7%), 50대(14.2%)의 순이다. 특히 30대의 인식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올해는 20대보다 30대가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앉았다. 이런 인식변화는 젊은 세대가 노년세대와 같이 보수화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들이 원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와 정향이 달라진 탓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중추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 대북인식만 주목하지 않고 젊은 세대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 태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2014년도 조사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발견된다는 점이 2015년에도 확인되었다. 종전까지는 계층적 지위가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중상층일수록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견해들이 많았다. 386세대를 구성하는 현재의 40대와 50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크게 누린 세대이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2014년 이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층일수록 북한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북한 문제에 대해 보

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중도층의 보수화로 설명한 바 있는데 최근 중산층의 위기감과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상층이 사회의 각 영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수화에서 발견되는 신중함을 평화통일의 동력과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혜가 요구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동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래발전전략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통일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일 것이다.

여섯째로 급변하는 동북아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 및 안보불안 수준과 미국을 중시하는 태도는 서로 비례적으로 맞물려 변화하는데 2015년에도 이런 연동현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지지하면서도 정치·군사적인 신뢰수준은 높지 못하다. 앞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중국과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낮은 신뢰감도 여전하고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낮은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종합해보면 주변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어서 자칫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복합적 외교역량을 약화시키는 여론을 강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다원적인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국제 감각을 좀 더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개방도와

포용도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아주 나쁘지는 않다. 젊은 세대일수록 다문화 상황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확인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이에 바탕을 둔 증오문화, 극우세력의 등장도 나타나고 있는 터여서 한국사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정서적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서 보이는 다원적인 지향성을 어떻게 사회통합의 역량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평화와 통일의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를 더욱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당위적으로 보기보다 다양한 가치들과 연관하여 이해하며 어떤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통일이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동반해야 하는 사회변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문화적 다원화를 통일지향적인 흐름과 연결시킬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통일의식의 새로운 흐름

2015년 조사에서는 이전까지의 경향이 양적 차원에서 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질적인 변화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 물론 이 새로움은 어떤 혁명적 전환에 따른 급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누적적 변화의 결과다. 짧게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경험, 길게는 반세기에 걸친 탈냉전기의 경험과 70년이 흐른 분단구조의 무게가 반영되어 나타난 집합의식의 전환이라 하겠다. 가장 주목해서 살펴볼 점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또

일관되게 부정적 방향으로 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언급한 비율은 57.6%였고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9%여서 79.5%에 해당하는 국민이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2015년에 그 응답비율은 각기 35.2%와 17.3%로 감소하였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시기에 5.3%에서 16.5%로 증가했고 경계대상이라는 대답도 11.3%에서 23.1%로 높아졌다. 부정적인 대북인식의 비율이 16%대에서 4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정책을 둘러싼 태도로 설명하기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태도와 정서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분단을 극복되어야 할 비정상적 상태로 사고하는 바탕에는 단일민족논리와 오랜 민족 감정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남북한을 막론하고 역사와 문화, 혈통을 함께 하고 20세기 전반까지 장구한 정치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한 한민족으로서의 자의식이 매우 강하다. 지금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문서도 민족논리를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혈통적이고 역사적인 단일민족논리가 이제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 70년의 시간 동안 남북한의 생활경험이 크게 달라진 현실이 반영된 탓이기도 하고 남북한이 생각하는 민족의 중요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내세운 이념적 민족론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은 세계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다문화적 공존과 탈민

족적 포용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유하는 전통적 민족 감정이 약화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경향이 커지는 것은 민족 감정을 앞세운 통일지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고 적대감을 피력하는 시각 속에도 북한이 남한과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같은 민족에 속한다는 사실보다도 정치·군사적으로 상이한 대상임을 강조하는 눈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분단국가로서의 자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분단 상태를 안타까운 현실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민족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독자적 정치체제의 양립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남한사회의 일상에서 북한변수가 갖는 절대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독자적인 경제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작스러운 통일보다는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의견의 바탕에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범주를 대한민국, 즉 남한에 한정하는 시각이 깔려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정치제도, 경제현실,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가치와 규범, 생활방식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통일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한반도를 단순한 분단 상태가 아니라 두 분단 국가의 병립상황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7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도 북한을 남한과 별개의 체제, 상이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70년간 남북한에 독자적인 정치 체제가 병립해

온 탓에 북한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감과 자의식, 역사인식이 생성된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이전과는 매우 다른 감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해방과 전쟁, 냉전과 탈냉전의 아픔을 기억하는 노년 세대를 대체하고 있고 그 세대변화가 반영되는 것이다. 2015년에 와서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이나 ‘전쟁방지’를 통일의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통일과 관련한 인지부조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단 70년 동안 당위적으로 수용해 온 민족주의적 현실인식 및 탈냉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낙관론을 한편으로 하고 평화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없는 정전체제 하에서의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대립이 상존하는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인식상의 긴장에서 기인한다. 한반도에는 냉전 상황, 탈냉전 문화, 신냉전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민족주의적 정서를 어느 정도 보존할 것인지, 국가주도의 체제논리를 얼마나 지지할 것인지 지속적인 긴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지부조화는 부분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차원으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을 내포한다. 따라서 흔히 말해지는 남남갈등의 시각에서 이해되거나 해소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지향하는 후기 근대적 가치와 지구화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오랜 한반도의 역사성, 문화적 정체감과 부딪치는 긴장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당위적 평가와 현실적 판단이 만성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한반도 패러독스’가 점차 고착화, 만성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정의된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통일의식의 종합적 평가

‘통일의식’이란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정서, 통일을 지향하는 태도, 주변여건에 대한 평가, 미래공동체에 대한 희망 등이 모두 포함된 집합의식이다. 단순히 통일에 대한 지지나 반대, 적극성과 소극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의식구조를 지닌다. 2015년 조사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난 특징이지만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태도와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 상호모순적인 다면성이 뚜렷하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변화를 이해하는 정도, 남북관계의 성격과 전망, 통일에 대한 태도 등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응답을 나타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2015 통일의식조사 학술행사(2015.9.11,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국민의 통일인식이 이처럼 혼란스러움을 확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었다. 또 다른 논평자는 국민들의 잘못된 태도, 이기적인 욕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시각의 한계를 깨우치고 새로운 공동체적 과제와 소명, 희망을 계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평을 별도로 하더라도 다양성과 다면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이나 공동체의 장래를 책임질 집합의지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과연 2015년 조사에서 보이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통일의식의 혼란인가, 퇴행인가, 분화인가 아니면 발전인가?

먼저 ‘혼란론’을 검토해보자. 다양하고 상충되는 태도들이 공존하는 인식상태를 혼란으로 간주하는 시각의 바탕에는 적어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감대, 일치된 지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는 전제가 있다. 분단을 결코 수용하지 않으며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가치로 인정하는 민족주의적 정서도 그 바탕에 존재한다. 이런 태도는 어려운 국면일수록 ‘국민통합’이나 ‘일사불란한 국론’을 기대하는 목소리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일제하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회구했던 민족적 열망이나 전근대적 가난으로부터 근대적 부를 창출하고자 했던 전국민적 열망을 그런 통합된 목소리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확인되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이 종잡기 어려운 혼란, 무질서, 자기중심적 태도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70년을 지내온 분단국 질서 속에서 통일을 둘러싼 국민의 의식이 일관되고 통합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약하다. 지구화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이 보다 높은 차원의 통합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숙제다. 다양성 자체를 통합부재 또는 혼란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응이라 할 것이다.

‘퇴행’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관심과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민족주의적인 정서나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분단극복을 민족사적 소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작금의 현실은 개탄스러운 퇴행으로 비쳐질 수 있다. 동족인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은 실제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족적 분열을 지속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

도 민족주의자의 눈에는 퇴행으로 비쳐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민족주의의 시대는 지나고 있고 한반도의 현실도 민족이라는 범주, 민족적이라는 가치만으로 재단될 수 없는 상태다. 자유와 행복, 창의와 개성, 다원성과 소통 등 수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가 출현하는 것을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퇴행 또는 후퇴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통일의식을 ‘발전’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 혼란이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 인식이 싹트고 성장하면서 21세기형 미래를 감당할 집합의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젊은 세대의 감각과 태도가 한반도의 앞날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형태여서 이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괜찮을 것인가? 부분적으로는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민주적인 태도가 뚜렷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역량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탓에 세계화의 경향과 남북한의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갈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통일을 당위적인 것,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던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정책이자 실천적 과제로 사고하기 시작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념적인 논쟁, 감정적 비난, 지역주의적 편향, 정파적인 편 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무시한 채 발전이란 말로 포장하는 것은 결코 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발전의 싹을 지니고 있고 미래지향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

게 시대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소멸되고 작은 이해관심에 좌우되는 부정적 요소 또한 뚜렷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가치평가를 유보한 채 현상적으로 통일의식이 ‘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 모르겠다. 세대별로 분화하고 계층별로 분화하며 사안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인식과 통일지향이 분화하고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분리되며 통일과 평화를 사고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원적 가치를 옹호하는 민주사회를 표방하는만큼 이런 의식분화는 결코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개인 및 집단의 이익추구와 연결되는 의식분화는 통일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만 ‘분화’라는 설명만으로는 분단 극복과 통일성취, 평화구축이라는 미래적 과제해결을 향한 책임 있는 실천, 집단의지의 지향성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분화라는 설명은 제3자의 분석적 서술일 수는 있어도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대면하는 책임 있는 시대인식의 차원에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화하는 통일의식, 달라지는 북한인식, 약화되는 민족 감정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차원의 시대사적 과제를 재확인하고 그 해결이 간단치 않음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창의적 대응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분단상태에서 유지되는 불완전한 평화를 넘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민족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통합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조건

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비전에 맞추어 현실을 변경하고 역사를 창조해가려는 의지가 활성화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마치 193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가 더욱 공고화되는 시점에 오히려 제국주의의 패망과 민족의 해방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던 선각자들의 예지가 요청된다. 심화되는 갈등 속에서 평화의 단초를 찾고 고착되는 분단의식 너머 통일의 감수성을 불러올 사회학적 상상력과 민족사적 비전을 차분히, 냉정하게 추진해 갈 일이다.

IPUS

부 록

1.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주)	± 2.8% (95% 신뢰수준)

〈주〉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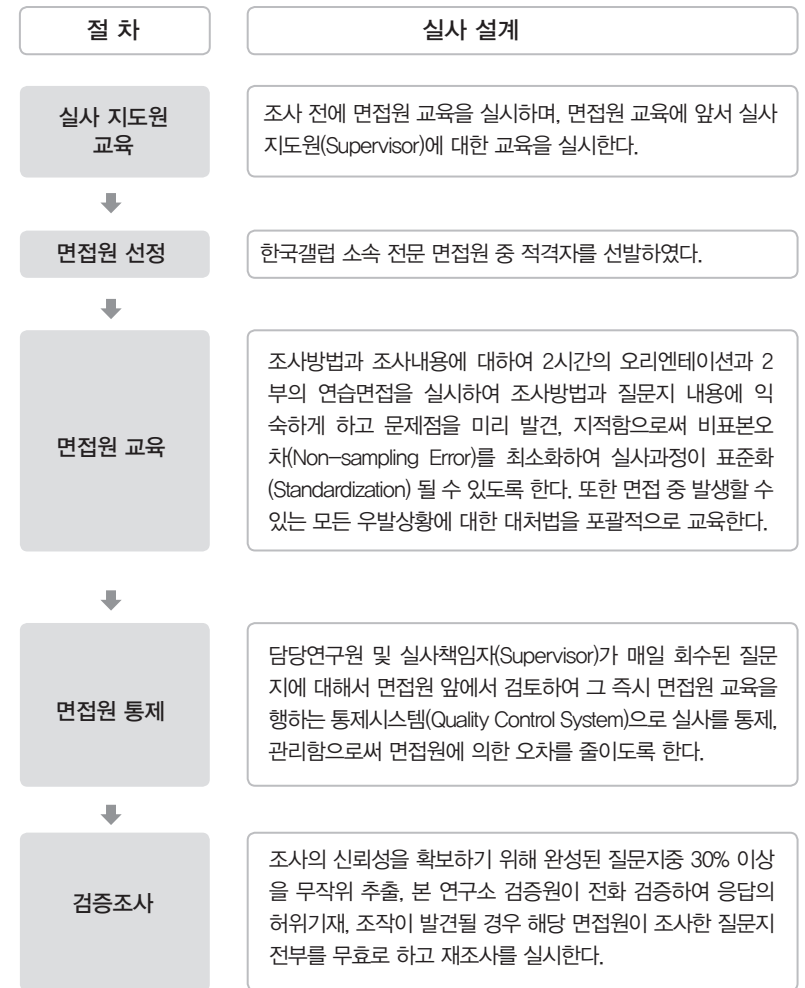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5세	7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20	21	22	20	12	4	99
	여자	20	21	22	20	13	5	101
부산광역시	남자	8	8	9	9	6	2	42
	여자	7	7	9	10	6	2	41
대구광역시	남자	6	6	7	7	4	1	31
	여자	5	6	7	7	4	2	31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8	4	1	35
	여자	7	7	8	7	4	1	34
광주광역시	남자	5	5	5	4	2	1	22
	여자	4	5	5	5	3	1	23
대전광역시	남자	5	5	5	5	3	1	24
	여자	5	5	6	5	3	1	25
울산광역시	남자	4	4	5	4	2	1	20
	여자	3	4	5	4	2	1	19
경기도	남자	23	25	29	24	12	4	117
	여자	21	24	28	23	12	5	113
강원도	남자	5	4	5	5	3	1	23
	여자	3	4	5	5	3	2	22
충청북도	남자	5	5	5	5	3	1	24
	여자	4	4	5	5	3	1	22
충청남도	남자	5	6	7	6	4	1	29
	여자	5	5	6	6	4	2	28
전라북도	남자	5	5	6	6	4	1	27
	여자	4	4	5	5	4	2	24
전라남도	남자	4	4	6	6	4	2	26
	여자	4	4	5	5	4	2	24
경상북도	남자	6	6	7	7	5	2	33
	여자	5	5	7	7	5	2	31
경상남도	남자	8	8	9	9	5	2	41
	여자	6	7	9	8	5	2	37
제주도	남자	3	3	4	3	2	1	16
	여자	3	3	4	3	2	1	16
합계		225	237	275	253	152	58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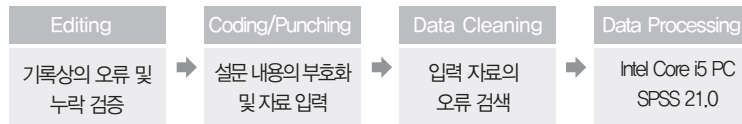
3)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15년 7월 1일 ~ 7월 24일 (24일간)

2.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모집단(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하였다.

〈가중치 산출식〉

-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6(70~74세))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 총별 최종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3.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자	(610)	50.8	(607)	50.6
	여자	(590)	49.2	(593)	49.4
연령별	19~29세	(225)	18.8	(227)	18.9
	30대	(237)	19.8	(238)	19.9
	40대	(275)	22.9	(275)	22.9
	50대	(253)	21.1	(254)	21.2
	60대 이상	(210)	17.5	(206)	17.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29)	10.8	(122)	10.2
	고 졸	(491)	40.9	(493)	41.1
	대재 이상	(580)	48.3	(584)	48.7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	(20)	1.7
	자영업	(201)	16.8	(198)	16.5
	블루 칼라	(338)	28.2	(336)	28.0
	화이트칼라	(270)	22.5	(276)	23.0
	전업 주부	(238)	19.8	(243)	20.3
	무직/기타	(131)	10.9	(127)	10.6
	200만원 미만	(127)	10.6	(117)	9.8
	200~299만원	(214)	17.8	(203)	16.9
가구소득수준	300~399만원	(371)	30.9	(366)	30.5
	400만원 이상	(488)	40.7	(514)	42.8
지역별	수도권	(499)	41.6	(601)	50.1
	충청권	(152)	12.7	(122)	10.2
	호남권	(146)	12.2	(118)	9.8
	영남권	(326)	27.2	(310)	25.8
	강원	(45)	3.8	(36)	3.0
	제주	(32)	2.7	(14)	1.1
지역 크기	대도 시	(547)	45.6	(554)	46.2
	중·소도시	(573)	47.8	(580)	48.3
	읍/면	(80)	6.7	(66)	5.5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1)	24.3	(294)	24.5
	중도	(597)	49.8	(593)	49.4
	보수적	(312)	26.0	(313)	26.1
종교별	불교	(256)	21.3	(248)	20.6
	기독교	(244)	20.3	(245)	20.4
	천주교	(71)	5.9	(70)	5.8
	기타	(3)	0.3	(3)	0.2
	종교 없음	(616)	51.3	(624)	52.0
	모름/무응답	(10)	0.8	(11)	0.9

조사 결과 집계표

표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20.6	30.4	51.0	24.2	18.7	6.1	24.8	100	
성별	남자	607	22.1	32.8	54.9	21.5	17.3	6.3	23.6	100	
	여자	593	19.1	27.9	46.9	27.1	20.1	5.9	26.0	100	
연령별	19~29세	227	9.3	21.5	30.7	30.8	29.2	9.2	38.4	100	
	30대	238	13.7	22.5	36.2	27.3	29.1	7.4	36.5	100	
	40대	275	18.9	33.1	52.0	24.7	16.9	6.4	23.3	100	
	50대	254	25.8	38.1	63.8	20.6	11.2	4.4	15.6	100	
	60대 이상	206	36.8	36.3	73.1	17.4	6.7	2.8	9.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1.9	39.7	71.6	20.6	6.4	1.5	7.9	100	
	고졸	493	20.1	32.7	52.7	22.6	19.0	5.7	24.7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18.6	26.5	45.2	26.4	21.0	7.4	28.4	100	
	농/수/축산업	20	31.2	47.7	78.9	6.9	9.8	4.3	14.2	100	
	자영업	198	24.5	31.0	55.4	22.7	15.6	6.2	21.8	100	
	블루 칼라	336	20.4	27.7	48.2	24.7	21.8	5.3	27.2	100	
	화이트칼라	276	16.7	27.7	44.3	26.9	19.8	9.0	28.8	100	
가구 소득 수준	전업 주부	243	22.4	33.0	55.4	22.2	17.9	4.5	22.4	100	
	200만원 미만	117	35.2	32.6	67.8	18.0	11.3	2.9	14.2	100	
	200~299만원	203	23.6	34.5	58.0	22.9	16.9	2.2	19.1	100	
	300~399만원	366	19.1	35.0	54.1	23.0	19.2	3.7	22.9	100	
	400만원 이상	514	17.1	25.0	42.1	27.1	20.7	10.1	30.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7.6	27.1	44.7	24.4	22.7	8.2	30.9	100	
	충청권	122	25.1	30.1	55.2	25.1	16.4	3.3	19.6	100	
	호남권	118	42.3	25.8	68.2	21.8	7.3	2.8	10.1	100	
	영남권	310	14.6	39.5	54.1	24.2	17.9	3.9	21.7	100	
	강원	36	33.0	24.0	57.0	22.4	7.4	13.2	20.6	100	
지역 크기	제주	14	28.8	25.5	54.3	36.4	9.3	0.0	9.3	100	
	대도시	554	18.4	31.3	49.8	26.1	18.0	6.2	24.2	100	
	중·소도시	580	22.0	28.7	50.7	22.8	20.2	6.4	26.6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26.2	37.5	63.7	21.9	11.6	2.9	14.4	100	
	진보적	294	21.9	29.2	51.1	24.2	19.7	5.0	24.7	100	
	중도	593	17.3	31.7	48.9	26.8	17.4	6.9	24.2	100	
	보수적	313	25.7	29.1	54.8	19.3	20.2	5.7	25.9	100	
종교별	불교	248	24.1	35.4	59.5	20.9	15.4	4.2	19.6	100	
	기독교	245	25.9	24.3	50.2	27.0	16.2	6.6	22.8	100	
	천주교	70	22.1	22.2	44.3	30.0	21.2	4.5	25.7	100	
	기타	3	0.0	62.9	62.9	37.1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6.6	31.9	48.5	23.8	20.9	6.8	27.7	100	
		모름/무응답	11	44.2	11.2	55.4	22.5	11.0	11.1	22.1	100

표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전 체		1200	11.7	57.5	21.8	9.0	100
성별	남자	607	12.0	57.0	21.9	9.2	100
	여자	593	11.5	58.1	21.8	8.7	100
연령별	19~29세	227	6.6	47.0	30.9	15.5	100
	30대	238	8.5	53.3	28.6	9.7	100
	40대	275	6.6	65.0	20.5	7.8	100
	50대 이상	254	15.0	61.7	18.1	5.2	100
	60대 이상	206	23.9	58.8	10.3	7.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6.3	55.3	11.4	7.0	100
	고졸	493	12.0	59.1	19.2	9.8	100
	대재 이상	584	8.4	56.7	26.2	8.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9.9	75.0	0.0	5.1	100
	자영업	198	12.8	58.9	24.1	4.3	100
	블루 칼라	336	12.3	52.9	23.7	11.0	100
	화이트칼라	276	6.8	58.8	27.0	7.4	100
	전업 주부	243	13.0	61.5	15.5	10.0	100
	무직/기타	127	15.3	54.5	17.5	12.7	100
	200만원 미만	117	23.8	58.9	9.4	7.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3.4	61.1	17.7	7.8	100
	300~399만원	366	11.3	61.0	21.2	6.5	100
	400만원 이상	514	8.6	53.3	26.7	11.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8.7	55.0	26.1	10.3	100
	충청권	122	16.0	57.0	17.8	9.2	100
	호남권	118	27.8	60.1	8.6	3.5	100
	영남권	310	8.0	61.5	21.6	8.9	100
	강원	36	29.1	54.7	11.4	4.7	100
지역 크기	제주	14	9.0	68.8	16.1	6.2	100
	대도시	554	10.2	57.7	24.3	7.8	100
	중·소도시	580	13.4	55.7	20.3	10.5	100
	읍/면	66	9.4	71.5	14.0	5.1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3.1	55.1	22.2	9.7	100
	중도	593	9.7	59.0	23.7	7.6	100
	보수적	313	14.2	57.0	17.9	10.9	100
종교별	불교	248	14.9	59.5	17.1	8.5	100
	기독교	245	14.4	58.5	19.9	7.2	100
	천주교	70	8.9	59.9	23.9	7.3	100
	기타	3	0.0	10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9.5	56.2	24.5	9.8	100
	모름/무응답	11	24.9	41.8	11.2	22.1	100

표 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상	불가능 하다	계
			%	%	%	%	%	%	%
전 체		1200	3.5	17.8	25.5	13.9	19.6	19.7	100
성별	남자	607	3.4	17.8	27.0	13.6	20.6	17.5	100
	여자	593	3.6	17.8	23.9	14.3	18.5	21.9	100
연령별	19~29세	227	0.3	7.3	22.7	16.7	25.1	28.0	100
	30대	238	3.3	10.4	23.7	15.6	23.1	23.9	100
	40대	275	3.6	16.8	23.3	17.5	18.9	20.0	100
	50대	254	6.0	24.6	30.6	9.0	15.6	14.1	100
	60대 이상	206	4.3	30.8	27.1	10.4	15.2	12.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5	27.8	27.4	9.5	18.1	11.6	100
	고졸	493	2.8	21.4	25.1	12.2	16.8	21.7	100
	대재 이상	584	3.7	12.6	25.4	16.3	22.2	19.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0.8	13.1	12.7	29.4	14.0	100
	자영업	198	4.9	19.6	29.2	12.3	14.7	19.3	100
	블루 칼라	336	2.6	18.7	24.6	13.3	19.6	21.2	100
	화이트칼라	276	2.5	15.4	23.3	17.1	22.0	19.7	100
	전업 주부	243	5.0	19.2	24.1	12.3	18.5	20.8	100
	무직/기타	127	3.7	12.9	30.9	14.5	22.7	15.3	100
	200만원 미만	117	5.0	22.4	27.8	9.4	21.7	13.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0	19.2	28.2	13.2	16.6	17.8	100
	300~399만원	366	4.5	18.4	26.1	14.1	19.1	17.8	100
	400만원 이상	514	1.9	15.7	23.4	15.1	20.6	23.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8	17.7	23.5	12.6	20.2	23.2	100
	충청권	122	7.6	21.9	24.8	14.3	14.4	17.0	100
	호남권	118	3.2	22.9	30.4	15.2	14.0	14.3	100
	영남권	310	2.8	14.0	28.1	15.8	23.9	15.4	100
	강원	36	8.8	22.7	21.6	12.6	9.0	25.2	100
지역 크기	제주	14	3.0	12.9	25.3	18.9	18.0	21.9	100
	대도시	554	2.9	14.6	28.0	15.0	21.2	18.3	100
	중·소도시	580	4.4	20.4	22.7	13.8	17.3	21.4	100
	읍/면	66	1.5	21.1	28.1	6.2	26.5	16.6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2	17.0	26.5	14.8	20.4	18.2	100
	중도	593	3.3	16.0	27.1	14.0	18.6	20.9	100
	보수적	313	4.2	21.8	21.4	12.9	20.8	18.8	100
종교별	불교	248	5.1	15.2	27.1	11.2	21.3	20.1	100
	기독교	245	4.9	22.5	24.1	12.8	17.5	18.2	100
	천주교	70	2.5	23.5	28.0	14.0	13.5	18.5	100
	기타	3	0.0	34.4	28.4	37.1	0.0	0.0	100
	종교없음	624	2.5	16.2	25.1	15.4	20.7	20.1	100
	모름/무응답	11	6.4	18.8	22.4	11.2	8.1	33.0	100

표 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2.3	37.9	50.3	37.0	12.8	49.7	100
성별	남자	607	13.7	38.3	52.0	34.0	14.0	48.0	100
	여자	593	10.9	37.6	48.5	40.0	11.5	51.5	100
연령별	19~29세	227	3.9	35.0	38.9	46.2	14.9	61.1	100
	30대	238	12.0	35.5	47.4	38.0	14.6	52.6	100
	40대	275	17.1	33.2	50.2	37.0	12.8	49.8	100
	50대	254	14.3	42.1	56.4	31.7	11.8	43.6	100
	60대 이상	206	13.2	45.3	58.6	32.1	9.3	41.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5.9	43.0	59.0	31.7	9.3	41.0	100
	고졸	493	10.6	39.6	50.2	36.4	13.4	49.8	100
	대재 이상	584	13.0	35.5	48.5	38.5	13.0	51.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9	47.5	56.4	29.3	14.3	43.6	100
	자영업	198	12.7	38.9	51.6	32.4	15.9	48.4	100
	블루 칼라	336	12.1	34.5	46.5	41.5	11.9	53.5	100
	화이트칼라	276	14.4	39.4	53.8	34.0	12.2	46.2	100
	전업 주부	243	12.2	38.1	50.2	38.5	11.3	49.8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8.8	40.7	49.5	36.6	13.9	50.5	100
	200만원 미만	117	18.2	39.2	57.4	25.7	16.9	42.6	100
	200~299만원	203	14.6	39.4	54.1	36.3	9.6	45.9	100
	300~399만원	366	10.2	41.4	51.6	36.6	11.8	48.4	100
	400만원 이상	514	11.6	34.6	46.2	40.1	13.7	53.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0.5	40.3	50.8	39.3	9.9	49.2	100
	충청권	122	15.6	41.7	57.2	32.8	10.0	42.8	100
	호남권	118	34.2	42.1	76.3	18.1	5.6	23.7	100
	영남권	310	6.1	32.3	38.3	41.5	20.2	61.7	100
	강원	36	15.5	19.6	35.1	36.0	28.8	64.9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2	41.7	47.8	36.8	15.4	52.2	100
	대도시	554	8.9	38.4	47.3	39.0	13.7	52.7	100
	중·소도시	580	16.1	36.7	52.8	35.8	11.4	47.2	100
	읍/면	66	7.8	45.4	53.2	30.5	16.3	46.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6.3	39.0	55.3	35.5	9.2	44.7	100
	중도	593	11.3	35.6	47.0	40.0	13.1	53.0	100
	보수적	313	10.4	41.4	51.8	32.6	15.6	48.2	100
종교별	불교	248	13.1	38.7	51.8	29.6	18.6	48.2	100
	기독교	245	14.3	41.5	55.8	33.1	11.1	44.2	100
	천주교	70	20.5	36.9	57.4	35.6	7.1	42.6	100
	기타	3	0.0	62.9	62.9	0.0	37.1	37.1	100
	종교없음	624	10.3	36.8	47.0	41.2	11.7	53.0	100
	모름/무응답	11	17.6	11.0	28.6	63.9	7.5	71.4	100

표 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5.6	46.5	62.1	30.5	7.4	37.9	100
	남자	607	15.5	45.8	61.4	30.4	8.3	38.6	100
	여자	593	15.7	47.2	62.9	30.6	6.5	37.1	100
연령별	19~29세	227	9.6	46.8	56.5	32.9	10.6	43.5	100
	30대	238	14.2	46.8	61.0	31.5	7.5	39.0	100
	40대	275	23.4	40.1	63.5	31.1	5.3	36.5	100
	50대	254	15.5	51.5	67.0	27.4	5.6	33.0	100
	60대 이상	206	13.7	48.1	61.7	29.5	8.8	38.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2.2	54.8	67.0	27.1	5.9	33.0	100
	고졸	493	14.5	44.8	59.3	33.3	7.4	40.7	100
	대재 이상	584	17.3	46.2	63.5	28.8	7.7	36.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4.2	56.4	70.6	24.5	4.9	29.4	100
	자영업	198	16.6	52.2	68.8	23.5	7.7	31.2	100
	블루 칼라	336	15.5	40.0	55.4	36.2	8.4	44.6	100
	화이트칼라	276	18.6	46.3	65.0	29.5	5.5	35.0	100
	전업 주부	243	14.9	44.6	59.5	32.3	8.2	40.5	100
	무직/기타	127	9.8	57.3	67.0	25.8	7.1	33.0	100
	200만원 미만	117	16.4	53.4	69.8	23.0	7.2	30.2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9.2	46.4	65.5	28.8	5.6	34.5	100
	300~399만원	366	12.3	44.2	56.5	35.4	8.1	43.5	100
	400만원 이상	514	16.5	46.6	63.1	29.3	7.6	36.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1	46.2	62.3	30.3	7.3	37.7	100
	충청권	122	11.9	51.9	63.8	29.9	6.4	36.2	100
	호남권	118	33.0	47.7	80.7	17.9	1.3	19.3	100
	영남권	310	9.8	43.7	53.4	37.2	9.4	46.6	100
	강원	36	17.7	41.5	59.3	25.2	15.6	40.7	100
	제주	14	6.6	75.4	81.9	12.1	6.0	18.1	100
	대도시	554	11.6	46.8	58.5	34.7	6.8	41.5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9.4	46.2	65.6	27.0	7.4	34.4	100
	읍/면	66	16.3	45.9	62.2	25.7	12.1	37.8	100
	진보적	294	16.4	53.4	69.8	27.1	3.1	30.2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5.7	43.5	59.2	32.8	8.0	40.8	100
	보수적	313	14.9	45.6	60.5	29.2	10.4	39.5	100
	불교	248	16.1	47.7	63.8	26.3	9.9	36.2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8.8	49.8	68.5	24.2	7.2	31.5	100
	천주교	70	17.4	48.0	65.4	30.2	4.4	34.6	100
	기타	3	34.4	28.4	62.9	0.0	37.1	37.1	100
	종교없음	624	14.1	44.7	58.8	34.7	6.5	41.2	100
	모름/무응답	11	6.4	44.5	50.9	30.4	18.7	49.1	100

표 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6	50.8	65.5	26.3	8.2	34.5	100
성별	남자	607	14.7	51.1	65.8	25.8	8.4	34.2	100
	여자	593	14.6	50.5	65.1	26.9	8.0	34.9	100
연령별	19~29세	227	9.9	50.0	59.9	27.9	12.2	40.1	100
	30대	238	12.9	48.8	61.8	27.8	10.4	38.2	100
	40대	275	16.7	51.9	68.6	27.4	4.0	31.4	100
	50대	254	18.1	48.8	66.9	25.0	8.2	33.1	100
	60대 이상	206	14.8	55.1	70.0	23.2	6.8	3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9.0	53.4	72.4	22.8	4.8	27.6	100
	고졸	493	13.7	48.8	62.5	29.4	8.1	37.5	100
	대재 이상	584	14.5	52.0	66.5	24.5	9.0	33.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9	67.1	71.1	24.0	4.9	28.9	100
	자영업	198	17.2	48.7	65.9	26.9	7.2	34.1	100
	블루 칼라	336	13.9	47.7	61.6	30.7	7.7	38.4	100
	화이트칼라	276	14.8	53.4	68.1	24.3	7.5	31.9	100
	전업 주부	243	15.7	50.4	66.1	25.5	8.4	33.9	100
	무직/기타	127	12.1	55.1	67.2	20.3	12.5	32.8	100
	200만원 미만	117	16.9	53.1	70.0	23.7	6.4	3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7.6	47.9	65.5	25.9	8.7	34.5	100
	300~399만원	366	13.6	49.3	62.9	28.1	8.9	37.1	100
	400만원 이상	514	13.7	52.5	66.2	25.9	7.9	33.8	100
	수도권	601	14.0	53.0	67.0	24.8	8.2	33.0	100
지역별	충청권	122	20.3	48.0	68.3	26.9	4.8	31.7	100
	호남권	118	30.1	54.4	84.5	14.1	1.4	15.5	100
	영남권	310	8.0	46.6	54.5	34.8	10.7	45.5	100
	강원	36	15.6	44.3	59.9	17.5	22.6	40.1	100
	제주	14	6.6	62.6	69.1	24.8	6.0	30.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1.1	54.1	65.2	26.6	8.2	34.8	100
	중·소도시	580	18.9	47.5	66.4	25.5	8.1	33.6	100
	읍/면	66	7.1	52.6	59.7	30.9	9.4	40.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8.3	55.1	73.4	21.8	4.7	26.6	100
	중도	593	14.2	50.1	64.3	27.8	7.9	35.7	100
	보수적	313	12.1	48.1	60.2	27.8	11.9	39.8	100
종교별	불교	248	15.9	47.7	63.6	25.6	10.8	36.4	100
	기독교	245	17.8	56.8	74.6	18.5	6.9	25.4	100
	천주교	70	17.0	52.1	69.1	22.5	8.4	30.9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2.9	49.4	62.3	30.2	7.5	37.7	100
	모름/무응답	11	6.4	44.3	50.8	30.5	18.7	49.2	100

표 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㉕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0.8	50.6	71.4	23.9	4.7	28.6	100
성별	남자	607	21.7	49.6	71.3	23.1	5.6	28.7	100
	여자	593	19.8	51.7	71.5	24.8	3.7	28.5	100
연령별	19~29세	227	14.1	50.0	64.1	28.1	7.7	35.9	100
	30대	238	20.6	47.3	68.0	27.0	5.0	32.0	100
	40대	275	20.6	53.8	74.4	23.8	1.8	25.6	100
	50대	254	20.3	53.4	73.7	21.4	5.0	26.3	100
	60대 이상	206	29.1	47.5	76.5	19.2	4.3	23.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9.4	47.5	76.9	19.0	4.0	23.1	100
	고졸	493	18.9	51.5	70.4	25.7	3.9	29.6	100
	대재 이상	584	20.6	50.6	71.1	23.5	5.4	28.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2.4	43.5	75.8	19.2	4.9	24.2	100
	자영업	198	26.0	47.5	73.5	22.1	4.3	26.5	100
	블루 칼라	336	17.6	51.8	69.5	27.3	3.2	30.5	100
	화이트칼라	276	20.7	52.1	72.8	20.2	7.0	27.2	100
	전업 주부	243	17.6	51.1	68.7	27.8	3.5	31.3	100
	무직/기타	127	25.3	49.4	74.7	19.3	6.0	25.3	100
	200만원 미만	117	28.3	47.6	75.9	17.8	6.3	24.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2.3	50.2	72.5	23.6	3.9	27.5	100
	300~399만원	366	20.0	47.5	67.5	28.2	4.2	32.5	100
	400만원 이상	514	19.0	53.7	72.7	22.4	4.9	27.3	100
	수도권	601	22.1	52.9	75.0	21.1	3.9	25.0	100
지역별	충청권	122	17.2	42.5	59.7	36.7	3.6	40.3	100
	호남권	118	37.2	47.8	85.0	14.3	0.7	15.0	100
	영남권	310	12.7	51.1	63.8	29.2	7.0	36.2	100
	강원	36	24.3	44.4	68.7	17.7	13.7	31.3	100
	제주	14	25.4	53.5	78.8	18.0	3.1	21.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7.7	54.5	72.2	23.7	4.1	27.8	100
	중·소도시	580	23.4	48.1	71.5	23.5	5.0	28.5	100
	읍/면	66	23.3	40.6	63.8	30.3	5.9	36.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6.3	51.1	77.5	20.8	1.7	22.5	100
	중도	593	17.2	50.6	67.8	27.4	4.8	32.2	100
	보수적	313	22.2	50.2	72.5	20.4	7.1	27.5	100
종교별	불교	248	23.6	50.8	74.4	19.2	6.5	25.6	100
	기독교	245	24.5	52.7	77.3	19.6	3.2	22.7	100
	천주교	70	27.0	49.8	76.8	21.5	1.8	23.2	100
	기타	3	28.4	34.4	62.9	0.0	37.1	37.1	100
	종교없음	624	17.7	50.2	67.9	27.6	4.4	32.1	100
	모름/무응답	11	6.4	33.2	39.7	41.6	18.7	60.3	1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16.2	54.1	70.2	26.1	3.7	29.8	100
	남자	607	17.1	50.6	67.7	28.1	4.2	32.3	100
	여자	593	15.2	57.6	72.8	24.1	3.2	27.2	100
연령별	19~29세	227	12.3	48.7	61.0	31.0	8.0	39.0	100
	30대	238	13.8	49.5	63.2	32.9	3.8	36.8	100
	40대	275	17.1	58.5	75.5	23.3	1.2	24.5	100
	50대	254	19.7	53.8	73.5	23.2	3.3	26.5	100
	60대 이상	206	17.6	59.7	77.3	20.1	2.6	22.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4.9	63.5	78.4	19.0	2.6	21.6	100
	고졸	493	15.2	55.7	70.9	26.3	2.8	29.1	100
	대재 이상	584	17.3	50.7	68.0	27.4	4.7	32.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9.5	55.1	74.5	20.5	4.9	25.5	100
	자영업	198	18.3	57.3	75.6	21.6	2.8	24.4	100
	블루 칼라	336	16.0	51.9	67.9	29.5	2.6	32.1	100
	화이트칼라	276	16.5	53.5	70.0	25.3	4.7	30.0	100
	전업 주부	243	14.2	58.7	73.0	24.8	2.3	27.0	100
	무직/기타	127	15.6	46.8	62.4	29.2	8.4	37.6	100
	200만원 미만	117	14.7	57.9	72.5	22.2	5.2	27.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1.1	56.4	77.5	19.8	2.7	22.5	100
	300~399만원	366	12.5	54.7	67.2	30.5	2.3	32.8	100
	400만원 이상	514	17.1	51.8	68.9	26.3	4.7	31.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5.7	54.2	69.9	25.4	4.6	30.1
충청권		122	18.2	48.4	66.6	30.1	3.3	33.4	100
호남권		118	27.3	63.5	90.7	9.3	0.0	9.3	100
영남권		310	9.5	54.6	64.2	32.7	3.2	35.8	100
강원		36	37.7	33.5	71.2	22.0	6.8	28.8	100
제주		14	15.7	56.5	72.2	27.8	0.0	27.8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3.2	57.4	70.7	26.7	2.7	29.3	100
	중·소도시	580	18.6	51.1	69.7	25.4	4.9	30.3	100
	읍/면	66	18.7	52.3	71.0	27.5	1.5	29.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5.9	57.7	73.6	22.3	4.1	26.4	100
	중도	593	15.4	53.5	68.9	28.0	3.1	31.1	100
	보수적	313	17.8	51.7	69.5	26.1	4.4	30.5	100
종교별	불교	248	20.6	53.8	74.4	22.6	2.9	25.6	100
	기독교	245	16.0	57.2	73.2	24.0	2.8	26.8	100
	천주교	70	22.6	61.1	83.7	14.5	1.8	16.3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4.0	52.4	66.4	29.2	4.4	33.6	100
	모름/무응답	11	6.4	26.7	33.2	55.6	11.3	66.8	1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3.9	44.0	77.9	18.7	3.4	22.1	100
성별	남자	607	32.8	45.1	77.9	18.7	3.4	22.1	100
	여자	593	35.0	42.9	77.9	18.8	3.3	22.1	100
연령별	19~29세	227	31.3	42.4	73.7	20.4	5.9	26.3	100
	30대	238	30.0	40.2	70.2	26.7	3.1	29.8	100
	40대	275	37.1	43.8	80.9	15.7	3.4	19.1	100
	50대	254	32.9	49.4	82.2	14.7	3.0	17.8	100
	60대 이상	206	38.1	43.9	82.0	16.8	1.2	18.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2.8	46.3	79.1	18.7	2.1	20.9	100
	고졸	493	33.7	44.5	78.2	18.6	3.2	21.8	100
대재 이상		584	34.3	43.1	77.4	18.8	3.8	22.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4.2	51.9	76.1	18.9	4.9	23.9	100
	자영업	198	33.4	46.8	80.2	16.1	3.7	19.8	100
	블루 칼라	336	34.9	42.8	77.7	20.3	2.1	22.3	100
	화이트칼라	276	35.1	42.2	77.3	19.5	3.1	22.7	100
	전업 주부	243	34.3	45.2	79.6	17.3	3.2	20.4	100
	무직/기타	127	30.0	43.3	73.2	20.0	6.8	26.8	100
	200만원 미만	117	29.2	47.2	76.5	20.7	2.8	23.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9.5	40.5	80.0	16.4	3.5	20.0	100
	300~399만원	366	28.8	45.8	74.6	22.3	3.1	25.4	100
	400만원 이상	514	36.4	43.4	79.7	16.6	3.6	20.3	100
	수도권	601	37.5	45.4	82.9	13.9	3.3	17.1	100
지역별	충청권	122	25.9	38.9	64.8	32.2	3.1	35.2	100
	호남권	118	46.2	42.2	88.4	10.9	0.7	11.6	100
	영남권	310	24.7	44.6	69.3	26.3	4.4	30.7	100
	강원	36	41.9	32.8	74.7	18.4	7.0	25.3	100
	제주	14	27.8	60.1	87.9	12.1	0.0	12.1	100
	대도시	554	29.7	45.6	75.3	22.1	2.6	24.7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37.5	42.6	80.1	15.6	4.3	19.9	100
	읍/면	66	37.1	43.0	80.1	18.4	1.5	19.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9.6	42.8	82.4	14.7	2.9	17.6	100
	중도	593	27.8	45.5	73.3	23.4	3.3	26.7	100
	보수적	313	40.0	42.3	82.3	13.7	4.0	17.7	100
종교별	불교	248	32.4	46.2	78.7	17.8	3.6	21.3	100
	기독교	245	43.3	35.1	78.5	19.0	2.5	21.5	100
	천주교	70	37.2	45.4	82.7	13.1	4.2	17.3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0.8	46.1	76.9	19.6	3.6	23.1	100
	모름/무응답	11	17.6	52.5	70.1	29.9	0.0	29.9	1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3.8	46.5	80.3	16.2	3.5	19.7	100
	남자	607	36.1	44.5	80.5	16.5	3.0	19.5	100
	여자	593	31.4	48.7	80.1	15.9	4.0	19.9	100
연령별	19~29세	227	35.2	42.7	77.9	18.0	4.1	22.1	100
	30대	238	33.9	46.6	80.5	16.3	3.2	19.5	100
	40대	275	33.8	43.5	77.3	19.8	2.9	22.7	100
	50대	254	32.3	50.6	82.9	11.3	5.8	17.1	100
	60대 이상	206	33.9	49.7	83.6	15.5	0.9	16.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9.8	49.9	79.6	17.1	3.2	20.4	100
	고졸	493	26.8	51.8	78.6	17.8	3.6	21.4	100
	대재 이상	584	40.5	41.4	82.0	14.7	3.4	18.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4.6	35.2	79.8	15.3	4.9	20.2	100
	자영업	198	36.8	44.3	81.1	15.5	3.4	18.9	100
	블루 칼라	336	27.2	52.0	79.3	18.1	2.6	20.7	100
	화이트칼라	276	37.6	41.1	78.7	17.4	3.8	21.3	100
	전업 주부	243	32.3	50.6	82.9	13.5	3.6	17.1	100
	무직/기타	127	39.1	41.4	80.5	14.9	4.6	19.5	100
	200만원 미만	117	30.8	50.9	81.6	16.9	1.5	18.4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2.3	48.3	80.6	15.3	4.1	19.4	100
	300~399만원	366	31.9	46.5	78.4	17.8	3.8	21.6	100
	400만원 이상	514	36.4	44.9	81.3	15.3	3.4	18.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5.5	46.9	82.4	15.0	2.6	17.6
충청권		122	22.8	50.8	73.7	22.9	3.4	26.3	100
호남권		118	49.7	39.4	89.1	9.5	1.4	10.9	100
영남권		310	26.2	49.1	75.3	19.3	5.4	24.7	100
강원		36	48.9	28.5	77.5	13.5	9.1	22.5	100
제주		14	49.8	44.0	93.8	6.2	0.0	6.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6.9	44.8	81.7	15.9	2.4	18.3	100
	중·소도시	580	30.9	48.7	79.6	16.3	4.1	20.4	100
	읍/면	66	32.5	42.2	74.7	18.3	7.0	25.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2.7	38.0	80.7	14.9	4.4	19.3	100
	중도	593	30.0	48.6	78.5	18.5	2.9	21.5	100
	보수적	313	32.6	50.7	83.3	13.1	3.6	16.7	100
종교별	불교	248	36.0	44.4	80.4	14.1	5.4	19.6	100
	기독교	245	39.4	43.9	83.3	14.4	2.3	16.7	100
	천주교	70	41.7	42.7	84.3	15.7	0.0	15.7	100
	기타	3	37.1	62.9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0.1	48.6	78.8	18.0	3.3	21.2	100
	모름/무응답	11	14.5	55.4	70.0	11.3	18.7	30.0	1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4.8	15.6	20.5	48.1	31.4	79.5	0.1	100
	남자	607	4.7	15.0	19.7	46.6	33.6	80.2	0.2	100
	여자	593	5.0	16.3	21.3	49.7	29.1	78.7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4.1	17.7	21.7	48.3	30.0	78.3	0.0	100
	30대	238	6.2	18.2	24.4	46.2	29.0	75.2	0.4	100
	40대	275	2.4	18.2	20.7	53.2	26.2	79.3	0.0	100
	50대	254	6.5	12.5	19.0	49.5	31.5	81.0	0.0	100
	60대 이상	206	5.3	10.7	16.0	41.6	42.3	84.0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0	10.1	17.1	43.7	39.2	82.9	0.0	100
	고졸	493	4.7	15.3	20.1	51.2	28.7	79.9	0.0	100
	대재 이상	584	4.5	17.0	21.5	46.4	32.0	78.3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8	10.1	13.9	48.8	37.3	86.1	0.0	100
	자영업	198	2.3	15.8	18.1	43.3	38.6	81.9	0.0	100
	블루 칼라	336	5.2	15.0	20.2	47.2	32.6	79.8	0.0	100
	화이트칼라	276	4.9	18.6	23.5	52.2	23.9	76.1	0.3	100
	전업 주부	243	6.5	14.6	21.1	49.8	29.1	78.9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4.7	13.3	17.9	45.6	36.5	82.1	0.0	100
	200만원 미만	117	7.3	11.2	18.4	44.2	37.4	81.6	0.0	100
	200~299만원	203	5.0	19.0	24.0	47.1	28.4	75.5	0.5	100
	300~399만원	366	5.8	10.7	16.5	51.8	31.7	83.5	0.0	100
	400만원 이상	514	3.6	18.8	22.3	46.7	30.9	77.7	0.0	100
	수도권	601	4.5	14.9	19.4	50.1	30.5	80.6	0.0	100
	충청권	122	7.7	22.7	30.4	48.2	21.4	69.6	0.0	100
	호남권	118	8.6	18.6	27.2	44.6	28.2	72.8	0.0	100
지역별	영남권	310	3.2	13.6	16.8	46.6	36.2	82.9	0.3	100
	강원	36	4.5	13.0	17.4	46.4	36.2	82.6	0.0	100
	제주	14	0.0	9.6	9.6	27.2	63.2	90.4	0.0	100
	대도시	554	2.9	15.0	18.0	48.4	33.6	82.0	0.0	100
	중·소도시	580	6.5	17.2	23.7	48.3	27.8	76.1	0.2	100
지역 크기	읍/면	66	6.4	6.2	12.5	43.7	43.8	87.5	0.0	100
	진보적	294	4.6	18.9	23.4	48.9	27.7	76.6	0.0	100
	중도	593	5.6	16.0	21.6	48.8	29.6	78.4	0.0	1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313	3.7	11.8	15.5	46.0	38.2	84.2	0.3	100
	불교	248	6.8	15.0	21.8	40.6	37.6	78.2	0.0	100
종교별	기독교	245	4.1	13.8	17.9	49.6	32.4	82.1	0.0	100
	천주교	70	3.4	16.8	20.2	51.2	28.6	79.8	0.0	100
	기타	3	0.0	0.0	0.0	100.0	0.0	100.0	0.0	100
	종교없음	624	4.5	16.6	21.1	50.0	28.7	78.8	0.2	100
	모름/무응답	11	6.4	11.0	17.4	41.8	40.8	82.6	0.0	1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24.7	48.1	72.8	25.3	1.9	27.2	100
	남자	607	25.5	47.6	73.2	25.0	1.8	26.8	100
	여자	593	23.8	48.6	72.5	25.5	2.0	27.5	100
연령별	19~29세	227	21.7	52.5	74.1	25.0	0.9	25.9	100
	30대	238	23.2	42.7	66.0	31.0	3.1	34.0	100
	40대	275	28.2	45.8	74.0	24.0	2.0	26.0	100
	50대	254	24.3	52.6	76.9	22.4	0.7	23.1	100
	60대 이상	206	25.5	47.2	72.7	24.2	3.1	27.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0.7	55.4	76.0	22.4	1.6	24.0	100
	고졸	493	22.7	48.6	71.3	26.6	2.1	28.7	100
	대재 이상	584	27.2	46.2	73.4	24.7	1.9	26.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8.5	29.8	68.2	18.8	13.0	31.8	100
	자영업	198	29.0	48.7	77.7	21.7	0.6	22.3	100
	블루 칼라	336	22.8	49.6	72.4	26.2	1.4	27.6	100
	화이트칼라	276	26.5	46.3	72.7	25.3	2.0	27.3	100
	전업 주부	243	23.0	45.5	68.5	28.5	3.0	31.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0.4	55.1	75.6	23.1	1.3	24.4	100
	200만원 미만	117	22.3	52.4	74.7	22.3	3.0	25.3	100
	200~299만원	203	24.6	44.4	69.0	27.3	3.8	31.0	100
	300~399만원	366	26.1	42.7	68.9	30.0	1.1	31.1	100
	400만원 이상	514	24.3	52.5	76.8	21.8	1.5	23.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0.8	51.8	72.6	25.7	1.6	27.4	100
	충청권	122	31.7	36.9	68.6	30.2	1.2	31.4	100
	호남권	118	37.9	41.8	79.8	17.4	2.8	20.2	100
	영남권	310	19.7	50.8	70.5	27.3	2.2	29.5	100
	강원	36	51.3	28.4	79.8	15.9	4.4	20.2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2.3	31.5	93.8	6.2	0.0	6.2	100
	대도시	554	15.5	54.0	69.5	30.0	0.5	30.5	100
	중·소도시	580	32.5	44.1	76.6	20.4	3.1	23.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3.9	34.1	68.0	28.3	3.7	32.0	100
	진보적	294	25.0	49.7	74.8	24.5	0.8	25.2	100
	중도	593	22.6	46.2	68.9	28.6	2.5	31.1	100
종교별	보수적	313	28.4	50.1	78.5	19.7	1.8	21.5	100
	불교	248	26.7	51.0	77.7	20.9	1.4	22.3	100
	기독교	245	27.1	47.5	74.7	24.3	1.0	25.3	100
	천주교	70	20.3	56.0	76.3	20.1	3.5	23.7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3.7	46.5	70.2	27.9	1.9	29.8	100
	모름/무응답	11	17.6	26.6	44.3	33.2	22.5	55.7	100

표 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0.9	49.3	80.2	17.6	2.1	19.8	100
	남자	607	31.3	48.3	79.6	18.4	2.0	20.4	100
	여자	593	30.5	50.4	80.9	16.8	2.3	19.1	100
연령별	19~29세	227	31.2	51.4	82.6	15.6	1.9	17.4	100
	30대	238	31.5	48.0	79.5	17.6	2.9	20.5	100
	40대	275	31.2	46.8	78.0	20.5	1.4	22.0	100
	50대	254	32.2	48.5	80.7	16.5	2.8	19.3	100
	60대 이상	206	27.8	53.1	80.9	17.4	1.7	19.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6.4	57.4	83.8	15.4	0.8	16.2	100
	고졸	493	27.4	50.1	77.5	19.7	2.8	22.5	100
	대재 이상	584	34.8	47.0	81.8	16.3	1.9	18.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8.3	47.5	85.8	14.2	0.0	14.2	100
	자영업	198	33.7	48.1	81.8	17.0	1.3	18.2	100
	블루 칼라	336	26.8	51.8	78.6	18.4	3.0	21.4	100
	화이트칼라	276	33.7	46.6	80.3	18.4	1.4	19.7	100
	전업 주부	243	28.4	50.5	78.9	17.9	3.2	21.1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34.8	48.9	83.7	14.9	1.3	16.3	100
	200만원 미만	117	28.1	55.1	83.2	14.7	2.1	16.8	100
	200~299만원	203	32.6	48.7	81.3	16.7	2.0	18.7	100
	300~399만원	366	27.2	49.7	76.8	21.3	1.9	23.2	100
	400만원 이상	514	33.5	48.1	81.6	16.0	2.4	18.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3	50.7	81.0	16.9	2.1	19.0	100
	충청권	122	29.1	36.2	65.3	33.5	1.2	34.7	100
	호남권	118	47.3	36.4	83.7	15.6	0.7	16.3	100
	영남권	310	22.5	60.2	82.6	14.6	2.8	17.4	100
	강원	36	51.6	30.6	82.2	11.3	6.6	17.8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8.3	22.4	90.8	9.2	0.0	9.2	100
	대도시	554	26.0	53.6	79.7	18.8	1.6	20.3	100
	중·소도시	580	33.8	46.9	80.7	16.5	2.8	19.3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45.8	34.9	80.6	17.9	1.5	19.4	100
	진보적	294	33.3	49.7	83.0	15.7	1.3	17.0	100
	중도	593	28.4	49.0	77.4	20.2	2.4	22.6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3.4	49.6	83.1	14.4	2.5	16.9	100
	불교	248	29.8	54.3	84.1	12.8	3.2	15.9	100
	기독교	245	35.3	46.9	82.2	16.4	1.4	17.8	100
	천주교	70	33.1	45.0	78.1	18.3	3.5	21.9	100
	기타	3	34.4	65.6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9.6	49.1	78.7	19.3	1.9	21.3	100
	모름/무응답	11	14.5	29.7	44.3	55.7	0.0	55.7	1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역 및 경제 교류에 도움이 된다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40.7	12.3	26.2	6.2	14.0	0.2	0.2	0.2	100
	성별										
	남자	607	40.4	12.5	24.3	5.3	16.9	0.3	0.3	0.0	100
성별	여자	593	40.9	12.0	28.2	7.2	11.1	0.2	0.1	0.3	100
	연령별										
	19~29세	227	31.6	8.3	34.0	7.4	17.9	0.0	0.3	0.4	100
연령별	30대	238	35.5	16.3	26.3	6.3	15.0	0.3	0.3	0.0	100
	40대	275	39.8	8.9	26.4	9.4	15.1	0.3	0.0	0.0	100
	50대	254	43.6	17.0	23.7	5.3	9.3	0.5	0.4	0.3	1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06	54.3	10.5	20.5	1.7	12.9	0.0	0.0	0.0	100
	중졸 이하	122	56.2	14.0	16.9	3.4	9.5	0.0	0.0	0.0	100
	고졸	493	44.4	11.4	24.8	6.0	13.1	0.0	0.1	0.2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34.2	12.6	29.4	7.0	15.8	0.5	0.3	0.2	100
	농/수/축산업	20	20.7	20.9	26.0	4.4	28.0	0.0	0.0	0.0	100
	자영업	198	39.5	14.2	29.1	3.9	12.4	1.0	0.0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블루 칼라	336	43.7	11.3	26.1	5.8	12.6	0.0	0.5	0.0	100
	화이트칼라	276	34.1	13.3	24.7	6.8	20.8	0.0	0.0	0.4	100
	전업 주부	243	48.1	11.5	23.3	8.6	7.9	0.4	0.0	0.3	100
지역별	무직/기타	127	37.5	9.6	31.4	5.6	15.3	0.0	0.6	0.0	100
	200만원 미만	117	55.1	11.4	18.2	3.4	11.2	0.0	0.0	0.7	100
	200~299만원	203	42.2	9.8	25.0	5.6	16.6	0.3	0.3	0.0	100
지역 크기	300~399만원	366	41.3	10.8	24.8	8.8	14.3	0.0	0.0	0.0	100
	400만원 이상	514	36.3	14.5	29.6	5.3	13.4	0.4	0.3	0.2	100
	수도권	601	33.3	16.0	30.1	5.8	14.6	0.2	0.0	0.0	100
정치적 성향	충청권	122	53.5	7.2	21.9	5.0	11.8	0.0	0.6	0.0	100
	호남권	118	45.6	5.6	17.0	6.1	23.7	1.3	0.6	0.0	100
	영남권	310	45.9	10.1	24.4	8.4	10.5	0.0	0.3	0.3	100
종교별	강원	36	56.2	8.8	21.6	2.1	9.1	0.0	0.0	2.3	100
	제주	14	50.4	6.4	27.8	0.0	15.3	0.0	0.0	0.0	100
	대도시	554	40.7	9.7	29.6	5.6	13.5	0.3	0.3	0.2	1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80	42.2	14.8	23.0	6.1	13.5	0.2	0.1	0.1	100
	읍/면	66	27.4	11.4	26.4	12.4	22.5	0.0	0.0	0.0	100
	진보적	294	34.4	13.7	29.9	5.8	15.7	0.5	0.0	0.0	100
종교별	중도	593	41.2	13.5	22.7	8.1	14.0	0.2	0.0	0.3	100
	보수적	313	45.6	8.6	29.4	3.2	12.4	0.0	0.7	0.0	100
	불교	248	37.2	15.6	24.6	9.5	12.3	0.5	0.0	0.3	100
종교별	기독교	245	40.0	11.4	25.2	5.7	17.5	0.0	0.3	0.0	100
	천주교	70	36.2	10.7	32.7	12.1	7.1	1.3	0.0	0.0	100
	기타	3	71.6	0.0	28.4	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종교없음	624	42.8	11.2	26.5	4.6	14.5	0.1	0.3	0.2	100
	모름/무응답	11	36.7	29.9	33.4	0.0	0.0	0.0	0.0	0.0	100

표 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전 체	1200	13.1	44.2	57.4	35.0	7.6	42.6	100
	성별								
	남자	607	16.8	43.4	60.2	32.7	7.1	39.8	100
성별	여자	593	9.4	45.0	54.5	37.4	8.2	45.5	100
	연령별								
	19~29세	227	10.2	39.5	49.7	40.5	9.8	50.3	100
연령별	30대	238	11.9	40.7	52.6	37.9	9.5	47.4	100
	40대	275	15.4	41.6	57.1	34.3	8.6	42.9	100
	50대	254	11.8	52.6	64.4	29.9	5.6	35.6	1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06	16.4	46.6	63.0	32.8	4.2	37.0	100
	중졸 이하	122	11.1	48.9	60.0	33.9	6.1	40.0	100
	고졸	493	10.5	46.9	57.4	36.9	5.7	42.6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15.7	41.0	56.8	33.6	9.6	43.2	100
	농/수/축산업	20	27.4	45.8	73.2	26.8	0.0	26.8	100
	자영업	198	11.6	49.1	60.8	31.7	7.5	39.2	100
가구 소득 수준	블루 칼라	336	9.3	42.3	51.6	41.1	7.3	48.4	100
	화이트칼라	276	18.0	41.9	59.9	32.3	7.9	40.1	100
	전업 주부	243	9.4	48.8	58.1	34.3	7.6	41.9	100
지역별	무직/기타	127	20.0	37.9	57.9	32.6	9.5	42.1	100
	200만원 미만	117	10.0	54.5	64.4	30.9	4.7	35.6	100
	200~299만원	203	16.9	47.2	64.0	31.2	4.8	36.0	100
지역 크기	300~399만원	366	12.8	43.0	55.8	38.9	5.3	44.2	100
	400만원 이상	514	12.6	41.6	54.2	34.7	11.1	45.8	100
	수도권	601	9.9	44.3	54.2	37.6	8.1	45.8	100
정치적 성향	충청권	122	12.7	44.8	57.6	35.2	7.2	42.4	100
	호남권	118	30.9	39.5	70.4	27.5	2.1	29.6	100
	영남권	310	12.3	47.1	59.5	32.2	8.3	40.5	100
종교별	강원	36	13.1	40.0	53.2	33.0	13.8	46.8	100
	제주	14	22.1	21.3	43.5	50.3	6.3	56.5	100
	대도시	554	12.5	45.0	57.5	32.3	10.2	42.5	100
종교없음	중·소도시	580	12.1	45.6	57.7	37.2	5.1	42.3	100
	읍/면	66	27.9	25.4	53.2	38.6	8.1	46.8	100
	진보적	294	16.5	43.0	59.5	33.2	7.4	40.5	100
종교별	중도	593	12.5	41.7	54.1	38.2	7.7	45.9	100
	보수적	313	11.2	50.3	61.5	30.7	7.8	38.5	100
	불교	248	17.8	40.8	58.6	33.4	8.0	41.4	100
종교없음	기독교	245	16.4	42.7	59.1	34.9	6.0	40.9	100
	천주교	70	14.0	46.5	60.6	34.4	5.1	39.4	100
	기타	3	0.0	62.9	62.9	37.1	0.0	37.1	100
종교없음	종교없음	624	10.1	46.0	56.0	35.8	8.2	44.0	100
	모름/무응답	11	6.4	37.8	44.2	33.7	22.1	55.8	100

표 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8	24.2	28.0	52.7	19.3	72.0	100
성별	남자	607	5.5	24.8	30.3	51.0	18.7	69.7	100
	여자	593	2.0	23.6	25.6	54.5	20.0	74.4	100
연령별	19~29세	227	3.4	20.6	24.0	51.8	24.2	76.0	100
	30대	238	4.4	21.9	26.3	53.4	20.3	73.7	100
	40대	275	2.6	23.0	25.6	55.1	19.3	74.4	100
	50대	254	3.3	26.6	29.8	53.1	17.0	70.2	100
	60대 이상	206	5.6	29.4	35.1	49.2	15.7	64.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4	25.7	30.1	49.1	20.8	69.9	100
	고졸	493	2.9	25.1	28.1	52.9	19.1	71.9	100
	대재 이상	584	4.3	23.1	27.4	53.3	19.2	72.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6.3	22.7	39.0	47.0	13.9	61.0	100
	자영업	198	2.9	26.9	29.7	53.4	16.8	70.3	100
	블루 칼라	336	2.5	19.9	22.4	56.6	21.0	77.6	100
	화이트칼라	276	5.3	22.9	28.2	53.4	18.4	71.8	100
	전업 주부	243	2.4	28.9	31.3	49.7	19.0	68.7	100
	무직/기타	127	5.8	25.7	31.5	46.4	22.1	68.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8	22.5	26.3	52.3	21.4	73.7	100
	200~299만원	203	3.1	25.6	28.8	55.5	15.7	71.2	100
	300~399만원	366	4.2	25.2	29.5	52.6	17.9	70.5	100
	400만원 이상	514	3.7	23.3	27.0	51.7	21.3	73.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0	24.8	28.9	52.4	18.8	71.1	100
	충청권	122	5.9	15.9	21.8	62.9	15.3	78.2	100
	호남권	118	6.3	25.7	32.0	51.6	16.3	68.0	100
	영남권	310	2.1	25.1	27.2	49.6	23.2	72.8	100
	강원	36	0.0	31.1	31.1	50.8	18.1	68.9	100
	제주	14	0.0	19.7	19.7	61.6	18.7	80.3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9	23.3	26.2	53.4	20.4	73.8	100
	중·소도시	580	3.7	25.9	29.6	51.9	18.4	70.4	100
	읍/면	66	11.5	16.9	28.4	53.8	17.8	71.6	100
	진보적	294	4.7	23.5	28.2	56.5	15.3	71.8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3.6	23.2	26.8	52.1	21.1	73.2	100
	보수적	313	3.3	26.7	29.9	50.3	19.8	70.1	100
종교별	불교	248	5.9	27.3	33.2	47.1	19.8	66.8	100
	기독교	245	6.0	25.1	31.1	53.2	15.6	68.9	100
	천주교	70	3.7	22.9	26.6	55.3	18.1	73.4	100
	기타	3	0.0	28.4	28.4	71.6	0.0	71.6	100
	종교없음	624	2.1	22.8	25.0	54.5	20.6	75.0	100
	모름/무응답	11	0.0	19.3	19.3	47.4	33.3	80.7	100

표 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8	18.0	19.7	17.0	39.1	24.0	63.1	0.1	100
성별	남자	607	1.5	18.8	20.2	15.1	40.8	23.7	64.5	0.2	100
	여자	593	2.0	17.2	19.2	19.0	37.4	24.3	61.8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0.8	14.3	15.1	19.5	37.2	28.2	65.4	0.0	100
	30대	238	1.4	20.1	21.5	20.2	37.1	21.3	58.3	0.0	100
	40대	275	1.3	17.8	19.2	14.6	41.3	24.6	65.9	0.3	100
	50대	254	3.9	20.1	24.1	14.6	37.7	23.6	61.3	0.0	100
	60대 이상	206	1.0	17.1	18.2	17.1	42.6	22.2	64.8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	15.1	16.1	17.7	43.2	23.0	66.2	0.0	100
	고졸	493	2.0	20.1	22.1	16.1	39.7	22.1	61.8	0.0	100
	대재 이상	584	1.7	16.8	18.5	17.7	37.8	25.8	63.6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2.2	32.2	22.8	22.9	22.1	45.0	0.0	100
	자영업	198	1.2	14.3	15.5	16.2	46.5	21.8	68.3	0.0	100
	블루 칼라	336	1.2	17.7	18.9	15.2	41.1	24.6	65.6	0.3	100
	화이트칼라	276	3.4	20.6	24.0	18.0	34.2	23.9	58.1	0.0	100
	전업 주부	243	2.2	18.5	20.7	18.1	38.0	23.2	61.2	0.0	100
	무직/기타	127	0.0	15.4	15.4	18.3	38.0	28.3	66.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1	16.0	17.1	21.9	35.7	25.4	61.0	0.0	100
	200~299만원	203	2.3	29.6	31.9	13.5	38.0	16.5	54.6	0.0	100
	300~399만원	366	0.9	20.4	21.4	20.0	35.5	23.1	58.7	0.0	100
	400만원 이상	514	2.3	12.1	14.3	15.3	43.0	27.3	70.2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	20.1	21.6	15.6	40.8	22.0	62.8	0.0	100
	충청권	122	4.5	16.4	20.9	14.0	39.4	25.7	65.1	0.0	100
	호남권	118	3.8	27.5	31.3	19.3	26.5	22.9	49.4	0.0	100
	영남권	310	0.3	11.6	11.9	20.2	42.5	25.1	67.7	0.3	100
	강원	36	2.3	14.0	16.3	19.6	28.5	35.6	64.1	0.0	100
	제주	14	0.0	13.2	13.2	12.4	24.9	49.6	74.4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8	15.6	17.4	19.8	39.7	23.0	62.7	0.2	100
	중·소도시	580	1.5	18.3	19.8	15.4	39.7	25.1	64.8	0.0	100
	읍/면	66	3.8	34.9	38.7	9.0	29.7	22.6	52.3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7	18.5	21.1	16.0	42.0	20.8	62.8	0.0	100
	중도	593	1.9	21.0	22.9	16.3	37.0	23.7	60.7	0.2	100
	보수적	313	0.7	11.8	12.4	19.4	40.6	27.6	68.2	0.0	100
종교별	불교	248	1.7	15.0	16.7	16.7	43.8	22.9	66.6	0.0	100
	기독교	245	2.2	19.6	21.7	20.3	34.0	23.9	57.9	0.0	100
	천주교	70	2.7	18.7	21.5	16.6	32.0	30.0	62.0	0.0	100
	기타	3	0.0	0.0	0.0	37.1	62.9	0.0	62.9	0.0	100
	종교없음	624	1.4	18.3	19.7	16.0	40.0	24.2	64.2	0.2	100
	모름/무응답	11	11.2	30.2	41.4	7.5	40.1	11.0	51.1	0.0	100

표 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3.5	19.9	23.3	24.9	32.6	19.1	51.8	100
성별	남자	607	3.7	19.5	23.1	25.2	32.0	19.6	51.7	100
	여자	593	3.2	20.3	23.5	24.6	33.3	18.6	51.9	100
연령별	19~29세	227	3.6	19.7	23.3	22.0	34.3	20.5	54.8	100
	30대	238	4.9	20.0	24.9	27.7	30.0	17.3	47.4	100
	40대	275	1.4	18.8	20.1	25.9	35.0	19.0	54.0	100
	50대	254	4.8	20.1	24.9	23.1	33.2	18.8	52.0	100
	60대 이상	206	2.8	21.0	23.9	25.8	29.9	20.4	50.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3	24.1	27.5	23.3	26.6	22.6	49.2	100
	고졸	493	3.1	20.7	23.8	26.4	34.3	15.5	49.8	100
	대재 이상	584	3.8	18.2	22.0	24.0	32.5	21.5	54.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0.9	20.9	52.3	13.9	12.9	26.8	100
	자영업	198	6.1	15.9	22.0	24.6	32.3	21.1	53.4	100
	블루 칼라	336	2.8	19.4	22.2	24.4	35.6	17.8	53.3	100
	화이트칼라	276	4.5	18.1	22.6	27.8	34.6	15.0	49.6	100
	전업 주부	243	2.3	24.0	26.2	25.1	29.9	18.7	48.7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4	23.1	24.6	15.6	29.2	30.6	59.8	100
	200만원 미만	117	2.4	18.0	20.4	27.1	31.3	21.2	52.5	100
	200~299만원	203	3.2	34.8	38.1	22.5	22.9	16.5	39.4	100
	300~399만원	366	3.9	20.6	24.6	25.4	32.9	17.1	50.0	100
	400만원 이상	514	3.4	13.8	17.2	25.0	36.6	21.2	57.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4	22.6	26.1	26.9	29.9	17.1	47.0	100
	충청권	122	3.2	3.8	7.1	18.8	43.8	30.4	74.1	100
	호남권	118	4.3	17.9	22.1	32.9	27.7	17.2	44.9	100
	영남권	310	3.8	23.0	26.8	20.4	37.6	15.2	52.8	100
	강원	36	0.0	10.8	10.8	31.4	20.0	37.8	57.8	100
지역 크기	제주	14	0.0	10.0	10.0	9.0	15.7	65.4	81.1	100
	대도시	554	2.8	20.2	23.0	25.7	35.2	16.1	51.2	100
	중·소도시	580	4.2	20.8	25.0	23.4	29.4	22.2	51.6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2.4	8.7	11.1	31.0	39.4	18.4	57.9	100
	진보적	294	3.8	17.8	21.5	26.9	32.7	18.9	51.6	100
	중도	593	3.4	22.7	26.1	24.4	30.7	18.9	49.5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4	16.4	19.7	24.0	36.3	19.9	56.2	100
	불교	248	4.8	21.1	25.9	24.9	25.7	23.5	49.2	100
	기독교	245	2.4	24.0	26.4	23.8	34.0	15.8	49.8	100
	천주교	70	4.2	22.2	26.4	19.1	31.3	23.3	54.5	100
	기타	3	0.0	0.0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3	17.4	20.7	25.2	35.6	18.5	54.1	100
	모름/무응답	11	0.0	28.6	28.6	52.3	8.1	11.0	19.1	100

표 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6.0	25.9	32.0	20.2	29.9	17.8	47.7	0.1	100
성별	남자	607	6.8	26.3	33.1	19.8	30.6	16.4	47.0	0.2	100
	여자	593	5.3	25.6	30.9	20.7	29.1	19.3	48.4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6.9	21.4	28.4	23.9	32.0	15.8	47.8	0.0	100
	30대	238	5.9	27.7	33.7	21.4	26.9	18.0	45.0	0.0	100
	40대	275	5.1	25.8	30.9	23.1	29.6	16.1	45.7	0.3	100
	50대	254	7.7	25.4	33.1	14.4	32.5	19.9	52.5	0.0	100
	60대 이상	206	4.4	29.7	34.0	18.3	28.0	19.7	47.6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2	25.6	28.7	20.2	31.4	19.6	51.1	0.0	100
	고졸	493	5.9	26.3	32.2	18.4	31.1	18.3	49.4	0.0	100
	대재 이상	584	6.8	25.7	32.5	21.8	28.5	17.0	45.5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42.6	42.6	13.8	22.7	20.9	43.6	0.0	100
	자영업	198	4.1	25.6	29.7	15.2	34.8	20.3	55.1	0.0	100
	블루 칼라	336	5.4	23.4	28.8	19.0	33.4	18.4	51.8	0.3	100
	화이트칼라	276	9.6	27.4	37.1	23.6	27.4	12.0	39.4	0.0	100
	전업 주부	243	4.3	26.0	30.3	22.2	26.3	21.2	47.5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7.1	27.2	34.4	21.3	26.1	18.2	44.4	0.0	100
	200만원 미만	117	4.1	28.0	32.1	21.5	25.1	21.3	46.4	0.0	100
	200~299만원	203	8.5	29.0	37.5	22.7	25.0	14.9	39.8	0.0	100
	300~399만원	366	6.9	29.3	36.1	18.0	28.4	17.4	45.8	0.0	100
	400만원 이상	514	4.9	21.9	26.8	20.6	33.9	18.5	52.4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4	24.2	29.6	21.9	32.3	16.3	48.6	0.0	100
	충청권	122	7.4	23.5	30.9	20.3	28.9	19.9	48.8	0.0	100
	호남권	118	7.2	39.2	46.4	19.3	16.9	17.4	34.3	0.0	100
	영남권	310	6.5	25.8	32.3	18.5	30.7	18.2	48.9	0.3	100
	강원	36	4.3	24.1	28.5	15.2	27.3	29.1	56.4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6	19.1	25.7	9.0	31.0	34.3	65.3	0.0	100
	대도시	554	5.8	24.4	30.2	20.8	33.0	15.9	48.9	0.2	100
	중·소도시	580	6.1	26.7	32.8	20.0	28.3	18.9	47.2	0.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7.7	32.3	40.0	17.5	17.6	24.8	42.5	0.0	100
	진보적	294	7.4	27.5	34.9	15.0	32.1	18.1	50.1	0.0	100
	중도	593	6.8	24.7	31.5	24.2	27.7	16.5	44.2	0.2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4	26.7	30.2	17.7	32.0	20.2	52.1	0.0	100
	불교	248	6.6	24.8	31.4	19.6	30.5	18.5	49.0	0.0	100
	기독교	245	5.8	28.2	34.0	19.3	29.5	17.3	46.7	0.0	100
	천주교	70	2.7	25.5	28.3	18.2	31.1	22.5	53.6	0.0	100
	기타	3	0.0	65.6	65.6	0.0	34.4	0.0	34.4	0.0	100
	종교없음	624	6.4	25.2	31.6	21.0	29.8	17.5	47.3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36.7	36.7	33.5	18.6	11.2	29.8	0.0	100

표 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2.2	8.3	10.5	26.5	40.9	22.0	62.9	0.1	100
성별	남자	607	1.9	9.4	11.3	27.5	40.3	20.8	61.1	0.2	100
	여자	593	2.6	7.2	9.8	25.6	41.5	23.1	64.7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3.0	4.8	7.8	24.9	43.3	24.0	67.3	0.0	100
	30대	238	2.2	7.2	9.4	31.1	39.0	20.4	59.5	0.0	100
	40대	275	1.6	9.7	11.3	25.3	39.8	23.3	63.1	0.3	100
	50대	254	3.5	11.1	14.5	26.0	40.6	18.8	59.4	0.0	100
	60대 이상	206	0.6	8.2	8.8	25.3	42.3	23.6	65.9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2	10.3	12.5	25.3	37.9	24.2	62.2	0.0	100
	고졸	493	1.9	9.3	11.2	26.5	41.0	21.2	62.2	0.0	100
	대재 이상	584	2.5	7.0	9.5	26.8	41.4	22.1	63.5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5.9	5.9	38.0	43.1	13.0	56.1	0.0	100
	자영업	198	2.0	8.1	10.0	17.4	47.3	25.3	72.6	0.0	100
	블루 칼라	336	1.2	8.9	10.0	28.0	36.1	25.5	61.7	0.3	100
	화이트칼라	276	4.2	7.4	11.7	31.5	40.6	16.2	56.8	0.0	100
	전업 주부	243	2.7	10.5	13.2	24.4	42.2	20.2	62.4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0.6	5.1	5.7	28.4	41.3	24.6	65.9	0.0	100
	200만원 미만	117	1.8	10.7	12.5	29.0	33.1	25.4	58.5	0.0	100
	200~299만원	203	5.3	8.7	14.0	28.5	41.3	16.1	57.4	0.0	100
	300~399만원	366	1.3	8.7	10.0	28.7	40.4	20.9	61.3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7	7.3	9.0	23.6	42.9	24.3	67.1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	7.8	10.9	26.8	39.1	23.2	62.3	0.0	100
	충청권	122	1.8	5.6	7.5	24.9	48.9	18.8	67.6	0.0	100
	호남권	118	1.5	8.2	9.7	35.1	37.8	17.4	55.1	0.0	100
	영남권	310	1.2	10.4	11.6	25.2	45.1	17.7	62.9	0.3	100
	강원	36	2.3	9.0	11.2	15.6	21.8	51.3	73.1	0.0	100
	제주	14	0.0	3.6	3.6	12.3	28.6	55.6	84.1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7	10.5	12.1	28.6	41.8	17.3	59.1	0.2	100
	중·소도시	580	3.0	6.5	9.5	24.8	39.0	26.7	65.7	0.0	100
	읍/면	66	0.0	6.1	6.1	23.9	50.1	19.8	70.0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0	8.4	12.4	26.0	40.0	21.6	61.7	0.0	100
	중도	593	1.8	9.8	11.6	28.6	38.7	21.0	59.7	0.2	100
	보수적	313	1.4	5.5	6.9	23.2	45.9	24.0	69.9	0.0	100
종교별	불교	248	3.4	8.4	11.8	22.3	40.9	25.1	65.9	0.0	100
	기독교	245	1.5	9.2	10.7	26.5	43.7	19.0	62.8	0.0	100
	천주교	70	2.6	5.9	8.5	17.5	53.8	20.2	74.0	0.0	100
	기타	3	0.0	0.0	0.0	34.4	65.6	0.0	65.6	0.0	100
	종교없음	624	2.1	8.1	10.1	28.7	38.6	22.4	61.0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17.6	17.6	52.4	18.8	11.2	30.0	0.0	100

표 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8	10.9	12.7	22.8	39.4	24.9	64.4	0.1	100
성별	남자	607	1.8	12.6	14.4	21.8	38.6	25.0	63.6	0.2	100
	여자	593	1.7	9.3	11.0	23.8	40.3	24.9	65.2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3.1	5.5	8.6	19.7	45.8	25.9	71.7	0.0	100
	30대	238	1.3	12.2	13.6	19.9	41.4	25.1	66.5	0.0	100
	40대	275	0.7	14.2	14.9	24.2	36.1	24.4	60.5	0.3	100
	50대	254	3.1	11.9	14.9	26.3	33.8	25.0	58.7	0.0	100
	60대 이상	206	0.6	9.9	10.5	23.5	41.5	24.4	65.9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	9.5	10.6	28.0	39.3	22.1	61.4	0.0	100
	고졸	493	1.6	11.5	13.1	22.9	39.2	24.8	64.0	0.0	100
	대재 이상	584	2.1	10.8	12.9	21.6	39.7	25.7	65.3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7.7	17.7	44.3	25.9	12.1	38.0	0.0	100
	자영업	198	2.4	8.8	11.2	20.6	37.9	30.2	68.2	0.0	100
	블루 칼라	336	0.7	9.1	9.8	24.0	42.2	23.8	65.9	0.3	100
	화이트칼라	276	3.5	14.4	17.9	25.8	34.2	22.2	56.3	0.0	100
	전업 주부	243	1.9	10.8	12.7	22.9	42.1	22.4	64.5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0.0	10.9	10.9	13.2	43.2	32.7	75.9	0.0	100
	200만원 미만	117	1.1	13.9	15.0	29.5	34.5	20.9	55.5	0.0	100
	200~299만원	203	4.0	12.6	16.5	21.9	43.1	18.6	61.6	0.0	100
	300~399만원	366	1.8	11.9	13.7	21.3	39.3	25.7	65.0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1	9.0	10.0	22.7	39.3	27.8	67.1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6	10.3	12.9	20.2	40.2	26.8	67.0	0.0	100
	충청권	122	0.7	8.3	8.9	27.0	34.8	29.3	64.1	0.0	100
	호남권	118	0.9	17.9	18.9	34.8	28.4	17.9	46.3	0.0	100
	영남권	310	1.2	11.1	12.3	22.2	46.5	18.7	65.2	0.3	100
	강원	36	0.0	9.6	9.6	22.1	23.4	44.9	68.3	0.0	100
	제주	14	0.0	3.6	3.6	15.3	25.3	55.9	81.1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	11.1	12.4	20.9	41.6	24.9	66.5	0.2	100
	중·소도시	580	2.4	10.6	12.9	23.1	37.8	26.1	63.9	0.0	100
	읍/면	66	0.0	13.4	13.4	36.2	35.5	14.9	50.4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7	15.3	18.0	19.6	40.8	21.5	62.4	0.0	100
	중도	593	1.3	10.4	11.8	26.1	35.9	26.1	62.0	0.2	100
	보수적	313	1.7	7.9	9.6	19.6	45.0	25.9	70.8	0.0	100
종교별	불교	248	3.3	10.9	14.2	19.8	41.3	24.7	66.0	0.0	100
	기독교	245	0.9	9.2	10.2	24.0	42.6	23.2	65.8	0.0	100
	천주교	70	1.6	7.5	9.1	22.1	43.0	25.7	68.8	0.0	100
	기타	3	0.0	0.0	0.0	34.4	65.6	0.0	65.6	0.0	100
	종교없음	624	1.6	11.9	13.4	23.4	37.1	26.0	63.0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22.1	22.1	33.3	33.5	11.2	44.7	0.0	100

표 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9	10.4	13.2	19.0	36.0	31.7	67.7	0.1	100
성별	남자	607	4.1	10.0	14.1	19.9	35.3	30.5	65.8	0.2	100
	여자	593	1.6	10.7	12.3	18.0	36.8	32.9	69.6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3.4	8.7	12.1	13.2	37.1	37.6	74.7	0.0	100
	30대	238	1.5	10.2	11.8	22.3	37.3	28.6	65.9	0.0	100
	40대	275	2.9	12.3	15.2	18.3	34.0	32.2	66.1	0.3	100
	50대	254	5.9	10.5	16.4	19.7	33.9	30.1	63.9	0.0	100
	60대 이상	206	0.0	9.7	9.7	21.4	38.9	30.1	68.9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0.7	9.3	10.0	23.5	38.6	27.9	66.5	0.0	100
	고졸	493	2.2	9.5	11.7	19.8	36.8	31.6	68.4	0.0	100
	대재 이상	584	3.9	11.3	15.2	17.3	34.9	32.5	67.4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0	5.9	13.9	37.9	25.0	23.2	48.2	0.0	100
	자영업	198	3.5	5.4	8.9	19.8	32.0	39.2	71.2	0.0	100
	블루 칼라	336	0.8	9.1	9.9	18.8	36.1	35.0	71.0	0.3	100
	화이트칼라	276	5.6	13.5	19.1	21.7	33.5	25.7	59.2	0.0	100
	전업 주부	243	1.8	12.9	14.7	18.8	41.7	24.8	66.5	0.0	100
	무직/기타	127	2.7	10.5	13.1	9.5	38.7	38.7	77.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5	12.1	15.6	21.4	33.4	29.6	63.0	0.0	100
	200~299만원	203	4.0	14.6	18.6	16.4	41.4	23.6	65.0	0.0	100
	300~399만원	366	3.1	7.9	11.0	20.7	37.5	30.8	68.3	0.0	1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14	2.1	10.0	12.2	18.2	33.5	35.9	69.4	0.2	100
	수도권	601	3.5	10.1	13.6	15.6	33.6	37.2	70.7	0.0	100
	충청권	122	0.7	8.8	9.5	31.3	32.2	27.0	59.2	0.0	100
	호남권	118	4.9	16.9	21.8	19.0	36.4	22.8	59.2	0.0	100
	영남권	310	1.8	8.8	10.7	21.2	44.7	23.1	67.9	0.3	100
	강원	36	2.0	9.7	11.7	19.2	19.8	49.2	69.1	0.0	100
	제주	14	3.2	12.7	15.8	6.6	22.1	55.4	77.5	0.0	100
	대도시	554	3.3	10.7	14.0	18.9	32.7	34.3	66.9	0.2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2.5	10.6	13.0	18.4	37.6	30.9	68.5	0.0	100
	읍/면	66	2.7	5.7	8.4	24.5	50.1	17.0	67.1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5.9	13.3	19.2	18.6	32.0	30.2	62.2	0.0	100
	중도	593	1.6	10.3	11.9	20.4	36.9	30.6	67.5	0.2	100
	보수적	313	2.5	7.6	10.1	16.6	38.2	35.1	73.3	0.0	100
종교별	불교	248	2.9	10.4	13.3	19.2	35.8	31.6	67.4	0.0	100
	기독교	245	2.6	9.4	12.0	17.2	37.6	33.2	70.8	0.0	100
	천주교	70	4.6	8.4	13.0	20.0	32.1	34.9	67.0	0.0	100
	기타	3	0.0	0.0	0.0	34.4	65.6	0.0	65.6	0.0	100
	종교없음	624	2.8	11.0	13.8	19.0	36.1	31.1	67.1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11.2	11.2	44.1	22.2	22.4	44.7	0.0	100

표 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전 체		1200	23.0	29.1	48.0	100
성별	남자	607	20.8	30.3	48.8	100
	여자	593	25.1	27.7	47.1	100
연령별	19~29세	227	19.5	30.1	50.4	100
	30대	238	16.6	36.1	47.3	100
	40대	275	23.3	27.8	48.9	100
	50대	254	29.2	26.0	44.8	100
	60대 이상	206	26.0	25.2	48.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3.1	26.8	50.1	100
	고졸	493	25.9	28.2	45.9	100
	대재 이상	584	20.5	30.2	49.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9	25.8	52.3	100
	자영업	198	25.1	23.3	51.6	100
	블루 칼라	336	22.7	30.9	46.4	100
	화이트칼라	276	22.5	31.0	46.5	100
	전업 주부	243	22.3	29.3	48.4	100
	무직/기타	127	22.8	29.0	48.2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5.4	26.3	48.3	100
	200~299만원	203	21.6	29.3	49.1	100
	300~399만원	366	24.5	26.0	49.5	100
	400만원 이상	514	21.9	31.8	46.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2.5	29.9	47.6	100
	충청권	122	31.0	18.4	50.5	100
	호남권	118	24.1	26.0	49.9	100
	영남권	310	19.6	34.5	45.9	100
	강원	36	22.8	18.2	59.0	100
	제주	14	38.3	18.7	43.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9.3	30.5	50.2	100
	중·소도시	580	26.6	28.1	45.3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21.5	25.5	53.1	100
	진보적	294	24.0	26.2	49.8	100
	중도	593	20.6	33.4	46.0	100
	보수적	313	26.3	23.5	50.1	100
종교별	불교	248	21.8	33.9	44.3	100
	기독교	245	28.0	27.9	44.2	100
	천주교	70	18.4	33.8	47.8	100
	기타	3	37.1	0.0	62.9	100
	종교없음	624	22.2	27.2	50.7	100
	모름/무응답	11	8.1	29.8	62.1	100

표 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전 체		1200	38.2	33.3	28.5	100
성별	남자	607	37.6	30.8	31.5	100
	여자	593	38.9	35.8	25.4	100
연령별	19~29세	227	34.0	38.0	28.0	100
	30대	238	33.8	36.3	29.9	100
	40대	275	39.0	30.6	30.4	100
	50대	254	40.7	29.7	29.6	100
	60대 이상	206	43.9	32.6	23.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6.1	27.6	26.2	100
	고졸	493	39.7	33.1	27.2	100
	대재 이상	584	35.3	34.6	3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4.2	9.1	26.7	100
	자영업	198	38.0	27.6	34.5	100
	블루 칼라	336	36.9	35.4	27.6	100
	화이트칼라	276	36.2	32.0	31.7	100
	전업 주부	243	39.2	36.1	24.8	100
	무직/기타	127	40.5	37.8	21.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6.6	23.8	29.6	100
	200~299만원	203	40.1	34.1	25.9	100
	300~399만원	366	40.6	28.4	31.0	100
	400만원 이상	514	33.9	38.6	27.5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4.3	41.5	24.2	100
	충청권	122	28.4	27.9	43.7	100
	호남권	118	53.2	26.4	20.4	100
	영남권	310	43.2	23.4	33.3	100
	강원	36	37.6	24.8	37.6	100
	제주	14	57.3	24.9	17.8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0.0	31.5	28.5	100
	중·소도시	580	35.8	35.3	28.9	100
	읍/면	66	45.0	30.9	24.1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4.8	35.1	30.1	100
	중도	593	38.1	34.4	27.5	100
	보수적	313	41.7	29.4	28.9	100
종교별	불교	248	36.7	32.0	31.3	100
	기독교	245	38.1	38.5	23.4	100
	천주교	70	33.2	29.4	37.3	100
	기타	3	37.1	0.0	62.9	100
	종교없음	624	39.7	32.1	28.2	100
	모름/무응답	11	26.6	44.6	28.7	100

표 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에도 상관이 없다	계
			%	%	%		%
전 체		1200	48.1	33.5	13.6	4.8	100
성별	남자	607	49.0	32.4	13.4	5.2	100
	여자	593	47.1	34.6	13.7	4.5	100
연령별	19~29세	227	52.3	32.3	9.5	6.0	100
	30대	238	46.3	33.2	15.4	5.1	100
	40대	275	44.8	36.9	14.1	4.2	100
	50대	254	42.5	34.4	18.6	4.5	100
	60대 이상	206	56.8	29.6	9.1	4.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4.1	29.5	10.7	5.7	100
	고졸	493	46.9	34.7	13.5	4.9	100
	대재 이상	584	47.8	33.3	14.2	4.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9.2	30.0	14.7	6.2	100
	자영업	198	46.7	37.1	12.2	4.0	100
	블루 칼라	336	52.8	31.1	11.1	5.1	100
	화이트칼라	276	39.5	38.4	17.4	4.7	100
	전업 주부	243	46.6	31.4	16.6	5.3	100
	무직/기타	127	59.2	28.1	7.9	4.8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8.1	35.1	11.3	5.5	100
	200~299만원	203	50.8	31.6	14.6	3.0	100
	300~399만원	366	51.7	30.3	13.1	4.9	100
	400만원 이상	514	44.5	36.1	14.0	5.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7.8	34.6	13.3	4.4	100
	충청권	122	36.0	34.5	14.5	15.1	100
	호남권	118	50.2	32.9	15.0	1.9	100
	영남권	310	53.0	31.1	12.8	3.2	100
	강원	36	44.9	32.8	18.0	4.4	100
	제주	14	50.2	36.4	13.3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51.6	32.9	12.3	3.2	100
	중·소도시	580	45.1	33.6	14.6	6.6	100
	읍/면	66	44.7	36.7	15.8	2.7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0.5	41.7	11.9	6.0	100
	중도	593	49.8	31.8	14.4	4.0	100
	보수적	313	52.0	28.9	13.7	5.3	100
종교별	불교	248	46.5	35.7	13.8	4.1	100
	기독교	245	49.5	32.6	13.2	4.7	100
	천주교	70	43.1	34.6	22.3	0.0	100
	기타	3	71.6	28.4	0.0	0.0	100
	종교없음	624	49.1	32.7	12.8	5.5	100
	모름/무응답	11	26.6	40.1	11.2	22.1	100

표 13.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정도

문) ○○님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공감 한다	② 대체로 공감 한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6.0	30.4	36.4	36.8	22.0	4.8	26.8	100
	남자	607	6.0	32.1	38.1	34.9	22.9	4.2	27.0	100
성별	여자	593	6.0	28.7	34.7	38.7	21.2	5.4	26.6	100
연령별	19~29세	227	2.9	23.3	26.3	36.6	29.0	8.1	37.1	100
	30대	238	4.7	29.1	33.8	35.5	24.1	6.6	30.7	100
	40대	275	4.3	26.2	30.6	39.4	25.9	4.2	30.0	100
	50대	254	8.2	36.9	45.1	36.3	16.0	2.6	18.6	100
	60대 이상	206	10.3	37.3	47.6	35.5	14.4	2.5	16.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8.5	38.7	47.3	36.8	13.7	2.2	15.9	100
	고졸	493	5.7	32.8	38.5	37.4	21.1	3.1	24.1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5.7	26.6	32.4	36.3	24.6	6.8	31.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4.4	41.7	56.1	21.9	18.1	3.9	22.0	100
	자영업	198	8.3	31.5	39.7	36.5	20.8	3.0	23.8	100
	블루 칼라	336	4.6	33.1	37.8	36.4	22.2	3.6	25.8	100
	화이트칼라	276	6.0	29.6	35.6	36.8	21.0	6.7	27.6	100
	전업 주부	243	6.1	29.9	36.0	38.5	21.2	4.3	25.5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4.6	22.4	27.0	37.5	28.0	7.5	35.5	100
	200만원 미만	117	4.1	35.4	39.6	38.8	17.1	4.5	21.6	100
	200~299만원	203	5.4	32.4	37.8	32.7	24.7	4.8	29.5	100
	300~399만원	366	6.8	28.6	35.4	37.2	23.4	4.1	27.4	100
	400만원 이상	514	6.1	29.8	35.9	37.7	21.1	5.4	26.5	100
가구 소득 수준	수도권	601	7.1	31.4	38.5	34.6	21.7	5.2	26.9	100
	충청권	122	4.6	29.3	33.9	47.2	15.3	3.6	18.9	100
	호남권	118	11.7	36.2	47.9	29.2	18.8	4.0	22.9	100
	영남권	310	2.4	27.9	30.2	38.6	26.7	4.4	31.1	100
	강원	36	2.4	29.4	31.8	41.7	19.7	6.9	26.5	100
지역별	제주	14	13.1	6.7	19.8	49.3	24.5	6.4	30.9	100
	대도시	554	4.3	25.4	29.7	41.6	22.9	5.8	28.7	100
	중·소도시	580	6.7	35.9	42.6	32.0	21.4	4.0	25.4	100
	읍/면	66	14.5	23.8	38.3	38.2	20.6	3.0	23.5	100
	진보적	294	6.2	24.6	30.8	37.1	26.1	6.0	32.1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4.1	30.3	34.4	39.2	21.7	4.7	26.4	100
	보수적	313	9.5	36.0	45.5	31.9	18.8	3.8	22.6	100
	불교	248	7.1	31.7	38.8	42.2	16.5	2.5	19.0	100
종교별	기독교	245	5.9	32.7	38.6	36.9	19.5	5.1	24.6	100
	천주교	70	11.5	26.5	38.0	39.4	18.5	4.2	22.7	100
	기타	3	0.0	71.6	71.6	28.4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5.0	29.4	34.4	34.0	26.1	5.5	31.7	100
	모름/무응답	11	7.5	22.2	29.8	59.1	0.0	11.1	11.1	100

표 14.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	협력대상 %	경쟁대상 %	경계대상 %	적대대상 %	계 %
전 체		1200	17.3	35.2	7.9	23.1	16.5	100
성별	남자	607	14.9	37.1	6.9	23.7	17.5	100
	여자	593	19.8	33.2	9.0	22.5	15.5	100
연령별	19~29세	227	11.4	36.9	7.1	24.9	19.7	100
	30대	238	16.3	31.6	11.3	23.9	16.8	100
	40대	275	13.6	39.0	7.9	23.7	15.7	100
	50대	254	18.9	39.0	8.1	19.8	14.2	100
	60대 이상	206	27.8	27.6	4.6	23.3	16.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0.8	27.9	7.1	18.2	16.0	100
	고졸	493	17.6	34.1	8.4	25.8	14.1	100
	대재 이상	584	14.2	37.6	7.7	21.8	18.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2	45.8	5.1	28.8	9.2	100
	자영업	198	18.8	39.1	3.1	21.6	17.5	100
	블루 칼라	336	18.3	29.4	9.3	27.5	15.4	100
	화이트칼라	276	11.7	40.0	9.5	22.9	15.9	100
	전업 주부	243	19.9	34.8	9.8	19.4	16.1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20.5	32.7	5.2	20.3	21.4	100
	200만원 미만	117	26.4	35.5	6.5	18.5	13.0	100
	200~299만원	203	20.4	36.2	9.0	20.9	13.6	100
	300~399만원	366	16.3	36.6	8.3	24.6	14.2	100
	400만원 이상	514	14.7	33.6	7.6	23.9	20.1	100
가구 소득 수준	수도권	601	14.6	31.9	9.1	22.9	21.5	100
	충청권	122	29.7	39.9	8.1	15.3	7.0	100
	호남권	118	18.9	53.1	4.9	9.0	14.1	100
	영남권	310	16.0	32.8	7.1	31.7	12.4	100
	강원	36	22.2	35.7	4.5	24.8	12.8	100
지역별	제주	14	27.0	34.9	6.4	22.1	9.6	100
	대도시	554	17.6	30.8	4.9	23.6	23.1	100
	중·소도시	580	17.4	39.3	10.6	23.0	9.7	100
	읍/면	66	14.4	35.1	9.6	19.3	21.6	100
	진보적	294	15.6	40.6	9.9	20.7	13.2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6.1	35.0	8.3	25.0	15.7	100
	보수적	313	21.3	30.5	5.5	21.6	21.3	100
	불교	248	19.2	35.8	5.4	24.3	15.4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9.0	37.3	7.4	19.4	16.9	100
	천주교	70	21.6	37.6	6.1	22.8	12.0	100
	기타	3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5.5	33.7	9.1	24.4	17.3	100
	모름/무응답	11	19.4	24.9	22.4	11.0	22.3	100

표 15.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2.0	26.8	28.7	53.3	17.9	71.3	100
	남자	607	1.9	26.2	28.1	53.3	18.6	71.9	100
	여자	593	2.1	27.3	29.4	53.3	17.3	70.6	100
연령별	19~29세	227	0.6	22.7	23.4	55.3	21.3	76.6	100
	30대	238	2.4	28.2	30.6	55.3	14.1	69.4	100
	40대	275	2.4	24.6	27.1	54.2	18.7	72.9	100
	50대	254	1.9	31.8	33.7	49.6	16.7	66.3	100
	60대 이상	206	2.6	26.1	28.7	52.1	19.2	71.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1	29.1	31.2	47.7	21.0	68.8	100
	고졸	493	2.1	26.1	28.3	56.0	15.7	71.7	100
	대재 이상	584	1.8	26.8	28.6	52.2	19.2	71.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6.5	36.5	55.2	8.2	63.5	100
	자영업	198	2.6	25.0	27.7	53.2	19.1	72.3	100
	블루 칼라	336	2.3	21.3	23.7	56.9	19.4	76.3	100
	화이트칼라	276	1.9	30.9	32.8	52.4	14.8	67.2	100
	전업 주부	243	1.6	29.8	31.4	51.5	17.1	68.6	100
	무직/기타	127	1.1	27.6	28.7	49.0	22.3	71.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3	25.5	27.8	56.1	16.1	72.2	100
	200~299만원	203	1.6	28.9	30.4	54.0	15.6	69.6	100
	300~399만원	366	1.7	25.9	27.6	53.6	18.8	72.4	100
	400만원 이상	514	2.3	26.8	29.1	52.2	18.7	70.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3	25.8	28.1	53.6	18.4	71.9	100
	충청권	122	1.2	27.5	28.7	59.8	11.4	71.3	100
	호남권	118	2.6	29.7	32.3	48.5	19.2	67.7	100
	영남권	310	1.2	27.1	28.2	51.8	19.9	71.8	100
	강원	36	4.3	26.4	30.7	55.4	13.9	69.3	100
	제주	14	3.6	31.4	35.0	52.4	12.6	65.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0	22.9	23.9	54.7	21.4	76.1	100
	중·소도시	580	2.9	31.1	34.0	50.8	15.2	66.0	100
	읍/면	66	1.9	21.7	23.7	63.2	13.1	76.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0.3	35.1	35.4	48.6	16.1	64.6	100
	중도	593	2.6	26.3	28.9	53.8	17.2	71.1	100
	보수적	313	2.4	19.8	22.2	56.8	21.1	77.8	100
종교별	불교	248	1.2	31.4	32.6	49.2	18.2	67.4	100
	기독교	245	2.0	27.3	29.3	54.3	16.4	70.7	100
	천주교	70	6.9	22.7	29.6	56.0	14.4	70.4	100
	기타	3	0.0	0.0	0.0	62.9	37.1	100.0	100
	종교없음	624	1.8	25.0	26.8	54.5	18.7	73.2	100
	모름/무응답	11	0.0	40.1	40.1	37.8	22.1	59.9	100

표 16.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2.2	23.4	25.6	47.8	26.6	74.4	100
	남자	607	2.1	23.7	25.7	47.4	26.9	74.3	100
	여자	593	2.3	23.2	25.5	48.2	26.4	74.5	100
연령별	19~29세	227	1.8	19.0	20.8	49.2	30.0	79.2	100
	30대	238	2.6	25.3	27.9	47.6	24.5	72.1	100
	40대	275	2.5	20.3	22.8	52.7	24.6	77.2	100
	50대	254	1.2	28.9	30.1	45.4	24.5	69.9	100
	60대 이상	206	2.7	23.7	26.5	42.8	30.7	73.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	18.5	19.5	48.6	31.9	80.5	100
	고졸	493	2.0	28.0	30.0	48.1	21.9	70.0	100
	대재 이상	584	2.5	20.7	23.2	47.3	29.5	76.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8.9	28.9	61.1	10.0	71.1	100
	자영업	198	2.5	19.2	21.6	49.8	28.6	78.4	100
	블루 칼라	336	1.6	24.6	26.2	46.8	27.0	73.8	100
	화이트칼라	276	2.1	23.6	25.7	50.6	23.7	74.3	100
	전업 주부	243	2.8	27.9	30.8	45.4	23.8	69.2	100
	무직/기타	127	2.3	17.3	19.6	43.6	36.8	80.4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	21.5	22.6	49.1	28.3	77.4	100
	200~299만원	203	1.6	24.4	26.0	49.7	24.3	74.0	100
	300~399만원	366	1.6	23.6	25.2	50.4	24.4	74.8	100
	400만원 이상	514	3.0	23.4	26.4	44.8	28.7	73.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3	29.6	32.9	43.3	23.8	67.1	100
	충청권	122	2.4	12.4	14.9	61.7	23.5	85.1	100
	호남권	118	0.0	21.6	21.6	54.8	23.6	78.4	100
	영남권	310	0.3	18.0	18.3	48.2	33.5	81.7	100
	강원	36	4.4	13.1	17.5	46.7	35.7	82.5	100
	제주	14	3.6	15.9	19.4	55.9	24.6	80.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	21.8	23.2	45.6	31.2	76.8	100
	중·소도시	580	2.9	26.7	29.6	48.2	22.3	70.4	100
	읍/면	66	2.0	8.8	10.8	62.7	26.5	89.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9	25.1	27.0	49.9	23.2	73.0	100
	중도	593	2.0	24.5	26.6	47.5	25.9	73.4	100
	보수적	313	2.7	19.8	22.5	46.3	31.2	77.5	100
종교별	불교	248	1.3	18.9	20.2	49.1	30.6	79.8	100
	기독교	245	1.3	24.9	26.2	47.4	26.4	73.8	100
	천주교	70	6.1	35.9	41.9	36.7	21.4	58.1	100
	기타	3	0.0	28.4	28.4	0.0	71.6	71.6	100
	종교없음	624	2.4	23.2	25.6	49.0	25.4	74.4	100
	모름/무응답	11	0.0	28.9	28.9	37.8	33.3	71.1	100

표 17.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대체로 동의 한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1	12.3	14.4	25.7	40.7	19.2	59.9	100
성별	남자	607	1.8	13.2	15.0	25.3	40.3	19.4	59.7	100
	여자	593	2.4	11.3	13.8	26.1	41.1	19.1	60.1	100
연령별	19~29세	227	2.9	11.1	14.0	25.6	41.2	19.2	60.4	100
	30대	238	1.9	13.3	15.2	25.4	38.4	21.1	59.4	100
	40대	275	0.7	10.8	11.6	27.8	41.5	19.2	60.6	100
	50대	254	2.9	15.3	18.2	25.0	39.6	17.2	56.8	100
	60대 이상	206	2.4	10.6	13.0	24.2	43.0	19.7	62.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	9.4	10.4	30.0	43.3	16.3	59.5	100
	고졸	493	2.8	13.2	15.9	26.4	41.8	15.8	57.7	100
	대재 이상	584	1.8	12.1	13.9	24.2	39.2	22.7	61.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9.7	9.7	49.2	31.3	9.8	41.1	100
	자영업	198	2.0	10.0	12.0	17.0	47.3	23.7	71.0	100
	블루 칼라	336	2.6	10.5	13.1	26.2	41.1	19.6	60.7	100
	화이트칼라	276	2.6	14.3	17.0	31.2	33.6	18.3	51.8	100
	전업 주부	243	1.8	15.2	17.0	27.0	41.4	14.6	56.1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0.8	11.0	11.8	19.7	44.7	23.8	68.5	100
	200만원 미만	117	2.4	6.4	8.8	32.2	42.3	16.7	59.0	100
	200~299만원	203	0.6	15.7	16.3	22.4	46.7	14.6	61.3	100
	300~399만원	366	1.8	12.2	14.0	28.1	39.4	18.5	57.9	100
	400만원 이상	514	2.9	12.4	15.2	23.8	38.8	22.2	61.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7	15.2	17.9	22.4	38.8	20.9	59.7	100
	충청권	122	2.8	10.2	13.0	38.0	33.7	15.3	49.0	100
	호남권	118	2.5	9.2	11.7	24.6	45.6	18.1	63.7	100
	영남권	310	0.6	9.3	9.9	29.8	44.5	15.8	60.3	100
	강원	36	2.3	8.5	10.8	12.9	43.4	32.9	76.3	100
	제주	14	0.0	6.4	6.4	12.4	47.7	33.5	81.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5	10.0	10.5	25.8	42.0	21.6	63.6	100
	중·소도시	580	3.7	15.6	19.3	25.1	38.7	17.0	55.6	100
	읍/면	66	1.5	2.2	3.7	29.8	47.2	19.3	66.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1	12.0	15.1	26.7	39.0	19.3	58.3	100
	중도	593	1.1	14.8	16.0	27.2	39.4	17.4	56.8	100
	보수적	313	3.1	7.7	10.8	21.8	44.6	22.7	67.3	100
종교별	불교	248	2.2	9.5	11.6	23.7	44.5	20.2	64.7	100
	기독교	245	2.7	10.0	12.8	21.6	43.7	21.9	65.7	100
	천주교	70	1.8	18.0	19.8	17.5	45.6	17.1	62.7	100
	기타	3	0.0	0.0	0.0	62.9	37.1	0.0	37.1	100
	종교없음	624	1.9	13.7	15.7	28.4	37.8	18.2	56.0	100
	모름/무응답	11	0.0	11.3	11.3	52.5	18.7	17.5	36.2	100

표 18.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변하고 있다	② 약간 변하고 있다	①+②	③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④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4.1	34.1	38.2	45.5	16.3	61.7	0.1	100
성별	남자	607	4.2	33.8	38.0	44.6	17.3	62.0	0.0	100
	여자	593	4.0	34.3	38.3	46.3	15.2	61.5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2.8	27.6	30.4	50.6	18.5	69.0	0.5	100
	30대	238	3.9	35.6	39.5	44.4	16.1	60.5	0.0	100
	40대	275	5.5	30.2	35.7	49.7	14.6	64.3	0.0	100
	50대	254	4.7	38.0	42.7	40.9	16.4	57.3	0.0	100
	60대 이상	206	3.1	39.8	42.9	41.1	16.0	57.1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6	40.7	44.3	40.7	15.1	55.7	0.0	100
	고졸	493	3.6	35.1	38.7	47.3	14.0	61.3	0.0	100
	대재 이상	584	4.6	31.8	36.4	45.0	18.4	63.4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9	48.6	54.6	30.8	14.7	45.4	0.0	100
	자영업	198	5.1	35.5	40.5	42.5	17.0	59.5	0.0	100
	블루 칼라	336	3.3	30.0	33.3	47.5	18.8	66.3	0.4	100
	화이트칼라	276	3.3	35.2	38.5	46.9	14.7	61.5	0.0	100
	전업 주부	243	4.8	38.3	43.0	44.2	12.8	57.0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5.0	29.7	34.7	46.4	18.9	65.3	0.0	100
	200만원 미만	117	2.4	40.1	42.5	40.7	16.8	57.5	0.0	100
	200~299만원	203	5.8	33.1	38.9	45.7	15.4	61.1	0.0	100
	300~399만원	366	2.9	37.6	40.6	45.7	13.8	59.4	0.0	100
	400만원 이상	514	4.6	30.6	35.2	46.3	18.2	64.6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	32.0	35.0	47.1	17.7	64.8	0.2	100
	충청권	122	4.4	27.1	31.6	62.8	5.7	68.4	0.0	100
	호남권	118	10.7	43.1	53.8	33.3	13.0	46.2	0.0	100
	영남권	310	3.1	36.8	39.9	42.6	17.5	60.1	0.0	100
	강원	36	6.4	36.8	43.2	27.3	29.5	56.8	0.0	100
	제주	14	9.7	40.2	49.9	37.8	12.3	50.1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1	34.4	38.5	44.3	16.9	61.2	0.2	100
	중·소도시	580	3.9	34.1	37.9	46.4	15.6	62.1	0.0	100
	읍/면	66	6.1	30.9	37.0	46.5	16.5	63.0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6.8	33.8	40.6	46.8	12.6	59.4	0.0	100
	중도	593	3.3	35.4	38.7	46.3	14.8	61.1	0.2	100
	보수적	313	3.1	31.7	34.8	42.6	22.6	65.2	0.0	100
종교별	불교	248	5.3	37.8	43.0	41.2	15.8	57.0	0.0	100
	기독교	245	5.3	32.8	38.1	48.7	13.2	61.9	0.0	100
	천주교	70	6.5	37.9	44.4	48.4	7.2	55.6	0.0	100
	기타	3	0.0	62.9	62.9	0.0	37.1	37.1	0.0	100
	종교없음	624	3.0	32.6	35.6	45.7	18.5	64.2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28.9	28.9	48.8	22.3	71.1	0.0	100

표 19.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2	56.3	70.5	26.4	3.1	29.5	100
	남자	607	12.2	57.6	69.8	26.7	3.5	30.2	100
	여자	593	16.3	54.9	71.2	26.2	2.6	28.8	100
연령별	19~29세	227	21.2	53.4	74.5	23.9	1.6	25.5	100
	30대	238	18.1	52.9	71.0	27.7	1.3	29.0	100
	40대	275	11.7	58.3	70.0	24.2	5.8	30.0	100
	50대	254	10.8	57.6	68.4	28.9	2.7	31.6	100
	60대 이상	206	9.8	59.0	68.8	27.8	3.5	31.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8	58.7	69.5	27.1	3.4	30.5	100
	고졸	493	9.4	55.9	65.4	30.8	3.9	34.6	100
	대재 이상	584	19.0	56.0	75.1	22.6	2.3	24.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3.0	53.0	66.0	29.1	4.9	34.0	100
	자영업	198	14.1	57.8	71.9	26.9	1.2	28.1	100
	블루 칼라	336	14.1	50.4	64.4	31.2	4.3	35.6	100
	화이트칼라	276	13.9	59.8	73.6	24.2	2.2	26.4	100
	전업 주부	243	10.6	59.4	70.0	26.3	3.7	30.0	100
	무직/기타	127	23.0	56.4	79.3	17.8	2.9	2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9	53.5	64.4	30.2	5.4	35.6	100
	200~299만원	203	12.8	54.9	67.7	29.4	2.9	32.3	100
	300~399만원	366	11.6	57.0	68.6	28.1	3.3	31.4	100
	400만원 이상	514	17.5	56.9	74.4	23.3	2.3	25.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0	60.8	76.9	21.2	2.0	23.1	100
	충청권	122	11.8	52.7	64.5	34.9	0.6	35.5	100
	호남권	118	18.4	56.2	74.6	20.7	4.7	25.4	100
	영남권	310	8.2	49.9	58.1	36.8	5.1	41.9	100
	강원	36	19.3	53.4	72.7	20.4	6.9	27.3	100
	제주	14	46.6	38.0	84.6	15.4	0.0	15.4	100
	대도시	554	15.6	57.8	73.4	22.6	4.0	26.6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2.3	54.8	67.1	30.4	2.5	32.9	100
	읍/면	66	19.8	56.4	76.2	23.8	0.0	23.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7.3	55.3	72.6	25.8	1.7	27.4	100
	중도	593	12.3	59.0	71.3	25.5	3.2	28.7	100
	보수적	313	15.1	52.0	67.1	28.9	4.0	32.9	100
종교별	불교	248	13.0	61.8	74.8	21.2	4.0	25.2	100
	기독교	245	14.6	58.7	73.3	23.8	2.9	26.7	100
	천주교	70	20.4	51.1	71.4	24.6	4.0	28.6	100
	기타	3	0.0	65.6	65.6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14.1	53.5	67.6	29.7	2.7	32.4	100
	모름/무응답	11	6.4	66.7	73.1	26.9	0.0	26.9	100

표 20-1. 북한 사회 인지도 - ㉠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5.6	25.0	37.0	32.4	100
	남자	607	7.7	29.3	38.6	24.4	100
	여자	593	3.4	20.6	35.3	40.7	100
연령별	19~29세	227	6.1	17.0	33.2	43.7	100
	30대	238	3.8	27.4	37.0	31.8	100
	40대	275	5.1	30.0	35.8	29.0	100
	50대	254	7.4	28.4	38.1	26.1	100
	60대 이상	206	5.5	20.2	41.2	33.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5	19.0	31.0	45.5	100
	고졸	493	4.1	24.4	39.7	31.8	100
	대재 이상	584	7.1	26.7	35.9	30.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0	20.9	32.3	40.8	100
	자영업	198	9.0	24.6	38.8	27.7	100
	블루 칼라	336	6.8	22.9	34.8	35.5	100
	화이트칼라	276	4.4	29.9	35.8	29.9	100
	전업 주부	243	1.4	24.7	40.5	33.4	100
	무직/기타	127	7.6	21.8	36.2	34.4	100
	200만원 미만	117	3.8	20.7	33.2	42.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5	25.2	37.8	32.5	100
	300~399만원	366	4.7	22.6	38.8	34.0	100
	400만원 이상	514	7.1	27.6	36.2	29.1	100
	수도권	601	6.9	28.6	39.7	24.8	100
지역별	충청권	122	7.0	12.3	31.2	49.5	100
	호남권	118	4.9	25.4	29.2	40.4	100
	영남권	310	2.6	24.4	37.0	36.1	100
	강원	36	8.5	15.6	37.7	38.3	100
	제주	14	3.2	15.3	31.5	50.0	100
	대도시	554	6.9	22.0	41.6	29.5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4.5	28.3	33.9	33.3	100
	읍/면	66	3.5	21.5	25.1	49.9	100
	진보적	294	7.7	31.6	33.8	26.9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3.1	22.3	39.6	35.0	100
	보수적	313	8.3	24.0	35.0	32.8	100
	불교	248	8.6	30.6	30.6	30.2	100
종교별	기독교	245	7.8	21.5	39.6	31.1	100
	천주교	70	6.9	17.4	39.8	35.9	100
	기타	3	0.0	37.1	34.4	28.4	100
	종교없음	624	3.3	24.9	38.2	33.7	100
	모름/무응답	11	11.1	30.5	36.4	21.9	100

표 20-2. 북한 사회 인지도 - ㉠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11.0	32.4	37.5	19.0	0.1	100
	남자	607	13.5	35.7	36.3	14.5	0.0	100
	여자	593	8.4	29.0	38.7	23.7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10.4	27.3	37.9	24.4	0.0	100
	30대	238	9.0	32.5	38.6	19.9	0.0	100
	40대	275	11.8	35.5	36.1	16.2	0.4	100
	50대	254	12.8	37.9	34.5	14.8	0.0	100
	60대 이상	206	10.8	26.8	41.3	21.1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9.6	20.5	38.4	31.5	0.0	100
	고졸	493	8.9	32.3	39.7	18.9	0.2	100
	대재 이상	584	13.1	35.0	35.4	16.5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9	27.0	31.7	32.4	0.0	100
	자영업	198	16.5	32.7	36.3	14.6	0.0	100
	블루 칼라	336	9.9	28.4	40.9	20.9	0.0	100
	화이트칼라	276	10.2	39.3	33.5	16.9	0.0	100
	전업 주부	243	7.2	33.8	37.7	20.8	0.4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4.9	25.4	39.6	20.1	0.0	100
	200만원 미만	117	10.0	25.0	41.9	23.0	0.0	100
	200~299만원	203	8.0	37.2	36.4	18.4	0.0	100
	300~399만원	366	8.9	28.4	41.2	21.5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4.0	35.0	34.2	16.6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4.1	36.2	35.2	14.3	0.2	100
	충청권	122	8.3	28.9	32.3	30.5	0.0	100
	호남권	118	8.3	36.9	38.3	16.5	0.0	100
	영남권	310	7.0	26.9	41.1	25.0	0.0	100
	강원	36	12.7	18.4	60.0	8.9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9.6	18.4	38.0	34.0	0.0	100
	대도시	554	14.0	29.8	40.1	15.9	0.2	100
	중·소도시	580	8.6	35.5	36.3	19.6	0.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7.6	26.1	26.2	40.1	0.0	100
	진보적	294	13.3	38.2	33.7	14.8	0.0	100
	중도	593	8.9	27.3	41.8	21.8	0.2	100
	보수적	313	12.9	36.4	32.9	17.8	0.0	100
종교별	불교	248	14.3	33.6	33.2	18.9	0.0	100
	기독교	245	14.3	36.2	32.5	17.0	0.0	100
	천주교	70	13.3	28.2	30.2	26.9	1.4	100
	기타	3	0.0	0.0	71.6	28.4	0.0	100
	종교없음	624	8.2	31.0	42.0	18.7	0.0	100
	모름/무응답	11	11.1	30.6	25.2	33.2	0.0	100

표 20-3. 북한 사회 인지도 - ㉡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11.3	23.6	42.5	22.6	100
	남자	607	13.3	25.7	42.1	19.0	100
	여자	593	9.3	21.5	43.0	26.2	100
연령별	19~29세	227	7.4	16.9	38.6	37.2	100
	30대	238	7.6	19.5	46.3	26.6	100
	40대	275	12.0	29.0	43.6	15.5	100
	50대	254	16.5	28.1	40.7	14.8	100
	60대 이상	206	12.8	23.1	43.4	20.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2.8	16.8	40.8	29.5	100
	고졸	493	11.7	25.4	42.5	20.4	100
	대재 이상	584	10.6	23.5	42.9	23.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9	24.3	43.3	28.4	100
	자영업	198	15.6	26.2	42.9	15.3	100
	블루 칼라	336	12.1	21.7	40.9	25.3	100
	화이트칼라	276	8.7	27.2	43.4	20.7	100
	전업 주부	243	11.5	23.0	44.9	20.6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9.1	17.6	39.6	33.7	100
	200만원 미만	117	12.2	16.3	45.6	25.9	100
	200~299만원	203	7.2	22.7	47.9	22.2	100
	300~399만원	366	9.6	20.1	48.0	22.3	100
	400만원 이상	514	13.9	28.1	35.8	22.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0	26.3	41.3	16.4	100
	충청권	122	7.6	18.3	37.5	36.6	100
	호남권	118	8.1	26.4	46.7	18.8	100
	영남권	310	5.7	20.0	44.5	29.8	100
	강원	36	6.5	18.1	53.4	22.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1	21.7	31.8	40.4	100
	대도시	554	9.6	24.4	46.9	19.1	100
	중·소도시	580	13.6	22.4	39.0	25.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5.9	26.7	36.9	30.5	100
	진보적	294	10.1	26.9	42.1	21.0	100
	중도	593	9.6	20.2	44.7	25.5	100
	보수적	313	15.8	26.9	38.9	18.5	100
종교별	불교	248	14.7	24.2	42.4	18.7	100
	기독교	245	11.0	28.1	41.4	19.5	100
	천주교	70	13.4	26.7	37.8	22.1	100
	기타	3	0.0	0.0	37.1	62.9	100
	종교없음	624	9.9	21.0	43.9	25.2	100
	모름/무응답	11	11.3	41.6	24.9	22.2	100

표 20-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7.4	23.7	36.9	32.0	100
	남자	607	9.4	26.5	37.0	27.0	100
	여자	593	5.2	20.9	36.7	37.2	100
연령별	19~29세	227	6.9	16.8	30.4	46.0	100
	30대	238	6.1	21.2	40.7	32.0	100
	40대	275	8.7	27.4	34.0	29.9	100
	50대	254	7.7	30.5	38.6	23.2	100
	60대 이상	206	7.1	21.0	41.5	30.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8.1	14.4	39.4	38.0	100
	고졸	493	5.4	24.1	38.4	32.1	100
	대재 이상	584	8.9	25.3	35.1	30.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9	19.5	42.7	33.8	100
	자영업	198	7.7	29.8	36.3	26.2	100
	블루 칼라	336	8.2	19.3	36.3	36.1	100
	화이트칼라	276	7.9	26.2	38.8	27.1	100
	전업 주부	243	5.1	24.2	37.9	32.8	100
	무직/기타	127	8.1	20.2	32.3	39.4	100
	200만원 미만	117	7.8	17.0	46.1	29.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5	22.2	42.0	31.3	100
	300~399만원	366	6.2	21.6	34.0	38.1	100
	400만원 이상	514	9.2	27.4	34.8	28.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8.7	27.7	36.9	26.7
충청권		122	10.1	14.2	29.4	46.3	100
호남권		118	6.2	23.4	40.0	30.3	100
영남권		310	3.8	20.5	37.3	38.4	100
강원		36	11.0	18.1	50.4	20.4	100
제주		14	2.9	21.6	31.9	43.5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1	22.8	38.1	31.1	100
	중·소도시	580	7.0	25.2	35.3	32.5	100
	읍/면	66	4.6	18.2	41.1	36.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7.4	24.9	37.0	30.7	100
	중도	593	6.7	20.0	37.5	35.9	100
	보수적	313	8.5	29.6	35.8	26.1	100
종교별	불교	248	10.3	25.8	37.8	26.1	100
	기독교	245	9.3	26.7	30.3	33.7	100
	천주교	70	8.6	23.8	37.1	30.5	100
	기타	3	0.0	37.1	0.0	62.9	100
	종교없음	624	5.4	21.3	39.3	34.0	100
	모름/무응답	11	0.0	41.0	36.8	22.2	100

표 20-5.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4.9	18.6	32.1	44.1	0.2	100
	남자	607	5.3	24.4	30.1	40.1	0.0	100
	여자	593	4.5	12.7	34.2	48.2	0.4	100
연령별	19~29세	227	3.8	11.5	28.2	56.5	0.0	100
	30대	238	3.4	17.3	31.2	48.1	0.0	100
	40대	275	5.6	19.8	33.7	40.1	0.8	100
	50대	254	7.5	23.1	33.8	35.7	0.0	100
	60대 이상	206	3.8	21.1	33.4	41.7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3	21.8	28.1	46.8	0.0	100
	고졸	493	3.6	18.2	35.5	42.3	0.5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6.4	18.4	30.1	45.1	0.0	100
	농/수/축산업	20	3.8	20.5	26.9	48.8	0.0	100
	자영업	198	9.5	20.2	30.8	39.5	0.0	100
	블루 칼라	336	4.9	16.6	33.7	44.8	0.0	100
	화이트칼라	276	4.3	23.6	28.2	43.8	0.0	100
가구 소득 수준	전업 주부	243	1.7	15.6	42.0	39.8	0.9	100
	무직/기타	127	5.4	16.5	20.4	57.6	0.0	100
	200만원 미만	117	3.0	18.7	34.1	44.2	0.0	100
	200~299만원	203	2.8	20.5	34.4	42.3	0.0	100
	300~399만원	366	4.0	16.4	34.8	44.5	0.3	1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14	6.9	19.5	28.9	44.5	0.2	100
	수도권	601	5.5	17.2	33.6	43.3	0.4	100
	충청권	122	5.1	15.9	23.1	55.9	0.0	100
	호남권	118	3.4	16.6	20.9	59.1	0.0	100
	영남권	310	4.2	24.7	35.6	35.6	0.0	100
지역 크기	강원	36	7.1	11.2	42.0	39.8	0.0	100
	제주	14	0.0	9.5	41.4	49.1	0.0	100
	대도시	554	6.4	18.9	31.0	43.5	0.2	1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80	3.6	18.7	33.2	44.3	0.2	100
	읍/면	66	3.9	15.5	32.3	48.3	0.0	100
	진보적	294	5.8	18.8	34.3	41.1	0.0	100
종교별	중도	593	3.8	15.9	30.5	49.4	0.4	100
	보수적	313	6.1	23.7	33.1	37.0	0.0	100
	불교	248	7.6	24.1	33.6	34.7	0.0	100
종교없음	기독교	245	8.4	19.0	25.8	46.8	0.0	100
	천주교	70	4.6	23.2	27.2	43.6	1.4	100
	기타	3	0.0	37.1	34.4	28.4	0.0	100
	종교없음	624	2.6	15.6	34.3	47.5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29.8	48.0	11.0	11.2	100

표 20-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3.3	22.6	42.3	31.8	100
	남자	607	4.9	26.2	40.5	28.4	100
	여자	593	1.7	18.8	44.1	35.3	100
연령별	19~29세	227	1.4	14.3	34.1	50.2	100
	30대	238	2.3	16.0	47.3	34.4	100
	40대	275	4.3	23.9	44.6	27.2	100
	50대	254	5.0	32.3	38.7	23.9	100
	60대 이상	206	3.3	25.5	46.9	24.4	100
	중졸 이하	122	2.8	23.1	39.3	34.7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3.7	22.9	44.9	28.5	100
	대재 이상	584	3.1	22.2	40.7	34.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9.7	31.2	49.1	100
	자영업	198	7.4	24.9	45.9	21.8	100
	블루 칼라	336	2.1	22.1	45.1	30.8	100
	화이트칼라	276	4.1	26.3	40.7	28.9	100
	전업 주부	243	1.3	21.1	44.3	33.3	100
	무직/기타	127	3.1	15.3	30.6	50.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6	16.3	40.7	38.4	100
	200~299만원	203	0.9	17.5	50.9	30.6	100
	300~399만원	366	3.0	19.4	44.1	33.4	100
	400만원 이상	514	4.2	28.2	37.9	29.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1	28.1	44.9	23.9	100
	충청권	122	6.6	13.2	40.1	40.0	100
	호남권	118	4.1	24.3	39.2	32.4	100
	영남권	310	2.2	15.9	38.8	43.0	100
	강원	36	4.5	17.9	49.2	28.4	100
	제주	14	0.0	12.4	32.4	55.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0	25.2	41.2	30.5	100
	중·소도시	580	3.7	20.8	43.0	32.5	100
	읍/면	66	2.7	16.0	44.4	37.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9	22.2	42.5	31.4	100
	중도	593	2.5	18.3	42.9	36.3	100
	보수적	313	4.3	31.0	40.9	23.8	100
	불교	248	5.2	24.3	41.7	28.8	100
종교별	기독교	245	3.6	26.2	41.9	28.2	100
	천주교	70	1.0	27.2	38.6	33.2	100
	기타	3	0.0	0.0	34.4	65.6	100
	종교없음	624	2.8	19.8	43.5	34.0	100
	모름/무응답	11	0.0	36.2	22.2	41.5	100

표 21-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㉞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성별	전 체	1200	3.7	96.3	100
	남자	607	3.5	96.5	100
	여자	593	3.9	96.1	100
연령별	19~29세	227	0.0	100.0	100
	30대	238	1.2	98.8	100
	40대	275	2.9	97.1	100
	50대	254	6.8	93.2	100
	60대 이상	206	8.2	91.8	100
	중졸 이하	122	6.3	93.7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5.1	94.9	100
	대재 이상	584	2.0	98.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00.0	100
	자영업	198	4.2	95.8	100
	블루 칼라	336	2.9	97.1	100
	화이트칼라	276	2.6	97.4	100
	전업 주부	243	6.5	93.5	100
	무직/기타	127	3.0	97.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6.7	93.3	100
	200~299만원	203	1.8	98.2	100
	300~399만원	366	3.3	96.7	100
	400만원 이상	514	4.1	95.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1	95.9	100
	충청권	122	4.1	95.9	100
	호남권	118	5.4	94.6	100
	영남권	310	2.1	97.9	100
	강원	36	6.7	93.3	100
	제주	14	0.0	10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5	97.5	100
	중·소도시	580	5.1	94.9	100
	읍/면	66	2.4	97.6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4	97.6	100
	중도	593	2.4	97.6	100
	보수적	313	7.7	92.3	100
	불교	248	5.7	94.3	100
종교별	기독교	245	3.7	96.3	100
	천주교	70	1.1	98.9	100
	기타	3	0.0	100.0	100
	종교없음	624	3.4	96.6	100
	모름/무응답	11	0.0	100.0	100

표 21-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8.4	81.6	100
성별	남자	607	20.4	79.6	100
	여자	593	16.4	83.6	100
연령별	19~29세	227	16.0	84.0	100
	30대	238	16.6	83.4	100
	40대	275	17.1	82.9	100
	50대	254	23.4	76.6	100
	60대 이상	206	18.7	81.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1.0	89.0	100
	고졸	493	19.4	80.6	100
	대재 이상	584	19.1	80.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00.0	100
	자영업	198	21.6	78.4	100
	블루 칼라	336	18.5	81.5	100
	화이트칼라	276	22.3	77.7	100
	전업 주부	243	15.3	84.7	100
	무직／기타	127	13.7	86.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5.8	84.2	100
	200~299만원	203	16.4	83.6	100
	300~399만원	366	17.2	82.8	100
	400만원 이상	514	20.6	79.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8.0	82.0	100
	충청권	122	29.2	70.8	100
	호남권	118	13.7	86.3	100
	영남권	310	14.8	85.2	100
	강원	36	33.5	66.5	100
	제주	14	22.9	77.1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5.7	84.3	100
	중·소도시	580	20.6	79.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22.2	77.8	100
	진보적	294	17.4	82.6	100
	중도	593	17.0	83.0	100
종교별	보수적	313	22.0	78.0	100
	불교	248	20.3	79.7	100
	기독교	245	16.2	83.8	100
	천주교	70	9.6	90.4	100
	기타	3	0.0	100.0	100
	종교없음	624	19.7	80.3	100
	모름/무응답	11	11.2	88.8	100

표 21-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3.2	76.8	100
성별	남자	607	23.9	76.1	100
	여자	593	22.4	77.6	100
	19~29세	227	20.6	79.4	100
연령별	30대	238	21.9	78.1	100
	40대	275	25.6	74.4	100
	50대	254	26.1	73.9	100
	60대 이상	206	20.7	79.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8.6	81.4	100
	고졸	493	22.9	77.1	100
	대재 이상	584	24.3	75.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3.1	76.9	100
	자영업	198	27.8	72.2	100
	블루 칼라	336	25.8	74.2	100
	화이트칼라	276	22.3	77.7	100
	전업 주부	243	18.6	81.4	100
	무직/기타	127	19.7	80.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7.9	72.1	100
	200~299만원	203	14.8	85.2	100
	300~399만원	366	20.6	79.4	100
	400만원 이상	514	27.3	72.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3.1	76.9	100
	충청권	122	18.6	81.4	100
	호남권	118	16.9	83.1	100
	영남권	310	25.3	74.7	100
	강원	36	31.7	68.3	100
	제주	14	49.5	50.5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5.3	74.7	100
	중·소도시	580	22.2	77.8	100
	읍/면	66	14.4	85.6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6.7	73.3	100
	중도	593	22.0	78.0	100
	보수적	313	22.2	77.8	100
종교별	불교	248	25.3	74.7	100
	기독교	245	24.5	75.5	100
	천주교	70	19.7	80.3	100
	기타	3	100.0	0.0	100
	종교없음	624	22.2	77.8	100
	모름/무응답	11	7.5	92.5	100

표 21-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0.6	99.4	100
성별	남자	607	0.9	99.1	100
	여자	593	0.4	99.6	100
연령별	19~29세	227	0.8	99.2	100
	30대	238	0.9	99.1	100
	40대	275	0.4	99.6	100
	50대	254	1.0	99.0	100
	60대 이상	206	0.0	10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0.0	100.0	100
	고졸	493	0.3	99.7	100
	대재 이상	584	1.0	99.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00.0	100
	자영업	198	0.8	99.2	100
	블루 칼라	336	0.2	99.8	100
	화이트칼라	276	0.7	99.3	100
	전업 주부	243	0.5	99.5	100
	무직／기타	127	1.4	98.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0.0	100.0	100
	200~299만원	203	0.5	99.5	100
	300~399만원	366	1.2	98.8	100
	400만원 이상	514	0.4	99.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0.2	99.8	100
	충청권	122	1.4	98.6	100
	호남권	118	1.4	98.6	100
	영남권	310	0.6	99.4	100
	강원	36	2.4	97.6	100
	제주	14	0.0	10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2	99.8	100
	중·소도시	580	1.0	99.0	100
	읍/면	66	1.2	98.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0.9	99.1	100
	중도	593	0.4	99.6	100
	보수적	313	0.7	99.3	100
종교별	불교	248	0.3	99.7	100
	기독교	245	1.6	98.4	100
	천주교	70	0.0	100.0	100
	기타	3	0.0	100.0	100
	종교없음	624	0.4	99.6	100
	모름/무응답	11	0.0	100.0	100

표 22-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61.7	31.6	93.3	5.4	1.4	6.7	100
	남자	607	63.0	31.2	94.2	4.6	1.2	5.8	100
	여자	593	60.3	32.1	92.4	6.1	1.5	7.6	100
연령별	19~29세	227	59.8	34.1	93.9	5.1	1.0	6.1	100
	30대	238	61.3	33.5	94.8	4.3	0.9	5.2	100
	40대	275	62.3	30.4	92.7	5.1	2.2	7.3	100
	50대	254	58.9	32.3	91.2	7.3	1.5	8.8	100
	60대 이상	206	66.7	27.6	94.3	4.8	0.9	5.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64.1	31.1	95.3	3.2	1.5	4.7	100
	고졸	493	56.4	35.1	91.5	6.2	2.2	8.5	100
	대재 이상	584	65.6	28.8	94.4	5.1	0.6	5.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5.4	15.6	91.1	4.9	4.0	8.9	100
	자영업	198	63.1	28.6	91.8	5.7	2.6	8.2	100
	블루 칼라	336	58.1	35.6	93.7	4.8	1.6	6.3	100
	화이트칼라	276	63.0	30.8	93.8	5.7	0.5	6.2	100
	전업 주부	243	58.2	34.2	92.4	6.4	1.2	7.6	100
	무직/기타	127	70.4	25.3	95.7	3.6	0.7	4.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63.0	29.2	92.2	4.7	3.1	7.8	100
	200~299만원	203	59.2	33.9	93.1	6.4	0.5	6.9	100
	300~399만원	366	63.8	30.2	94.0	4.0	2.0	6.0	100
	400만원 이상	514	60.8	32.3	93.1	6.1	0.8	6.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0.3	35.2	95.5	3.5	1.0	4.5	100
	충청권	122	51.6	36.6	88.1	11.9	0.0	11.9	100
	호남권	118	77.6	17.7	95.3	2.7	2.0	4.7	100
	영남권	310	60.5	31.3	91.8	6.6	1.6	8.2	100
	강원	36	68.8	13.0	81.9	11.2	6.9	18.1	100
지역 크기	제주	14	78.5	8.9	87.4	9.5	3.1	12.6	100
	대도시	554	64.5	31.5	96.0	3.1	0.9	4.0	100
	중·소도시	580	57.5	33.1	90.6	7.6	1.8	9.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73.8	19.9	93.7	4.8	1.5	6.3	100
	진보적	294	65.3	30.5	95.8	3.5	0.7	4.2	100
	중도	593	56.3	35.5	91.7	7.0	1.3	8.3	100
	보수적	313	68.4	25.5	93.9	4.0	2.1	6.1	100
종교별	불교	248	57.5	35.7	93.2	5.7	1.1	6.8	100
	기독교	245	63.9	30.7	94.6	4.6	0.8	5.4	100
	천주교	70	59.7	28.4	88.0	10.6	1.4	12.0	100
	기타	3	100.0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62.9	30.7	93.6	5.0	1.3	6.4	100
	모름/무응답	11	39.6	41.7	81.3	0.0	18.7	18.7	100

표 22-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66.9	27.6	94.5	4.7	0.8	5.5	100
	남자	607	66.4	28.4	94.8	4.4	0.8	5.2	100
	여자	593	67.5	26.7	94.2	5.0	0.8	5.8	100
연령별	19~29세	227	65.8	28.6	94.3	5.1	0.6	5.7	100
	30대	238	68.0	27.3	95.3	4.0	0.6	4.7	100
	40대	275	68.6	25.3	94.0	5.4	0.6	6.0	100
	50대	254	63.4	31.5	94.9	3.0	2.1	5.1	100
	60대 이상	206	69.1	24.8	93.9	6.1	0.0	6.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62.5	28.0	90.5	8.8	0.7	9.5	100
	고졸	493	63.4	30.6	94.0	4.7	1.3	6.0	100
	대재 이상	584	70.8	24.9	95.7	3.8	0.5	4.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7.4	13.6	91.1	4.9	4.0	8.9	100
	자영업	198	71.4	23.5	95.0	3.9	1.1	5.0	100
	블루 칼라	336	63.6	32.4	96.0	3.4	0.7	4.0	100
	화이트칼라	276	67.3	25.9	93.2	5.9	0.9	6.8	100
	전업 주부	243	66.1	27.1	93.3	5.9	0.8	6.7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67.8	27.7	95.5	4.5	0.0	4.5	100
	200만원 미만	117	66.0	22.6	88.6	9.1	2.2	11.4	100
	200~299만원	203	64.8	29.3	94.1	5.9	0.0	5.9	100
	300~399만원	366	71.2	24.4	95.6	3.7	0.7	4.4	100
	400만원 이상	514	64.9	30.3	95.2	3.9	0.9	4.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6.4	28.3	94.7	4.3	1.0	5.3	100
	충청권	122	55.6	36.3	91.9	7.5	0.6	8.1	100
	호남권	118	81.9	16.1	98.0	0.7	1.3	2.0	100
	영남권	310	64.6	30.6	95.2	4.8	0.0	4.8	100
	강원	36	75.6	6.3	81.9	13.8	4.4	18.1	100
	제주	14	93.8	3.3	97.1	2.9	0.0	2.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71.5	25.1	96.6	3.1	0.3	3.4	100
	중·소도시	580	61.2	31.1	92.3	6.3	1.4	7.7	100
	읍/면	66	78.4	17.3	95.6	4.4	0.0	4.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71.6	24.9	96.5	3.5	0.0	3.5	100
	중도	593	63.9	29.5	93.4	5.2	1.3	6.6	100
	보수적	313	68.3	26.4	94.6	4.7	0.6	5.4	100
종교별	불교	248	61.0	31.9	92.9	6.8	0.3	7.1	100
	기독교	245	71.3	24.7	96.0	3.4	0.6	4.0	100
	천주교	70	74.0	20.8	94.8	1.6	3.6	5.2	100
	기타	3	65.6	34.4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67.5	27.6	95.1	4.1	0.8	4.9	100
	모름/무응답	11	28.3	30.5	58.9	41.1	0.0	41.1	100

표 22-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역사인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40.5	40.2	80.7	16.8	2.4	19.2	0.1	100
	남자	607	40.6	39.8	80.4	17.1	2.4	19.4	0.2	100
	여자	593	40.4	40.6	81.0	16.5	2.5	19.0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40.8	37.2	78.0	19.4	2.7	22.0	0.0	100
	30대	238	40.5	41.1	81.6	17.1	1.3	18.4	0.0	100
	40대	275	40.9	40.2	81.0	16.3	2.7	19.0	0.0	100
	50대	254	38.9	39.8	78.7	16.6	4.7	21.3	0.0	100
	60대 이상	206	41.7	42.9	84.6	14.5	0.4	14.8	0.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5.6	38.0	83.7	14.0	1.3	15.3	1.0	100
	고졸	493	35.6	44.5	80.0	17.0	3.0	20.0	0.0	100
	대재 이상	584	43.6	37.0	80.6	17.2	2.2	19.4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1.6	59.4	91.1	4.9	4.0	8.9	0.0	100
	자영업	198	43.5	34.3	77.8	19.7	2.5	22.2	0.0	100
	블루 칼라	336	39.5	41.1	80.6	16.2	2.9	19.0	0.4	100
	화이트칼라	276	42.4	38.8	81.1	16.5	2.4	18.9	0.0	100
	전업 주부	243	35.3	44.5	79.8	17.6	2.6	20.2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45.9	38.5	84.4	14.6	1.0	15.6	0.0	100
	200만원 미만	117	46.1	37.9	84.0	11.4	3.6	15.0	1.0	100
	200~299만원	203	44.5	39.9	84.4	13.8	1.8	15.6	0.0	100
	300~399만원	366	40.9	40.7	81.6	15.7	2.7	18.4	0.0	100
	400만원 이상	514	37.4	40.4	77.8	20.0	2.3	22.2	0.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8.3	41.3	79.6	18.4	1.8	20.2	0.2	100
	충청권	122	40.2	33.2	73.5	25.9	0.6	26.5	0.0	100
	호남권	118	45.9	39.9	85.9	12.1	2.0	14.1	0.0	100
	영남권	310	39.6	43.8	83.4	13.2	3.4	16.6	0.0	100
	강원	36	53.1	24.3	77.4	9.4	13.2	22.6	0.0	100
	제주	14	81.6	12.3	94.0	6.0	0.0	6.0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0.3	39.6	79.8	18.0	2.2	20.2	0.0	100
	중·소도시	580	40.7	40.4	81.0	15.8	3.0	18.7	0.2	100
	읍/면	66	40.7	43.8	84.5	15.5	0.0	15.5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1.6	42.9	84.4	14.1	1.5	15.6	0.0	100
	중도	593	37.9	40.5	78.4	18.5	2.9	21.4	0.2	100
	보수적	313	44.4	37.0	81.4	16.1	2.5	18.6	0.0	100
종교별	불교	248	38.2	39.8	77.9	18.8	3.3	22.1	0.0	100
	기독교	245	41.7	40.9	82.6	16.4	1.0	17.4	0.0	100
	천주교	70	42.2	36.5	78.6	16.8	4.6	21.4	0.0	100
	기타	3	28.4	71.6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41.4	40.1	81.6	16.0	2.3	18.2	0.2	100
	모름/무응답	11	6.4	52.3	58.8	30.0	11.3	41.2	0.0	100

표 22-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0.8	53.4	84.2	13.7	2.1	15.8	100
	남자	607	29.1	54.8	83.9	14.4	1.7	16.1	100
	여자	593	32.6	52.0	84.6	13.0	2.5	15.4	100
연령별	19~29세	227	29.2	54.3	83.5	16.1	0.4	16.5	100
	30대	238	29.9	54.8	84.7	14.1	1.2	15.3	100
	40대	275	29.0	52.5	81.5	14.6	3.9	18.5	100
	50대	254	35.9	48.7	84.6	12.5	2.9	15.4	100
	60대 이상	206	29.8	57.9	87.8	10.9	1.3	12.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7.1	47.7	84.8	12.2	3.0	15.2	100
	고졸	493	29.2	54.2	83.4	14.3	2.3	16.6	100
	대재 이상	584	30.8	54.0	84.8	13.5	1.7	15.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4.9	60.0	84.9	11.1	4.0	15.1	100
	자영업	198	31.2	50.9	82.1	15.7	2.2	17.9	100
	블루 칼라	336	34.1	53.6	87.7	10.7	1.7	12.3	100
	화이트칼라	276	26.5	56.7	83.3	15.1	1.6	16.7	100
	전업 주부	243	32.1	51.4	83.5	12.6	3.9	16.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9.3	52.7	82.0	18.0	0.0	18.0	100
	200만원 미만	117	34.1	50.4	84.5	12.5	2.9	15.5	100
	200~299만원	203	33.9	51.4	85.3	12.8	1.9	14.7	100
	300~399만원	366	32.1	51.9	83.9	13.9	2.2	16.1	100
	400만원 이상	514	27.9	56.0	84.0	14.2	1.8	16.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5.2	61.0	86.1	12.0	1.9	13.9	100
	충청권	122	30.6	43.7	74.3	25.7	0.0	25.7	100
	호남권	118	29.4	64.7	94.1	3.8	2.1	5.9	100
	영남권	310	38.7	42.7	81.4	16.0	2.5	18.6	100
	강원	36	46.9	28.9	75.8	15.3	8.9	24.2	100
지역 크기	제주	14	72.0	18.9	91.0	9.0	0.0	9.0	100
	대도시	554	31.3	57.0	88.3	11.1	0.6	11.7	100
	중·소도시	580	31.0	48.4	79.4	16.9	3.7	20.6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25.5	66.8	92.3	7.7	0.0	7.7	100
	진보적	294	28.3	57.7	86.0	13.0	0.9	14.0	100
	중도	593	31.1	50.7	81.9	15.7	2.4	18.1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2.5	54.5	87.1	10.5	2.4	12.9	100
	불교	248	35.8	45.9	81.7	16.0	2.4	18.3	100
	기독교	245	27.9	60.0	87.9	10.4	1.7	12.1	100
	천주교	70	43.1	43.4	86.5	8.1	5.4	13.5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9.0	55.1	84.1	14.5	1.4	15.9	100
	모름/무응답	11	19.4	33.1	52.5	28.8	18.7	47.5	100

표 22-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3.9	48.2	82.1	16.7	1.2	17.9	100
	남자	607	32.0	49.2	81.1	18.2	0.6	18.9	100
	여자	593	35.9	47.1	83.1	15.1	1.8	16.9	100
연령별	19~29세	227	35.0	44.5	79.5	19.7	0.8	20.5	100
	30대	238	39.5	43.9	83.3	16.3	0.4	16.7	100
	40대	275	26.3	54.3	80.6	16.7	2.8	19.4	100
	50대	254	33.0	50.5	83.5	14.8	1.6	16.5	100
	60대 이상	206	37.8	46.1	83.8	16.2	0.0	16.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5.8	52.2	88.0	11.3	0.7	12.0	100
	고졸	493	32.7	49.5	82.2	15.7	2.2	17.8	100
	대재 이상	584	34.6	46.2	80.8	18.7	0.5	19.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4.9	58.0	82.9	13.0	4.0	17.1	100
	자영업	198	31.6	46.4	78.0	20.0	2.1	22.0	100
	블루 칼라	336	33.3	50.7	84.0	15.0	1.0	16.0	100
	화이트칼라	276	36.2	47.9	84.2	15.7	0.1	15.8	100
	전업 주부	243	34.8	49.2	84.0	13.6	2.4	16.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34.0	41.3	75.3	24.7	0.0	24.7	100
	200만원 미만	117	39.4	49.3	88.7	8.5	2.8	11.3	100
	200~299만원	203	36.4	48.5	84.9	15.1	0.0	15.1	100
	300~399만원	366	32.5	48.5	80.9	17.9	1.2	19.1	100
	400만원 이상	514	32.8	47.5	80.3	18.4	1.3	19.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5	51.7	82.2	16.5	1.2	17.8	100
	충청권	122	36.1	35.6	71.7	28.3	0.0	28.3	100
	호남권	118	29.6	55.9	85.5	12.4	2.1	14.5	100
	영남권	310	39.1	45.8	84.9	14.3	0.9	15.1	100
	강원	36	40.8	37.1	77.9	17.7	4.4	22.1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9.5	18.3	87.8	9.3	2.9	12.2	100
	대도시	554	36.4	44.2	80.6	18.7	0.7	19.4	100
	중·소도시	580	32.0	51.2	83.2	15.0	1.8	16.8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0.7	54.6	85.3	14.7	0.0	14.7	100
	진보적	294	30.8	50.8	81.6	17.7	0.7	18.4	100
	중도	593	32.6	48.4	81.0	17.3	1.8	19.0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9.5	45.2	84.7	14.7	0.6	15.3	100
	불교	248	33.5	46.7	80.2	18.3	1.5	19.8	100
	기독교	245	29.2	49.1	78.4	20.8	0.8	21.6	100
	천주교	70	41.2	41.4	82.6	15.6	1.8	17.4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5.6	49.0	84.5	14.5	1.0	15.5	100
	모름/무응답	11	19.1	44.5	63.6	25.2	11.2	36.4	100

표 2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55.9	35.1	91.0	7.7	1.2	8.9	0.1	100
성별	남자	607	53.4	37.1	90.5	8.6	0.8	9.3	0.2	100
	여자	593	58.5	33.1	91.6	6.8	1.6	8.4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59.3	33.3	92.6	6.4	0.6	7.0	0.4	100
	30대	238	55.6	35.9	91.5	7.7	0.8	8.5	0.0	100
	40대	275	52.9	34.9	87.8	11.1	1.1	12.2	0.0	100
	50대	254	55.6	37.3	92.9	3.9	3.2	7.1	0.0	100
	60대 이상	206	56.9	33.9	90.8	9.2	0.0	9.2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4.7	36.0	90.7	8.7	0.7	9.3	0.0	100
	고졸	493	54.5	36.5	91.0	6.6	2.3	9.0	0.0	100
	대재 이상	584	57.3	33.8	91.1	8.3	0.3	8.7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2.5	38.6	91.1	4.9	4.0	8.9	0.0	100
	자영업	198	55.3	36.0	91.3	6.6	2.0	8.7	0.0	100
	블루 칼라	336	57.1	36.8	93.9	4.7	1.4	6.1	0.0	100
	화이트칼라	276	52.7	35.7	88.3	10.3	1.0	11.3	0.4	100
	전업 주부	243	56.7	33.6	90.3	8.9	0.8	9.7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59.7	30.7	90.4	9.6	0.0	9.6	0.0	100
	200만원 미만	117	57.9	31.4	89.3	7.2	3.4	10.7	0.0	100
	200~299만원	203	51.3	40.0	91.3	8.7	0.0	8.7	0.0	100
	300~399만원	366	57.3	32.6	90.0	8.2	1.8	10.0	0.0	100
	400만원 이상	514	56.3	35.8	92.1	7.0	0.7	7.7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2.2	30.1	92.3	6.5	1.2	7.7	0.0	100
	충청권	122	41.2	47.1	88.3	11.7	0.0	11.7	0.0	100
	호남권	118	52.2	43.8	96.0	2.0	2.0	4.0	0.0	100
	영남권	310	48.8	40.1	88.9	10.1	0.6	10.8	0.3	100
	강원	36	64.2	15.5	79.8	13.5	6.7	20.2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81.6	15.4	97.1	0.0	2.9	2.9	0.0	100
	대도시	554	62.5	31.1	93.6	5.8	0.4	6.2	0.2	100
	중·소도시	580	51.5	36.9	88.4	9.7	1.9	11.6	0.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9.5	53.4	92.8	5.6	1.5	7.2	0.0	100
	진보적	294	55.6	36.1	91.7	6.5	1.8	8.3	0.0	100
	중도	593	52.5	36.8	89.3	9.7	1.1	10.7	0.0	100
종교별	보수적	313	62.7	31.1	93.8	5.0	0.9	5.9	0.3	100
	불교	248	50.7	38.5	89.2	9.1	1.2	10.4	0.4	100
	기독교	245	58.4	34.6	93.0	6.2	0.8	7.0	0.0	100
	천주교	70	62.7	24.6	87.2	11.0	1.8	12.8	0.0	100
	기타	3	65.6	34.4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56.6	34.9	91.5	7.3	1.2	8.5	0.0	100
모름/무응답		11	30.1	51.2	81.3	11.2	7.5	18.7	0.0	100

표 23.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위협을 느낀다	② 다소 위협을 느낀다	①+②	③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8.9	55.1	84.0	15.2	0.8	16.0	100
성별	남자	607	28.0	53.9	81.9	17.4	0.6	18.1	100
	여자	593	29.8	56.4	86.1	12.9	1.0	13.9	100
연령별	19~29세	227	30.9	50.4	81.3	18.1	0.6	18.7	100
	30대	238	30.4	50.7	81.0	16.6	2.4	19.0	100
	40대	275	27.7	54.2	81.8	17.9	0.3	18.2	100
	50대	254	23.2	63.4	86.6	12.9	0.5	13.4	100
	60대 이상	206	33.6	56.5	90.1	9.6	0.3	9.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9.5	58.1	87.6	11.8	0.5	12.4	100
	고졸	493	26.0	59.4	85.4	14.2	0.4	14.6	100
	대재 이상	584	31.2	50.9	82.1	16.7	1.2	17.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4.8	51.2	96.1	3.9	0.0	3.9	100
	자영업	198	30.0	57.0	87.0	12.6	0.3	13.0	100
	블루 칼라	336	26.8	58.3	85.1	14.1	0.8	14.9	100
	화이트칼라	276	31.6	45.8	77.4	20.7	1.8	22.6	100
	전업 주부	243	25.8	61.1	86.9	13.1	0.0	13.1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30.2	52.9	83.2	15.8	1.0	16.8	100
	200만원 미만	117	23.9	57.5	81.4	18.6	0.0	18.6	100
	200~299만원	203	25.3	60.3	85.6	12.6	1.8	14.4	100
	300~399만원	366	27.4	55.5	82.9	15.9	1.2	17.1	100
	400만원 이상	514	32.5	52.3	84.7	14.9	0.3	15.3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0	54.1	84.1	15.4	0.6	15.9	100
	충청권	122	26.8	57.0	83.8	16.2	0.0	16.2	100
	호남권	118	45.2	43.6	88.8	10.6	0.6	11.2	100
	영남권	310	17.7	64.5	82.2	16.3	1.5	17.8	100
	강원	36	54.0	26.1	80.0	17.9	2.1	2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47.6	46.5	94.1	5.9	0.0	5.9	100
	대도시	554	31.4	53.1	84.5	14.5	1.0	15.5	100
	중·소도시	580	25.3	58.0	83.3	16.2	0.5	16.7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9.0	46.6	85.6	13.0	1.4	14.4	100
	진보적	294	31.6	52.9	84.5	14.5	0.9	15.5	100
	중도	593	24.6	56.4	81.0	18.3	0.7	19.0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4.4	54.8	89.2	10.0	0.8	10.8	100
	불교	248	29.7	59.1	88.7	11.3	0.0	11.3	100
	기독교	245	34.9	48.5	83.4	15.6	1.0	16.6	100
	천주교	70	29.6	53.4	83.0	17.0	0.0	17.0	100
	기타	3	37.1	62.9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6.1	56.9	83.0	15.8	1.2	17.0	100
모름/무응답		11	28.5	22.5	51.0	49.0	0.0	49.0	100

표 24.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	%	%	%	%	%	%	%
전 체	1200	44.8	41.5	86.3	10.0	2.4	12.4	1.3	100
성별									
남자	607	48.0	39.9	87.9	9.4	2.0	11.4	0.7	100
여자	593	41.5	43.1	84.6	10.6	2.8	13.4	2.0	100
연령별									
19~29세	227	40.9	42.0	82.9	11.4	4.2	15.5	1.5	100
30대	238	46.8	40.5	87.3	10.5	1.7	12.2	0.4	100
40대	275	45.3	41.5	86.8	9.6	1.6	11.2	2.1	100
50대	254	42.4	43.0	85.4	11.0	2.6	13.6	1.0	100
60대 이상	206	49.0	40.1	89.1	7.1	2.0	9.2	1.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7.1	40.2	87.3	6.2	4.6	10.9	1.8	100
고졸	493	41.6	44.8	86.4	10.9	1.0	11.9	1.7	100
대재 이상	584	47.0	39.0	85.9	10.0	3.1	13.1	1.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9.3	25.6	84.9	4.0	0.0	4.0	11.1	100
자영업	198	49.7	39.6	89.3	9.7	0.5	10.2	0.5	100
블루 칼라	336	45.1	42.9	88.0	9.5	2.2	11.7	0.3	100
화이트칼라	276	44.0	38.1	82.1	13.6	3.0	16.6	1.3	100
전업 주부	243	37.7	47.8	85.5	8.8	3.3	12.1	2.5	100
무직/기타	127	49.1	38.6	87.7	7.0	3.4	10.4	1.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5.4	39.6	85.0	11.9	3.1	15.0	0.0	100
200~299만원	203	39.8	46.0	85.7	10.0	3.1	13.1	1.1	100
300~399만원	366	45.2	42.6	87.8	9.3	1.6	10.9	1.3	100
400만원 이상	514	46.3	39.4	85.7	10.0	2.5	12.5	1.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1.4	43.4	84.8	11.0	2.1	13.0	2.2	100
충청권	122	43.1	41.4	84.5	12.9	2.6	15.5	0.0	100
호남권	118	63.8	29.5	93.4	5.2	1.5	6.6	0.0	100
영남권	310	41.5	45.9	87.4	9.2	2.5	11.6	1.0	100
강원	36	64.8	19.1	83.9	9.2	7.0	16.1	0.0	100
제주	14	68.7	19.2	87.9	2.9	9.1	12.1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7.9	41.8	89.7	8.0	1.3	9.4	0.9	100
중·소도시	580	41.0	43.0	84.0	11.5	2.6	14.1	1.9	100
읍/면	66	52.3	25.8	78.1	12.5	9.4	21.9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9.2	38.6	87.8	10.5	0.8	11.3	0.8	100
중도	593	39.7	44.2	84.0	10.8	3.1	13.9	2.1	100
보수적	313	50.3	39.0	89.2	8.0	2.5	10.5	0.3	100
종교별									
불교	248	40.2	45.4	85.6	11.1	2.0	13.1	1.3	100
기독교	245	48.6	38.1	86.7	7.5	3.8	11.3	2.0	100
천주교	70	43.3	39.2	82.5	16.1	0.0	16.1	1.4	100
기타	3	100.0	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45.1	41.9	87.0	9.6	2.3	11.9	1.1	100
모름/무응답	11	39.7	33.4	73.1	26.9	0.0	26.9	0.0	100

표 25.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문)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북한의 개발개혁 및 인권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종단을 위한 국제 협력	평화협정 체결	계
		%	%	%	%	%	%
전 체	1200	16.4	31.5	18.2	20.5	13.3	100
성별							
남자	607	18.3	30.2	18.1	20.2	13.2	100
여자	593	14.6	32.8	18.3	20.9	13.4	100
연령별							
19~29세	227	10.5	39.6	18.7	16.4	14.8	100
30대	238	11.2	33.9	20.5	20.3	14.1	100
40대	275	18.7	28.7	19.8	23.1	9.6	100
50대	254	18.4	29.1	15.3	22.5	14.6	100
60대 이상	206	23.5	26.4	16.5	19.5	14.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3.4	32.6	12.8	15.3	15.9	100
고졸	493	17.4	29.4	18.8	23.3	11.1	100
대재 이상	584	14.1	33.1	18.9	19.3	14.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0.7	32.8	29.4	17.1	0.0	100
자영업	198	21.3	28.7	16.3	22.1	11.7	100
블루 칼라	336	13.3	31.1	17.3	24.9	13.4	100
화이트칼라	276	15.5	34.1	21.6	16.6	12.3	100
전업 주부	243	16.4	30.1	17.1	20.3	16.1	100
무직/기타	127	18.8	33.7	16.6	16.2	14.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3.9	32.3	19.8	12.3	11.6	100
200~299만원	203	17.1	34.3	15.7	19.6	13.3	100
300~399만원	366	15.7	30.4	21.0	20.2	12.7	100
400만원 이상	514	15.0	31.0	16.9	23.0	14.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2.3	30.0	18.7	24.8	14.2	100
충청권	122	29.3	28.6	18.0	13.5	10.5	100
호남권	118	22.8	28.2	22.2	13.7	13.1	100
영남권	310	16.6	38.4	14.5	19.1	11.4	100
강원	36	15.1	20.1	32.1	6.8	25.9	100
제주	14	25.2	25.5	11.9	25.0	12.5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2.9	29.4	15.5	24.6	17.5	100
중·소도시	580	19.6	31.5	20.9	17.7	10.3	100
읍/면	66	17.7	48.6	17.9	11.2	4.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7.5	30.6	17.4	19.0	15.6	100
중도	593	14.4	34.6	20.1	18.2	12.6	100
보수적	313	19.2	26.5	15.4	26.5	12.5	100
종교별							
불교	248	16.3	36.5	13.9	19.5	13.9	100
기독교	245	19.0	28.5	20.4	21.6	10.5	100
천주교	70	12.3	31.5	16.4	27.4	12.5	100
기타	3	0.0	71.6	0.0	28.4	0.0	100
종교없음	624	16.0	30.7	19.3	19.8	14.2	100
모름/무응답	11	17.6	22.2	22.4	15.7	22.1	100

표 2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8	40.1	46.9	41.2	11.9	53.1	100
성별	남자	607	7.4	38.6	46.0	42.7	11.4	54.0	100
	여자	593	6.2	41.6	47.8	39.8	12.4	52.2	100
연령별	19~29세	227	5.8	37.7	43.5	39.7	16.8	56.5	100
	30대	238	7.4	36.1	43.5	44.1	12.5	56.5	100
	40대	275	5.6	37.7	43.4	46.5	10.2	56.6	100
	50대	254	7.5	41.3	48.8	38.6	12.6	51.2	100
	60대 이상	206	8.0	48.9	56.9	36.0	7.1	43.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9	47.0	52.9	37.7	9.4	47.1	100
	고졸	493	7.1	42.0	49.1	40.6	10.3	50.9	100
	대재 이상	584	6.8	37.0	43.7	42.5	13.7	56.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4	41.6	50.0	45.0	5.1	50.0	100
	자영업	198	8.6	39.3	47.9	39.9	12.2	52.1	100
	블루 칼라	336	4.5	36.3	40.7	46.3	12.9	59.3	100
	화이트칼라	276	7.4	40.9	48.3	42.8	8.9	51.7	100
	전업 주부	243	6.0	43.6	49.6	38.6	11.8	50.4	100
	무직/기타	127	10.2	42.6	52.8	31.0	16.2	47.2	100
	200만원 미만	117	6.2	43.9	50.1	40.6	9.3	49.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8	44.5	49.2	38.8	12.0	50.8	100
	300~399만원	366	7.3	40.3	47.6	42.1	10.4	52.4	100
	400만원 이상	514	7.5	37.3	44.7	41.7	13.5	55.3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3	39.2	44.4	44.6	11.0	55.6	100
	충청권	122	4.6	60.0	64.5	33.6	1.9	35.5	100
	호남권	118	22.6	40.6	63.2	29.3	7.5	36.8	100
	영남권	310	4.5	35.2	39.8	43.3	16.9	60.2	100
	강원	36	8.3	21.9	30.2	38.4	31.4	69.8	100
	제주	14	6.1	54.4	60.5	26.6	12.8	39.5	100
	대도시	554	7.7	35.5	43.2	45.4	11.4	56.8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5.3	44.7	50.1	37.6	12.3	49.9	100
	읍/면	66	12.5	37.3	49.8	38.4	11.8	50.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8.6	41.9	50.5	41.6	7.8	49.5	100
	중도	593	5.6	37.2	42.8	43.6	13.6	57.2	100
	보수적	313	7.4	43.7	51.1	36.4	12.5	48.9	100
종교별	불교	248	8.1	41.5	49.6	36.5	14.0	50.4	100
	기독교	245	6.8	43.6	50.3	40.4	9.3	49.7	100
	천주교	70	10.8	38.1	48.9	41.1	10.0	51.1	100
	기타	3	0.0	34.4	34.4	28.4	37.1	65.6	100
	종교없음	624	5.9	38.5	44.4	43.6	12.0	55.6	100
	모름/무응답	11	6.4	33.5	39.9	37.9	22.2	60.1	100

표 27.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1	52.9	60.0	34.4	5.6	40.0	100
성별	남자	607	8.0	50.7	58.6	35.6	5.8	41.4	100
	여자	593	6.3	55.1	61.4	33.2	5.4	38.6	100
연령별	19~29세	227	4.0	50.6	54.6	36.2	9.1	45.4	100
	30대	238	6.5	54.4	60.9	32.6	6.5	39.1	100
	40대	275	7.0	53.8	60.8	35.4	3.8	39.2	100
	50대	254	10.9	49.1	60.1	34.6	5.3	39.9	100
	60대 이상	206	6.8	57.0	63.8	32.8	3.4	36.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2	54.4	58.6	36.6	4.8	41.4	100
	고졸	493	8.0	53.1	61.1	35.2	3.7	38.9	100
	대재 이상	584	7.0	52.4	59.4	33.3	7.4	40.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6	42.5	54.1	35.8	10.1	45.9	100
	자영업	198	6.6	55.9	62.6	33.6	3.8	37.4	100
	블루 칼라	336	5.5	47.3	52.9	42.3	4.9	47.1	100
	화이트칼라	276	8.2	56.0	64.2	29.8	6.0	35.8	100
	전업 주부	243	6.1	57.8	63.9	30.0	6.0	36.1	100
	무직/기타	127	11.1	48.2	59.3	32.8	7.9	40.7	100
	200만원 미만	117	8.8	47.7	56.5	39.6	3.9	43.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0	61.5	66.5	30.5	3.0	33.5	100
	300~399만원	366	7.0	55.0	62.0	33.4	4.6	38.0	100
	400만원 이상	514	7.7	49.1	56.8	35.5	7.7	43.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5	51.5	57.0	36.2	6.8	43.0	100
	충청권	122	5.8	61.4	67.2	30.4	2.5	32.8	100
	호남권	118	17.8	64.9	82.7	16.2	1.1	17.3	100
	영남권	310	5.8	50.5	56.4	38.2	5.4	43.6	100
	강원	36	12.7	28.8	41.5	44.8	13.7	58.5	100
	제주	14	12.1	50.3	62.3	34.4	3.3	37.7	100
	대도시	554	7.0	53.8	60.8	33.4	5.7	39.2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6.8	52.2	59.0	35.4	5.6	41.0	100
	읍/면	66	10.8	50.9	61.7	33.9	4.4	38.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9.2	57.8	66.9	28.4	4.7	33.1	100
	중도	593	6.2	51.6	57.8	38.7	3.5	42.2	100
	보수적	313	7.0	50.7	57.7	31.8	10.5	42.3	100
종교별	불교	248	6.5	52.2	58.8	36.6	4.7	41.2	100
	기독교	245	9.8	55.2	65.0	31.7	3.2	35.0	100
	천주교	70	6.6	49.7	56.3	37.8	5.9	43.7	100
	기타	3	0.0	62.9	62.9	37.1	0.0	37.1	100
	종교없음	624	6.2	52.9	59.1	33.9	7.0	40.9	100
	모름/무응답	11	17.6	30.3	48.0	52.0	0.0	52.0	100

표 28.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3.4	47.0	50.4	41.8	7.8	49.6	100
	남자	607	3.5	46.0	49.5	41.1	9.3	50.5	100
연령별	여자	593	3.2	48.1	51.3	42.4	6.3	48.7	100
	19~29세	227	2.8	40.3	43.0	45.2	11.8	57.0	100
연령별	30대	238	2.0	45.3	47.2	46.6	6.1	52.8	100
	40대	275	1.7	47.4	49.1	41.9	9.0	50.9	100
연령별	50대	254	5.1	49.0	54.1	37.8	8.2	45.9	100
	60대 이상	206	5.7	53.6	59.4	37.1	3.6	40.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3	49.1	53.4	42.7	3.9	46.6	100
	고졸	493	3.5	50.7	54.2	38.9	6.9	45.8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3.0	43.5	46.5	44.0	9.5	53.5	100
	농/수/축산업	20	0.0	52.4	52.4	32.6	15.0	47.6	100
직업별	자영업	198	4.6	48.6	53.1	39.8	7.0	46.9	100
	블루 칼라	336	4.1	48.3	52.4	38.9	8.8	47.6	1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76	2.9	43.4	46.2	44.2	9.5	53.8	100
	전업 주부	243	2.6	52.0	54.6	42.5	2.9	45.4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2.7	38.9	41.6	47.2	11.2	58.4	100
	200만원 미만	117	2.6	55.3	57.9	32.8	9.3	42.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1	46.9	51.0	42.6	6.4	49.0	100
	300~399만원	366	1.4	45.6	47.0	44.9	8.1	53.0	1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14	4.6	46.2	50.9	41.2	7.9	49.1	100
	수도권	601	3.6	48.1	51.7	40.8	7.6	48.3	100
지역별	충청권	122	3.9	41.5	45.4	47.4	7.3	54.6	100
	호남권	118	4.3	24.7	28.9	55.4	15.6	71.1	100
지역별	영남권	310	2.2	56.3	58.6	37.3	4.2	41.4	100
	강원	36	2.3	47.8	50.1	29.8	20.1	49.9	100
지역 크기	제주	14	9.1	30.9	39.9	50.5	9.6	60.1	100
	대도시	554	2.7	43.4	46.1	46.3	7.6	53.9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4.3	50.8	55.1	37.4	7.5	44.9	100
	읍/면	66	0.7	44.0	44.7	41.9	13.4	55.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8	38.8	41.6	47.8	10.5	58.4	100
	중도	593	2.3	48.3	50.6	42.6	6.8	49.4	1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313	5.9	52.3	58.2	34.4	7.4	41.8	100
	불교	248	4.1	50.4	54.5	40.9	4.6	45.5	100
종교별	기독교	245	4.6	47.4	52.0	39.2	8.8	48.0	100
	천주교	70	9.2	45.5	54.7	40.0	5.2	45.3	100
종교별	기타	3	0.0	34.4	34.4	65.6	0.0	65.6	100
	종교없음	624	2.0	46.0	48.0	43.2	8.8	52.0	100
종교별	모름/무응답	11	0.0	33.4	33.4	44.1	22.4	66.6	100

표 29.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8.9	52.4	61.4	26.9	3.4	30.3	8.3	100
	남자	607	10.2	52.1	62.3	25.4	4.1	29.5	8.2	100
성별	여자	593	7.6	52.8	60.4	28.5	2.7	31.2	8.5	100
연령별	19~29세	227	8.4	44.6	53.0	28.9	7.2	36.1	10.9	100
	30대	238	7.6	50.5	58.1	30.4	2.4	32.8	9.1	100
연령별	40대	275	13.3	50.9	64.1	24.5	3.0	27.5	8.4	100
	50대	254	6.9	57.4	64.3	26.4	2.2	28.6	7.1	100
연령별	60대 이상	206	7.8	59.2	67.0	24.4	2.5	26.9	6.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4	59.7	65.0	27.1	0.0	27.1	7.9	100
	고졸	493	5.9	55.0	60.9	28.0	2.6	30.6	8.5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12.2	48.8	61.0	25.9	4.9	30.7	8.3	100
	농/수/축산업	20	3.9	64.0	68.0	21.0	0.0	21.0	11.0	100
직업별	자영업	198	8.7	53.4	62.1	28.2	1.0	29.2	8.7	100
	블루 칼라	336	6.3	52.7	59.0	29.8	1.9	31.7	9.3	1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76	11.5	51.9	63.4	23.0	6.8	29.8	6.8	100
	전업 주부	243	7.8	55.6	63.3	25.8	3.2	29.0	7.7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13.7	43.4	57.1	28.8	4.9	33.6	9.3	100
	200만원 미만	117	9.1	58.4	67.5	22.0	0.0	22.0	10.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7.9	54.2	62.1	27.6	1.6	29.2	8.7	100
	300~399만원	366	6.5	50.9	57.5	31.5	3.7	35.2	7.3	1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14	11.0	51.4	62.4	24.4	4.7	29.1	8.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5	51.5	59.0	28.1	4.4	32.4	8.6	100
	충청권	122	7.6	44.9	52.5	39.5	1.9	41.4	6.1	100
지역별	호남권	118	21.9	50.4	72.2	16.1	3.2	19.3	8.5	100
	영남권	310	5.5	59.2	64.7	25.4	2.2	27.6	7.7	100
지역별	강원	36	21.4	43.2	64.5	15.7	4.4	20.0	15.4	100
	제주	14	18.8	49.8	68.6	18.9	3.2	22.1	9.3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6	53.4	62.1	25.4	3.0	28.4	9.5	100
	중·소도시	580	8.8	52.9	61.6	26.8	4.2	31.1	7.3	100
지역 크기	읍/면	66	12.8	40.1	52.9	39.6	0.0	39.6	7.5	100
	진보적	294	13.1	53.0	66.1	24.1	2.9	27.0	6.9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6.6	51.9	58.5	28.7	2.5	31.1	10.4	100
	보수적	313	9.4	52.9	62.3	26.1	5.7	31.8	5.9	100
종교별	불교	248	7.8	55.6	63.4	26.7	3.7	30.5	6.1	100
	기독교	245	8.5	52.7	61.2	29.5	3.6	33.1	5.7	100
종교별	천주교	70	10.9	40.9	51.8	33.7	1.9	35.6	12.7	100
	기타	3	0.0	37.1	37.1	0.0	0.0	0.0	62.9	100
종교별	종교없음	624	9.4	53.4	62.8	25.2	3.3	28.4	8.8	100
	모름/무응답	11	6.4	0.0	6.4	33.2	11.2	44.3	49.2	100

표 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7.4	42.4	49.8	30.4	16.9	3.0	19.8	100
성별									
남자	607	6.9	42.3	49.2	29.4	17.8	3.5	21.3	100
여자	593	7.9	42.5	50.4	31.4	15.9	2.4	18.3	100
연령별									
19~29세	227	4.4	35.3	39.7	36.8	19.3	4.1	23.5	100
30대	238	6.3	41.5	47.8	32.1	18.2	1.8	20.1	100
40대	275	7.4	42.1	49.5	33.0	15.3	2.1	17.5	100
50대	254	10.3	45.6	55.9	24.2	16.8	3.2	20.0	100
60대 이상	206	8.3	47.8	56.1	25.5	14.7	3.8	18.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8.4	47.5	55.9	25.6	16.8	1.7	18.5	100
고졸	493	8.1	39.9	48.1	31.0	17.7	3.3	20.9	100
대재 이상	584	6.5	43.4	50.0	30.9	16.2	3.0	19.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8	59.7	72.6	20.7	6.8	0.0	6.8	100
자영업	198	10.5	33.5	44.0	29.9	21.8	4.3	26.1	100
블루 칼라	336	6.9	41.3	48.3	29.6	18.6	3.6	22.2	100
화이트칼라	276	6.2	47.0	53.3	32.1	13.1	1.6	14.7	100
전업 주부	243	7.9	45.0	52.9	28.9	15.8	2.3	18.1	100
무직/기타	127	4.3	41.3	45.6	34.2	16.5	3.8	20.2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9.7	48.6	58.4	25.3	13.3	3.1	16.4	100
200~299만원	203	5.4	47.2	52.7	28.3	15.7	3.4	19.1	100
300~399만원	366	6.9	41.1	48.0	28.6	20.4	3.1	23.4	100
400만원 이상	514	7.9	40.0	48.0	33.7	15.6	2.7	18.3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8	46.0	52.8	28.1	16.3	2.8	19.1	100
충청권	122	7.6	33.1	40.7	35.3	20.3	3.7	24.0	100
호남권	118	13.8	59.6	73.4	22.6	2.7	1.3	4.0	100
영남권	310	5.4	31.8	37.3	37.3	23.0	2.4	25.4	100
강원	36	8.8	53.4	62.2	15.6	11.3	10.9	22.1	100
제주	14	15.6	28.4	43.9	37.4	8.9	9.8	18.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0	43.2	51.2	30.8	14.8	3.2	18.1	100
중·소도시	580	7.0	41.0	48.0	30.1	19.0	2.9	21.9	100
읍/면	66	5.2	48.4	53.7	29.8	15.0	1.5	16.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1.2	41.1	52.3	28.2	16.6	2.9	19.5	100
중도	593	4.0	43.8	47.7	35.0	15.0	2.3	17.3	100
보수적	313	10.3	41.0	51.3	23.8	20.7	4.1	24.9	100
종교별									
불교	248	6.5	47.8	54.3	26.9	15.7	3.2	18.8	100
기독교	245	10.2	44.6	54.9	29.6	13.1	2.5	15.6	100
천주교	70	10.9	38.4	49.3	28.6	18.3	3.8	22.1	100
기타	3	0.0	62.9	62.9	0.0	37.1	0.0	37.1	100
종교없음	624	6.4	40.0	46.4	32.3	18.3	3.0	21.4	100
모름/무응답	11	0.0	28.7	28.7	41.4	30.0	0.0	30.0	100

표 3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5.0	40.0	55.0	31.2	11.3	2.4	13.7	0.1	100
성별										
남자	607	14.3	37.3	51.7	34.0	11.5	2.7	14.2	0.1	100
여자	593	15.6	42.7	58.3	28.4	11.2	2.1	13.3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14.3	31.2	45.5	40.1	12.2	2.2	14.4	0.0	100
30대	238	13.1	37.6	50.7	35.0	11.7	2.1	13.8	0.4	100
40대	275	14.4	40.7	55.1	31.0	11.1	2.8	13.9	0.0	100
50대	254	16.6	47.4	64.0	25.6	8.3	2.1	10.4	0.0	100
60대 이상	206	16.8	42.1	58.9	24.4	14.1	2.6	16.7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8.2	38.3	56.5	27.3	15.4	0.8	16.2	0.0	100
고졸	493	14.5	42.3	56.8	27.5	12.8	2.7	15.5	0.2	100
대재 이상	584	14.7	38.4	53.1	35.2	9.2	2.5	11.7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0	62.3	70.3	13.1	16.6	0.0	16.6	0.0	100
자영업	198	12.2	43.0	55.1	28.3	12.0	4.5	16.5	0.0	100
블루 칼라	336	18.4	34.3	52.6	30.5	14.4	2.3	16.6	0.3	100
화이트칼라	276	13.3	41.4	54.7	34.8	8.8	1.7	10.5	0.0	100
전업 주부	243	13.7	42.9	56.5	29.9	11.2	2.3	13.5	0.0	100
무직/기타	127	17.8	38.1	56.0	35.4	7.2	1.4	8.6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3.6	34.4	58.0	26.3	13.4	1.5	14.9	0.8	100
200~299만원	203	14.6	42.4	57.0	27.7	13.7	1.7	15.4	0.0	100
300~399만원	366	12.0	43.5	55.5	29.8	11.8	2.9	14.7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5.3	37.8	53.1	34.8	9.6	2.5	12.1	0.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5.6	39.6	55.2	33.6	9.4	1.9	11.2	0.0	100
충청권	122	13.7	43.9	57.6	28.7	7.3	6.4	13.7	0.0	100
호남권	118	27.4	53.6	81.1	14.5	3.2	1.3	4.5	0.0	100
영남권	310	9.0	33.8	42.8	35.2	19.7	1.9	21.7	0.3	100
강원	36	20.1	41.5	61.7	20.1	11.9	6.3	18.2	0.0	100
제주	14	15.0	38.9	53.9	34.2	11.9	0.0	11.9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1.6	39.9	51.5	38.2	8.3	1.9	10.2	0.2	100
중·소도시	580	18.8	40.0	58.8	25.4	13.0	2.8	15.8	0.0	100
읍/면	66	9.9	40.4	50.3	24.4	22.3	3.0	25.3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9.1	41.1	60.3	27.3	11.2	1.2	12.4	0.0	100
중도	593	12.9	39.2	52.1	36.6	9.5	1.7	11.2	0.2	100
보수적	313	15.1	40.3	55.4	24.9	14.9	4.9	19.8	0.0	100
종교별										
불교	248	19.5	36.0	55.5	28.2	13.9	2.5	16.4	0.0	100
기독교	245	17.6	49.5	67.2	26.2	4.8	1.9	6.6	0.0	100
천주교	70	8.9	50.2	59.0	30.7	8.2	2.0	10.2	0.0	100
기타	3	0.0	62.9	62.9	0.0	37.1	0.0	37.1	0.0	100
종교없음	624	13.0	36.8	49.8	34.7	13.2	2.2	15.4	0.1	100
모름/무응답	11	11.0	28.5	39.4	30.6	7.5	22.4	30.0	0.0	100

표 3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0	37.2	51.2	30.7	15.3	2.8	18.1	100
	남자	607	14.1	36.4	50.5	30.3	15.6	3.7	19.2	100
연령별	여자	593	13.9	38.0	51.9	31.2	15.0	1.9	16.9	100
	19~29세	227	17.0	37.1	54.1	26.1	18.5	1.3	19.8	100
연령별	30대	238	13.0	39.7	52.6	33.8	9.7	3.9	13.6	100
	40대	275	13.2	33.9	47.1	32.7	17.6	2.6	20.2	100
연령별	50대	254	13.8	39.4	53.2	30.6	13.3	3.0	16.2	100
	60대 이상	206	13.1	36.2	49.3	29.9	17.6	3.2	20.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1.5	38.7	50.2	31.5	16.6	1.8	18.3	100
	고졸	493	13.7	38.9	52.6	30.4	14.0	3.0	17.0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14.8	35.5	50.2	30.8	16.1	2.8	18.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0	32.4	37.4	48.7	13.9	0.0	13.9	100
	자영업	198	15.7	38.2	54.0	30.9	12.6	2.5	15.1	100
직업별	블루 칼라	336	18.1	38.2	56.3	26.8	14.4	2.5	16.9	100
	화이트칼라	276	12.2	34.8	47.0	32.2	16.7	4.1	20.8	100
직업별	전업 주부	243	10.6	38.2	48.8	36.4	13.0	1.8	14.8	100
	무직/기타	127	12.0	37.1	49.1	24.2	23.1	3.6	26.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6.0	35.5	51.5	26.2	18.4	4.0	22.3	100
	200~299만원	203	16.8	37.1	53.9	27.6	15.4	3.1	18.5	1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6	12.6	34.8	47.4	36.8	13.1	2.7	15.9	100
	400만원 이상	514	13.4	39.4	52.8	28.7	16.1	2.4	18.5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2	42.0	58.1	27.8	11.6	2.4	14.0	100
	충청권	122	8.2	31.9	40.2	41.2	16.9	1.7	18.6	100
지역별	호남권	118	8.1	24.9	33.1	32.7	29.6	4.6	34.3	100
	영남권	310	12.0	36.6	48.6	31.6	16.5	3.2	19.7	100
지역별	강원	36	34.1	27.7	61.7	22.5	13.7	2.1	15.8	100
	제주	14	12.6	18.9	31.6	50.4	14.8	3.2	18.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8	41.8	56.6	27.5	13.1	2.9	16.0	100
	중·소도시	580	13.8	34.1	47.9	32.0	17.5	2.6	20.1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8.7	26.3	35.0	47.2	14.3	3.6	17.8	100
	진보적	294	15.8	37.3	53.1	29.5	13.4	4.0	17.4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2.2	37.8	50.0	31.6	15.6	2.8	18.4	100
	보수적	313	15.6	36.0	51.6	30.3	16.4	1.7	18.1	100
종교별	불교	248	15.2	37.4	52.6	30.4	15.6	1.3	16.9	100
	기독교	245	12.2	38.5	50.7	31.0	15.5	2.8	18.3	100
종교별	천주교	70	14.5	42.8	57.3	24.3	12.6	5.8	18.4	100
	기타	3	0.0	37.1	37.1	62.9	0.0	0.0	0.0	100
종교없음	종교없음	624	14.5	35.9	50.4	31.0	15.5	3.1	18.6	100
	모름/무응답	11	0.0	39.9	39.9	49.2	11.0	0.0	11.0	100

표 30-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5.5	30.1	45.7	32.6	18.1	3.6	21.7	100
	남자	607	16.8	29.5	46.3	33.8	15.8	4.0	19.9	100
연령별	여자	593	14.2	30.8	45.0	31.4	20.5	3.1	23.5	100
	19~29세	227	13.3	33.1	46.4	34.6	16.2	2.8	19.0	100
연령별	30대	238	14.5	29.6	44.2	37.9	15.3	2.7	17.9	100
	40대	275	18.9	31.4	50.4	28.9	17.6	3.1	20.7	100
연령별	50대	254	17.3	28.7	46.0	30.9	21.4	1.7	23.1	100
	60대 이상	206	12.5	27.4	39.9	31.5	20.3	8.4	28.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1.7	29.2	40.9	36.9	15.2	7.0	22.2	100
	고졸	493	18.4	28.0	46.4	29.4	21.8	2.4	24.1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13.9	32.1	46.0	34.4	15.7	3.8	19.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3	20.6	35.9	34.7	6.9	22.5	29.4	100
	자영업	198	16.8	24.5	41.3	34.2	21.5	2.9	24.4	100
직업별	블루 칼라	336	19.6	29.0	48.6	31.4	17.1	2.9	20.0	100
	화이트칼라	276	15.0	34.4	49.4	35.4	11.9	3.3	15.2	100
직업별	전업 주부	243	12.0	30.7	42.7	30.6	23.2	3.5	26.7	100
	무직/기타	127	10.7	33.2	43.9	30.8	21.1	4.1	25.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4.3	30.0	44.3	33.3	17.6	4.8	22.4	100
	200~299만원	203	17.9	34.6	52.4	24.3	19.0	4.2	23.2	1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6	16.8	30.8	47.6	31.7	16.5	4.2	20.7	100
	400만원 이상	514	14.0	28.0	41.9	36.4	19.1	2.6	21.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7.4	28.5	45.9	32.4	19.4	2.2	21.6	100
	충청권	122	9.2	38.4	47.6	39.1	12.0	1.4	13.4	100
지역별	호남권	118	18.5	29.2	47.7	28.2	10.2	13.8	24.0	100
	영남권	310	12.0	32.3	44.3	33.1	20.3	2.3	22.6	100
지역별	강원	36	29.1	15.8	44.9	23.8	25.0	6.3	31.3	100
	제주	14	9.6	21.9	31.5	34.1	18.9	15.5	34.4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2	28.6	42.8	33.4	21.0	2.8	23.8	100
	중·소도시	580	17.5	32.4	49.9	31.8	15.9	2.4	18.3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9.2	22.8	32.0	34.0	14.4	19.7	34.0	100
	진보적	294	17.2	31.3	48.6	30.5	17.8	3.2	21.0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6.1	30.7	46.8	34.5	15.0	3.8	18.8	100
	보수적	313	12.9	27.9	40.9	31.2	24.4	3.5	27.9	100
종교별	불교	248	11.8	30.5	42.2	27.1	27.3	3.4	30.6	100
	기독교	245	17.0	29.3	46.3	34.8	15.3	3.6	18.9	100
종교별	천주교	70	31.1	26.1	57.2	27.9	13.1	1.8	14.9	100
	기타	3	0.0	0.0	0.0	71.6	28.4	0.0	28.4	100
종교없음	종교없음	624	14.7	31.1	45.9	34.5	15.7	3.9	19.6	100
	모름/무응답	11	17.7	19.1	36.8	22.1	41.1	0.0	41.1	100

표 3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9.9	41.8	61.7	29.6	7.9	0.7	8.6	100
	남자	607	20.0	40.0	60.0	30.8	9.1	0.1	9.2	100
	여자	593	19.8	43.7	63.5	28.4	6.8	1.3	8.1	100
연령별	19~29세	227	20.0	42.5	62.5	28.2	9.3	0.0	9.3	100
	30대	238	18.2	40.3	58.6	33.1	8.1	0.3	8.4	100
	40대	275	20.6	41.4	62.0	31.0	5.8	1.2	7.0	100
	50대	254	20.3	42.1	62.4	28.7	8.6	0.3	8.9	100
	60대 이상	206	20.4	43.0	63.5	26.4	8.3	1.8	10.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2.5	42.9	65.5	25.5	7.5	1.5	9.0	100
	고졸	493	16.1	44.7	60.8	32.2	6.3	0.7	7.0	100
	대재 이상	584	22.6	39.1	61.7	28.3	9.4	0.6	1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8.3	33.9	52.2	42.9	0.0	4.9	4.9	100
	자영업	198	15.3	40.0	55.3	36.1	7.6	1.0	8.6	100
	블루 칼라	336	19.7	43.0	62.7	28.9	8.2	0.2	8.4	100
	화이트칼라	276	21.0	39.9	60.8	29.0	10.2	0.0	10.2	100
	전업 주부	243	19.3	44.1	63.3	28.1	6.6	2.0	8.6	100
	무직/기타	127	26.8	42.9	69.7	23.4	6.9	0.0	6.9	100
	200만원 미만	117	21.2	42.1	63.2	29.2	6.2	1.4	7.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1.1	43.2	64.2	26.3	9.0	0.5	9.4	100
	300~399만원	366	21.2	39.4	60.7	30.8	7.8	0.7	8.6	100
	400만원 이상	514	18.2	42.9	61.2	30.2	8.0	0.6	8.6	100
	수도권	601	17.4	44.9	62.2	28.5	8.8	0.4	9.3	100
지역별	충청권	122	19.4	37.3	56.8	31.2	11.4	0.6	12.0	100
	호남권	118	33.6	34.1	67.7	26.3	6.1	0.0	6.1	100
	영남권	310	17.2	41.8	59.0	33.6	6.4	0.9	7.4	100
	강원	36	36.5	30.6	67.0	24.3	2.1	6.6	8.7	100
	제주	14	37.2	44.3	81.5	15.6	2.9	0.0	2.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8.3	42.1	60.4	33.4	5.8	0.3	6.1	100
	중·소도시	580	20.1	42.6	62.7	26.1	10.2	1.0	11.2	100
	읍/면	66	31.5	32.3	63.8	28.9	5.8	1.5	7.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0.6	46.9	67.5	22.5	9.3	0.7	10.0	100
	중도	593	17.3	40.8	58.1	34.1	7.4	0.4	7.8	100
	보수적	313	24.1	39.1	63.2	27.8	7.6	1.4	9.0	100
종교별	불교	248	19.2	40.7	59.9	29.5	9.5	1.1	10.6	100
	기독교	245	23.0	37.6	60.7	31.7	7.7	0.0	7.7	100
	천주교	70	18.1	54.0	72.1	17.1	9.9	1.0	10.9	100
	기타	3	0.0	34.4	34.4	28.4	37.1	0.0	37.1	100
	종교없음	624	19.3	43.0	62.3	29.7	7.2	0.8	8.0	100
	모름/무응답	11	17.6	22.2	39.9	60.1	0.0	0.0	0.0	100

표 3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9.6	36.2	55.8	26.8	12.8	4.7	17.5	100
성별	남자	607	21.8	35.9	57.7	25.7	11.4	5.2	16.6	100
	여자	593	17.4	36.5	53.8	27.8	14.2	4.1	18.3	100
연령별	19~29세	227	15.8	33.1	48.9	28.9	15.9	6.3	22.2	100
	30대	238	20.3	37.2	57.5	26.4	12.3	3.8	16.1	100
	40대	275	19.5	39.0	58.5	23.2	12.9	5.3	18.3	100
	50대	254	21.1	34.0	55.1	28.7	11.4	4.8	16.2	100
	60대 이상	206	21.3	37.2	58.5	27.1	11.6	2.8	14.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5.6	33.5	59.1	25.9	12.3	2.7	15.0	100
	고졸	493	19.3	36.6	55.8	29.4	11.0	3.7	14.8	100
	대재 이상	584	18.6	36.4	55.0	24.7	14.4	5.9	20.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8	53.2	65.0	16.3	14.7	4.0	18.7	100
	자영업	198	20.3	38.2	58.5	27.9	9.1	4.5	13.6	100
	블루 칼라	336	22.5	32.6	55.1	28.2	12.2	4.6	16.8	100
	화이트칼라	276	20.5	37.4	57.9	25.5	11.9	4.8	16.6	100
	전업 주부	243	16.1	41.7	57.8	22.9	15.9	3.5	19.3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6.9	26.5	43.4	33.1	16.2	7.2	23.5	100
	200만원 미만	117	26.7	25.6	52.2	27.9	12.3	7.6	19.9	100
	200~299만원	203	19.0	36.9	56.0	24.7	13.1	6.3	19.4	100
	300~399만원	366	13.9	40.6	54.5	30.7	10.5	4.4	14.9	100
	400만원 이상	514	22.3	35.1	57.4	24.6	14.5	3.5	18.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8.9	42.2	61.1	24.4	11.0	3.5	14.6	100
	충청권	122	14.2	27.6	41.8	48.8	8.2	1.3	9.5	100
	호남권	118	24.8	31.0	55.8	16.0	19.3	9.0	28.3	100
	영남권	310	17.4	32.9	50.3	29.0	15.7	5.0	20.7	100
	강원	36	53.6	12.5	66.1	6.9	11.2	15.8	27.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15.7	29.2	44.9	30.6	14.5	10.0	24.5	100
	대도시	554	19.5	36.2	55.7	27.1	12.1	5.0	17.2	100
	중·소도시	580	20.0	35.9	55.9	26.1	13.2	4.8	18.1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7.6	38.1	55.7	29.7	14.5	0.0	14.5	100
	진보적	294	20.6	37.5	58.1	22.6	13.9	5.4	19.2	100
	중도	593	16.8	36.1	52.8	30.0	12.5	4.7	17.1	100
	보수적	313	24.1	35.1	59.1	24.4	12.5	3.9	16.4	100
종교별	불교	248	23.2	27.6	50.8	28.4	16.4	4.4	20.8	100
	기독교	245	16.0	42.3	58.3	24.1	12.4	5.2	17.6	100
	천주교	70	25.8	33.6	59.4	24.0	12.1	4.5	16.6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8.8	37.8	56.6	26.7	11.9	4.7	16.6	100
	모름/무응답	11	28.6	0.0	28.6	71.4	0.0	0.0	0.0	100

표30-7.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5.5	22.3	27.9	56.4	12.2	3.1	15.3	0.4	100
	남자	607	6.5	21.5	28.0	55.2	13.1	3.4	16.5	0.4	100
	여자	593	4.5	23.2	27.7	57.6	11.3	2.8	14.1	0.5	100
연령별	19~29세	227	5.7	15.2	20.8	62.0	14.5	2.2	16.7	0.5	100
	30대	238	6.2	21.9	28.1	57.2	10.6	3.7	14.3	0.4	100
	40대	275	6.1	26.5	32.7	51.5	12.2	3.7	15.9	0.0	100
	50대	254	5.1	22.6	27.7	54.3	14.7	2.4	17.2	0.9	100
	60대 이상	206	4.3	24.8	29.1	58.5	8.6	3.3	12.0	0.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5	28.6	33.2	59.2	6.9	0.0	6.9	0.7	100
	고졸	493	4.6	24.4	29.1	53.6	14.1	2.8	16.9	0.5	100
	대재 이상	584	6.5	19.3	25.7	58.2	11.8	3.9	15.7	0.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3.9	13.9	80.2	5.9	0.0	5.9	0.0	100
	자영업	198	4.8	25.9	30.8	50.4	14.2	4.1	18.4	0.5	100
	블루 칼라	336	6.4	23.9	30.3	53.3	14.6	1.8	16.4	0.0	100
	화이트칼라	276	6.9	21.8	28.7	57.9	9.9	3.1	13.0	0.4	100
	전업 주부	243	3.7	22.7	26.3	58.6	9.6	4.8	14.4	0.7	100
	무직/기타	127	5.6	14.5	20.1	62.7	14.1	2.1	16.1	1.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6	23.5	28.0	58.3	8.5	1.5	10.0	3.7	100
	200~299만원	203	4.7	20.9	25.5	60.7	10.5	3.3	13.7	0.0	100
	300~399만원	366	4.8	21.5	26.3	59.7	12.4	1.6	14.0	0.0	100
	400만원 이상	514	6.6	23.3	29.9	51.9	13.7	4.4	18.1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3	23.9	30.2	51.0	14.7	3.5	18.2	0.6	100
	충청권	122	4.9	27.9	32.8	61.2	4.7	1.3	6.0	0.0	100
	호남권	118	3.9	19.7	23.6	60.4	13.7	1.5	15.2	0.7	100
	영남권	310	4.0	20.2	24.2	61.4	10.6	3.4	14.0	0.3	100
	강원	36	13.7	9.1	22.8	64.0	7.0	6.3	13.3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3.2	10.4	13.5	80.1	6.3	0.0	6.3	0.0	100
	대도시	554	5.0	20.1	25.2	57.9	13.6	2.8	16.4	0.6	100
	중·소도시	580	6.5	25.1	31.6	52.5	12.0	3.6	15.6	0.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4	16.7	18.1	77.7	2.8	1.4	4.2	0.0	100
	진보적	294	9.1	24.8	33.9	52.0	11.7	1.5	13.2	0.8	100
	중도	593	3.7	20.4	24.1	61.2	12.3	2.3	14.6	0.1	100
	보수적	313	5.5	23.8	29.3	51.4	12.6	6.0	18.6	0.6	100
종교별	불교	248	5.6	24.2	29.8	53.4	13.9	2.6	16.5	0.4	100
	기독교	245	6.2	21.3	27.5	56.7	12.3	3.4	15.8	0.0	100
	천주교	70	6.7	19.8	26.5	58.7	9.1	4.4	13.6	1.3	100
	기타	3	0.0	37.1	37.1	62.9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5.2	22.4	27.7	56.8	12.0	3.0	15.0	0.6	100
	모름/무응답	11	0.0	11.0	11.0	77.8	11.2	0.0	11.2	0.0	100

표 31-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50.1	37.4	87.5	9.9	2.5	0.1	2.6	100
	성별									
	남자	607	47.7	39.4	87.1	9.6	3.1	0.2	3.3	100
	여자	593	52.5	35.4	87.9	10.2	1.8	0.1	1.9	100
연령별	19~29세	227	52.4	37.0	89.4	8.1	2.0	0.6	2.5	100
	30대	238	49.1	37.0	86.1	11.7	2.0	0.2	2.2	100
	40대	275	47.2	38.4	85.5	11.4	3.0	0.0	3.0	100
	50대	254	48.1	38.1	86.2	10.4	3.4	0.0	3.4	100
	60대 이상	206	54.9	36.3	91.2	7.2	1.5	0.0	1.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6.3	33.7	90.0	10.0	0.0	0.0	0.0	100
	고졸	493	47.8	37.7	85.5	11.5	3.0	0.0	3.0	100
	대재 이상	584	50.7	38.0	88.7	8.5	2.5	0.3	2.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9.8	30.1	89.9	10.1	0.0	0.0	0.0	100
	자영업	198	50.3	35.8	86.0	11.2	2.7	0.0	2.7	100
	블루 칼라	336	50.5	36.6	87.1	10.0	2.9	0.0	2.9	100
	화이트칼라	276	44.6	42.9	87.4	9.5	2.6	0.5	3.1	100
	전업 주부	243	51.1	36.0	87.2	10.3	2.4	0.2	2.5	100
	무직/기타	127	57.1	34.1	91.1	7.9	1.0	0.0	1.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2.4	31.2	83.6	15.0	1.4	0.0	1.4	100
	200~299만원	203	50.7	40.2	90.9	8.3	0.8	0.0	0.8	100
	300~399만원	366	52.7	34.1	86.8	9.9	3.3	0.0	3.3	100
	400만원 이상	514	47.4	40.1	87.5	9.4	2.8	0.3	3.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6.9	41.4	88.3	8.6	2.9	0.2	3.1	100
	충청권	122	48.4	37.3	85.8	8.5	5.7	0.0	5.7	100
	호남권	118	62.8	26.5	89.4	10.6	0.0	0.0	0.0	100
	영남권	310	50.1	37.4	87.5	11.7	0.8	0.0	0.8	100
	강원	36	64.0	15.8	79.7	13.6	6.6	0.0	6.6	100
	제주	14	55.4	16.1	71.5	25.4	0.0	3.1	3.1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53.6	34.3	87.9	10.6	1.5	0.0	1.5	100
	중·소도시	580	44.0	42.3	86.4	9.7	3.7	0.3	4.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73.4	20.4	93.8	6.2	0.0	0.0	0.0	100
	진보적	294	51.5	35.7	87.3	11.6	0.8	0.4	1.2	100
	중도	593	47.4	38.4	85.8	10.2	4.0	0.1	4.0	100
	보수적	313	53.8	37.1	90.9	7.9	1.2	0.0	1.2	100
종교별	불교	248	52.3	36.6	88.9	9.4	1.7	0.0	1.7	100
	기독교	245	47.2	39.0	86.2	11.1	2.7	0.0	2.7	100
	천주교	70	51.8	29.8	81.6	11.2	7.1	0.0	7.1	100
	기타	3	28.4	71.6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50.6	38.0	88.6	9.5	1.9	0.1	1.9	100
	모름/무응답	11	30.3	28.6	58.9	11.1	18.7	11.3	30.0	100

표 31-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8.8	42.0	50.9	34.3	12.3	2.5	14.8	100
	성별									
	남자	607	9.5	41.3	50.8	32.9	13.6	2.6	16.3	100
	여자	593	8.2	42.8	50.9	35.8	11.0	2.3	13.3	100
연령별	19~29세	227	8.5	45.1	53.6	33.3	11.5	1.6	13.1	100
	30대	238	14.5	41.1	55.6	32.7	9.1	2.6	11.7	100
	40대	275	7.1	42.5	49.6	35.6	12.7	2.1	14.8	100
	50대	254	8.8	39.2	48.0	34.9	13.6	3.6	17.2	100
	60대 이상	206	5.0	42.7	47.6	35.0	14.9	2.4	17.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9	40.3	46.2	38.3	14.5	1.0	15.5	100
	고졸	493	5.6	41.9	47.5	35.2	14.4	2.9	17.3	100
	대재 이상	584	12.2	42.5	54.7	32.8	10.1	2.4	12.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0	25.4	40.3	43.8	15.9	0.0	15.9	100
	자영업	198	4.2	45.5	49.7	34.0	13.9	2.4	16.3	100
	블루 칼라	336	7.3	40.5	47.8	34.6	14.1	3.5	17.6	100
	화이트칼라	276	14.5	43.8	58.3	30.1	10.1	1.6	11.7	100
	전업 주부	243	6.8	40.6	47.3	38.7	11.5	2.4	13.9	100
	무직/기타	127	11.0	42.4	53.4	33.3	11.0	2.3	13.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7.9	30.7	38.6	44.5	14.4	2.5	17.0	100
	200~299만원	203	9.1	40.7	49.8	34.4	13.0	2.8	15.8	100
	300~399만원	366	8.6	37.8	46.4	37.7	13.1	2.8	15.9	100
	400만원 이상	514	9.1	48.2	57.3	29.6	11.0	2.1	13.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9.6	43.7	53.3	32.9	11.9	1.8	13.7	100
	충청권	122	11.2	51.4	62.6	28.1	6.7	2.5	9.2	100
	호남권	118	13.5	45.1	58.6	35.8	4.3	1.3	5.6	100
	영남권	310	3.3	37.3	40.6	38.1	18.3	3.0	21.3	100
	강원	36	20.1	21.8	41.9	33.1	13.8	11.2	25.0	100
	제주	14	9.4	19.6	29.1	55.8	8.8	6.2	15.1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7.8	41.8	49.6	33.8	14.2	2.4	16.6	100
	중·소도시	580	10.0	42.6	52.6	33.7	11.0	2.8	13.8	100
	읍/면	66	7.8	39.4	47.1	44.2	8.7	0.0	8.7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0.7	46.5	57.2	31.8	9.7	1.2	10.9	100
	중도	593	8.5	41.0	49.5	37.2	10.9	2.5	13.4	100
	보수적	313	7.8	39.9	47.6	31.3	17.5	3.6	21.1	100
종교별	불교	248	5.8	42.9	48.7	31.5	17.2	2.7	19.8	100
	기독교	245	10.3	43.5	53.7	36.4	8.2	1.7	9.8	100
	천주교	70	8.8	38.6	47.4	37.7	8.7	6.1	14.9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9.7	41.3	51.0	34.7	12.0	2.4	14.3	100
	모름/무응답	11	0.0	39.5	39.5	19.4	41.1	0.0	41.1	100

표 31-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크 지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전 체	1200	14.2	32.9	47.1	40.0	10.7	2.2	12.8	100
	성별									
	남자	607	13.7	31.6	45.3	41.7	10.1	2.9	13.0	100
	여자	593	14.7	34.3	49.0	38.3	11.3	1.5	12.7	100
연령별	19~29세	227	14.4	35.1	49.5	38.1	10.5	2.0	12.5	100
	30대	238	12.0	35.1	47.1	41.7	8.7	2.5	11.2	100
	40대	275	17.5	27.7	45.2	42.3	10.8	1.6	12.4	100
	50대	254	14.8	32.9	47.7	38.9	11.0	2.3	13.3	100
	60대 이상	206	11.2	35.1	46.3	38.6	12.5	2.6	15.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8	38.7	49.5	33.0	17.5	0.0	17.5	100
	고졸	493	12.1	33.6	45.8	41.4	10.5	2.4	12.8	100
	대재 이상	584	16.6	31.1	47.8	40.4	9.4	2.5	11.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0	31.4	42.4	43.2	14.4	0.0	14.4	100
	자영업	198	15.5	30.3	45.8	42.8	9.6	1.9	11.4	100
	블루 칼라	336	15.1	30.8	45.9	40.6	11.8	1.7	13.5	100
	화이트칼라	276	12.9	35.7	48.7	40.9	7.9	2.6	10.5	100
	전업 주부	243	11.7	33.0	44.8	41.1	11.9	2.3	14.2	100
	무직/기타	127	17.5	36.8	54.3	30.0	12.7	3.1	15.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1	33.7	43.8	39.1	15.7	1.4	17.1	100
	200~299만원	203	15.2	40.1	55.2	32.8	11.5	0.5	12.0	100
	300~399만원	366	11.2	29.9	41.1	44.6	12.4	1.9	14.3	100
	400만원 이상	514	16.8	32.1	48.9	39.9	7.9	3.2	11.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4.7	31.2	46.0	44.7	6.4	2.9	9.3	100
	충청권	122	18.8	28.1	46.9	37.7	14.1	1.3	15.4	100
	호남권	118	26.0	31.1	57.1	32.3	9.9	0.6	10.5	100
	영남권	310	6.4	39.7	46.1	36.0	16.8	1.2	17.9	100
	강원	36	19.7	25.1	44.8	28.4	20.2	6.6	26.8	100
	제주	14	9.4	32.8	42.2	43.2	11.5	3.1	14.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9	28.1	43.0	43.9	11.6	1.5	13.1	100
	중·소도시	580	13.3	37.5	50.8	36.5	9.7	3.0	12.7	100
	읍/면	66	15.9	33.7	49.6	38.9	11.5	0.0	11.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4.8	40.0	54.8	35.8	8.2	1.2	9.4	100
	중도	593	12.9	32.7	45.6	42.2	9.4	2.8	12.2	100
	보수적	313	16.1	26.7	42.8	39.8	15.4	1.9	17.4	100
종교별	불교	248	11.5	39.4	50.9	33.5	13.9	1.8	15.6	100
	기독교	245	16.2	26.7	42.9	48.5	7.5	1.1	8.6	100
	천주교	70	16.1	22.0	38.1	42.0	11.0	8.9	19.9	100
	기타	3	28.4	71.6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4.3	33.9	48.2	38.9	10.8	2.1	12.9	100
	모름/무응답	11	6.4	33.2	39.7	60.3	0.0	0.0	0.0	100

표 31-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2	36.9	51.1	35.8	11.6	1.5	13.1	100
	남자	607	14.7	36.2	50.9	35.6	11.9	1.5	13.5	100
	여자	593	13.6	37.7	51.4	35.9	11.4	1.4	12.7	100
연령별	19~29세	227	15.1	44.3	59.3	28.7	9.8	2.1	11.9	100
	30대	238	12.8	34.1	46.9	39.7	11.8	1.6	13.4	100
	40대	275	15.1	31.1	46.1	39.0	14.0	0.9	14.9	100
	50대	254	14.1	36.0	50.1	35.6	12.6	1.7	14.4	1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06	13.8	41.2	54.9	35.0	9.1	0.9	10.1	100
	중졸 이하	122	12.9	40.8	53.6	32.9	12.4	1.0	13.4	100
	고졸	493	12.8	37.0	49.8	36.2	12.8	1.2	14.0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15.6	36.1	51.7	36.0	10.5	1.7	12.3	100
	농/수/축산업	20	17.2	43.1	60.3	39.7	0.0	0.0	0.0	100
	자영업	198	16.9	30.9	47.8	37.9	13.7	0.6	14.3	100
	블루 칼라	336	15.1	34.6	49.7	35.7	13.7	0.9	14.6	100
	화이트칼라	276	13.5	38.4	51.9	36.2	9.9	1.9	11.8	100
	전업 주부	243	9.5	37.5	47.0	39.5	12.0	1.5	13.5	100
	무직/기타	127	17.6	47.2	64.8	23.7	8.1	3.4	11.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2	40.2	50.4	39.7	8.8	1.1	9.9	100
	200~299만원	203	14.7	39.4	54.1	34.1	11.4	0.4	11.8	100
	300~399만원	366	11.9	36.4	48.4	37.5	12.4	1.8	14.2	100
	400만원 이상	514	16.5	35.6	52.1	34.4	11.9	1.7	13.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3	36.9	53.1	35.7	9.5	1.6	11.1	100
	충청권	122	9.6	24.4	34.1	33.0	30.3	2.6	32.9	100
	호남권	118	16.6	39.3	56.0	39.4	4.0	0.7	4.7	100
	영남권	310	10.2	41.9	52.0	36.3	10.6	1.0	11.6	100
	강원	36	22.1	29.1	51.2	28.0	20.8	0.0	20.8	100
	제주	14	12.6	40.9	53.5	37.5	5.9	3.1	9.0	100
	대도시	554	15.6	32.7	48.3	40.2	10.3	1.2	11.6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3.1	41.8	54.9	29.9	13.3	1.8	15.2	100
	읍/면	66	11.4	30.5	41.9	50.1	8.0	0.0	8.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4.1	42.3	56.3	31.3	10.5	1.9	12.3	100
	중도	593	12.9	37.6	50.5	36.5	11.5	1.5	13.0	100
	보수적	313	16.8	30.7	47.5	38.5	13.0	1.0	14.0	100
종교별	불교	248	15.3	38.9	54.1	33.2	10.4	2.2	12.6	100
	기독교	245	13.9	36.4	50.3	40.0	8.6	1.0	9.6	100
	천주교	70	15.4	27.3	42.7	41.2	14.3	1.8	16.1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3.7	37.5	51.2	34.6	12.9	1.3	14.2	100
	모름/무응답	11	17.6	19.3	37.0	40.7	22.4	0.0	22.4	100

표 31-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8.2	24.8	33.0	47.8	15.8	3.5	19.2	100
	남자	607	7.9	24.2	32.1	49.0	14.7	4.2	18.9	100
	여자	593	8.4	25.5	33.9	46.6	16.8	2.7	19.5	100
연령별	19~29세	227	8.0	24.8	32.8	47.4	14.8	5.0	19.8	100
	30대	238	9.1	22.4	31.5	48.7	14.4	5.3	19.8	100
	40대	275	8.1	22.7	30.8	47.9	18.6	2.7	21.3	100
	50대	254	6.8	27.2	34.0	48.6	15.6	1.8	17.4	1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06	9.0	27.5	36.5	46.0	14.8	2.7	17.5	100
	중졸 이하	122	12.6	24.7	37.3	42.7	18.2	1.8	20.0	100
	고졸	493	7.1	28.3	35.4	46.2	16.1	2.3	18.4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8.2	21.9	30.1	50.2	15.0	4.8	19.8	100
	농/수/축산업	20	5.1	22.7	27.7	63.5	8.7	0.0	8.7	100
	자영업	198	7.3	26.1	33.5	45.2	19.1	2.3	21.4	100
	블루 칼라	336	8.3	26.2	34.6	44.0	18.4	3.1	21.4	100
	화이트칼라	276	8.1	22.3	30.4	55.4	10.8	3.5	14.3	100
	전업 주부	243	7.8	24.6	32.3	47.0	17.1	3.5	20.7	100
	무직/기타	127	10.4	25.3	35.7	44.4	13.0	6.8	19.8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8.5	28.7	37.2	42.6	16.8	3.5	20.2	100
	200~299만원	203	10.5	28.1	38.6	45.0	13.7	2.7	16.4	100
	300~399만원	366	6.7	25.4	32.1	48.7	15.0	4.1	19.1	100
	400만원 이상	514	8.2	22.2	30.4	49.4	16.9	3.3	2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9.0	22.4	31.4	51.6	13.2	3.7	17.0	100
	충청권	122	6.8	21.1	27.9	38.0	29.3	4.8	34.1	100
	호남권	118	10.3	28.3	38.6	48.6	11.0	1.9	12.9	100
	영남권	310	5.1	30.0	35.0	45.9	16.5	2.6	19.1	100
	강원	36	20.0	22.3	42.4	27.9	23.3	6.4	29.7	100
	제주	14	6.4	22.4	28.8	53.0	12.0	6.3	18.3	100
	대도시	554	6.8	20.7	27.5	54.9	14.9	2.7	17.6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9.5	29.4	39.0	40.4	16.1	4.6	20.7	100
	읍/면	66	7.8	18.7	26.5	53.3	20.2	0.0	20.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0.0	28.7	38.7	43.8	12.7	4.8	17.5	100
	중도	593	7.2	24.3	31.4	48.8	16.7	3.1	19.8	100
	보수적	313	8.3	22.2	30.6	49.6	16.8	3.0	19.8	100
종교별	불교	248	8.3	27.9	36.2	42.9	17.6	3.3	20.9	100
	기독교	245	6.8	23.1	29.9	53.2	13.7	3.2	16.9	100
	천주교	70	9.5	24.1	33.5	41.8	20.6	4.1	24.7	100
	기타	3	0.0	62.9	62.9	37.1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8.6	24.1	32.6	48.6	15.1	3.6	18.8	100
	모름/무응답	11	6.4	30.5	37.0	33.2	29.8	0.0	29.8	100

표 3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①+②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4.8	41.1	45.9	49.0	5.0	54.0	0.1	100
성별	남자	607	5.6	41.4	47.0	47.6	5.2	52.8	0.2	100
	여자	593	4.1	40.8	44.8	50.3	4.8	55.2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3.8	35.9	39.6	52.6	7.8	60.4	0.0	100
	30대	238	5.1	35.5	40.5	51.8	7.3	59.1	0.4	100
	40대	275	3.1	45.3	48.3	48.6	3.0	51.7	0.0	100
	50대	254	6.2	44.3	50.5	45.6	3.9	49.5	0.0	100
	60대 이상	206	6.5	43.9	50.4	46.2	3.4	49.6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5	44.0	46.5	48.5	5.0	53.5	0.0	100
	고졸	493	5.0	41.6	46.6	49.5	3.9	53.4	0.0	100
	대재 이상	584	5.2	40.1	45.3	48.6	6.0	54.5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8	46.8	50.6	49.4	0.0	49.4	0.0	100
	자영업	198	6.6	41.3	48.0	48.7	3.3	52.0	0.0	100
	블루 칼라	336	4.6	39.3	43.9	51.5	4.6	56.1	0.0	100
	화이트칼라	276	5.6	44.1	49.6	43.4	6.6	50.0	0.4	100
	전업 주부	243	4.1	40.9	45.0	50.1	4.9	55.0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6	38.6	41.2	52.5	6.4	58.8	0.0	100
	200만원 미만	117	2.6	39.1	41.6	49.8	8.6	58.4	0.0	100
	200~299만원	203	2.9	48.1	51.0	44.7	4.3	49.0	0.0	100
	300~399만원	366	4.8	36.7	41.4	54.3	4.0	58.3	0.3	100
	400만원 이상	514	6.2	41.9	48.2	46.7	5.2	51.8	0.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0	42.4	47.3	47.9	4.6	52.5	0.2	100
	충청권	122	6.0	43.7	49.7	49.0	1.2	50.3	0.0	100
	호남권	118	7.0	33.3	40.4	46.7	12.9	59.6	0.0	100
	영남권	310	2.9	41.2	44.1	51.9	4.0	55.9	0.0	100
	강원	36	8.1	31.7	39.7	51.2	9.1	60.3	0.0	100
	제주	14	6.2	51.0	57.2	39.5	3.3	42.8	0.0	100
	대도시	554	2.4	35.7	38.1	56.8	4.9	61.7	0.2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6.3	46.4	52.7	41.6	5.7	47.3	0.0	100
	읍/면	66	12.2	39.9	52.1	47.9	0.0	47.9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5	42.6	47.2	48.5	4.4	52.8	0.0	100
	중도	593	4.2	42.1	46.3	48.4	5.2	53.6	0.2	100
	보수적	313	6.3	37.9	44.2	50.5	5.3	55.8	0.0	100
종교별	불교	248	6.0	44.1	50.0	44.2	5.7	50.0	0.0	100
	기독교	245	5.7	44.4	50.1	45.1	4.4	49.5	0.4	100
	천주교	70	8.5	46.7	55.2	40.3	4.5	44.8	0.0	100
	기타	3	0.0	71.6	71.6	28.4	0.0	28.4	0.0	100
	종교없음	624	3.8	37.9	41.6	53.2	5.1	58.4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40.7	40.7	59.3	0.0	59.3	0.0	100

표 33-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는다	⑤ 전혀 꺼리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	10.6	12.0	35.5	37.5	15.1	52.5	100
성별	남자	607	1.1	11.3	12.5	35.6	37.4	14.5	51.9	100
	여자	593	1.6	9.9	11.5	35.3	37.5	15.6	53.2	100
연령별	19~29세	227	3.0	12.3	15.3	37.7	35.8	11.2	47.0	100
	30대	238	0.9	14.2	15.2	36.9	33.7	14.3	48.0	100
	40대	275	1.3	6.6	8.0	37.1	40.2	14.7	54.9	100
	50대	254	0.0	10.5	10.5	31.8	38.6	19.1	57.7	100
	60대 이상	206	1.9	9.9	11.8	33.9	38.5	15.8	54.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1	10.2	13.3	38.4	36.1	12.2	48.2	100
	고졸	493	0.8	10.1	10.9	37.3	36.0	15.9	51.8	100
	대재 이상	584	1.5	11.1	12.6	33.4	39.0	15.0	54.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4.1	14.1	25.8	50.2	10.0	60.1	100
	자영업	198	0.0	8.4	8.4	32.6	41.6	17.4	59.0	100
	블루 칼라	336	0.5	11.6	12.2	36.0	38.0	13.9	51.9	100
	화이트칼라	276	2.1	12.9	15.0	40.1	32.3	12.6	44.9	100
	전업 주부	243	2.6	8.1	10.6	35.9	35.0	18.4	53.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1	10.8	12.8	29.5	43.3	14.3	57.7	100
	200만원 미만	117	1.8	13.4	15.2	46.5	30.0	8.3	38.3	100
	200~299만원	203	2.0	11.9	14.0	32.9	42.0	11.1	53.1	100
	300~399만원	366	0.4	8.7	9.2	37.5	33.5	19.8	53.3	100
	400만원 이상	514	1.7	10.8	12.5	32.5	40.2	14.9	55.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	9.2	10.8	36.5	37.6	15.2	52.8	100
	충청권	122	0.0	9.3	9.3	19.2	48.9	22.5	71.4	100
	호남권	118	4.0	15.0	18.9	38.1	33.1	9.9	43.0	100
	영남권	310	0.5	10.2	10.7	38.7	36.7	13.8	50.5	100
	강원	36	2.0	28.2	30.2	29.9	20.3	19.6	39.9	100
	제주	14	0.0	9.3	9.3	56.2	28.2	6.3	34.5	100
	대도시	554	1.6	8.9	10.5	41.2	35.6	12.7	48.3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3	11.4	12.8	31.0	39.8	16.5	56.2	100
	읍/면	66	0.0	17.6	17.6	27.0	32.7	22.6	55.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3	10.9	12.2	36.0	33.6	18.2	51.8	100
	중도	593	0.8	10.9	11.7	37.2	37.5	13.7	51.2	100
	보수적	313	2.5	9.9	12.4	31.8	40.9	14.9	55.8	100
종교별	불교	248	1.2	10.2	11.4	33.7	37.8	17.1	54.9	100
	기독교	245	2.3	11.3	13.6	30.8	40.8	14.8	55.6	100
	천주교	70	1.4	16.1	17.5	36.9	39.8	5.7	45.6	100
	기타	3	0.0	0.0	0.0	28.4	71.6	0.0	71.6	100
	종교없음	624	1.1	9.7	10.8	37.8	35.9	15.6	51.4	100
	모름/무응답	11	0.0	25.1	25.1	41.7	21.9	11.2	33.2	100

표 33-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는다	⑤ 전혀 꺼리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6	12.4	15.0	35.1	38.0	12.0	49.9	100
성별									
남자	607	2.9	13.4	16.3	36.7	34.8	12.3	47.0	100
여자	593	2.3	11.3	13.6	33.5	41.2	11.7	52.9	100
연령별									
19~29세	227	6.2	12.0	18.2	36.3	36.0	9.5	45.5	100
30대	238	3.6	13.8	17.5	35.9	35.7	11.0	46.7	100
40대	275	1.0	12.7	13.7	33.7	38.7	13.9	52.6	100
50대	254	1.0	12.4	13.4	33.4	40.4	12.9	53.2	100
60대 이상	206	1.7	10.6	12.2	36.9	38.8	12.1	50.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8	10.4	12.2	41.1	36.6	10.0	46.6	100
고졸	493	2.3	12.3	14.6	36.7	37.9	10.8	48.7	100
대재 이상	584	3.0	12.8	15.9	32.5	38.3	13.3	51.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8.7	8.7	36.2	45.3	9.7	55.1	100
자영업	198	0.6	9.6	10.2	38.6	35.7	15.5	51.2	100
블루 칼라	336	3.0	14.4	17.4	34.8	37.1	10.7	47.9	100
화이트칼라	276	5.3	12.5	17.7	36.0	34.8	11.4	46.2	100
전업 주부	243	1.2	11.3	12.5	33.8	42.3	11.5	53.8	100
무직/기타	127	2.1	13.8	15.8	31.0	41.1	12.1	53.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8	12.6	14.4	39.6	37.9	8.2	46.0	100
200~299만원	203	1.8	9.3	11.1	34.4	43.6	10.8	54.5	100
300~399만원	366	1.5	12.6	14.1	39.8	31.4	14.8	46.2	100
400만원 이상	514	3.9	13.4	17.3	31.0	40.4	11.3	51.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7	11.6	15.4	33.5	40.5	10.6	51.1	100
충청권	122	0.0	3.2	3.2	31.1	43.3	22.4	65.7	100
호남권	118	4.6	11.6	16.3	39.2	33.3	11.3	44.6	100
영남권	310	0.9	16.6	17.5	38.4	35.0	9.1	44.2	100
강원	36	2.0	24.1	26.1	22.7	24.8	26.4	51.2	100
제주	14	0.0	6.4	6.4	64.9	19.4	9.3	28.7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3	14.3	15.7	41.2	34.7	8.4	43.1	100
중·소도시	580	4.1	10.8	14.9	29.0	41.5	14.6	56.1	100
읍/면	66	0.0	9.7	9.7	38.0	34.0	18.3	52.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0	13.1	16.1	32.4	36.4	15.1	51.6	100
중도	593	2.1	11.7	13.8	37.8	37.0	11.4	48.4	100
보수적	313	3.2	12.9	16.1	32.6	41.3	10.0	51.3	100
종교별									
불교	248	1.2	12.8	14.0	36.5	37.0	12.5	49.5	100
기독교	245	4.4	11.3	15.6	32.8	39.9	11.7	51.6	100
천주교	70	1.8	23.0	24.8	35.7	31.9	7.6	39.5	100
기타	3	0.0	0.0	0.0	28.4	71.6	0.0	71.6	100
종교없음	624	2.6	11.2	13.8	35.8	37.8	12.6	50.4	100
모름/무응답	11	0.0	29.8	29.8	14.5	55.7	0.0	55.7	100

표 33-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는다	⑤ 전혀 꺼리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7.9	31.7	39.6	32.8	21.8	5.8	27.6	100
성별									
남자	607	7.9	32.0	40.0	32.4	22.0	5.6	27.6	100
여자	593	7.9	31.2	39.2	33.3	21.6	6.0	27.5	100
연령별									
19~29세	227	10.7	36.1	46.9	27.9	18.9	6.3	25.2	100
30대	238	6.0	34.8	40.9	34.7	18.4	6.0	24.4	100
40대	275	7.7	27.9	35.7	33.3	25.6	5.5	31.1	100
50대	254	7.9	26.0	33.9	36.0	24.2	5.9	30.1	100
60대 이상	206	7.4	34.9	42.4	31.6	20.8	5.2	26.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6.7	34.8	41.5	34.1	20.7	3.7	24.4	100
고졸	493	7.5	31.4	38.8	32.9	23.0	5.3	28.3	100
대재 이상	584	8.6	31.2	39.9	32.5	20.9	6.7	27.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43.8	43.8	32.2	24.0	0.0	24.0	100
자영업	198	6.1	30.7	36.8	32.7	21.4	9.1	30.5	100
블루 칼라	336	9.1	33.6	42.7	32.2	21.0	4.0	25.0	100
화이트칼라	276	7.4	33.3	40.7	34.4	19.4	5.5	24.9	100
전업 주부	243	9.4	27.9	37.3	31.5	25.5	5.7	31.2	100
무직/기타	127	7.5	29.6	37.0	34.0	22.2	6.8	29.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9.5	33.5	43.0	30.6	21.9	4.5	26.4	100
200~299만원	203	4.6	23.7	28.3	38.6	26.8	6.4	33.2	100
300~399만원	366	6.6	30.8	37.4	35.1	21.1	6.4	27.5	100
400만원 이상	514	9.9	35.0	44.9	29.4	20.3	5.4	25.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5	35.1	42.6	32.6	21.6	3.2	24.8	100
충청권	122	3.3	20.2	23.5	38.8	24.2	13.4	37.7	100
호남권	118	13.1	26.7	39.8	29.1	23.4	7.7	31.1	100
영남권	310	8.7	32.6	41.2	31.3	21.8	5.6	27.4	100
강원	36	6.4	30.2	36.5	30.2	13.6	19.6	33.2	100
제주	14	9.1	9.4	18.5	65.6	12.8	3.1	15.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0	31.2	39.2	36.0	19.4	5.4	24.8	100
중·소도시	580	8.1	32.6	40.7	29.8	23.5	5.9	29.5	100
읍/면	66	6.1	27.2	33.3	32.8	26.3	7.6	33.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8.3	31.9	40.2	28.8	23.7	7.3	31.0	100
중도	593	7.2	27.8	35.0	37.9	21.6	5.5	27.1	100
보수적	313	9.0	38.7	47.7	27.1	20.3	5.0	25.3	100
종교별									
불교	248	9.7	30.7	40.4	34.5	19.3	5.8	25.1	100
기독교	245	6.9	30.7	37.6	33.8	22.7	5.9	28.6	100
천주교	70	9.9	33.6	43.4	24.8	29.6	2.2	31.8	100
기타	3	0.0	0.0	0.0	28.4	71.6	0.0	71.6	100
종교없음	624	7.6	32.2	39.9	32.9	20.9	6.3	27.2	100
모름/무응답	11	0.0	36.4	36.4	19.4	44.2	0.0	44.2	100

표 33-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는다	⑤ 전혀 꺼리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7.1	28.6	45.7	32.3	16.3	5.7	22.0	100
	남자	607	15.4	27.5	42.8	33.7	17.5	6.0	23.5	100
	여자	593	18.9	29.8	48.7	30.9	15.1	5.3	20.5	100
연령별	19~29세	227	20.5	34.0	54.5	27.3	13.6	4.5	18.2	100
	30대	238	19.8	27.5	47.3	33.6	14.1	5.1	19.2	100
	40대	275	17.1	26.2	43.3	29.5	19.0	8.2	27.2	100
	50대	254	16.9	24.0	40.9	33.5	20.3	5.3	25.6	100
	60대 이상	206	10.5	32.9	43.4	38.3	13.6	4.7	18.3	100
	중졸 이하	122	8.8	38.9	47.7	36.7	11.2	4.4	15.6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17.3	25.9	43.3	35.0	16.1	5.6	21.8	100
	대재 이상	584	18.7	28.7	47.4	29.0	17.6	6.0	23.6	100
	농/수/축산업	20	4.3	29.7	34.0	40.0	20.0	5.9	26.0	100
직업별	자영업	198	12.2	28.3	40.5	34.4	17.9	7.1	25.1	100
	블루 칼라	336	21.7	25.8	47.5	33.6	14.1	4.8	18.9	100
	화이트칼라	276	19.1	30.1	49.2	29.6	15.3	5.8	21.2	100
	전업 주부	243	17.0	27.7	44.7	30.6	18.0	6.7	24.7	100
	무직/기타	127	10.5	34.8	45.3	33.1	18.4	3.1	21.5	100
	200만원 미만	117	12.4	28.9	41.4	38.0	14.4	6.2	20.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2.0	28.9	40.8	36.6	17.1	5.5	22.6	100
	300~399만원	366	15.5	26.0	41.5	33.2	18.3	7.0	25.3	100
	400만원 이상	514	21.3	30.3	51.7	28.6	15.1	4.6	19.8	100
	수도권	601	19.1	26.7	45.8	32.9	16.6	4.7	21.3	100
지역별	충청권	122	5.9	24.5	30.4	41.3	19.7	8.6	28.3	100
	호남권	118	23.2	20.0	43.2	28.0	22.5	6.3	28.8	100
	영남권	310	15.5	38.9	54.4	28.7	12.8	4.0	16.9	100
	강원	36	17.2	19.6	36.9	25.8	13.4	23.9	37.4	100
	제주	14	12.2	15.5	27.6	56.3	9.7	6.4	16.1	100
	대도시	554	18.7	32.7	51.4	30.8	13.5	4.3	17.8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6.4	25.2	41.5	34.0	17.6	6.9	24.5	100
	읍/면	66	9.8	25.1	34.9	29.2	29.4	6.4	35.8	100
	진보적	294	16.1	30.1	46.2	27.8	18.2	7.8	26.0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6.7	25.6	42.3	35.2	17.4	5.0	22.5	100
	보수적	313	18.9	32.9	51.7	30.9	12.5	4.8	17.3	100
	불교	248	15.6	34.3	49.9	32.0	13.3	4.8	18.1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6.8	26.5	43.3	31.6	18.3	6.8	25.1	100
	천주교	70	28.9	22.1	51.0	23.8	21.3	4.0	25.2	100
	기타	3	0.0	28.4	28.4	37.1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16.5	27.7	44.2	33.9	16.3	5.6	21.9	100
	모름/무응답	11	22.3	39.8	62.2	15.7	11.0	11.2	22.2	100
	모름/무응답	11	22.3	39.8	62.2	15.7	11.0	11.2	22.2	100

표 34.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 모두 받아 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더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계
			%	%	%	%
성별	전 체	1200	41.1	48.5	10.4	100
	남자	607	41.1	50.1	8.8	100
	여자	593	41.0	47.0	12.0	100
연령별	19~29세	227	33.8	53.1	13.1	100
	30대	238	34.0	56.7	9.3	100
	40대	275	47.9	42.3	9.9	100
	50대	254	45.0	46.3	8.7	100
	60대 이상	206	43.5	45.1	11.4	100
	중졸 이하	122	40.3	44.9	14.8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40.7	47.6	11.7	100
	대재 이상	584	41.5	50.1	8.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5.3	43.4	11.3	100
	자영업	198	45.1	45.5	9.4	100
	블루 칼라	336	37.4	50.9	11.7	100
	화이트칼라	276	39.2	51.7	9.1	100
	전업 주부	243	43.0	44.4	12.5	100
	무직/기타	127	44.1	48.8	7.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3.8	41.9	14.3	100
	200~299만원	203	43.5	48.9	7.6	100
	300~399만원	366	42.8	50.4	6.8	100
	400만원 이상	514	38.3	48.5	13.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5.2	53.4	11.4	100
	충청권	122	50.8	39.1	10.1	100
	호남권	118	51.4	38.9	9.7	100
	영남권	310	42.7	48.8	8.4	100
	강원	36	53.5	30.6	15.9	100
	제주	14	52.7	40.7	6.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2.7	51.5	5.7	100
	중·소도시	580	38.2	46.9	14.9	100
	읍/면	66	52.6	37.6	9.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1.3	46.4	12.4	100
	중도	593	40.4	51.2	8.4	100
	보수적	313	42.2	45.5	12.3	100
종교별	불교	248	44.5	44.0	11.6	100
	기독교	245	41.2	49.6	9.2	100
	천주교	70	38.4	52.9	8.7	100
	기타	3	62.9	0.0	37.1	100
	종교없음	624	40.3	49.8	9.9	100
	모름/무응답	11	17.4	41.5	41.1	100

표 35-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8.5	52.8	61.3	32.7	6.0	38.7	0.1	100
	남자	607	8.8	53.3	62.1	30.6	7.3	37.9	0.0	100
	여자	593	8.2	52.2	60.4	34.8	4.7	39.4	0.1	100
연령별	19~29세	227	5.4	50.9	56.3	35.5	8.2	43.7	0.0	100
	30대	238	8.3	55.1	63.4	30.9	5.7	36.6	0.0	100
	40대	275	10.3	55.9	66.1	27.0	6.8	33.9	0.0	100
	50대	254	8.1	51.9	60.0	34.7	4.9	39.6	0.3	100
	60대 이상	206	10.4	49.0	59.4	36.4	4.1	40.6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6.2	41.0	47.3	48.3	4.4	52.7	0.0	100
	고졸	493	8.4	52.6	61.0	32.9	5.9	38.8	0.2	100
	대재 이상	584	9.1	55.3	64.5	29.2	6.4	35.5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6.3	31.8	48.2	51.8	0.0	51.8	0.0	100
	자영업	198	10.5	57.1	67.7	27.4	4.9	32.3	0.0	100
	블루 칼라	336	7.8	49.8	57.6	33.1	9.0	42.1	0.3	100
	화이트칼라	276	8.8	56.4	65.2	29.6	5.2	34.8	0.0	100
	전업 주부	243	6.0	50.6	56.6	38.1	5.3	43.4	0.0	100
	무직/기타	127	10.0	53.3	63.3	33.0	3.7	36.7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8.3	50.3	58.6	37.6	3.8	41.4	0.0	100
	200~299만원	203	8.8	59.9	68.7	27.5	3.8	31.3	0.0	100
	300~399만원	366	8.5	53.5	62.0	31.6	6.4	38.0	0.0	100
	400만원 이상	514	8.4	50.0	58.4	34.3	7.1	41.4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5	52.8	60.3	33.3	6.4	39.7	0.0	100
	충청권	122	11.4	55.1	66.5	27.3	6.2	33.5	0.0	100
	호남권	118	14.1	51.5	65.5	27.8	5.9	33.7	0.8	100
	영남권	310	6.8	51.9	58.7	36.0	5.3	41.3	0.0	100
	강원	36	10.8	55.4	66.2	27.3	6.5	33.8	0.0	100
	제주	14	12.9	53.2	66.1	33.9	0.0	33.9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7.3	55.2	62.5	33.0	4.5	37.5	0.0	100
	중·소도시	580	8.3	51.3	59.6	32.3	8.0	40.3	0.2	100
	읍/면	66	21.1	44.8	65.8	32.9	1.3	34.2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0.2	49.0	59.2	34.8	6.0	40.8	0.0	100
	중도	593	7.9	54.4	62.3	31.3	6.4	37.7	0.0	100
	보수적	313	8.1	53.1	61.2	33.2	5.3	38.5	0.3	100
종교별	불교	248	10.5	51.8	62.3	32.7	5.0	37.7	0.0	100
	기독교	245	10.6	55.7	66.3	29.4	3.9	33.4	0.4	100
	천주교	70	12.0	42.7	54.7	37.2	8.1	45.3	0.0	100
	기타	3	37.1	34.4	71.6	28.4	0.0	28.4	0.0	100
	종교없음	624	6.6	53.8	60.4	32.9	6.7	39.6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14.5	14.5	63.1	22.3	85.5	0.0	100

표 35-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0.2	40.4	50.6	41.4	8.0	49.4	100
	남자	607	12.1	40.3	52.5	39.1	8.5	47.5	100
	여자	593	8.2	40.5	48.7	43.8	7.5	51.3	100
연령별	19~29세	227	9.7	39.7	49.4	41.3	9.3	50.6	100
	30대	238	8.4	39.5	47.9	45.0	7.1	52.1	100
	40대	275	12.9	40.4	53.3	38.1	8.5	46.7	100
	50대	254	11.0	41.6	52.7	42.3	5.1	47.3	100
	60대 이상	206	8.2	40.9	49.1	40.6	10.3	50.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3	37.3	44.5	45.9	9.6	55.5	100
	고졸	493	9.6	39.1	48.7	42.9	8.4	51.3	100
	대재 이상	584	11.3	42.2	53.5	39.2	7.3	46.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8	53.2	61.9	38.1	0.0	38.1	100
	자영업	198	14.0	39.1	53.1	41.3	5.6	46.9	100
	블루 칼라	336	7.7	41.3	49.0	41.8	9.3	51.0	100
	화이트칼라	276	12.5	43.0	55.5	36.0	8.6	44.5	100
	전업 주부	243	6.4	37.9	44.2	48.4	7.3	55.8	100
	무직/기타	127	13.4	37.7	51.1	39.5	9.4	48.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6.5	34.8	41.3	47.3	11.4	58.7	100
	200~299만원	203	6.9	40.3	47.2	47.6	5.3	52.8	100
	300~399만원	366	10.7	40.9	51.6	41.1	7.4	48.4	100
	400만원 이상	514	12.0	41.5	53.5	37.8	8.7	46.5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2.7	35.9	48.5	43.9	7.6	51.5	100
	충청권	122	9.0	51.2	60.2	32.2	7.6	39.8	100
	호남권	118	9.1	50.7	59.9	31.9	8.2	40.1	100
	영남권	310	6.8	38.1	44.9	46.0	9.0	55.1	100
	강원	36	6.9	55.7	62.6	28.3	9.1	37.4	100
	제주	14	6.4	68.7	75.1	24.9	0.0	24.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3	39.3	47.5	45.3	7.1	52.5	100
	중·소도시	580	11.9	40.8	52.7	38.3	9.1	47.3	100
	읍/면	66	11.0	47.6	58.6	36.0	5.4	41.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2.2	42.1	54.3	37.8	7.9	45.7	100
	중도	593	9.7	40.5	50.2	43.3	6.5	49.8	100
	보수적	313	9.3	38.7	48.0	41.1	10.9	52.0	100
종교별	불교	248	8.6	41.1	49.7	41.2	9.1	50.3	100
	기독교	245	16.3	42.9	59.2	36.9	3.9	40.8	100
	천주교	70	13.9	37.1	51.1	41.0	7.9	48.9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8.3	39.6	47.8	43.4	8.7	52.2	100
	모름/무응답	11	0.0	25.8	25.8	44.3	29.8	74.2	100

표 35-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5.3	29.5	34.8	50.4	14.7	65.1	0.1	100
	남자	607	5.2	28.1	33.4	50.3	16.3	66.6	0.0	100
	여자	593	5.5	30.8	36.2	50.4	13.2	63.6	0.1	100
연령별	19~29세	227	6.0	30.9	36.9	47.6	15.5	63.1	0.0	100
	30대	238	5.5	28.3	33.8	51.3	14.9	66.2	0.0	100
	40대	275	4.5	28.4	32.9	50.5	16.6	67.1	0.0	100
	50대	254	5.2	29.4	34.5	50.2	15.0	65.1	0.3	100
	60대 이상	206	5.9	30.7	36.6	52.5	10.9	63.4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2	31.8	37.1	49.9	13.1	62.9	0.0	100
	고졸	493	5.4	30.9	36.3	51.7	11.8	63.5	0.2	100
	대재 이상	584	5.3	27.7	33.0	49.4	17.6	67.0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0.0	19.9	29.9	60.3	9.8	70.1	0.0	100
	자영업	198	5.1	27.8	32.9	52.8	14.3	67.1	0.0	100
	블루 칼라	336	5.6	33.2	38.7	49.9	11.1	61.0	0.3	100
	화이트칼라	276	7.0	29.0	36.0	46.0	18.0	64.0	0.0	100
	전업 주부	243	5.4	30.2	35.6	52.4	12.0	64.4	0.0	100
	무직/기타	127	0.8	23.2	24.0	52.0	24.0	76.0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6	29.9	32.5	50.3	17.2	67.5	0.0	100
	200~299만원	203	4.5	30.2	34.6	50.6	14.8	65.4	0.0	100
	300~399만원	366	4.4	25.1	29.6	55.7	14.8	70.4	0.0	100
	400만원 이상	514	7.0	32.1	39.1	46.6	14.1	60.7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0	29.2	36.2	53.6	10.2	63.8	0.0	100
	충청권	122	4.1	25.2	29.3	49.1	21.6	70.7	0.0	100
	호남권	118	4.0	22.5	26.5	59.7	13.0	72.7	0.8	100
	영남권	310	3.8	35.3	39.1	40.5	20.5	60.9	0.0	100
	강원	36	0.0	29.1	29.1	48.7	22.2	70.9	0.0	100
	제주	14	3.1	9.3	12.4	69.1	18.5	87.6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9	28.0	30.0	52.1	17.9	70.0	0.0	100
	중·소도시	580	8.6	31.7	40.3	47.2	12.3	59.5	0.2	100
	읍/면	66	5.2	21.4	26.5	64.5	9.0	73.5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8.0	30.6	38.6	48.5	12.9	61.4	0.0	100
	중도	593	4.3	29.0	33.4	52.5	14.2	66.6	0.0	100
	보수적	313	4.7	29.2	33.9	48.3	17.5	65.8	0.3	100
종교별	불교	248	3.6	33.3	36.9	46.6	16.5	63.1	0.0	100
	기독교	245	7.7	27.0	34.7	52.4	12.5	64.9	0.4	100
	천주교	70	6.8	31.5	38.3	44.2	17.5	61.7	0.0	100
	기타	3	0.0	37.1	37.1	62.9	0.0	62.9	0.0	100
	종교없음	624	5.0	29.2	34.2	51.6	14.2	65.8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0.0	0.0	55.4	44.6	100.0	0.0	100

표 35-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5.0	55.9	71.0	24.8	4.2	29.0	0.1	100
	남자	607	15.5	54.0	69.4	26.7	3.8	30.6	0.0	100
	여자	593	14.6	57.9	72.5	22.8	4.5	27.4	0.1	100
연령별	19~29세	227	17.6	57.4	74.9	21.3	3.8	25.1	0.0	100
	30대	238	15.5	50.8	66.3	29.5	4.3	33.7	0.0	100
	40대	275	14.1	58.8	72.9	21.7	5.3	27.1	0.0	100
	50대	254	12.9	55.1	68.0	26.7	5.0	31.7	0.3	100
	60대 이상	206	15.5	57.5	73.0	25.0	2.0	27.0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6.7	54.8	71.5	26.0	2.4	28.5	0.0	100
	고졸	493	11.8	59.4	71.2	24.3	4.2	28.6	0.2	100
	대재 이상	584	17.4	53.2	70.6	24.9	4.5	29.4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0	63.7	78.8	21.2	0.0	21.2	0.0	100
	자영업	198	15.9	55.3	71.2	27.8	0.9	28.8	0.0	100
	블루 칼라	336	14.8	59.0	73.8	22.5	3.4	25.9	0.3	100
	화이트칼라	276	15.3	53.3	68.7	25.6	5.7	31.3	0.0	100
	전업 주부	243	13.2	55.1	68.3	24.9	6.8	31.7	0.0	100
	무직/기타	127	17.0	54.7	71.7	24.8	3.5	28.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5.4	55.2	70.6	22.7	6.8	29.4	0.0	100
	200~299만원	203	12.8	60.1	72.9	22.9	4.2	27.1	0.0	100
	300~399만원	366	14.1	58.1	72.2	24.4	3.5	27.8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6.5	52.9	69.4	26.3	4.1	30.4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7.4	55.7	73.1	22.5	4.4	26.9	0.0	100
	충청권	122	11.6	36.6	48.1	47.3	4.6	51.9	0.0	100
	호남권	118	11.9	61.7	73.6	23.5	2.1	25.6	0.8	100
	영남권	310	13.2	60.8	74.0	22.4	3.6	26.0	0.0	100
	강원	36	13.7	59.7	73.4	15.2	11.3	26.6	0.0	100
	제주	14	15.8	65.6	81.4	18.6	0.0	18.6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4.7	55.4	70.1	25.6	4.2	29.9	0.0	100
	중·소도시	580	15.7	56.0	71.7	23.8	4.3	28.1	0.2	100
	읍/면	66	11.5	59.4	70.9	26.6	2.5	29.1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9.4	48.0	67.5	27.6	4.9	32.5	0.0	100
	중도	593	12.1	59.1	71.2	24.5	4.3	28.8	0.0	100
	보수적	313	16.5	57.3	73.8	22.7	3.2	25.9	0.3	100
종교별	불교	248	17.3	58.5	75.8	19.9	4.4	24.2	0.0	100
	기독교	245	14.0	56.8	70.8	25.5	3.3	28.8	0.4	100
	천주교	70	14.4	54.5	68.8	21.5	9.7	31.2	0.0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5.0	55.0	70.0	26.7	3.3	30.0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28.6	28.6	37.8	33.6	71.4	0.0	100

표 36.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전 체		1200	78.3	3.9	8.1	8.9	0.9	100
성별	남자	607	76.0	4.1	9.2	10.1	0.7	100
	여자	593	80.6	3.8	6.9	7.6	1.2	100
연령별	19~29세	227	82.8	4.3	3.3	8.8	0.8	100
	30대	238	76.7	5.0	7.1	10.6	0.7	100
	40대	275	75.6	5.8	9.2	9.4	0.0	100
	50대	254	75.4	2.8	12.1	7.7	2.0	100
	60대 이상	206	82.3	1.1	7.8	7.6	1.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3.4	0.8	13.6	10.1	2.0	100
	고졸	493	81.2	4.0	7.4	6.1	1.2	100
	대재 이상	584	76.8	4.4	7.4	10.9	0.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1.7	11.3	11.0	6.0	0.0	100
	자영업	198	78.3	4.3	9.0	8.1	0.4	100
	블루 칼라	336	78.4	3.9	7.9	9.0	0.9	100
	화이트칼라	276	72.5	4.3	10.2	12.7	0.3	100
	전업 주부	243	82.9	3.3	5.8	6.5	1.5	100
	무직/기타	127	82.8	2.4	6.3	6.4	2.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74.6	1.9	10.6	10.7	2.1	100
	200~299만원	203	79.0	2.9	8.9	8.8	0.5	100
	300~399만원	366	80.6	3.5	8.0	7.6	0.3	100
	400만원 이상	514	77.1	5.1	7.2	9.3	1.3	100
지역별	수도권	601	80.0	4.3	6.5	9.2	0.0	100
	충청권	122	84.5	0.6	8.1	3.8	2.9	100
	호남권	118	75.7	3.5	16.2	4.7	0.0	100
	영남권	310	74.8	4.8	7.6	10.5	2.4	100
	강원	36	75.6	4.7	6.4	13.3	0.0	100
	제주	14	54.8	0.0	19.3	25.9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75.3	4.9	8.9	9.0	2.0	100
	중·소도시	580	81.1	3.1	7.0	8.7	0.0	100
	읍/면	66	78.5	2.7	9.8	9.0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74.5	4.4	9.6	10.6	0.9	100
	중도	593	77.9	4.5	8.1	8.8	0.8	100
	보수적	313	82.6	2.4	6.6	7.4	1.0	100
종교별	불교	248	75.8	3.0	7.9	11.8	1.4	100
	기독교	245	80.4	2.6	11.3	5.4	0.4	100
	천주교	70	80.8	3.6	4.7	9.6	1.3	100
	기타	3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78.2	4.9	7.3	8.8	0.9	100
	모름/무응답	11	71.4	0.0	6.4	22.1	0.0	100

표 37.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전 체		1200	4.7	16.1	54.7	23.3	1.2	100
성별	남자	607	5.7	15.8	53.9	23.4	1.2	100
	여자	593	3.6	16.3	55.6	23.2	1.3	100
연령별	19~29세	227	4.4	12.3	57.5	24.6	1.2	100
	30대	238	6.4	14.8	52.4	24.8	1.5	100
	40대	275	4.4	16.4	57.4	21.3	0.5	100
	50대	254	4.4	15.5	52.9	25.4	1.7	100
	60대 이상	206	3.7	22.0	52.9	20.0	1.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6.7	24.0	50.5	17.1	1.8	100
	고졸	493	3.9	15.7	52.0	27.3	1.1	100
	대재 이상	584	5.0	14.8	57.9	21.2	1.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2.1	47.5	24.2	6.2	100
	자영업	198	4.9	15.2	53.2	25.7	0.9	100
	블루 칼라	336	6.0	13.9	56.8	22.6	0.6	100
	화이트칼라	276	5.0	14.9	50.9	27.2	2.0	100
	전업 주부	243	3.3	20.3	54.5	20.6	1.4	100
	무직/기타	127	3.4	16.7	61.4	17.9	0.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3	20.6	54.0	18.7	1.3	100
	200~299만원	203	4.8	14.9	51.4	27.3	1.7	100
	300~399만원	366	5.3	16.4	52.7	24.1	1.5	100
	400만원 이상	514	4.0	15.3	57.6	22.2	0.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3	15.7	54.2	23.6	1.2	100
	충청권	122	5.5	17.3	57.8	18.6	0.7	100
	호남권	118	5.2	14.1	50.6	26.9	3.2	100
	영남권	310	3.3	18.1	54.6	23.3	0.6	100
	강원	36	2.1	11.2	67.8	16.8	2.2	100
	제주	14	2.9	6.1	55.5	35.5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5.0	14.3	60.5	19.0	1.1	100
	중·소도시	580	4.4	18.6	49.1	26.6	1.3	100
	읍/면	66	3.9	8.7	55.8	30.2	1.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9	15.6	53.5	25.3	1.7	100
	중도	593	5.9	15.8	52.6	24.3	1.4	100
	보수적	313	3.1	17.1	59.9	19.4	0.4	100
종교별	불교	248	3.6	20.2	51.3	23.6	1.3	100
	기독교	245	4.9	14.9	54.9	24.4	0.9	100
	천주교	70	9.2	16.5	43.1	31.1	0.0	100
	기타	3	0.0	28.4	71.6	0.0	0.0	100
	종교없음	624	4.6	14.6	57.6	21.7	1.5	100
	모름/무응답	11	0.0	30.0	33.0	37.0	0.0	100

표 38.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미국	양팀 모두 응원 하겠다	어느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52.0	12.5	15.4	20.1	0.1	100
	남자	607	53.6	12.9	15.8	17.7	0.1	100
	여자	593	50.3	12.0	15.1	22.6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40.5	17.7	11.9	29.9	0.0	100
	30대	238	51.5	12.7	19.3	16.4	0.0	100
	40대	275	53.7	9.8	14.2	22.4	0.0	100
	50대	254	58.2	11.4	16.5	13.9	0.0	100
	60대 이상	206	55.2	11.4	15.1	18.1	0.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6.1	14.5	11.0	18.4	0.0	100
	고졸	493	48.7	11.0	18.5	21.6	0.1	100
	대재 이상	584	53.8	13.2	13.8	19.2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4.2	4.9	36.9	13.9	0.0	100
	자영업	198	57.0	9.0	14.0	19.7	0.3	100
	블루 칼라	336	48.3	13.5	15.8	22.4	0.0	100
	화이트칼라	276	56.5	14.2	13.8	15.5	0.0	100
	전업 주부	243	51.2	13.4	16.1	19.3	0.0	100
	무직/기타	127	46.7	10.8	15.4	27.1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6.2	15.9	11.3	16.7	0.0	100
	200~299만원	203	51.0	9.5	13.2	26.3	0.0	100
	300~399만원	366	52.5	9.5	18.8	19.2	0.0	100
	400만원 이상	514	51.0	14.9	14.8	19.1	0.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53.4	13.0	15.8	17.8	0.0	100
	충청권	122	47.2	17.5	6.2	28.5	0.5	100
	호남권	118	65.8	11.3	10.6	12.2	0.0	100
	영남권	310	44.8	9.7	21.3	24.3	0.0	100
	강원	36	58.0	13.9	8.7	19.4	0.0	100
	제주	14	60.0	12.5	5.8	21.7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53.5	10.3	17.2	18.9	0.1	100
	중·소도시	580	50.4	14.6	13.9	21.1	0.0	100
	읍/면	66	53.3	11.7	13.4	21.6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54.5	14.7	15.8	15.0	0.0	100
	중도	593	53.3	10.8	14.5	21.4	0.0	100
	보수적	313	47.1	13.5	16.8	22.4	0.2	100
종교별	불교	248	50.3	10.7	17.0	21.8	0.3	100
	기독교	245	57.4	14.6	11.8	16.3	0.0	100
	천주교	70	57.8	12.8	12.6	16.8	0.0	100
	기타	3	28.4	37.1	34.4	0.0	0.0	100
	종교없음	624	49.7	12.4	16.5	21.3	0.0	100
	모름/무응답	11	66.5	0.0	11.1	22.4	0.0	100

표 39-1. 한국과 주요 주변 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77.3	15.3	7.0	0.5	100
	남자	607	75.9	16.4	7.1	0.6	100
	여자	593	78.7	14.1	6.8	0.4	100
연령별	19~29세	227	76.8	15.4	7.7	0.0	100
	30대	238	73.7	17.1	8.7	0.5	100
	40대	275	78.2	15.6	5.5	0.7	100
	50대	254	79.6	11.9	8.0	0.5	100
	60대 이상	206	77.9	16.8	4.7	0.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82.0	13.6	3.7	0.8	100
	고졸	493	73.4	18.0	7.8	0.7	100
	대재 이상	584	79.6	13.3	6.9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00.0	0.0	0.0	0.0	100
	자영업	198	79.1	13.1	7.6	0.2	100
	블루 칼라	336	77.3	15.6	7.0	0.2	100
	화이트칼라	276	71.8	17.6	9.7	0.9	100
	전업 주부	243	77.4	17.0	5.1	0.5	100
	무직/기타	127	82.5	11.9	4.8	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79.1	13.3	6.5	1.2	100
	200~299만원	203	82.3	13.8	3.9	0.0	100
	300~399만원	366	79.1	13.5	7.3	0.0	100
	400만원 이상	514	73.6	17.6	8.0	0.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6.4	17.0	6.0	0.6	100
	충청권	122	82.1	5.9	11.9	0.0	100
	호남권	118	78.6	6.9	14.4	0.0	100
	영남권	310	76.5	19.8	3.4	0.3	100
	강원	36	77.2	9.5	11.2	2.1	100
	제주	14	80.9	6.8	9.3	3.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3.0	12.2	4.7	0.2	100
	중·소도시	580	71.6	18.1	9.5	0.8	100
	읍/면	66	79.4	16.7	3.9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81.9	13.1	5.0	0.0	100
	중도	593	75.6	15.5	8.2	0.8	100
	보수적	313	76.2	17.0	6.4	0.4	100
종교별	불교	248	74.6	19.6	5.6	0.2	100
	기독교	245	76.8	14.9	8.3	0.0	100
	천주교	70	71.2	20.0	5.3	3.6	100
	기타	3	62.9	37.1	0.0	0.0	100
	종교없음	624	79.4	13.2	7.0	0.5	100
	모름/무응답	11	70.0	11.2	18.8	0.0	100

표 39-2. 한국과 주요 주변 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33.9	39.9	24.1	2.0	100
	남자	607	35.8	39.7	22.4	2.0	100
	여자	593	32.0	40.2	25.9	1.9	100
연령별	19~29세	227	35.1	38.5	24.1	2.3	100
	30대	238	32.2	37.8	28.5	1.5	100
	40대	275	35.2	39.6	23.2	2.0	100
	50대	254	34.5	40.6	22.3	2.5	100
	60대 이상	206	32.2	43.6	22.7	1.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4.0	44.1	20.5	1.3	100
	고졸	493	29.1	42.3	26.5	2.1	100
	대재 이상	584	38.0	37.1	22.9	2.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2.5	42.0	10.5	5.0	100
	자영업	198	36.1	38.4	24.2	1.4	100
	블루 칼라	336	32.1	46.0	20.7	1.1	100
	화이트칼라	276	36.7	36.1	24.4	2.9	100
	전업 주부	243	28.9	40.3	28.1	2.6	100
	무직/기타	127	37.6	33.5	27.3	1.6	100
	200만원 미만	117	33.2	43.9	22.2	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4.7	41.4	22.5	1.4	100
	300~399만원	366	30.1	42.2	26.9	0.8	100
	400만원 이상	514	36.5	36.9	23.3	3.3	100
	수도권	601	36.5	40.5	21.1	1.9	100
지역별	충청권	122	27.1	35.2	31.9	5.8	100
	호남권	118	44.4	33.0	22.6	0.0	100
	영남권	310	26.2	46.6	26.2	1.0	100
	강원	36	39.4	22.4	33.8	4.4	100
	제주	14	51.2	12.7	29.8	6.3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7.5	38.7	23.1	0.7	100
	중·소도시	580	31.5	41.5	23.6	3.4	100
	읍/면	66	25.9	37.3	36.8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6.0	42.5	19.8	1.7	100
	중도	593	32.0	39.4	26.7	1.9	100
	보수적	313	35.7	38.6	23.3	2.4	100
종교별	불교	248	35.1	38.9	23.8	2.3	100
	기독교	245	35.8	41.6	22.3	0.4	100
	천주교	70	37.9	42.2	13.5	6.3	100
	기타	3	0.0	10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2.6	39.2	26.4	1.9	100
	모름/무응답	11	28.5	41.5	18.7	11.3	100

표 39-3. 한국과 주요 주변 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12.3	35.3	40.6	11.9	100
	남자	607	13.2	34.6	39.9	12.3	100
	여자	593	11.3	35.9	41.3	11.5	100
연령별	19~29세	227	12.8	36.8	38.5	12.0	100
	30대	238	11.0	35.8	41.9	11.3	100
	40대	275	14.6	34.5	39.8	11.1	100
	50대	254	11.4	35.5	41.9	11.3	1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06	11.1	33.7	41.0	14.2	100
	중졸 이하	122	9.8	31.1	48.6	10.4	100
	고졸	493	8.9	36.3	41.8	12.9	100
	대재 이상	584	15.6	35.2	37.9	11.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3.9	38.4	43.7	4.0	100
	자영업	198	15.5	26.5	42.3	15.8	100
	블루 칼라	336	12.9	35.9	40.8	10.3	100
	화이트칼라	276	10.7	41.1	36.7	11.5	100
	전업 주부	243	7.3	35.7	44.8	12.1	100
	무직/기타	127	18.1	32.8	37.4	11.7	100
	200만원 미만	117	14.6	32.0	42.4	11.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1.4	34.7	42.8	11.0	100
	300~399만원	366	9.6	36.2	42.2	12.0	100
	400만원 이상	514	13.9	35.5	38.2	12.3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3.1	35.8	38.6	12.5	100
	충청권	122	8.1	26.2	52.8	12.8	100
	호남권	118	15.2	38.7	35.6	10.5	100
	영남권	310	9.7	37.6	42.8	9.8	100
	강원	36	19.8	26.6	33.6	19.9	100
	제주	14	22.6	31.4	30.9	15.1	100
	대도시	554	14.2	37.5	39.2	9.1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0.5	34.7	40.5	14.3	100
	읍/면	66	11.6	21.6	52.6	14.2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3.1	36.9	40.2	9.8	100
	중도	593	11.9	33.9	42.6	11.6	100
	보수적	313	12.1	36.2	37.3	14.4	100
종교별	불교	248	10.4	39.3	37.1	13.2	100
	기독교	245	13.2	38.6	38.0	10.2	100
	천주교	70	14.5	41.4	27.1	17.0	100
	기타	3	0.0	62.9	37.1	0.0	100
	종교없음	624	12.3	31.7	44.5	11.4	100
	모름/무응답	11	17.4	22.3	41.6	18.7	100

표 39-4. 한국과 주요 주변 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성별	전 체	1200	21.3	39.9	35.3	3.4	0.1	100
	남자	607	22.9	39.6	34.0	3.3	0.1	100
	여자	593	19.6	40.2	36.7	3.6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22.8	39.0	36.0	2.2	0.0	100
	30대	238	20.3	39.8	36.0	4.0	0.0	100
	40대	275	27.3	37.8	30.9	3.6	0.3	100
	50대	254	17.6	41.8	36.8	3.9	0.0	100
	60대 이상	206	17.2	41.4	38.0	3.4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3.1	45.7	37.2	4.0	0.0	100
	고졸	493	16.1	41.5	37.9	4.5	0.0	100
	대재 이상	584	27.3	37.3	32.8	2.5	0.1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4.9	43.3	25.8	6.0	0.0	100
	자영업	198	24.3	35.2	35.7	4.8	0.0	100
	블루 칼라	336	19.8	41.7	35.1	3.4	0.0	100
	화이트칼라	276	21.3	41.2	33.5	3.7	0.3	100
	전업 주부	243	16.9	42.5	37.2	3.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8.2	33.7	37.3	0.8	0.0	100
	200만원 미만	117	15.9	43.8	36.0	4.3	0.0	100
	200~299만원	203	22.3	39.6	36.2	1.4	0.4	100
	300~399만원	366	18.9	38.8	38.9	3.4	0.0	100
	400만원 이상	514	23.8	39.9	32.3	4.1	0.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0.9	39.2	37.3	2.6	0.0	100
	충청권	122	18.2	35.7	34.7	11.5	0.0	100
	호남권	118	23.4	38.6	34.9	2.4	0.7	100
	영남권	310	19.8	46.7	31.9	1.6	0.0	100
	강원	36	33.0	22.2	33.9	10.9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50.2	10.1	39.8	0.0	0.0	100
	대도시	554	27.7	40.6	29.3	2.2	0.1	100
	중·소도시	580	15.3	40.3	40.0	4.4	0.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9.4	30.2	45.1	5.3	0.0	100
	진보적	294	22.5	38.7	34.6	3.8	0.3	100
	중도	593	20.6	40.8	34.9	3.7	0.0	100
종교별	보수적	313	21.3	39.3	36.8	2.6	0.0	100
	불교	248	20.8	40.0	36.2	3.0	0.0	100
	기독교	245	20.7	39.0	38.3	1.7	0.3	100
	천주교	70	25.0	46.6	22.3	6.1	0.0	100
	기타	3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1.4	39.7	34.9	4.0	0.0	100
	모름/무응답	11	17.4	11.2	63.9	7.5	0.0	100

표 4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70.5	4.9	22.6	2.0	100
	남자	607	68.9	5.7	22.5	2.8	100
	여자	593	72.1	4.0	22.7	1.1	100
연령별	19~29세	227	70.4	5.8	22.9	0.9	100
	30대	238	64.6	4.8	28.3	2.4	100
	40대	275	71.1	4.6	22.5	1.9	100
	50대	254	71.6	5.2	20.5	2.8	100
	60대 이상	206	75.4	4.0	18.5	2.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1.5	5.6	22.2	0.8	100
	고졸	493	71.5	5.8	20.5	2.2	100
	대재 이상	584	69.4	4.0	24.5	2.1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4.1	0.0	9.9	6.0	100
	자영업	198	77.6	3.6	18.3	0.5	100
	블루 칼라	336	68.1	6.6	22.8	2.5	100
	화이트칼라	276	62.6	7.4	27.2	2.8	100
	전업 주부	243	74.7	3.0	20.7	1.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73.0	1.2	24.4	1.4	100
	200만원 미만	117	73.6	2.1	20.9	3.3	100
	200~299만원	203	74.3	5.5	19.3	0.8	100
	300~399만원	366	71.3	4.0	23.5	1.2	100
	400만원 이상	514	67.7	5.9	23.6	2.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9.9	4.9	22.5	2.7	100
	충청권	122	78.9	5.2	15.9	0.0	100
	호남권	118	72.7	2.2	24.3	0.8	100
	영남권	310	67.1	6.3	25.4	1.2	100
	강원	36	70.9	0.0	22.3	6.8	100
지역 크기	제주	14	80.9	3.6	9.2	6.3	100
	대도시	554	75.0	4.0	19.1	1.8	100
	중·소도시	580	64.6	6.0	26.9	2.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84.0	1.9	14.1	0.0	100
	진보적	294	73.6	3.4	21.9	1.0	100
	중도	593	69.4	6.1	21.6	2.8	100
종교별	보수적	313	69.7	3.9	25.1	1.3	100
	불교	248	69.0	5.0	24.2	1.8	100
	기독교	245	73.2	3.8	21.7	1.2	100
	천주교	70	65.3	10.5	17.1	7.1	100
	기타	3	65.6	0.0	34.4	0.0	100
	종교없음	624	70.7	4.7	22.7	1.9	100
	모름/무응답	11	70.0	0.0	30.0	0.0	100

표 4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5.8	46.2	43.4	4.5	100
성별	남자	607	6.9	44.6	43.9	4.6	100
	여자	593	4.7	47.9	43.0	4.5	100
연령별	19~29세	227	5.5	46.0	45.5	3.0	100
	30대	238	6.3	44.2	46.0	3.5	100
	40대	275	6.4	41.3	46.0	6.4	100
	50대	254	6.9	47.4	41.1	4.6	100
	60대 이상	206	3.3	54.0	37.7	5.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6	53.3	36.7	5.4	100
	고졸	493	4.1	47.9	42.9	5.0	100
	대재 이상	584	7.5	43.3	45.3	3.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71.2	28.8	0.0	100
	자영업	198	6.0	45.7	41.9	6.5	100
	블루 칼라	336	3.6	43.3	48.7	4.4	100
	화이트칼라	276	10.1	44.2	41.6	4.1	100
	전업 주부	243	5.1	52.6	38.2	4.1	100
	무직/기타	127	4.1	42.9	48.4	4.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6.9	46.0	37.7	9.4	100
	200~299만원	203	9.3	50.1	40.0	0.7	100
	300~399만원	366	3.5	47.4	43.5	5.6	100
	400만원 이상	514	5.8	43.9	46.1	4.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8	44.4	43.7	4.1	100
	충청권	122	3.7	49.8	39.1	7.3	100
	호남권	118	7.5	55.3	34.9	2.3	100
	영남권	310	2.2	45.4	48.1	4.3	100
	강원	36	4.6	44.4	44.5	6.5	100
지역 크기	제주	14	3.4	40.6	37.7	18.3	100
	대도시	554	3.0	50.0	43.7	3.3	100
	중·소도시	580	9.2	41.3	43.5	6.1	100
	읍/면	66	0.0	58.1	41.3	0.7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6.6	46.3	42.9	4.2
정치적 성향	중도	593	6.6	46.0	43.2	4.3	100
	보수적	313	3.6	46.6	44.5	5.3	100
	종교별	불교	248	5.5	47.3	41.8	5.3
기독교		245	5.7	50.4	40.3	3.6	100
천주교		70	9.3	47.1	36.4	7.1	100
기타		3	0.0	0.0	100.0	0.0	100
종교없음		624	5.5	44.3	45.8	4.4	100
모름/무응답		11	11.1	41.5	47.4	0.0	100

표 40-3.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7.7	9.1	71.6	11.5	100
	남자	607	10.2	8.1	70.9	10.7	100
	여자	593	5.1	10.2	72.4	12.3	100
연령별	19~29세	227	8.7	10.4	71.5	9.4	100
	30대	238	7.1	10.3	71.3	11.2	100
	40대	275	7.5	8.2	72.8	11.4	100
	50대	254	7.8	11.0	69.9	11.3	100
	60대 이상	206	7.5	5.3	72.8	14.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6	10.7	69.7	14.0	100
	고졸	493	6.1	9.2	73.4	11.3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9.5	8.8	70.5	11.2	100
	농/수/축산업	20	3.8	0.0	83.2	13.0	100
	자영업	198	9.9	6.6	74.1	9.4	100
	블루 칼라	336	7.0	8.4	71.6	13.0	100
	화이트칼라	276	9.4	12.6	68.0	10.0	100
	전업 주부	243	3.7	10.3	72.5	13.6	100
	무직/기타	127	10.9	6.6	72.6	9.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8.1	10.6	68.3	13.1	100
	200~299만원	203	7.2	12.8	72.3	7.7	100
	300~399만원	366	4.4	7.3	76.0	12.2	100
	400만원 이상	514	10.2	8.7	69.0	12.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8.2	12.0	68.0	11.8	100
	충청권	122	5.7	4.5	69.0	20.7	100
	호남권	118	11.0	4.7	78.6	5.6	100
	영남권	310	5.4	7.4	78.0	9.1	100
	강원	36	12.0	6.9	72.4	8.7	100
	제주	14	16.0	7.2	46.9	29.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4	6.2	77.3	8.1	100
	중·소도시	580	8.0	12.4	65.6	14.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0.0	4.9	77.4	17.7	100
	진보적	294	8.5	10.0	69.5	12.0	100
	중도	593	7.1	11.2	71.0	10.7	100
종교별	보수적	313	8.1	4.4	74.9	12.6	100
	불교	248	5.4	13.5	68.7	12.3	100
	기독교	245	11.0	7.1	72.9	8.9	100
	천주교	70	5.2	13.5	65.3	15.9	100
	기타	3	0.0	0.0	100.0	0.0	100
	종교없음	624	7.6	7.9	72.8	11.7	100
	모름/무응답	11	11.1	0.0	75.0	13.9	100

표 40-4.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3.2	23.7	59.2	13.9	100
성별	남자	607	3.2	24.1	57.6	15.2	100
	여자	593	3.3	23.4	60.8	12.5	100
연령별	19~29세	227	4.5	21.9	55.9	17.6	100
	30대	238	3.2	25.0	58.5	13.2	100
	40대	275	3.6	20.5	63.8	12.1	100
	50대	254	3.2	25.5	60.8	10.5	100
	60대 이상	206	1.3	26.2	55.4	17.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3	31.2	53.4	13.0	100
	고졸	493	2.6	20.9	60.9	15.6	100
	대재 이상	584	3.9	24.5	59.0	12.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2.9	81.0	6.2	100
	자영업	198	2.1	23.0	61.4	13.5	100
	블루 칼라	336	3.4	23.6	57.5	15.5	100
	화이트칼라	276	5.5	26.3	57.2	11.0	100
	전업 주부	243	2.9	22.5	60.3	14.4	100
	무직/기타	127	0.5	23.7	59.2	16.6	100
	200만원 미만	117	3.1	24.0	58.3	14.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6	28.0	60.6	9.8	100
	300~399만원	366	3.2	18.9	63.0	14.9	100
	400만원 이상	514	3.9	25.4	56.1	14.6	100
	수도권	601	3.0	27.5	57.7	11.8	100
지역별	충청권	122	1.1	18.5	58.2	22.2	100
	호남권	118	2.9	20.9	55.7	20.5	100
	영남권	310	4.4	18.8	65.0	11.8	100
	강원	36	4.5	24.7	57.6	13.2	100
	제주	14	3.2	34.9	37.5	24.4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8	24.5	58.9	12.9	100
	중·소도시	580	3.0	24.1	57.7	15.2	100
	읍/면	66	0.0	14.5	75.2	10.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4	27.7	53.1	16.9	100
	중도	593	3.8	22.6	61.3	12.3	100
	보수적	313	2.9	22.2	60.9	14.0	100
종교별	불교	248	1.9	25.4	58.9	13.9	100
	기독교	245	3.3	26.8	60.9	9.0	100
	천주교	70	0.0	33.2	53.9	12.9	100
	기타	3	0.0	28.4	71.6	0.0	100
	종교없음	624	4.0	20.8	59.1	16.1	100
	모름/무응답	11	6.4	22.2	63.9	7.5	100

표 41-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12.2	35.8	48.0	40.4	11.5	52.0	100
	남자	607	11.4	33.7	45.2	41.0	13.9	54.8	100
	여자	593	13.0	37.9	51.0	39.9	9.1	49.0	100
연령별	19~29세	227	10.6	33.8	44.4	43.7	11.8	55.6	100
	30대	238	11.7	33.6	45.3	44.3	10.4	54.7	100
	40대	275	12.1	36.7	48.8	38.5	12.6	51.2	100
	50대	254	11.5	36.7	48.3	39.7	12.0	51.7	100
	60대 이상	206	15.6	38.2	53.8	35.9	10.3	46.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9.7	39.3	59.0	31.7	9.3	41.0	100
	고졸	493	11.2	39.2	50.4	39.0	10.6	49.6	100
	대재 이상	584	11.5	32.2	43.7	43.5	12.7	56.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8.2	50.7	78.9	21.1	0.0	21.1	100
	자영업	198	14.0	36.3	50.3	39.5	10.2	49.7	100
	블루 칼라	336	7.8	40.0	47.9	39.1	13.0	52.1	100
	화이트칼라	276	13.8	27.9	41.7	46.2	12.1	58.3	100
	전업 주부	243	13.7	39.3	53.0	37.1	9.9	47.0	100
	무직/기타	127	12.3	31.9	44.3	42.4	13.3	55.7	100
	200만원 미만	117	16.7	41.8	58.5	34.6	6.9	41.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8.8	33.4	52.2	36.5	11.3	47.8	100
	300~399만원	366	12.3	34.9	47.2	41.9	10.9	52.8	100
	400만원 이상	514	8.6	36.0	44.6	42.3	13.1	55.4	100
	수도권	601	15.0	37.5	52.4	37.1	10.5	47.6	100
지역별	충청권	122	15.6	37.0	52.6	40.8	6.5	47.4	100
	호남권	118	17.2	28.4	45.7	34.1	20.3	54.3	100
	영남권	310	4.2	35.2	39.4	48.2	12.4	60.6	100
	강원	36	10.9	30.7	41.6	49.7	8.7	58.4	100
	제주	14	3.4	44.0	47.4	39.8	12.7	52.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6.5	37.7	44.2	43.0	12.8	55.8	100
	중·소도시	580	15.7	34.0	49.7	39.3	11.0	50.3	100
	읍/면	66	29.5	36.0	65.5	29.1	5.4	34.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4.5	35.3	49.8	41.9	8.2	50.2	100
	중도	593	11.7	37.3	49.0	37.6	13.4	51.0	100
	보수적	313	11.0	33.5	44.5	44.4	11.1	55.5	100
종교별	불교	248	10.9	36.7	47.6	40.9	11.6	52.4	100
	기독교	245	12.9	33.8	46.7	43.2	10.1	53.3	100
	천주교	70	8.2	45.6	53.8	33.3	12.9	46.2	100
	기타	3	0.0	65.6	65.6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13.0	35.1	48.2	40.1	11.8	51.8	100
	모름/무응답	11	11.0	29.9	40.9	37.0	22.1	59.1	100

표 41-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4.4	17.9	22.3	58.6	19.0	77.6	0.1	100
성별	남자	607	4.4	18.2	22.6	54.0	23.2	77.2	0.1	100
	여자	593	4.4	17.5	21.9	63.4	14.7	78.1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4.7	16.4	21.1	61.7	17.2	78.9	0.0	100
	30대	238	6.0	18.0	24.0	56.0	20.0	76.0	0.0	100
	40대	275	3.7	16.8	20.6	62.1	17.4	79.4	0.0	100
	50대	254	5.6	18.7	24.3	55.6	20.1	75.7	0.0	100
	60대 이상	206	1.6	19.8	21.4	57.3	20.9	78.2	0.4	100
	중졸 이하	122	4.1	18.7	22.8	58.2	19.0	77.2	0.0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3.5	20.1	23.6	59.5	16.7	76.2	0.2	100
	대재 이상	584	5.3	15.8	21.1	57.9	21.0	78.9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5.7	25.7	62.3	8.0	70.2	4.1	100
	자영업	198	2.7	18.5	21.3	60.4	18.4	78.7	0.0	100
	블루 칼라	336	2.8	17.9	20.7	58.5	20.8	79.3	0.0	100
	화이트칼라	276	7.4	17.4	24.8	54.3	20.9	75.2	0.0	100
	전업 주부	243	6.0	19.0	25.0	60.4	14.6	75.0	0.0	100
	무직/기타	127	2.5	14.3	16.8	61.7	21.5	83.2	0.0	100
	200만원 미만	117	5.0	17.2	22.2	58.8	18.2	77.1	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8.0	19.0	27.0	54.0	19.0	73.0	0.0	100
	300~399만원	366	1.8	18.0	19.7	62.1	18.2	80.3	0.0	100
	400만원 이상	514	4.7	17.5	22.3	57.9	19.8	77.7	0.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7	18.9	26.6	55.6	17.8	73.4	0.0	100
	충청권	122	1.2	13.5	14.8	72.2	13.1	85.2	0.0	100
	호남권	118	1.2	25.8	27.0	57.0	15.3	72.3	0.7	100
	영남권	310	0.9	14.3	15.2	59.3	25.5	84.8	0.0	100
	강원	36	2.5	15.4	17.8	64.5	17.7	82.2	0.0	100
	제주	14	0.0	32.1	32.1	55.1	12.7	67.9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8	16.1	16.9	62.6	20.5	83.1	0.0	100
	중·소도시	580	8.4	20.3	28.7	52.8	18.5	71.3	0.0	100
	읍/면	66	0.0	11.4	11.4	76.3	11.0	87.3	1.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6.8	21.5	28.3	56.9	14.9	71.7	0.0	100
	중도	593	4.7	16.7	21.4	56.7	21.8	78.5	0.1	100
	보수적	313	1.6	16.8	18.4	63.9	17.7	81.6	0.0	100
종교별	불교	248	5.2	22.6	27.8	51.5	20.7	72.2	0.0	100
	기독교	245	4.2	17.8	22.0	59.9	18.1	78.0	0.0	100
	천주교	70	3.6	16.6	20.1	59.1	20.8	79.9	0.0	100
	기타	3	0.0	28.4	28.4	71.6	0.0	71.6	0.0	100
	종교없음	624	4.4	16.1	20.5	61.2	18.2	79.4	0.1	100
	모름/무응답	11	0.0	18.7	18.7	36.7	44.6	81.3	0.0	100

표 41-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1.6	12.3	14.0	59.1	26.8	85.9	0.2	100
성별	남자	607	2.6	11.3	13.9	54.7	31.2	85.8	0.3	100
	여자	593	0.6	13.4	14.0	63.6	22.4	86.0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1.6	12.8	14.5	56.8	28.7	85.5	0.0	100
	30대	238	2.1	15.1	17.2	57.6	24.8	82.4	0.4	100
	40대	275	1.4	11.7	13.1	60.5	26.5	86.9	0.0	100
	50대	254	2.5	10.3	12.7	55.7	31.6	87.3	0.0	100
	60대 이상	206	0.4	12.0	12.4	65.6	21.6	87.2	0.4	100
	중졸 이하	122	0.0	11.2	11.2	67.0	21.9	88.8	0.0	100
교육 수준별	고졸	493	1.5	13.5	15.0	59.1	25.7	84.9	0.2	100
	대재 이상	584	2.1	11.6	13.7	57.3	28.8	86.1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4.6	14.6	56.4	24.9	81.3	4.1	100
	자영업	198	1.2	9.9	11.1	59.1	29.3	88.3	0.5	100
	블루 칼라	336	1.8	12.2	14.0	59.8	26.2	86.0	0.0	100
	화이트칼라	276	3.6	13.1	16.7	56.9	26.5	83.3	0.0	100
	전업 주부	243	0.5	13.2	13.7	61.0	25.3	86.3	0.0	100
	무직/기타	127	0.0	12.7	12.7	58.6	28.7	87.3	0.0	100
	200만원 미만	117	0.7	15.1	15.9	60.8	22.6	83.4	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1	11.5	14.6	60.0	25.4	85.4	0.0	100
	300~399만원	366	0.7	10.5	11.2	60.8	28.0	88.8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9	13.3	15.2	57.0	27.5	84.5	0.2	100
	수도권	601	3.1	14.9	18.0	56.5	25.3	81.8	0.2	100
지역별	충청권	122	0.0	4.6	4.6	61.3	34.1	95.4	0.0	100
	호남권	118	0.0	13.8	13.8	63.2	22.2	85.5	0.7	100
	영남권	310	0.0	8.9	8.9	61.7	29.5	91.1	0.0	100
	강원	36	2.5	15.3	17.7	58.0	24.3	82.3	0.0	100
	제주	14	0.0	25.2	25.2	58.9	15.9	74.8	0.0	100
	대도시	554	0.4	10.5	10.9	64.2	24.7	88.9	0.2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3.0	14.6	17.5	53.8	28.7	82.5	0.0	100
	읍/면	66	0.0	8.2	8.2	62.0	28.5	90.5	1.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4	14.4	17.8	56.7	25.5	82.2	0.0	100
	중도	593	0.8	12.9	13.8	58.6	27.4	85.9	0.3	100
	보수적	313	1.5	9.2	10.7	62.2	27.1	89.3	0.0	100
종교별	불교	248	2.0	14.7	16.7	54.1	29.1	83.3	0.0	100
	기독교	245	1.0	12.5	13.5	65.5	21.1	86.5	0.0	100
	천주교	70	1.8	21.4	23.2	57.5	19.3	76.8	0.0	100
	기타	3	0.0	28.4	28.4	71.6	0.0	71.6	0.0	100
	종교없음	624	1.7	10.1	11.9	58.8	29.0	87.8	0.3	100
	모름/무응답	11	0.0	18.7	18.7	48.0	33.3	81.3	0.0	100

표 41-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5	15.4	16.9	65.6	17.3	82.9	0.2	100
성별	남자	607	1.9	13.8	15.6	62.7	21.3	83.9	0.4	100
	여자	593	1.2	17.0	18.3	68.6	13.2	81.7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3.2	15.0	18.2	67.0	14.8	81.8	0.0	100
	30대	238	1.8	19.5	21.3	62.2	16.1	78.2	0.4	100
	40대	275	1.0	14.4	15.4	66.7	17.6	84.3	0.3	100
	50대	254	0.4	15.0	15.4	63.9	20.7	84.6	0.0	100
	60대 이상	206	1.5	12.9	14.4	68.6	16.5	85.2	0.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3	11.6	12.9	70.5	16.6	87.1	0.0	100
	고졸	493	1.7	16.0	17.7	65.7	16.4	82.1	0.2	100
	대재 이상	584	1.5	15.6	17.1	64.5	18.1	82.6	0.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5.7	25.7	60.0	10.2	70.2	4.1	100
	자영업	198	0.5	12.3	12.7	69.2	17.6	86.7	0.5	100
	블루 칼라	336	1.8	14.2	16.0	66.0	18.0	84.0	0.0	100
	화이트칼라	276	2.7	17.0	19.7	60.8	19.2	80.0	0.3	100
	전업 주부	243	1.2	19.0	20.2	65.5	14.3	79.8	0.0	100
	무직/기타	127	0.7	11.4	12.1	70.3	17.6	87.9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1	12.2	14.3	70.0	15.0	85.0	0.7	100
	200~299만원	203	2.1	17.6	19.6	66.9	13.5	80.4	0.0	100
	300~399만원	366	1.3	15.7	17.1	66.6	16.4	82.9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4	15.0	16.4	63.4	19.9	83.3	0.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9	18.0	19.8	62.7	17.3	80.0	0.2	100
	충청권	122	1.1	8.4	9.5	67.2	23.3	90.5	0.0	100
	호남권	118	0.0	17.1	17.1	69.0	12.5	81.5	1.4	100
	영남권	310	1.5	12.4	13.9	69.7	16.4	86.1	0.0	100
	강원	36	2.5	12.7	15.2	62.7	22.2	84.8	0.0	100
	제주	14	3.2	21.7	25.0	62.3	12.7	75.0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9	15.5	16.4	67.1	16.4	83.5	0.2	100
	중·소도시	580	2.3	16.2	18.6	62.9	18.4	81.3	0.1	100
	읍/면	66	0.0	7.2	7.2	77.1	14.5	91.6	1.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6	17.3	19.9	63.1	17.0	80.1	0.0	100
	중도	593	0.7	15.9	16.6	65.3	17.7	83.1	0.3	100
	보수적	313	2.1	12.6	14.8	68.4	16.6	85.0	0.3	100
종교별	불교	248	1.4	14.2	15.6	65.4	19.0	84.4	0.0	100
	기독교	245	1.2	13.2	14.4	70.2	15.0	85.3	0.3	100
	천주교	70	1.8	13.1	14.9	66.7	18.4	85.1	0.0	100
	기타	3	0.0	28.4	28.4	71.6	0.0	71.6	0.0	100
	종교없음	624	1.7	16.8	18.6	64.0	17.1	81.1	0.3	100
	모름/무응답	11	0.0	19.3	19.3	47.4	33.3	80.7	0.0	100

표 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4.7	45.9	90.6	8.1	1.3	9.4	100
성별	남자	607	44.3	46.0	90.4	8.3	1.3	9.6	100
	여자	593	45.0	45.8	90.8	7.9	1.4	9.2	100
연령별	19~29세	227	40.0	47.5	87.5	10.6	1.9	12.5	100
	30대	238	38.1	53.8	91.9	6.6	1.6	8.1	100
	40대	275	44.2	47.5	91.7	6.6	1.7	8.3	100
	50대	254	49.7	38.8	88.5	10.2	1.3	11.5	100
	60대 이상	206	51.9	41.6	93.5	6.5	0.0	6.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0.8	43.4	94.2	5.8	0.0	5.8	100
	고졸	493	46.8	44.3	91.1	8.1	0.8	8.9	100
	대재 이상	584	41.5	47.8	89.3	8.6	2.1	10.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3.0	20.8	93.8	6.2	0.0	6.2	100
	자영업	198	51.5	40.4	91.9	7.6	0.5	8.1	100
	블루 칼라	336	42.4	49.2	91.6	8.4	0.0	8.4	100
	화이트칼라	276	37.3	50.5	87.8	9.3	2.9	12.2	100
	전업 주부	243	47.9	43.1	91.0	6.5	2.5	9.0	100
	무직/기타	127	45.3	45.2	90.5	8.8	0.7	9.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4.5	51.1	95.7	4.3	0.0	4.3	100
	200~299만원	203	52.0	42.0	94.0	5.6	0.5	6.0	100
	300~399만원	366	44.5	48.2	92.7	6.2	1.1	7.3	100
	400만원 이상	514	41.9	44.6	86.5	11.3	2.2	13.5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6.1	41.5	87.6	10.3	2.1	12.4	100
	충청권	122	35.6	53.6	89.2	10.8	0.0	10.8	100
	호남권	118	59.8	36.0	95.8	3.5	0.7	4.2	100
	영남권	310	40.5	56.0	96.5	3.2	0.3	3.5	100
	강원	36	30.4	44.1	74.6	20.3	5.2	25.4	100
	제주	14	62.9	33.9	96.8	3.2	0.0	3.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6.2	48.5	94.7	4.7	0.6	5.3	100
	중·소도시	580	42.0	43.6	85.6	12.2	2.2	14.4	100
	읍/면	66	55.7	44.3	100.0	0.0	0.0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8.3	43.0	91.3	7.9	0.9	8.7	100
	중도	593	41.4	49.6	91.0	7.3	1.7	9.0	100
	보수적	313	47.5	41.7	89.2	9.7	1.1	10.8	100
종교별	불교	248	43.2	48.8	92.0	8.0	0.0	8.0	100
	기독교	245	49.5	39.3	88.7	9.9	1.4	11.3	100
	천주교	70	42.6	42.2	84.8	11.7	3.6	15.2	100
	기타	3	100.0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43.8	48.0	91.8	7.0	1.2	8.2	100
	모름/무응답	11	22.2	44.2	66.4	11.2	22.4	33.6	100

표 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0.7	51.3	82.0	15.7	2.2	18.0	100
성별	남자	607	31.9	49.1	81.1	16.7	2.2	18.9	100
	여자	593	29.5	53.5	83.0	14.8	2.2	17.0	100
연령별	19~29세	227	29.2	46.8	76.0	20.1	3.9	24.0	100
	30대	238	29.8	55.4	85.2	13.8	1.0	14.8	100
	40대	275	31.0	49.0	80.0	17.6	2.4	20.0	100
	50대	254	29.3	56.1	85.5	12.4	2.2	14.5	100
	60대 이상	206	34.9	48.5	83.5	14.9	1.7	16.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2.8	49.5	82.3	16.1	1.6	17.7	100
	고졸	493	27.6	53.8	81.4	16.6	2.1	18.6	100
	대재 이상	584	33.0	49.5	82.5	15.0	2.5	17.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0.2	29.6	89.8	10.2	0.0	10.2	100
	자영업	198	35.1	51.2	86.4	12.8	0.8	13.6	100
	블루 칼라	336	27.8	53.1	80.9	17.2	1.9	19.1	100
	화이트칼라	276	28.9	47.2	76.1	20.6	3.3	23.9	100
	전업 주부	243	27.7	56.7	84.3	12.9	2.7	15.7	100
	무직/기타	127	37.0	48.5	85.5	12.1	2.4	14.5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2.4	51.8	84.2	14.2	1.6	15.8	100
	200~299만원	203	32.4	51.1	83.6	13.9	2.5	16.4	100
	300~399만원	366	28.0	56.4	84.4	14.4	1.1	15.6	100
	400만원 이상	514	31.7	47.5	79.2	17.7	3.1	20.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1.2	52.3	83.6	14.0	2.4	16.4	100
	충청권	122	17.7	57.9	75.6	20.0	4.4	24.4	100
	호남권	118	42.4	44.2	86.6	13.4	0.0	13.4	100
	영남권	310	30.6	52.3	82.9	15.9	1.3	17.1	100
	강원	36	21.6	28.2	49.8	42.6	7.6	50.2	100
	제주	14	53.0	44.0	97.0	3.0	0.0	3.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0.9	55.3	86.2	12.5	1.3	13.8	100
	중·소도시	580	28.4	49.6	77.9	18.7	3.4	22.1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50.2	32.7	82.8	17.2	0.0	17.2	100
	진보적	294	34.1	51.7	85.8	13.0	1.3	14.2	100
	중도	593	28.2	52.0	80.2	17.3	2.5	19.8	100
	보수적	313	32.4	49.6	82.0	15.5	2.6	18.0	100
종교별	불교	248	30.8	53.9	84.7	14.1	1.2	15.3	100
	기독교	245	35.3	47.3	82.6	15.5	1.8	17.4	100
	천주교	70	21.6	58.2	79.7	13.5	6.8	20.3	100
	기타	3	100.0	0.0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9.8	51.5	81.3	16.8	1.9	18.7	100
	모름/무응답	11	22.2	36.7	58.9	18.7	22.4	41.1	100

표 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3.1	47.3	60.3	31.3	8.3	39.7	100
성별	남자	607	13.7	45.2	58.9	32.1	8.9	41.1	100
	여자	593	12.4	49.4	61.8	30.5	7.7	38.2	100
연령별	19~29세	227	12.5	43.8	56.3	32.7	11.1	43.7	100
	30대	238	13.5	49.0	62.6	30.5	6.9	37.4	100
	40대	275	10.7	51.2	61.9	29.5	8.6	38.1	100
	50대	254	13.1	44.9	58.0	34.1	7.8	42.0	100
	60대 이상	206	16.4	46.7	63.1	29.7	7.2	36.9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4.6	49.2	63.8	27.9	8.3	36.2	100
	고졸	493	12.3	46.9	59.2	33.3	7.5	40.8	100
	대재 이상	584	13.4	47.2	60.6	30.4	9.0	39.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0.3	64.5	84.8	15.2	0.0	15.2	100
	자영업	198	18.8	47.3	66.1	26.3	7.5	33.9	100
	블루 칼라	336	13.5	41.5	55.0	36.3	8.7	45.0	100
	화이트칼라	276	10.2	50.0	60.2	31.3	8.5	39.8	100
	전업 주부	243	9.4	52.3	61.7	30.9	7.4	38.3	100
	무직/기타	127	15.3	43.9	59.3	29.5	11.3	4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2.5	52.2	64.7	21.4	13.9	35.3	100
	200~299만원	203	14.9	45.7	60.5	29.1	10.4	39.5	100
	300~399만원	366	11.1	49.9	61.0	33.5	5.5	39.0	100
	400만원 이상	514	14.0	44.8	58.8	32.9	8.3	41.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2.3	48.5	60.8	31.3	7.9	39.2	100
	충청권	122	9.8	27.7	37.5	46.7	15.8	62.5	100
	호남권	118	21.0	56.8	77.9	18.0	4.2	22.1	100
	영남권	310	13.0	50.2	63.2	30.6	6.1	36.8	100
	강원	36	6.7	32.5	39.2	37.9	22.9	60.8	100
	제주	14	27.7	57.0	84.7	9.0	6.3	15.3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5.5	51.6	67.2	27.5	5.3	32.8	100
	중·소도시	580	10.2	42.7	53.0	36.2	10.8	47.0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7.6	50.6	68.2	20.0	11.9	31.8	100
	진보적	294	16.8	43.8	60.6	34.6	4.9	39.4	100
	중도	593	11.3	49.5	60.8	29.8	9.4	39.2	100
	보수적	313	13.1	46.3	59.4	31.1	9.5	40.6	100
종교별	불교	248	14.5	45.5	60.0	33.1	6.9	40.0	100
	기독교	245	14.4	50.2	64.6	29.4	6.0	35.4	100
	천주교	70	13.8	50.0	63.7	30.9	5.4	36.3	100
	기타	3	62.9	37.1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1.9	46.7	58.6	31.2	10.1	41.4	100
	모름/무응답	11	0.0	40.0	40.0	48.9	11.1	60.0	100

표 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성별	전 체	1200	14.0	51.4	65.4	28.6	6.0	34.6	100
	남자	607	14.2	49.1	63.3	30.3	6.4	36.7	100
	여자	593	13.7	53.8	67.5	26.8	5.7	32.5	100
연령별	19~29세	227	11.2	51.1	62.3	30.3	7.3	37.7	100
	30대	238	12.7	56.0	68.7	25.8	5.5	31.3	100
	40대	275	15.0	51.1	66.1	26.8	7.1	33.9	100
	50대	254	14.0	50.7	64.8	30.3	5.0	35.2	100
	60대 이상	206	17.1	47.6	64.7	30.2	5.1	35.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5.9	45.4	61.3	32.6	6.1	38.7	100
	고졸	493	13.6	51.2	64.8	30.0	5.1	35.2	100
직업별	대재 이상	584	13.9	52.8	66.7	26.5	6.8	33.3	100
	농/수/축산업	20	27.4	56.4	83.8	16.2	0.0	16.2	100
	자영업	198	20.9	53.7	74.6	21.7	3.7	25.4	100
	블루 칼라	336	14.2	44.6	58.8	35.6	5.6	41.2	100
	화이트칼라	276	10.2	55.2	65.4	27.1	7.6	34.6	100
	전업 주부	243	10.4	55.6	65.9	27.9	6.1	34.1	100
	무직/기타	127	15.7	48.7	64.4	27.2	8.4	35.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8	53.4	64.2	28.7	7.1	35.8	100
	200~299만원	203	18.0	47.3	65.3	28.1	6.6	34.7	100
	300~399만원	366	11.8	51.4	63.2	30.9	5.9	36.8	100
	400만원 이상	514	14.7	52.6	67.2	27.1	5.7	32.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3.2	53.2	66.4	27.0	6.6	33.6	100
	충청권	122	11.2	39.1	50.2	38.0	11.8	49.8	100
	호남권	118	17.9	56.2	74.1	23.4	2.5	25.9	100
	영남권	310	14.2	53.2	67.5	29.0	3.5	32.5	100
	강원	36	15.2	26.1	41.3	46.6	12.2	58.7	100
	제주	14	31.2	65.9	97.1	2.9	0.0	2.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6.2	56.9	73.1	23.1	3.7	26.9	100
	중·소도시	580	11.5	45.4	56.9	35.1	8.0	43.1	100
	읍/면	66	17.0	58.1	75.0	17.1	7.9	25.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7.3	49.1	66.4	29.7	4.0	33.6	100
	중도	593	11.9	52.9	64.8	27.5	7.7	35.2	100
종교별	보수적	313	14.8	50.7	65.5	29.6	4.9	34.5	100
	불교	248	16.3	48.3	64.6	31.0	4.4	35.4	100
	기독교	245	15.1	50.3	65.4	28.1	6.5	34.6	100
	천주교	70	18.7	54.4	73.1	20.8	6.1	26.9	100
	기타	3	62.9	37.1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2.1	53.2	65.3	28.2	6.5	34.7	100
	모름/무응답	11	0.0	28.8	28.8	60.1	11.1	71.2	100

표 43.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	계
			%	%	%	%	%
성별	전 체	1200	32.9	24.6	6.6	36.0	100
	남자	607	33.5	24.7	7.1	34.7	100
	여자	593	32.2	24.5	6.0	37.3	100
연령별	19~29세	227	31.7	26.8	5.9	35.6	100
	30대	238	35.2	21.2	6.8	36.8	100
	40대	275	38.5	23.9	7.0	30.6	100
	50대	254	32.2	21.7	7.1	38.9	100
	60대 이상	206	24.5	30.6	5.9	39.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5.9	32.2	6.6	35.3	100
	고졸	493	29.2	26.3	6.6	37.9	100
	대재 이상	584	37.4	21.6	6.5	34.5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7.7	23.6	5.1	33.6	100
	자영업	198	31.5	23.1	8.1	37.3	100
	블루 칼라	336	29.7	26.1	7.2	37.0	100
	화이트칼라	276	41.4	26.2	5.4	27.1	100
	전업 주부	243	29.4	23.5	6.9	40.2	100
	무직/기타	127	30.5	21.8	4.9	42.8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2.8	24.3	6.2	36.7	100
	200~299만원	203	33.5	22.8	6.7	37.0	100
	300~399만원	366	30.1	25.6	7.2	37.0	100
	400만원 이상	514	34.5	24.6	6.2	34.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3.3	26.0	7.0	33.7	100
	충청권	122	37.8	12.3	5.7	44.2	100
	호남권	118	39.8	28.0	2.7	29.5	100
	영남권	310	26.1	27.4	7.6	39.0	100
	강원	36	42.6	13.7	8.7	34.9	100
	제주	14	35.3	6.4	3.1	55.1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4.3	25.5	6.4	43.8	100
	중·소도시	580	41.2	24.1	7.1	27.7	100
	읍/면	66	31.6	21.4	4.3	42.6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9.3	25.4	7.7	27.6	100
	중도	593	29.0	25.9	5.9	39.2	100
	보수적	313	34.1	21.3	6.9	37.7	100
종교별	불교	248	31.7	25.9	5.3	37.1	100
	기독교	245	37.8	22.9	8.6	30.7	100
	천주교	70	38.1	27.6	3.7	30.6	100
	기타	3	0.0	37.1	0.0	62.9	100
	종교없음	624	31.3	23.9	6.5	38.2	100
	모름/무응답	11	11.0	44.9	15.7	28.5	100

표 44-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4.19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2.5	44.6	57.0	18.0	11.8	29.8	13.2	100
성별	남자	607	14.4	44.5	59.0	16.7	12.6	29.3	11.8	100
	여자	593	10.5	44.6	55.1	19.3	11.0	30.3	14.6	100
연령별	19~29세	227	14.2	37.1	51.4	13.1	13.7	26.9	21.8	100
	30대	238	10.5	42.7	53.2	20.3	10.1	30.4	16.4	100
	40대	275	10.9	51.7	62.6	17.9	10.7	28.6	8.8	100
	50대	254	15.6	41.1	56.7	20.5	15.1	35.6	7.7	100
	60대 이상	206	11.0	49.6	60.6	17.6	9.3	26.9	12.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8.2	45.5	53.7	22.3	6.5	28.7	17.6	100
	고졸	493	10.3	45.8	56.1	18.2	13.7	31.9	12.0	100
	대재 이상	584	15.2	43.3	58.5	16.8	11.4	28.3	13.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9	55.6	59.6	16.3	15.1	31.5	8.9	100
	자영업	198	13.5	48.0	61.5	15.1	13.2	28.3	10.2	100
	블루 칼라	336	11.6	44.3	55.9	19.1	11.2	30.3	13.8	100
	화이트칼라	276	13.9	43.0	57.0	16.6	15.9	32.5	10.6	100
	전업 주부	243	10.3	44.2	54.5	21.7	9.8	31.5	14.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5.5	42.2	57.6	15.5	6.0	21.5	20.9	100
	200만원 미만	117	8.5	43.5	52.0	21.4	6.8	28.2	19.8	100
	200~299만원	203	11.6	54.5	66.1	14.5	5.8	20.3	13.6	100
	300~399만원	366	12.5	46.6	59.1	20.1	8.0	28.1	12.8	100
	400만원 이상	514	13.7	39.4	53.1	17.1	18.1	35.2	11.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2.4	47.2	59.7	15.9	15.3	31.2	9.1	100
	충청권	122	11.8	38.0	49.7	23.6	11.6	35.2	15.1	100
	호남권	118	13.5	53.5	67.0	13.8	2.0	15.7	17.3	100
	영남권	310	12.8	40.3	53.1	20.3	8.9	29.2	17.7	100
	강원	36	10.6	31.7	42.3	22.4	15.2	37.6	20.1	100
지역 크기	제주	14	9.3	37.2	46.6	28.9	6.1	35.0	18.5	100
	대도시	554	14.4	45.3	59.8	18.9	10.3	29.3	11.0	100
	중·소도시	580	10.3	43.7	54.0	16.6	14.2	30.9	15.2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5.4	45.5	60.9	21.7	3.6	25.3	13.8	100
	진보적	294	15.2	40.0	55.1	18.8	12.1	30.9	14.0	100
	중도	593	11.5	44.4	56.0	17.6	12.5	30.1	13.9	100
종교별	보수적	313	11.7	49.1	60.8	17.9	10.4	28.3	10.9	100
	불교	248	13.5	46.8	60.3	19.1	9.2	28.3	11.5	100
	기독교	245	13.0	45.3	58.3	16.6	13.1	29.7	11.9	100
	천주교	70	13.4	35.4	48.7	22.2	10.0	32.3	19.0	100
	기타	3	0.0	71.6	71.6	0.0	0.0	0.0	28.4	100
종교없음		624	12.0	44.9	56.9	17.5	12.3	29.8	13.3	100
모름/무응답		11	0.0	11.2	11.2	25.8	30.0	55.8	33.0	100

표 44-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5.16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7.7	31.4	39.0	30.6	16.7	47.3	13.7	100
성별	남자	607	8.7	30.2	38.9	32.4	17.4	49.9	11.3	100
	여자	593	6.6	32.6	39.2	28.8	15.9	44.7	16.2	100
연령별	19~29세	227	7.2	26.2	33.4	26.0	18.9	44.9	21.7	100
	30대	238	6.1	26.8	32.9	25.8	25.4	51.2	15.9	100
	40대	275	6.5	35.2	41.7	31.4	15.2	46.7	11.7	100
	50대	254	8.3	32.8	41.1	37.3	13.8	51.1	7.8	100
	60대 이상	206	10.6	35.5	46.1	32.1	9.5	41.5	12.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5	38.0	45.4	30.0	9.3	39.3	15.3	100
	고졸	493	7.5	32.6	40.1	34.0	12.9	46.9	13.0	100
	대재 이상	584	7.8	29.0	36.8	27.9	21.4	49.2	14.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57.0	57.0	20.0	14.1	34.1	8.9	100
	자영업	198	11.6	33.2	44.8	31.4	13.3	44.7	10.5	100
	블루 칼라	336	6.3	29.3	35.7	34.4	17.1	51.5	12.9	100
	화이트칼라	276	6.8	27.8	34.7	29.9	22.8	52.8	12.6	100
	전업 주부	243	6.6	35.6	42.2	28.9	13.3	42.2	15.6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0.1	29.2	39.3	26.0	14.2	40.2	20.5	100
	200만원 미만	117	5.6	34.0	39.6	35.5	8.0	43.5	16.9	100
	200~299만원	203	6.9	36.6	43.5	29.1	12.8	41.9	14.6	100
	300~399만원	366	6.5	33.3	39.8	33.1	15.1	48.2	12.0	100
	400만원 이상	514	9.2	27.3	36.5	28.4	21.3	49.7	13.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9.9	33.1	43.0	27.6	20.2	47.7	9.3	100
	충청권	122	5.5	23.5	29.0	39.9	15.5	55.4	15.5	100
	호남권	118	5.5	31.5	37.0	33.0	12.1	45.1	17.9	100
	영남권	310	5.3	31.4	36.7	31.8	12.5	44.3	18.9	100
	강원	36	4.0	27.3	31.3	31.4	15.0	46.4	22.3	100
지역 크기	제주	14	9.3	34.4	43.7	34.7	9.2	43.9	12.4	100
	대도시	554	7.8	30.9	38.8	30.8	17.3	48.1	13.1	100
	중·소도시	580	8.0	29.8	37.8	31.0	16.9	47.9	14.3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4	48.4	51.8	25.8	9.5	35.4	12.9	100
	진보적	294	7.7	28.8	36.5	26.1	19.8	45.9	17.6	100
	중도	593	5.7	30.2	35.9	32.9	17.3	50.2	13.9	100
종교별	보수적	313	11.3	36.0	47.3	30.6	12.5	43.1	9.5	100
	불교	248	10.0	36.6	46.6	33.6	9.3	42.9	10.5	100
	기독교	245	8.2	29.4	37.6	30.7	18.4	49.1	13.3	100
	천주교	70	9.2	23.7	32.9	30.5	19.1	49.5	17.6	100
	기타	3	0.0	34.4	34.4	37.1	0.0	37.1	28.4	100
종교없음		624	6.5	31.2	37.7	29.3	18.7	48.0	14.3	100
모름/무응답		11	0.0	11.2	11.2	37.0	18.7	55.8	33.0	100

표 44-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10월 유신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5.6	22.1	27.7	35.5	21.3	56.8	15.6	100
성별	남자	607	5.2	21.3	26.5	37.1	22.1	59.3	14.3	100
	여자	593	5.9	23.0	28.9	33.9	20.4	54.3	16.9	100
연령별	19~29세	227	5.1	15.3	20.4	32.5	22.0	54.6	25.0	100
	30대	238	2.7	19.3	22.0	38.8	22.7	61.4	16.6	100
	40대	275	7.3	24.4	31.7	34.8	21.2	55.9	12.4	100
	50대	254	6.3	23.3	29.6	37.2	21.5	58.7	11.7	100
	60대 이상	206	6.2	28.3	34.5	34.1	18.6	52.6	12.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2	21.5	28.7	41.5	11.8	53.4	17.9	100
	고졸	493	5.5	28.1	33.6	31.3	20.5	51.8	14.6	100
	대재 이상	584	5.3	17.1	22.4	37.8	23.9	61.7	15.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2	18.9	30.1	43.1	9.0	52.1	17.8	100
	자영업	198	10.1	23.2	33.3	35.6	17.8	53.4	13.3	100
	블루 칼라	336	3.8	23.7	27.5	33.8	23.9	57.7	14.8	100
	화이트칼라	276	4.4	16.2	20.6	39.6	26.4	66.0	13.4	100
	전업 주부	243	4.3	28.0	32.2	31.7	19.0	50.7	17.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7.2	18.2	25.4	37.2	14.8	52.0	22.6	100
	200만원 미만	117	3.9	23.7	27.7	39.0	15.7	54.6	17.7	100
	200~299만원	203	7.6	29.3	37.0	32.6	13.1	45.7	17.4	100
	300~399만원	366	5.4	23.3	28.7	37.2	17.8	55.0	16.3	100
	400만원 이상	514	5.3	18.0	23.3	34.7	28.3	63.0	13.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7.1	22.4	29.5	34.7	26.9	61.6	8.8	100
	충청권	122	3.6	21.1	24.7	40.5	16.0	56.4	18.9	100
	호남권	118	3.5	18.1	21.5	38.7	22.6	61.4	17.1	100
	영남권	310	4.7	22.8	27.5	35.3	13.1	48.4	24.1	100
	강원	36	2.1	27.6	29.7	29.2	10.3	39.4	30.9	100
지역 크기	제주	14	3.2	21.1	24.3	19.0	22.1	41.1	34.6	100
	대도시	554	3.3	22.7	25.9	35.8	23.0	58.8	15.2	100
	중·소도시	580	7.4	21.3	28.7	34.9	20.5	55.4	15.9	100
	읍/면	66	9.2	24.2	33.4	38.8	12.7	51.6	15.0	100
	진보적	294	5.2	17.3	22.5	32.4	27.5	59.9	17.6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4.6	22.5	27.2	35.8	21.2	57.0	15.8	100
	보수적	313	7.6	25.8	33.4	37.9	15.5	53.4	13.1	100
	불교	248	6.2	21.8	28.0	39.6	17.0	56.6	15.4	100
종교별	기독교	245	6.3	22.2	28.5	31.8	26.8	58.6	12.9	100
	천주교	70	3.2	17.9	21.1	30.0	30.7	60.7	18.2	100
	기타	3	0.0	65.6	65.6	0.0	34.4	34.4	0.0	100
	종교없음	624	5.4	22.7	28.0	36.1	20.0	56.2	15.8	100
	모름/무응답	11	0.0	11.2	11.2	37.0	0.0	37.0	51.8	100

표 44-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광주민주화운동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4.2	35.2	49.4	24.0	19.2	43.3	7.3	100
성별	남자	607	14.4	36.0	50.4	23.4	19.3	42.7	6.9	100
	여자	593	14.0	34.4	48.4	24.6	19.2	43.8	7.8	100
연령별	19~29세	227	15.9	37.4	53.2	19.1	18.2	37.3	9.5	100
	30대	238	13.9	33.1	47.0	24.9	19.1	44.0	8.9	100
	40대	275	16.9	40.7	57.6	18.8	19.8	38.6	3.8	100
	50대	254	11.6	31.7	43.3	29.0	21.7	50.6	6.0	100
	60대 이상	206	12.2	32.3	44.5	29.3	16.7	46.0	9.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1.1	30.0	41.1	32.2	14.6	46.9	12.0	100
	고졸	493	10.1	35.8	45.8	25.4	21.7	47.1	7.1	100
	대재 이상	584	18.3	35.8	54.2	21.2	18.1	39.3	6.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9	49.0	58.9	36.1	5.1	41.1	0.0	100
	자영업	198	14.8	35.0	49.8	22.5	21.1	43.7	6.5	100
	블루 칼라	336	11.1	36.0	47.0	26.3	19.2	45.6	7.4	100
	화이트칼라	276	13.6	37.6	51.2	20.2	22.0	42.2	6.5	100
	전업 주부	243	15.1	30.5	45.6	27.5	18.1	45.5	8.8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21.7	35.2	56.9	20.1	14.7	34.8	8.3	100
	200만원 미만	117	12.6	39.7	52.2	31.2	6.8	38.0	9.8	100
	200~299만원	203	16.2	38.5	54.7	24.9	9.7	34.6	10.7	100
	300~399만원	366	11.6	40.9	52.5	21.6	17.1	38.7	8.8	100
	400만원 이상	514	15.6	28.9	44.5	23.8	27.3	51.1	4.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6.2	34.7	50.9	23.9	21.7	45.6	3.5	100
	충청권	122	13.1	35.2	48.3	25.2	13.5	38.7	13.0	100
	호남권	118	29.0	43.9	72.9	12.8	10.2	23.0	4.0	100
	영남권	310	4.8	31.6	36.3	29.9	21.0	50.9	12.8	100
	강원	36	17.4	41.8	59.2	11.1	15.8	26.9	13.9	100
지역 크기	제주	14	12.9	49.4	62.3	16.5	8.8	25.2	12.4	100
	대도시	554	17.2	31.2	48.4	23.7	22.5	46.2	5.4	100
	중·소도시	580	11.8	36.8	48.6	25.0	17.8	42.7	8.7	100
	읍/면	66	10.5	54.7	65.2	18.4	4.9	23.3	11.6	100
	진보적	294	19.5	35.6	55.1	23.3	14.9	38.2	6.7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4.6	39.0	53.6	18.8	20.3	39.1	7.3	100
	보수적	313	8.5	27.6	36.1	34.6	21.2	55.8	8.0	100
	불교	248	8.2	31.1	39.3	30.3	23.2	53.4	7.2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6.9	36.6	53.6	22.1	15.2	37.3	9.1	100
	천주교	70	17.8	31.8	49.6	21.1	21.7	42.8	7.6	100
	기타	3	0.0	62.9	62.9	37.1	0.0	37.1	0.0	100
	종교없음	624	15.4	36.7	52.1	22.8	18.5	41.3	6.6	100
	모름/무응답	11	0.0	25.7	25.7	11.0	52.2	63.2	11.1	100

표 44-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6월 항쟁(1987년)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0.6	34.9	45.4	28.8	9.6	38.4	16.2	100
성별	남자	607	11.9	35.9	47.7	27.2	10.4	37.6	14.7	100
	여자	593	9.2	33.8	43.0	30.4	8.9	39.3	17.7	100
연령별	19~29세	227	14.4	27.3	41.6	25.4	11.2	36.5	21.9	100
	30대	238	11.7	29.2	40.9	26.9	10.1	37.0	22.1	100
	40대	275	12.0	39.2	51.1	29.3	7.8	37.1	11.8	100
	50대	254	8.2	37.7	45.9	29.7	11.6	41.2	12.9	100
	60대 이상	206	6.1	40.4	46.5	33.0	7.6	40.5	13.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4	40.0	44.5	31.5	6.3	37.8	17.7	100
	고졸	493	5.9	38.5	44.4	29.0	11.0	40.0	15.6	100
	대재 이상	584	15.7	30.7	46.5	28.0	9.2	37.2	16.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9	38.4	48.3	26.5	6.2	32.6	19.1	100
	자영업	198	9.8	39.4	49.2	25.3	8.8	34.0	16.8	100
	블루 칼라	336	5.4	37.2	42.7	33.3	8.7	42.0	15.3	100
	화이트칼라	276	14.2	30.2	44.4	28.6	14.1	42.7	12.9	100
	전업 주부	243	10.3	34.6	44.9	29.0	8.5	37.4	17.7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8.0	31.4	49.4	22.8	6.5	29.3	21.3	100
	200만원 미만	117	7.5	43.4	51.0	25.7	3.8	29.6	19.5	100
	200~299만원	203	10.2	38.2	48.4	21.8	8.4	30.1	21.5	100
	300~399만원	366	9.1	39.9	49.0	27.3	6.5	33.7	17.3	100
	400만원 이상	514	12.4	28.0	40.4	33.4	13.7	47.1	12.6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1.7	35.9	47.6	31.2	13.1	44.4	8.1	100
	충청권	122	9.8	36.6	46.4	27.1	5.9	33.0	20.6	100
	호남권	118	15.0	36.3	51.3	26.5	2.2	28.7	20.0	100
	영남권	310	6.3	32.1	38.4	27.6	7.1	34.7	26.9	100
	강원	36	17.1	28.9	46.0	15.5	10.9	26.5	27.5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4	40.5	46.9	19.0	6.0	25.0	28.1	100
	대도시	554	14.0	31.1	45.0	29.3	8.1	37.4	17.5	100
	중·소도시	580	7.0	39.1	46.1	27.3	11.6	38.9	14.9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2.8	29.2	42.0	37.4	4.6	42.1	15.9	100
	진보적	294	14.4	32.5	46.9	28.9	9.0	37.9	15.3	100
	중도	593	10.9	37.3	48.3	26.0	8.9	34.9	16.9	100
종교별	보수적	313	6.3	32.3	38.6	33.9	11.7	45.6	15.7	100
	불교	248	9.4	31.5	40.9	33.5	8.5	42.0	17.1	100
	기독교	245	10.0	38.1	48.1	26.9	10.2	37.1	14.8	100
	천주교	70	11.1	35.9	47.0	31.2	8.5	39.6	13.3	100
	기타	3	0.0	37.1	37.1	0.0	0.0	0.0	62.9	100
종교없음		624	11.4	35.1	46.5	27.7	9.8	37.5	16.0	100
모름/무응답		11	0.0	17.6	17.6	19.4	22.5	41.9	40.5	100

표 44-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남북 정상회담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3.9	50.6	64.5	22.2	7.4	29.6	5.9	100
성별	남자	607	16.5	48.9	65.5	20.6	8.7	29.3	5.3	100
	여자	593	11.3	52.3	63.6	23.9	6.0	29.9	6.5	100
연령별	19~29세	227	14.5	46.4	60.9	21.5	11.2	32.7	6.4	100
	30대	238	11.8	45.8	57.6	24.4	9.4	33.8	8.6	100
	40대	275	16.3	54.1	70.4	19.9	5.0	24.9	4.7	100
	50대	254	14.2	49.7	63.9	24.3	7.8	32.1	4.0	100
	60대 이상	206	12.4	57.2	69.6	21.2	3.4	24.6	5.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0.0	63.1	73.1	16.5	1.5	18.0	8.9	100
	고졸	493	12.0	51.0	62.9	22.5	9.4	31.9	5.2	100
	대재 이상	584	16.4	47.7	64.1	23.2	6.9	30.1	5.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0.1	51.6	81.7	18.3	0.0	18.3	0.0	100
	자영업	198	18.3	50.6	68.9	18.7	8.4	27.1	4.0	100
	블루 칼라	336	11.4	50.0	61.4	26.0	7.9	33.8	4.8	100
	화이트칼라	276	13.1	47.8	61.0	22.6	8.5	31.0	8.0	100
	전업 주부	243	11.1	54.8	65.9	22.4	5.3	27.7	6.4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8.6	50.0	68.5	17.4	7.2	24.6	6.9	100
	200만원 미만	117	13.3	62.0	75.3	12.0	4.5	16.4	8.3	100
	200~299만원	203	15.4	58.2	73.5	17.5	2.8	20.3	6.2	100
	300~399만원	366	15.5	50.7	66.2	20.9	6.3	27.2	6.6	100
	400만원 이상	514	12.4	44.9	57.3	27.4	10.6	38.0	4.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3.8	46.1	60.0	26.6	10.1	36.6	3.4	100
	충청권	122	11.1	45.0	56.1	27.0	7.8	34.8	9.1	100
	호남권	118	24.2	55.2	79.5	15.8	0.7	16.5	4.0	100
	영남권	310	10.4	59.4	69.8	16.2	5.1	21.3	8.9	100
	강원	36	19.8	53.6	73.4	8.7	4.4	13.2	13.4	100
지역 크기	제주	14	19.1	50.0	69.1	15.6	2.9	18.5	12.4	100
	대도시	554	11.6	52.0	63.6	24.8	6.3	31.2	5.2	100
	중·소도시	580	16.3	49.3	65.6	19.0	9.0	28.0	6.4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3.2	49.7	62.9	28.9	2.0	30.9	6.3	100
	진보적	294	15.3	51.8	67.2	22.9	6.3	29.2	3.7	100
	중도	593	14.7	49.4	64.0	22.4	7.4	29.9	6.1	100
종교별	보수적	313	11.3	51.8	63.1	21.2	8.3	29.5	7.4	100
	불교	248	12.2	50.6	62.8	27.6	1.8	29.3	7.8	100
	기독교	245	14.1	47.3	61.4	24.2	9.5	33.7	5.0	100
	천주교	70	14.6	42.8	57.5	27.5	6.9	34.3	8.2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4.8	52.8	67.6	18.9	8.5	27.3	5.1	100
모름/무응답		11	0.0	36.7	36.7	22.2	30.0	52.2	11.1	100

표 45-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환경파괴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40.2	48.6	88.8	10.5	0.7	11.2	100
성별	남자	607	40.2	48.4	88.6	10.5	0.9	11.4	100
	여자	593	40.2	48.8	89.0	10.6	0.4	11.0	100
연령별	19~29세	227	41.5	48.9	90.5	9.5	0.0	9.5	100
	30대	238	41.0	49.8	90.8	7.8	1.3	9.2	100
	40대	275	41.6	47.3	88.9	10.2	0.9	11.1	100
	50대	254	38.6	47.8	86.4	13.1	0.5	13.6	100
	60대 이상	206	37.7	49.6	87.3	12.1	0.6	12.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6.2	50.7	86.9	12.1	1.0	13.1	100
	고졸	493	38.2	50.4	88.6	10.9	0.5	11.4	100
	대재 이상	584	42.7	46.6	89.3	9.9	0.8	10.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5.5	54.5	100.0	0.0	0.0	0.0	100
	자영업	198	39.9	48.4	88.3	11.7	0.0	11.7	100
	블루 칼라	336	36.6	51.2	87.9	11.5	0.6	12.1	100
	화이트칼라	276	44.8	45.7	90.5	8.6	0.9	9.5	100
	전업 주부	243	40.8	48.5	89.2	9.8	1.0	10.8	100
	무직/기타	127	37.9	47.5	85.4	13.6	1.0	14.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1.5	47.5	89.0	9.9	1.1	11.0	100
	200~299만원	203	38.7	51.9	90.6	9.4	0.0	9.4	100
	300~399만원	366	39.5	49.9	89.4	9.7	0.9	10.6	100
	400만원 이상	514	40.9	46.6	87.5	11.7	0.7	12.5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5.8	52.2	88.0	10.7	1.2	12.0	100
	충청권	122	31.7	45.4	77.1	22.3	0.6	22.9	100
	호남권	118	62.8	35.7	98.5	1.5	0.0	1.5	100
	영남권	310	39.4	51.6	91.0	9.0	0.0	9.0	100
	강원	36	62.5	24.1	86.6	13.4	0.0	13.4	100
	제주	14	71.6	25.4	97.1	2.9	0.0	2.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5.7	49.4	85.1	14.5	0.4	14.9	100
	중·소도시	580	44.3	47.1	91.4	7.5	1.1	8.6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41.4	54.6	96.1	3.9	0.0	3.9	100
	진보적	294	46.1	44.6	90.7	8.9	0.4	9.3	100
	중도	593	37.6	50.1	87.7	11.1	1.2	12.3	100
종교별	보수적	313	39.6	49.4	89.0	11.0	0.0	11.0	100
	불교	248	39.1	48.9	88.0	12.0	0.0	12.0	100
	기독교	245	45.8	43.6	89.5	9.7	0.8	10.5	100
	천주교	70	36.3	43.0	79.3	15.4	5.3	20.7	100
	기타	3	65.6	34.4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9.1	51.7	90.7	9.1	0.2	9.3	100
	모름/무응답	11	17.5	19.4	36.9	51.9	11.2	63.1	100

표 45-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15.9	34.6	50.5	43.3	6.2	49.5	100
성별	남자	607	17.0	34.9	51.9	41.0	7.1	48.1	100
	여자	593	14.8	34.3	49.1	45.7	5.2	50.9	100
연령별	19~29세	227	21.7	32.0	53.6	39.5	6.9	46.4	100
	30대	238	21.4	31.4	52.7	42.7	4.6	47.3	100
	40대	275	13.8	37.2	51.0	42.2	6.8	49.0	100
	50대	254	13.4	33.9	47.4	47.5	5.1	52.6	100
	60대 이상	206	9.0	38.7	47.8	44.5	7.7	52.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1.9	35.0	46.8	43.6	9.5	53.2	100
	고졸	493	12.3	36.9	49.2	45.7	5.1	50.8	100
	대재 이상	584	19.8	32.6	52.4	41.2	6.4	47.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9	29.9	39.8	43.4	16.8	60.2	100
	자영업	198	11.0	34.9	45.8	51.0	3.2	54.2	100
	블루 칼라	336	13.4	33.4	46.8	45.4	7.9	53.2	100
	화이트칼라	276	22.1	32.6	54.7	37.0	8.3	45.3	100
	전업 주부	243	14.8	38.4	53.2	43.0	3.8	46.8	100
	무직/기타	127	19.6	35.6	55.2	40.2	4.6	44.8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6.0	42.2	58.2	36.4	5.4	41.8	100
	200~299만원	203	16.2	34.7	50.8	43.3	5.8	49.2	100
	300~399만원	366	14.2	35.9	50.0	44.6	5.4	50.0	100
	400만원 이상	514	17.0	32.0	49.0	43.9	7.1	51.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8.6	32.2	50.8	43.8	5.4	49.2	100
	충청권	122	5.7	29.1	34.8	59.6	5.6	65.2	100
	호남권	118	16.3	40.3	56.6	29.5	13.9	43.4	100
	영남권	310	14.3	38.0	52.4	42.8	4.8	47.6	100
	강원	36	20.1	35.6	55.6	35.5	8.9	44.4	100
	제주	14	9.6	62.3	72.0	28.0	0.0	28.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3.4	31.7	45.2	49.6	5.2	54.8	100
	중·소도시	580	18.9	38.0	56.9	37.0	6.1	43.1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10.0	29.5	39.6	45.1	15.3	60.4	100
	진보적	294	19.0	38.5	57.6	35.8	6.6	42.4	100
	중도	593	15.8	34.3	50.1	44.0	5.8	49.9	100
종교별	보수적	313	13.1	31.6	44.6	49.0	6.4	55.4	100
	불교	248	14.4	34.9	49.3	43.4	7.2	50.7	100
	기독교	245	17.8	33.6	51.3	42.6	6.1	48.7	100
	천주교	70	17.4	32.7	50.1	41.8	8.1	49.9	100
	기타	3	0.0	65.6	65.6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15.7	35.5	51.2	43.2	5.5	48.8	100
	모름/무응답	11	11.1	6.4	17.5	71.2	11.3	82.5	100

표 45-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37.8	52.2	90.1	9.3	0.6	9.9	100
성별	남자	607	39.1	50.3	89.4	9.7	0.9	10.6	100
	여자	593	36.5	54.3	90.7	8.9	0.4	9.3	100
연령별	19~29세	227	41.0	52.2	93.2	6.5	0.3	6.8	100
	30대	238	39.4	51.9	91.3	8.7	0.0	8.7	100
	40대	275	35.2	54.3	89.5	9.9	0.6	10.5	100
	50대	254	37.5	49.0	86.5	11.3	2.1	13.5	100
	60대 이상	206	36.4	53.9	90.3	9.7	0.0	9.7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0.8	49.4	90.2	8.4	1.4	9.8	100
	고졸	493	35.3	53.9	89.3	10.3	0.4	10.7	100
	대재 이상	584	39.3	51.4	90.7	8.6	0.7	9.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9	58.1	94.9	5.1	0.0	5.1	100
	자영업	198	35.2	51.9	87.1	12.3	0.6	12.9	100
	블루 칼라	336	35.2	56.3	91.5	7.9	0.6	8.5	100
	화이트칼라	276	34.9	54.3	89.2	10.0	0.8	10.8	100
	전업 주부	243	40.1	49.2	89.3	10.0	0.7	10.7	100
	무직/기타	127	50.8	42.6	93.4	6.0	0.6	6.6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2.4	39.0	91.5	7.9	0.7	8.5	100
	200~299만원	203	39.3	53.0	92.3	7.7	0.0	7.7	100
	300~399만원	366	35.5	54.9	90.5	9.3	0.2	9.5	100
	400만원 이상	514	35.6	53.0	88.6	10.2	1.2	11.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4.5	54.2	88.7	10.7	0.6	11.3	100
	충청권	122	32.1	57.4	89.6	9.1	1.3	10.4	100
	호남권	118	49.3	47.3	96.5	2.7	0.8	3.5	100
	영남권	310	40.2	50.9	91.1	8.9	0.0	8.9	100
	강원	36	47.2	34.7	81.8	13.8	4.4	18.2	100
	제주	14	58.4	38.7	97.1	2.9	0.0	2.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8.4	52.4	90.8	9.0	0.2	9.2	100
	중·소도시	580	38.1	50.8	88.9	10.1	1.0	11.1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0.6	63.5	94.1	4.5	1.3	5.9	100
	진보적	294	43.2	49.6	92.8	7.2	0.0	7.2	100
	중도	593	36.2	52.2	88.4	10.8	0.7	11.6	100
	보수적	313	35.9	54.8	90.6	8.2	1.1	9.4	100
종교별	불교	248	39.3	48.9	88.2	10.6	1.2	11.8	100
	기독교	245	39.7	53.3	93.0	6.5	0.5	7.0	100
	천주교	70	37.1	47.2	84.3	15.7	0.0	15.7	100
	기타	3	34.4	65.6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7.1	53.8	90.9	8.5	0.6	9.1	100
	모름/무응답	11	11.1	44.3	55.4	44.6	0.0	44.6	100

표 45-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48.9	43.6	92.5	6.6	0.9	7.5	100
성별	남자	607	47.8	43.6	91.4	7.8	0.8	8.6	100
	여자	593	50.1	43.5	93.6	5.4	1.0	6.4	100
연령별	19~29세	227	53.4	40.8	94.2	4.9	0.9	5.8	100
	30대	238	49.8	43.3	93.1	6.4	0.5	6.9	100
	40대	275	53.5	39.0	92.5	6.3	1.2	7.5	100
	50대	254	45.9	44.1	89.9	8.9	1.1	10.1	100
	60대 이상	206	40.6	52.3	93.0	6.5	0.5	7.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7.1	45.5	92.6	5.1	2.2	7.4	100
	고졸	493	43.9	48.9	92.8	6.5	0.7	7.2	100
	대재 이상	584	53.5	38.6	92.2	7.1	0.8	7.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7.2	37.9	95.1	4.9	0.0	4.9	100
	자영업	198	49.5	44.1	93.6	5.8	0.6	6.4	100
	블루 칼라	336	45.9	44.9	90.8	8.5	0.8	9.2	100
	화이트칼라	276	50.2	40.7	90.9	7.8	1.4	9.1	100
	전업 주부	243	48.7	44.9	93.5	5.3	1.2	6.5	100
	무직/기타	127	52.4	44.0	96.3	3.7	0.0	3.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1.1	44.5	95.6	3.7	0.7	4.4	100
	200~299만원	203	48.7	46.7	95.4	4.6	0.0	4.6	100
	300~399만원	366	47.0	45.0	92.0	7.1	1.0	8.0	100
	400만원 이상	514	49.9	41.1	91.0	7.8	1.2	9.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41.5	50.3	91.8	7.2	1.0	8.2	100
	충청권	122	51.4	37.6	89.0	11.0	0.0	11.0	100
	호남권	118	63.8	34.8	98.6	0.6	0.8	1.4	100
	영남권	310	55.3	38.0	93.3	6.1	0.6	6.7	100
	강원	36	57.9	28.3	86.2	9.4	4.4	13.8	100
	제주	14	55.9	44.1	100.0	0.0	0.0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49.2	44.1	93.3	6.2	0.5	6.7	100
	중·소도시	580	49.8	41.7	91.5	7.3	1.1	8.5	100
정치적 성향	읍/면	66	38.7	55.5	94.2	4.4	1.3	5.8	100
	진보적	294	53.5	39.9	93.4	6.2	0.4	6.6	100
	중도	593	47.4	44.3	91.7	7.4	0.9	8.3	100
	보수적	313	47.5	45.7	93.2	5.6	1.3	6.8	100
종교별	불교	248	48.9	42.9	91.8	6.6	1.6	8.2	100
	기독교	245	48.8	46.1	94.9	5.1	0.0	5.1	100
	천주교	70	53.2	36.8	90.0	8.3	1.8	10.0	100
	기타	3	71.6	28.4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49.1	43.6	92.7	6.7	0.6	7.3	100
	모름/무응답	11	11.1	47.1	58.2	30.6	11.2	41.8	100

표 45-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지역 간 불균형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1.9	47.5	69.4	28.3	2.2	30.5	0.1	100
성별									
남자	607	22.2	47.3	69.5	28.2	2.1	30.4	0.2	100
여자	593	21.6	47.7	69.3	28.4	2.3	30.7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27.7	44.1	71.8	26.9	0.9	27.7	0.4	100
30대	238	21.5	52.7	74.2	23.8	2.0	25.8	0.0	100
40대	275	21.5	47.2	68.7	28.7	2.7	31.3	0.0	100
50대	254	21.2	49.1	70.3	26.6	3.1	29.7	0.0	100
60대 이상	206	17.6	43.4	61.0	36.8	2.2	39.0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2.3	44.6	67.0	28.0	5.0	33.0	0.0	100
고졸	493	17.8	49.3	67.1	30.8	2.1	32.9	0.0	100
대재 이상	584	25.4	46.5	71.9	26.3	1.7	28.0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8.9	71.0	89.9	10.1	0.0	10.1	0.0	100
자영업	198	21.5	46.3	67.9	28.9	3.3	32.1	0.0	100
블루 칼라	336	18.0	46.8	64.9	33.4	1.8	35.1	0.0	100
화이트칼라	276	27.4	46.5	73.9	24.4	1.4	25.7	0.4	100
전업 주부	243	17.4	51.5	68.9	27.4	3.7	31.1	0.0	100
무직/기타	127	30.0	41.6	71.6	27.2	1.3	28.4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4.2	49.8	73.9	23.1	2.9	26.1	0.0	100
200~299만원	203	26.5	48.1	74.6	24.5	0.9	25.4	0.0	100
300~399만원	366	20.0	51.9	71.9	25.6	2.4	28.1	0.0	100
400만원 이상	514	21.0	43.5	64.5	32.9	2.4	35.3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8.7	41.2	59.9	37.4	2.7	40.1	0.0	100
충청권	122	25.4	38.2	63.5	35.1	1.3	36.5	0.0	100
호남권	118	46.0	46.3	92.3	7.0	0.8	7.7	0.0	100
영남권	310	15.3	63.9	79.2	18.1	2.3	20.5	0.3	100
강원	36	35.9	43.8	79.7	18.2	2.1	20.3	0.0	100
제주	14	37.5	53.2	90.6	9.4	0.0	9.4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9.7	44.2	63.9	34.8	1.1	35.9	0.2	100
중·소도시	580	24.0	49.6	73.6	23.0	3.4	26.4	0.0	100
읍/면	66	22.2	56.1	78.3	20.4	1.3	21.7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26.9	46.1	73.0	25.3	1.7	27.0	0.0	100
중도	593	21.8	49.9	71.7	26.3	2.0	28.3	0.0	100
보수적	313	17.5	44.1	61.6	35.0	3.1	38.1	0.3	100
종교별									
불교	248	18.5	53.2	71.7	24.6	3.4	27.9	0.4	100
기독교	245	24.4	48.1	72.5	26.5	1.0	27.5	0.0	100
천주교	70	29.9	33.3	63.2	29.8	7.0	36.8	0.0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1.7	46.8	68.6	30.1	1.4	31.4	0.0	100
모름/무응답	11	11.1	17.4	28.5	49.0	22.5	71.5	0.0	100

표 45-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복지정책 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0.4	47.3	67.6	28.7	3.6	32.3	0.1	100
성별									
남자	607	20.7	47.1	67.8	29.1	3.1	32.2	0.0	100
여자	593	20.0	47.4	67.5	28.2	4.1	32.3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21.4	49.7	71.1	26.7	2.2	28.9	0.0	100
30대	238	22.0	45.8	67.7	31.2	0.5	31.7	0.5	100
40대	275	19.8	48.1	68.0	26.5	5.6	32.0	0.0	100
50대	254	22.2	46.9	69.0	26.3	4.6	31.0	0.0	100
60대 이상	206	15.9	45.6	61.6	33.5	4.9	38.4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9.8	38.1	57.9	35.7	6.3	42.1	0.0	100
고졸	493	17.6	49.6	67.2	28.6	4.2	32.8	0.0	100
대재 이상	584	22.8	47.2	70.0	27.2	2.6	29.8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5.0	59.3	84.3	15.7	0.0	15.7	0.0	100
자영업	198	20.0	48.7	68.7	28.4	2.9	31.3	0.0	100
블루 칼라	336	16.6	46.2	62.8	33.0	4.1	37.2	0.0	100
화이트칼라	276	22.8	47.2	69.9	27.8	1.8	29.6	0.5	100
전업 주부	243	22.2	43.9	66.1	27.6	6.3	33.9	0.0	100
무직/기타	127	21.3	52.6	74.0	23.4	2.6	26.0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7.9	48.5	66.5	29.6	4.0	33.5	0.0	100
200~299만원	203	23.1	42.8	65.8	32.4	1.8	34.2	0.0	100
300~399만원	366	18.8	47.4	66.3	30.1	3.7	33.7	0.0	100
400만원 이상	514	20.9	48.7	69.6	26.0	4.2	30.2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2.2	45.0	67.2	28.0	4.5	32.5	0.2	100
충청권	122	22.2	37.8	60.0	38.7	1.3	40.0	0.0	100
호남권	118	23.3	48.5	71.8	26.0	2.2	28.2	0.0	100
영남권	310	13.2	55.2	68.4	28.5	3.1	31.6	0.0	100
강원	36	28.9	40.1	68.9	24.3	6.8	31.1	0.0	100
제주	14	37.4	59.6	97.1	2.9	0.0	2.9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6.4	51.0	67.4	29.2	3.4	32.6	0.0	100
중·소도시	580	23.9	44.0	67.9	28.0	3.9	31.9	0.2	100
읍/면	66	22.5	44.8	67.3	29.9	2.8	32.7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8.9	53.7	72.6	24.8	2.7	27.4	0.0	100
중도	593	21.2	44.4	65.6	30.8	3.4	34.2	0.2	100
보수적	313	20.2	46.7	66.9	28.3	4.9	33.1	0.0	100
종교별									
불교	248	21.5	42.8	64.3	32.9	2.8	35.7	0.0	100
기독교	245	20.5	50.6	71.1	25.6	3.3	28.9	0.0	100
천주교	70	24.0	38.9	63.0	31.9	5.2	37.0	0.0	100
기타	3	0.0	34.4	34.4	65.6	0.0	65.6	0.0	100
종교없음	624	19.5	49.4	68.9	27.4	3.4	30.9	0.2	100
모름/무응답	11	22.3	6.4	28.7	41.2	30.0	71.3	0.0	100

표 45-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7.1	43.8	60.9	34.2	4.9	39.1	100
성별	남자	607	19.1	42.4	61.4	33.0	5.5	38.6	100
	여자	593	15.2	45.3	60.4	35.4	4.2	39.6	100
연령별	19~29세	227	18.9	47.6	66.5	28.5	5.0	33.5	100
	30대	238	18.9	44.0	62.9	33.6	3.5	37.1	100
	40대	275	16.7	36.0	52.6	42.8	4.6	47.4	100
	50대	254	18.9	43.5	62.4	31.8	5.8	37.6	100
	60대 이상	206	11.6	50.1	61.7	32.7	5.6	38.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2.1	54.7	66.7	26.0	7.2	33.3	100
	고졸	493	14.5	41.1	55.6	38.8	5.7	44.4	100
	대재 이상	584	20.5	43.8	64.3	32.0	3.7	35.7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0	63.9	71.8	28.2	0.0	28.2	100
	자영업	198	14.7	45.2	59.9	35.1	5.1	40.1	100
	블루 칼라	336	16.3	41.3	57.5	37.0	5.4	42.5	100
	화이트칼라	276	21.5	41.5	63.1	33.0	3.9	36.9	100
	전업 주부	243	15.7	45.2	60.9	34.3	4.8	39.1	100
	무직/기타	127	17.9	47.3	65.3	28.6	6.1	34.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7.1	46.7	63.8	29.0	7.2	36.2	100
	200~299만원	203	14.5	47.7	62.2	33.6	4.2	37.8	100
	300~399만원	366	14.0	44.4	58.4	37.5	4.1	41.6	100
	400만원 이상	514	20.4	41.2	61.6	33.2	5.2	38.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8.2	43.9	62.2	33.5	4.3	37.8	100
	충청권	122	16.6	34.2	50.8	47.8	1.4	49.2	100
	호남권	118	14.8	52.0	66.8	31.7	1.4	33.2	100
	영남권	310	14.7	44.2	58.9	33.5	7.6	41.1	100
	강원	36	27.4	43.3	70.7	13.5	15.8	29.3	100
	제주	14	22.1	44.3	66.4	33.6	0.0	33.6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16.7	46.5	63.2	32.5	4.4	36.8	100
	중·소도시	580	18.0	42.0	59.9	34.3	5.8	40.1	100
	읍/면	66	13.8	37.2	51.0	47.6	1.3	49.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7.6	44.8	62.4	34.3	3.3	37.6	100
	중도	593	15.8	43.9	59.7	35.5	4.8	40.3	100
	보수적	313	19.1	42.7	61.8	31.7	6.5	38.2	100
종교별	불교	248	18.2	41.9	60.1	34.9	5.1	39.9	100
	기독교	245	18.4	44.8	63.2	33.9	2.9	36.8	100
	천주교	70	16.5	43.7	60.2	30.4	9.4	39.8	100
	기타	3	0.0	65.6	65.6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16.5	44.6	61.1	33.9	5.0	38.9	100
	모름/무응답	11	11.1	14.5	25.6	66.8	7.5	74.4	100

표 45-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부정부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9.0	49.8	88.8	10.3	0.9	11.2	100
성별	남자	607	38.1	50.1	88.3	10.9	0.9	11.7	100
	여자	593	39.8	49.5	89.3	9.7	1.0	10.7	100
연령별	19~29세	227	44.0	47.8	91.8	8.2	0.0	8.2	100
	30대	238	38.1	51.9	90.0	9.0	1.0	10.0	100
	40대	275	37.7	47.3	85.0	13.9	1.1	15.0	100
	50대	254	38.8	51.0	89.8	8.2	2.0	10.2	100
	60대 이상	206	36.3	51.6	87.9	11.7	0.4	12.1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7.4	53.7	91.1	7.5	1.4	8.9	100
	고졸	493	39.8	48.0	87.8	11.0	1.2	12.2	100
	대재 이상	584	38.6	50.6	89.1	10.2	0.6	10.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2.9	52.0	94.9	5.1	0.0	5.1	100
	자영업	198	41.7	50.2	91.9	7.2	0.9	8.1	100
	블루 칼라	336	40.0	49.8	89.8	9.6	0.6	10.2	100
	화이트칼라	276	33.9	55.0	88.9	10.7	0.4	11.1	100
	전업 주부	243	37.6	47.5	85.1	12.7	2.2	14.9	100
	무직/기타	127	44.9	42.2	87.1	12.2	0.7	12.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45.5	43.1	88.6	9.9	1.4	11.4	100
	200~299만원	203	37.6	53.4	91.0	9.0	0.0	9.0	100
	300~399만원	366	37.8	50.8	88.7	10.7	0.6	11.3	100
	400만원 이상	514	38.8	49.2	88.0	10.5	1.4	12.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3.9	52.5	86.4	12.6	1.0	13.6	100
	충청권	122	39.4	51.0	90.4	9.6	0.0	9.6	100
	호남권	118	52.7	41.0	93.7	5.6	0.8	6.3	100
	영남권	310	39.2	53.1	92.3	7.4	0.3	7.7	100
	강원	36	57.6	14.7	72.4	18.5	9.2	27.6	100
	제주	14	84.1	15.9	100.0	0.0	0.0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1.9	54.9	86.8	13.2	0.0	13.2	100
	중·소도시	580	45.8	44.4	90.2	8.0	1.8	9.8	100
	읍/면	66	38.8	54.4	93.1	5.5	1.3	6.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3.5	48.5	92.0	8.0	0.0	8.0	100
	중도	593	35.7	51.6	87.2	11.4	1.4	12.8	100
	보수적	313	40.9	47.8	88.8	10.2	1.0	11.2	100
종교별	불교	248	37.8	51.0	88.8	10.1	1.1	11.2	100
	기독교	245	37.2	51.6	88.8	10.7	0.5	11.2	100
	천주교	70	44.4	38.8	83.3	11.4	5.3	16.7	100
	기타	3	34.4	65.6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39.8	50.0	89.9	9.7	0.5	10.1	100
	모름/무응답	11	22.3	36.8	59.1	33.4	7.5	40.9	100

표 46.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1	25.9	27.0	54.2	18.8	73.0	100
	남자	607	1.3	27.9	29.2	51.7	19.1	70.8	100
	여자	593	0.9	23.8	24.7	56.8	18.6	75.3	100
연령별	19~29세	227	1.5	21.3	22.9	56.3	20.8	77.1	100
	30대	238	1.8	22.5	24.3	55.6	20.1	75.7	100
	40대	275	0.4	26.7	27.1	53.8	19.0	72.9	100
	50대	254	0.0	29.6	29.6	52.0	18.3	70.4	100
	60대 이상	206	2.0	29.0	31.0	53.5	15.5	69.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8	33.9	35.7	45.3	19.0	64.3	100
	고졸	493	0.9	24.7	25.6	56.1	18.3	74.4	100
	대재 이상	584	1.1	25.2	26.2	54.5	19.2	73.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9	35.0	39.9	40.0	20.1	60.1	100
	자영업	198	0.6	28.8	29.4	53.0	17.5	70.6	100
	블루 칼라	336	0.6	24.4	25.0	54.8	20.2	75.0	100
	화이트칼라	276	2.0	26.4	28.5	52.7	18.9	71.5	100
	전업 주부	243	0.3	23.4	23.7	58.9	17.4	76.3	100
	무직/기타	127	1.9	27.2	29.1	51.3	19.6	70.9	100
	200만원 미만	117	2.2	28.7	30.9	48.8	20.2	69.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8	24.4	26.2	55.7	18.1	73.8	100
	300~399만원	366	0.5	24.2	24.7	56.8	18.5	75.3	100
	400만원 이상	514	1.0	27.0	27.9	53.0	19.0	72.1	100
지역별	수도권	601	0.6	22.0	22.6	56.8	20.6	77.4	100
	충청권	122	1.8	34.1	35.9	49.8	14.4	64.1	100
	호남권	118	0.0	15.2	15.2	60.3	24.5	84.8	100
	영남권	310	1.9	32.0	33.8	50.9	15.3	66.2	100
	강원	36	4.1	44.0	48.1	33.9	17.9	51.9	100
	제주	14	0.0	28.5	28.5	58.8	12.7	71.5	100
	대도시	554	0.7	23.4	24.1	58.3	17.6	75.9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3	29.0	30.3	49.9	19.7	69.7	100
	읍/면	66	2.5	18.7	21.2	57.8	21.0	78.8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0.7	22.1	22.8	53.6	23.6	77.2	100
	중도	593	0.8	29.1	29.9	54.0	16.1	70.1	100
	보수적	313	2.0	23.2	25.2	55.3	19.5	74.8	100
	불교	248	1.2	28.0	29.2	52.9	17.9	70.8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6	23.9	25.5	56.6	17.9	74.5	100
	천주교	70	0.0	26.9	26.9	62.5	10.7	73.1	100
	기타	3	0.0	37.1	37.1	28.4	34.4	62.9	100
	종교없음	624	1.0	25.4	26.4	53.3	20.3	73.6	100
	모름/무응답	11	0.0	39.9	39.9	37.8	22.3	60.1	100

표 47.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자랑스럽다	② 다소 자랑스럽다	①+②	③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④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15.3	55.2	70.5	27.4	2.2	29.5	100
	남자	607	14.6	54.0	68.6	29.7	1.8	31.4	100
	여자	593	16.0	56.4	72.4	25.0	2.6	27.6	100
연령별	19~29세	227	8.9	54.4	63.3	33.5	3.3	36.7	100
	30대	238	10.0	51.6	61.5	34.6	3.8	38.5	100
	40대	275	16.8	55.7	72.4	25.6	2.0	27.6	100
	50대	254	19.4	54.1	73.5	25.3	1.2	26.5	100
	60대 이상	206	21.6	60.9	82.5	17.1	0.4	17.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9.2	66.7	86.0	14.0	0.0	14.0	100
	고졸	493	15.4	55.3	70.6	26.9	2.4	29.4	100
	대재 이상	584	14.4	52.7	67.1	30.5	2.4	32.9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0.0	65.0	95.0	5.0	0.0	5.0	100
	자영업	198	22.4	52.5	74.9	23.4	1.7	25.1	100
	블루 칼라	336	13.3	54.9	68.2	29.8	2.0	31.8	100
	화이트칼라	276	13.4	52.7	66.1	30.8	3.1	33.9	100
	전업 주부	243	14.2	60.1	74.4	23.9	1.7	25.6	100
	무직/기타	127	13.5	54.6	68.1	29.7	2.3	31.9	100
	200만원 미만	117	14.9	63.7	78.7	19.8	1.5	21.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5.1	61.1	76.2	22.6	1.2	23.8	100
	300~399만원	366	13.6	54.3	67.9	30.6	1.5	32.1	100
	400만원 이상	514	16.7	51.5	68.2	28.7	3.1	31.8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4.2	51.6	65.9	32.1	2.1	34.1	100
	충청권	122	15.7	57.4	73.1	26.2	0.7	26.9	100
	호남권	118	18.2	52.7	70.9	28.4	0.7	29.1	100
	영남권	310	14.3	62.2	76.5	20.7	2.8	23.5	100
	강원	36	21.6	62.2	83.8	7.2	9.0	16.2	100
	제주	14	37.6	37.5	75.2	24.8	0.0	24.8	100
	대도시	554	15.6	53.7	69.3	29.2	1.6	30.7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13.8	56.2	70.0	27.2	2.8	30.0	100
	읍/면	66	25.8	58.9	84.7	14.0	1.3	15.3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9.3	45.9	65.2	32.7	2.2	34.8	100
	중도	593	10.6	57.6	68.2	30.1	1.7	31.8	100
	보수적	313	20.5	59.3	79.9	17.2	3.0	20.1	100
	불교	248	21.2	56.1	77.3	21.5	1.2	22.7	100
종교별	기독교	245	21.9	50.6	72.4	24.0	3.6	27.6	100
	천주교	70	13.2	49.7	62.8	37.2	0.0	37.2	100
	기타	3	28.4	71.6	10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0.8	56.9	67.7	30.2	2.1	32.3	100
	모름/무응답	11	0.0	73.3	73.3	15.7	11.1	26.7	100

표 48.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모름/ 무응답	계	평균
			%	%	%	%	%	%	%	%	%	%	%	%	점
	전 체	1200	0.5	1.3	2.4	4.6	11.4	20.9	27.0	23.9	6.9	1.0	0.2	100	6.7
성별	남자	607	0.6	1.4	2.7	5.3	12.1	19.2	26.2	24.2	7.3	0.7	0.3	100	6.6
	여자	593	0.3	1.2	2.0	4.0	10.6	22.6	27.8	23.7	6.6	1.3	0.0	100	6.7
연령별	19~29세	227	0.9	1.0	1.3	8.6	11.8	21.7	27.8	21.3	4.6	0.6	0.4	100	6.5
	30대	238	0.6	2.9	5.7	5.3	11.8	23.2	26.8	18.9	3.9	0.9	0.0	100	6.3
	40대	275	0.7	0.6	2.3	2.6	14.0	20.3	29.5	24.0	5.5	0.6	0.0	100	6.6
	50대	254	0.0	0.5	1.5	5.4	9.6	22.1	25.8	23.9	9.9	1.0	0.4	100	6.8
	60대 이상	206	0.0	1.7	0.8	1.3	9.2	16.4	24.5	32.7	11.3	2.1	0.0	100	7.1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0.0	1.9	0.3	2.7	9.7	12.6	22.0	37.3	10.6	2.9	0.0	100	7.2
	고졸	493	0.5	0.8	2.2	4.0	12.4	21.0	27.8	21.8	8.2	1.3	0.2	100	6.7
	대재 이상	584	0.5	1.6	2.9	5.6	10.9	22.5	27.4	23.0	5.1	0.3	0.2	100	6.5
	농/수/축산업	20	0.0	3.9	0.0	0.0	20.1	6.0	23.1	30.4	16.4	0.0	0.0	100	7.0
직업별	자영업	198	0.0	1.1	1.2	5.2	10.7	20.0	24.7	27.2	8.2	1.8	0.0	100	6.8
	블루 칼라	336	0.7	1.0	2.6	4.2	13.3	19.6	26.6	22.7	7.9	1.0	0.3	100	6.6
	화이트칼라	276	0.7	2.5	3.9	8.3	9.8	20.6	27.9	20.0	5.3	0.5	0.4	100	6.4
	전업 주부	243	0.5	0.5	1.3	1.3	9.6	24.6	28.5	25.1	7.4	1.1	0.0	100	6.8
	무직/기타	127	0.0	0.7	2.4	4.0	12.6	21.0	27.5	27.6	3.5	0.7	0.0	100	6.7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0.0	0.0	2.8	0.7	11.3	19.0	28.2	30.5	6.1	1.4	0.0	100	6.9
	200~299만원	203	0.7	1.4	3.7	4.5	14.0	21.5	24.2	22.2	6.1	1.7	0.0	100	6.5
	300~399만원	366	0.3	0.9	2.3	5.2	13.5	19.9	24.7	24.4	8.0	0.7	0.2	100	6.7
	400만원 이상	514	0.6	1.8	1.7	5.2	8.9	21.6	29.5	22.8	6.7	0.8	0.2	100	6.6
	수도권	601	0.4	2.0	2.6	4.7	11.1	20.8	29.8	23.1	4.5	1.0	0.0	100	6.6
지역별	충청권	122	0.6	0.0	1.9	2.5	8.7	29.0	22.4	24.0	10.4	0.6	0.0	100	6.8
	호남권	118	0.0	1.9	4.7	6.7	16.5	21.9	17.6	19.7	11.0	0.0	0.0	100	6.4
	영남권	310	0.3	0.0	0.6	3.6	10.3	18.0	26.9	29.1	9.6	0.9	0.6	100	7.0
	강원	36	4.2	2.6	2.2	11.4	17.8	17.6	24.4	10.7	2.5	6.6	0.0	100	6.0
	제주	14	0.0	0.0	15.3	9.3	11.9	13.2	35.2	15.1	0.0	0.0	0.0	100	5.9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4	0.6	1.4	2.8	9.5	20.3	28.4	28.5	7.0	0.7	0.3	100	6.9
	중·소도시	580	0.4	2.1	3.4	6.2	13.2	23.2	27.0	18.4	4.6	1.4	0.0	100	6.4
	읍/면	66	1.1	0.0	1.2	6.5	10.5	4.7	15.0	33.9	27.0	0.0	0.0	100	7.3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0.7	1.0	2.5	6.1	13.2	20.3	28.6	21.4	5.3	0.9	0.0	100	6.5
	중도	593	0.5	1.3	1.9	3.9	11.8	22.6	27.9	23.7	5.8	0.5	0.2	100	6.6
	보수적	313	0.2	1.5	3.1	4.7	8.8	18.1	23.8	26.8	10.6	2.1	0.3	100	6.8
종교별	불교	248	0.0	1.0	1.2	3.7	12.5	16.6	27.5	29.6	7.4	0.0	0.4	100	6.8
	기독교	245	0.5	3.1	1.2	5.6	13.0	21.8	23.2	23.1	5.7	2.8	0.0	100	6.6
	천주교	70	0.0	0.0	4.2	3.4	19.3	23.9	14.9	23.8	10.5	0.0	0.0	100	6.6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65.6	34.4	0.0	0.0	100	8.3
	종교없음	624	0.7	0.8	2.9	4.7	9.3	21.7	30.1	22.1	6.9	0.8	0.0	100	6.6
	모름/무응답	11	0.0	0.0	11.1	7.5	22.2	33.7	6.4	11.0	0.0	0.0	8.1	100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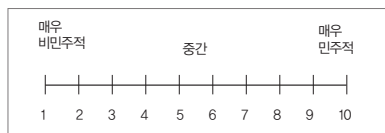


표 49.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	계
			%	%	%	%	%	%	%
	전 체	1200	6.4	48.4	54.8	40.1	5.1	45.2	100
성별	남자	607	6.9	46.9	53.8	39.6	6.6	46.2	100
	여자	593	5.8	50.1	55.9	40.5	3.6	44.1	100
연령별	19~29세	227	10.2	41.8	52.0	45.4	2.6	48.0	100
	30대	238	5.7	49.3	55.0	38.9	6.1	45.0	100
	40대	275	6.6	49.1	55.6	39.3	5.1	44.4	100
	50대	254	5.1	50.7	55.8	37.1	7.1	44.2	100
	60대 이상	206	4.3	51.2	55.5	40.1	4.4	44.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6	50.7	53.3	41.5	5.2	46.7	100
	고졸	493	5.2	47.2	52.4	41.3	6.4	47.6	100
	대재 이상	584	8.2	49.0	57.2	38.7	4.0	42.8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9	61.5	69.4	30.6	0.0	30.6	100
	자영업	198	5.6	53.5	59.2	34.9	6.0	40.8	100
	블루 칼라	336	5.3	44.6	49.8	43.2	6.9	50.2	100
	화이트칼라	276	9.7	49.2	58.9	36.0	5.1	41.1	100
	전업 주부	243	4.3	51.0	55.2	40.8	3.9	44.8	100
	무직/기타	127	7.1	42.2	49.3	48.6	2.1	50.7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1	43.4	46.5	46.3	7.2	53.5	100
	200~299만원	203	3.8	46.7	50.4	43.6	6.0	49.6	100
	300~399만원	366	5.4	46.2	51.6	41.7	6.7	48.4	100
	400만원 이상	514	8.8	51.9	60.8	36.1	3.1	39.2	100
	수도권	601	7.3	51.5	58.9	37.6	3.5	41.1	100
지역별	충청권	122	5.9	51.4	57.3	40.9	1.8	42.7	100
	호남권	118	7.5	55.6	63.0	31.7	5.3	37.0	100
	영남권	310	4.4	37.5	41.9	48.8	9.3	58.1	100
	강원	36	2.0	50.6	52.5	38.5	9.0	47.5	100
	제주	14	15.9	66.1	82.1	17.9	0.0	17.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6.1	48.5	54.5	40.2	5.3	45.5	100
	중·소도시	580	6.7	46.5	53.1	41.3	5.5	46.9	100
	읍/면	66	6.5	65.6	72.1	27.9	0.0	27.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9.1	48.4	57.4	36.9	5.7	42.6	100
	중도	593	4.3	49.9	54.3	41.6	4.1	45.7	100
	보수적	313	7.7	45.7	53.5	40.1	6.5	46.5	100
종교별	불교	248	6.4	50.7	57.1	35.5	7.3	42.9	100
	기독교	245	6.6	51.0	57.6	38.7	3.7	42.4	100
	천주교	70	11.4	52.7	64.1	30.8	5.1	35.9	100
	기타	3	0.0	65.6	65.6	34.4	0.0	34.4	100
	종교없음	624	5.5	45.9	51.4	43.7	4.9	48.6	100
	모름/무응답	11	22.3	51.1	73.4	26.6	0.0	26.6	100

표 50.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문)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다소 관심이 있다	①+②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계
			%	%	%	%	%	%	%
성별	전 체	1200	7.1	35.3	42.4	46.9	10.7	57.6	100
	남자	607	8.7	38.7	47.4	43.3	9.3	52.6	100
	여자	593	5.5	31.9	37.4	50.5	12.1	62.6	100
연령별	19~29세	227	3.7	33.4	37.0	46.3	16.7	63.0	100
	30대	238	3.6	36.1	39.7	51.5	8.7	60.3	100
	40대	275	7.1	33.9	41.1	47.3	11.6	58.9	100
	50대	254	9.3	38.1	47.4	43.5	9.0	52.6	100
	60대 이상	206	12.1	35.0	47.2	45.5	7.3	52.8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4.9	36.7	41.6	47.3	11.1	58.4	100
	고졸	493	7.7	34.7	42.5	45.3	12.2	57.5	100
	대재 이상	584	7.0	35.6	42.6	48.1	9.3	57.4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7.8	37.3	55.1	44.9	0.0	44.9	100
	자영업	198	15.4	32.9	48.3	43.1	8.5	51.7	100
	블루 칼라	336	5.4	30.5	35.9	48.8	15.2	64.1	100
	화이트칼라	276	6.5	40.6	47.0	43.6	9.4	53.0	100
	전업 주부	243	4.5	36.5	41.0	52.2	6.8	59.0	100
	무직/기타	127	3.1	38.0	41.0	44.5	14.4	59.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3.7	38.2	41.9	40.4	17.8	58.1	100
	200~299만원	203	3.8	32.0	35.8	54.6	9.6	64.2	100
	300~399만원	366	6.9	32.6	39.5	50.7	9.8	60.5	100
	400만원 이상	514	9.3	37.9	47.3	42.5	10.2	52.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9.7	37.5	47.2	44.1	8.7	52.8	100
	충청권	122	1.9	25.2	27.1	55.0	17.9	72.9	100
	호남권	118	4.5	33.8	38.3	52.5	9.2	61.7	100
	영남권	310	4.9	35.1	40.0	48.9	11.1	60.0	100
	강원	36	4.1	41.9	46.0	36.0	18.0	54.0	100
	제주	14	16.0	35.1	51.1	30.3	18.6	48.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6.9	32.5	39.4	51.9	8.7	60.6	100
	중·소도시	580	7.2	39.4	46.6	42.1	11.3	53.4	100
	읍/면	66	7.6	23.9	31.5	46.3	22.3	68.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0.4	40.6	51.0	42.8	6.2	49.0	100
	중도	593	3.6	34.0	37.6	50.0	12.4	62.4	100
	보수적	313	10.6	33.1	43.7	44.7	11.7	56.3	100
종교별	불교	248	10.4	37.7	48.1	40.2	11.7	51.9	100
	기독교	245	7.5	38.7	46.2	45.8	8.0	53.8	100
	천주교	70	9.9	35.2	45.1	49.2	5.8	54.9	100
	기타	3	0.0	37.1	37.1	62.9	0.0	62.9	100
	종교없음	624	5.3	33.2	38.5	50.1	11.4	61.5	100
	모름/무응답	11	11.3	28.8	40.1	18.5	41.4	59.9	100

표 51.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진보적	② 약간 진보적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계
			%	%	%	%	%	%	%	%
성별	전 체	1200	2.6	21.9	24.5	49.4	23.4	2.7	26.1	100
	남자	607	2.9	23.8	26.7	47.0	23.8	2.4	26.2	100
	여자	593	2.3	19.9	22.2	51.9	22.9	3.1	25.9	100
연령별	19~29세	227	5.9	30.0	35.9	50.5	13.2	0.4	13.6	100
	30대	238	1.3	28.2	29.5	60.5	9.2	0.8	10.0	100
	40대	275	2.2	22.2	24.4	56.2	19.1	0.3	19.4	100
	50대	254	1.6	17.6	19.2	44.4	32.2	4.2	36.4	100
	60대 이상	206	2.5	10.3	12.8	32.6	45.7	8.9	54.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0	13.7	15.7	41.2	36.9	6.2	43.1	100
	고졸	493	1.5	17.5	18.9	46.5	30.8	3.9	34.6	100
	대재 이상	584	3.7	27.3	31.0	53.6	14.3	1.1	15.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9	24.9	28.9	50.3	20.8	0.0	20.8	100
	자영업	198	2.5	19.1	21.5	38.0	35.9	4.6	40.5	100
	블루 칼라	336	1.4	19.0	20.3	54.0	22.8	2.8	25.7	100
	화이트칼라	276	3.7	29.5	33.2	52.1	14.1	0.6	14.7	100
	전업 주부	243	0.8	16.7	17.5	51.5	28.5	2.4	31.0	100
	무직/기타	127	7.0	26.8	33.8	45.3	15.8	5.1	20.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1.0	15.5	16.5	45.7	30.9	6.9	37.8	100
	200~299만원	203	2.1	18.0	20.1	50.0	26.8	3.1	29.9	100
	300~399만원	366	3.1	21.3	24.4	52.1	21.7	1.9	23.6	100
	400만원 이상	514	2.9	25.3	28.1	48.1	21.5	2.2	23.7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6	24.0	26.6	47.7	22.9	2.8	25.6	100
	충청권	122	2.0	21.0	22.9	48.5	27.5	1.1	28.6	100
	호남권	118	6.7	22.1	28.8	53.7	16.8	0.6	17.5	100
	영남권	310	1.5	19.1	20.7	50.5	25.4	3.4	28.8	100
	강원	36	0.0	11.1	11.1	55.1	25.0	8.7	33.7	100
	제주	14	6.2	23.1	29.4	55.2	12.1	3.4	15.4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7	21.2	23.8	50.7	23.4	2.1	25.5	100
	중·소도시	580	2.4	22.9	25.3	47.0	24.1	3.7	27.7	100
	읍/면	66	4.2	18.6	22.8	60.3	16.9	0.0	16.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0.7	89.3	100.0	0.0	0.0	0.0	0.0	100
	중도	593	0.0	0.0	0.0	100.0	0.0	0.0	0.0	100
	보수적	313	0.0	0.0	0.0	0.0	89.5	10.5	100.0	100
종교별	불교	248	0.8	19.4	20.3	42.7	29.9	7.2	37.1	100
	기독교	245	4.8	19.3	24.1	51.0	23.2	1.6	24.9	100
	천주교	70	5.0	17.1	22.1	51.7	25.1	1.1	26.1	100
	기타	3	0.0	34.4	34.4	65.6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2.3	24.3	26.6	51.1	20.7	1.7	22.3	100
	모름/무응답	11	0.0	22.2	22.2	52.7	25.0	0.0	25.0	100

표 52.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계
			%	%	%	%	%
전 체	남자	1200	26.9	12.9	1.0	59.2	100
	여자	593	27.6	13.8	1.6	58.2	100
연령별	19~29세	227	6.7	9.7	1.7	81.8	100
	30대	238	14.5	16.5	1.2	67.8	100
	40대	275	21.9	15.7	1.0	61.3	100
	50대	254	38.5	11.5	0.0	50.0	100
	60대 이상	206	56.0	10.5	0.9	32.5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52.5	8.8	0.0	38.8	100
	고졸	493	33.2	11.4	0.8	54.6	100
	대재 이상	584	16.3	15.1	1.3	67.3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3.0	19.1	3.9	44.0	100
	자영업	198	36.2	12.6	1.0	50.2	100
	블루 칼라	336	26.0	10.3	0.9	62.8	100
	화이트칼라	276	17.1	16.7	1.8	64.3	100
	전업 주부	243	35.1	13.2	0.4	51.3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9.6	10.6	0.0	69.8	100
	200만원 미만	117	47.6	8.1	0.0	44.3	100
	200~299만원	203	27.7	9.0	0.8	62.5	100
	300~399만원	366	23.2	14.3	0.2	62.3	100
	400만원 이상	514	24.6	14.7	1.8	59.0	100
지역별	수도권	601	27.2	12.3	1.0	59.4	100
	충청권	122	25.0	8.6	0.0	66.4	100
	호남권	118	5.3	35.0	1.3	58.4	100
	영남권	310	36.0	6.9	1.3	55.8	100
	강원	36	27.4	10.8	0.0	61.8	100
지역 크기	제주	14	12.2	29.0	0.0	58.8	100
	대도시	554	27.0	12.8	1.5	58.7	100
	중·소도시	580	27.9	13.0	0.6	58.6	100
	읍/면	66	18.2	13.9	0.0	67.9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8.7	25.8	2.6	52.9	100
	중도	593	17.0	9.3	0.4	73.4	100
	보수적	313	53.5	7.8	0.5	38.1	100
	불교	248	42.9	9.9	0.4	46.8	100
종교별	기독교	245	27.4	14.2	0.7	57.8	100
	천주교	70	23.1	21.7	3.2	52.0	100
	기타	3	37.1	0.0	0.0	62.9	100
	종교없음	624	21.1	12.7	1.1	65.1	100
	모름/무응답	11	11.2	11.3	0.0	77.5	100

표 53.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 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 하고 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남자	1200	5.3	38.3	43.6	43.3	12.9	56.3	0.1	100
	여자	593	7.0	40.8	47.7	41.0	11.2	52.3	0.0	100
연령별	19~29세	227	2.6	17.9	20.6	60.1	18.9	79.0	0.4	100
	30대	238	1.7	32.4	34.1	49.9	16.0	65.9	0.0	100
	40대	275	3.8	36.0	39.8	45.7	14.4	60.2	0.0	100
	50대	254	6.3	49.1	55.4	35.6	9.0	44.6	0.0	100
	60대 이상	206	13.3	57.4	70.7	23.7	5.6	29.3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14.2	58.5	72.7	21.4	5.9	27.3	0.0	100
	고졸	493	6.1	45.1	51.1	38.3	10.6	48.9	0.0	100
	대재 이상	584	2.8	28.4	31.2	52.2	16.4	68.6	0.2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1	58.9	74.0	16.1	9.9	26.0	0.0	100
	자영업	198	7.5	44.8	52.4	39.4	8.2	47.6	0.0	100
	블루 칼라	336	4.6	38.3	42.9	45.3	11.8	57.1	0.0	100
	화이트칼라	276	3.9	29.4	33.2	50.4	16.1	66.4	0.3	100
	전업 주부	243	6.6	49.1	55.7	34.6	9.7	44.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3.1	23.5	26.5	50.2	23.2	73.5	0.0	100
	200만원 미만	117	9.5	52.8	62.4	27.2	10.5	37.6	0.0	100
	200~299만원	203	7.5	37.7	45.2	40.0	14.8	54.8	0.0	100
	300~399만원	366	2.3	38.1	40.4	47.0	12.6	59.6	0.0	100
	400만원 이상	514	5.7	35.4	41.1	45.8	13.0	58.7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6.2	37.0	43.2	48.6	8.2	56.8	0.0	100
	충청권	122	4.5	50.1	54.6	31.6	13.8	45.4	0.0	100
	호남권	118	0.7	18.6	19.3	42.4	37.5	79.9	0.8	100
	영남권	310	4.8	44.3	49.1	40.4	10.5	50.9	0.0	100
	강원	36	11.3	35.8	47.1	26.0	26.9	52.9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12.2	31.4	43.6	38.0	18.4	56.4	0.0	100
	대도시	554	3.0	34.4	37.3	49.0	13.7	62.7	0.0	100
	중·소도시	580	7.3	42.0	49.3	38.9	11.6	50.5	0.2	100
	읍/면	66	7.9	38.7	46.6	35.2	18.2	53.4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4.6	30.4	35.0	47.0	17.6	64.6	0.3	100
	중도	593	3.5	33.8	37.3	49.3	13.4	62.7	0.0	100
	보수적	313	9.5	54.2	63.7	28.6	7.7	36.3	0.0	100
	불교	248	11.0	49.6	60.6	31.3	8.1	39.4	0.0	100
종교별	기독교	245	5.0	40.4	45.4	42.0	12.2	54.2	0.4	100
	천주교	70	7.6	33.8	41.4	48.8	9.8	58.6	0.0	100
	기타	3	0.0	71.6	71.6	28.4	0.0	28.4	0.0	100
	종교없음	624	3.1	33.3	36.4	48.8	14.8	63.6	0.0	100
	모름/무응답	11	0.0	40.1	40.1	8.1	51.8	59.9	0.0	100

표 54-1. 다문화 관련 인식

-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5.8	47.2	63.0	25.1	10.5	1.3	11.8	0.1	100
성별	남자	607	17.7	45.0	62.7	26.2	9.7	1.4	11.0	0.0	100
	여자	593	13.8	49.5	63.3	23.9	11.4	1.2	12.5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17.7	49.3	67.0	24.6	8.0	0.4	8.4	0.0	100
	30대	238	13.7	49.3	63.0	25.9	9.7	1.4	11.2	0.0	100
	40대	275	17.4	44.6	62.0	26.2	10.7	1.1	11.7	0.0	100
	50대	254	15.6	47.2	62.8	25.2	10.4	1.2	11.6	0.5	100
	60대 이상	206	14.2	46.1	60.3	23.2	14.1	2.5	16.6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9.8	43.9	53.7	27.7	16.5	2.1	18.6	0.0	100
	고졸	493	12.4	47.6	60.1	28.0	10.3	1.4	11.7	0.3	100
	대재 이상	584	19.9	47.6	67.4	22.1	9.5	1.0	10.4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3.4	30.7	64.1	30.9	5.1	0.0	5.1	0.0	100
	자영업	198	19.6	50.7	70.3	20.4	8.7	0.6	9.3	0.0	100
	블루 칼라	336	12.9	46.1	58.9	27.8	11.7	1.6	13.2	0.0	100
	화이트칼라	276	18.8	44.4	63.2	27.1	8.4	1.4	9.8	0.0	100
	전업 주부	243	10.7	50.6	61.3	23.2	13.8	1.2	15.0	0.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18.0	47.2	65.1	23.8	9.4	1.7	11.0	0.0	100
	200만원 미만	117	17.3	42.1	59.3	26.4	12.8	1.5	14.3	0.0	100
	200~299만원	203	15.3	52.5	67.8	22.3	9.9	0.0	9.9	0.0	100
	300~399만원	366	18.0	46.4	64.3	22.8	10.8	2.0	12.9	0.0	100
	400만원 이상	514	14.0	46.9	61.0	27.6	10.0	1.2	11.2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2.0	56.7	68.7	20.7	9.2	1.2	10.4	0.2	100
	충청권	122	18.3	43.0	61.3	26.9	10.4	1.4	11.9	0.0	100
	호남권	118	40.0	32.6	72.5	18.0	7.3	2.1	9.4	0.0	100
	영남권	310	10.5	37.4	47.9	36.5	14.6	0.9	15.6	0.0	100
	강원	36	24.5	37.7	62.3	24.6	11.0	2.1	13.1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46.2	44.5	90.7	6.4	2.9	0.0	2.9	0.0	100
	대도시	554	13.1	50.6	63.7	27.2	8.6	0.3	9.0	0.2	100
	중·소도시	580	15.5	46.0	61.5	23.4	12.8	2.3	15.1	0.0	100
	읍/면	66	40.5	29.8	70.3	23.2	6.5	0.0	6.5	0.0	100
	진보적	294	21.9	50.0	71.9	20.1	7.6	0.4	8.0	0.0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14.3	47.2	61.5	27.0	10.8	0.8	11.6	0.0	100
	보수적	313	12.7	44.8	57.5	26.3	12.8	3.0	15.8	0.4	100
	불교	248	15.1	41.9	57.0	28.7	11.5	2.8	14.3	0.0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9.0	51.2	70.2	18.9	10.2	0.7	10.8	0.0	100
	천주교	70	16.7	38.9	55.6	33.3	11.1	0.0	11.1	0.0	100
	기타	3	28.4	71.6	100.0	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14.9	48.7	63.6	25.1	10.2	0.9	11.1	0.2	100
	모름/무응답	11	0.0	41.2	41.2	36.4	11.2	11.1	22.3	0.0	100

표 54-2. 다문화 관련 인식

-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8.5	27.5	36.0	44.0	17.5	2.3	19.9	0.1	100
성별	남자	607	8.9	25.4	34.3	42.8	19.5	3.4	22.9	0.0	100
	여자	593	8.2	29.6	37.8	45.2	15.5	1.2	16.8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9.7	26.1	35.7	43.5	19.2	1.6	20.8	0.0	100
	30대	238	12.5	24.5	37.0	43.7	17.2	2.1	19.2	0.0	100
	40대	275	5.5	28.1	33.6	46.1	18.0	2.4	20.4	0.0	100
	50대	254	8.4	27.8	36.2	43.4	16.3	3.6	19.9	0.5	100
	60대 이상	206	7.0	31.1	38.1	42.9	17.1	1.8	19.0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6	36.4	39.0	43.1	17.3	0.6	18.0	0.0	100
	고졸	493	8.6	27.6	36.2	45.4	16.4	1.8	18.1	0.3	100
	대재 이상	584	9.7	25.5	35.2	43.0	18.6	3.2	21.8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1	33.8	38.9	26.9	34.3	0.0	34.3	0.0	100
	자영업	198	9.2	25.9	35.1	44.7	16.8	3.5	20.2	0.0	100
	블루 칼라	336	7.2	25.7	32.9	48.8	17.3	1.0	18.3	0.0	100
	화이트칼라	276	10.6	27.6	38.2	40.1	17.5	4.2	21.7	0.0	100
	전업 주부	243	8.5	31.0	39.5	44.5	14.8	0.7	15.5	0.5	100
가구 소득 수준	무직/기타	127	7.4	26.4	33.9	40.5	22.2	3.4	25.6	0.0	100
	200만원 미만	117	3.8	31.8	35.6	47.8	14.4	2.2	16.6	0.0	100
	200~299만원	203	5.7	29.9	35.6	38.5	24.9	1.1	25.9	0.0	100
	300~399만원	366	9.8	24.8	34.6	44.2	19.1	2.2	21.3	0.0	100
	400만원 이상	514	9.9	27.4	37.3	45.2	14.3	3.0	17.2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13.2	29.1	42.2	42.8	12.8	2.0	14.8	0.2	100
	충청권	122	3.3	27.4	30.7	56.5	9.5	3.4	12.8	0.0	100
	호남권	118	7.2	22.5	29.6	45.3	23.0	2.0	25.0	0.0	100
	영남권	310	2.5	26.6	29.1	41.2	27.5	2.2	29.7	0.0	100
	강원	36	6.6	19.9	26.4	42.6	24.4	6.6	31.0	0.0	100
지역 크기	제주	14	6.4	40.8	47.1	40.4	9.3	3.2	12.4	0.0	100
	대도시	554	6.1	23.8	29.9	50.9	16.6	2.3	19.0	0.2	100
	중·소도시	580	11.7	32.3	44.0	37.2	16.6	2.2	18.8	0.0	100
	읍/면	66	1.6	15.8	17.4	45.7	33.1	3.9	37.0	0.0	100
	진보적	294	8.5	25.1	33.5	47.2	16.4	2.9	19.2	0.0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7.6	28.3	35.9	43.3	19.2	1.7	20.9	0.0	100
	보수적	313	10.4	28.2	38.6	42.3	15.5	3.1	18.6	0.4	100
	불교	248	7.5	30.1	37.6	46.7	12.2	3.4	15.7	0.0	100
종교별	기독교	245	9.3	24.9	34.2	49.7	12.4	3.7	16.1	0.0	100
	천주교	70	9.2	29.4	38.6	39.3	20.9	1.2	22.0	0.0	100
	기타	3	0.0	28.4	28.4	0.0	71.6	0.0	71.6	0.0	100
	종교없음	624	8.6	27.5	36.1	41.2	21.2	1.3	22.5	0.2	100
	모름/무응답	11	11.2	11.3	22.5	55.4	11.0	11.1	22.1	0.0	100

표 54-3.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8.4	47.0	55.4	32.7	10.0	1.8	11.7	0.1	100
성별	남자	607	8.8	46.6	55.3	31.4	11.3	2.0	13.2	0.0	100
	여자	593	8.0	47.5	55.5	34.1	8.7	1.5	10.2	0.2	100
연령별	19~29세	227	9.6	46.9	56.5	33.2	9.0	1.3	10.3	0.0	100
	30대	238	8.6	49.6	58.2	31.8	8.4	1.6	10.0	0.0	100
	40대	275	11.1	45.4	56.5	31.6	10.2	1.6	11.8	0.0	100
	50대	254	5.4	48.3	53.7	32.6	10.9	2.4	13.3	0.5	100
	60대 이상	206	6.7	44.8	51.6	35.0	11.5	1.9	13.4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7.0	46.2	53.2	35.7	11.1	0.0	11.1	0.0	100
	고졸	493	6.8	47.0	53.8	35.8	8.4	1.7	10.1	0.3	100
	대재 이상	584	10.0	47.3	57.2	29.5	11.1	2.2	13.3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8	38.4	44.2	43.9	11.9	0.0	11.9	0.0	100
	자영업	198	9.6	41.6	51.2	33.2	11.8	3.7	15.5	0.0	100
	블루 칼라	336	6.9	51.1	57.9	34.1	7.2	0.8	8.0	0.0	100
	화이트칼라	276	10.9	48.1	59.0	26.9	13.0	1.0	14.1	0.0	100
	전업 주부	243	6.0	46.2	52.2	35.4	10.5	1.5	12.0	0.5	100
	무직/기타	127	9.8	45.5	55.3	34.3	6.6	3.7	10.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8.4	41.7	50.1	40.9	8.3	0.7	9.0	0.0	100
	200~299만원	203	7.3	50.4	57.7	29.3	12.1	0.9	12.9	0.0	100
	300~399만원	366	6.9	44.1	51.0	36.5	10.4	2.1	12.5	0.0	100
	400만원 이상	514	9.8	49.0	58.8	29.6	9.3	2.1	11.4	0.2	100
지역별	수도권	601	8.0	49.2	57.3	30.8	10.3	1.4	11.7	0.2	100
	충청권	122	11.5	42.1	53.6	34.2	9.6	2.6	12.2	0.0	100
	호남권	118	11.4	51.8	63.2	25.6	11.2	0.0	11.2	0.0	100
	영남권	310	4.6	44.7	49.3	39.7	8.8	2.1	11.0	0.0	100
	강원	36	22.4	33.5	55.9	22.2	13.2	8.8	22.0	0.0	100
	제주	14	18.8	40.1	58.9	34.6	6.5	0.0	6.5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8.0	44.0	52.0	35.6	10.2	1.9	12.1	0.2	100
	중·소도시	580	9.2	52.1	61.4	28.3	8.8	1.5	10.4	0.0	100
	읍/면	66	3.5	28.1	31.6	47.7	18.2	2.4	20.6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1.2	51.8	63.0	29.9	5.9	1.2	7.1	0.0	100
	중도	593	7.6	46.2	53.8	33.6	11.6	0.9	12.5	0.0	100
	보수적	313	7.2	44.1	51.2	33.7	10.9	3.8	14.7	0.4	100
종교별	불교	248	8.0	48.9	56.9	35.4	6.0	1.7	7.7	0.0	100
	기독교	245	11.1	48.5	59.6	28.5	10.2	1.8	11.9	0.0	100
	천주교	70	6.4	50.9	57.3	31.2	10.3	1.2	11.5	0.0	1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
	종교없음	624	7.6	45.7	53.2	33.7	11.1	1.7	12.8	0.2	100
	모름/무응답	11	17.6	11.0	28.6	30.3	30.0	11.1	41.1	0.0	100

표 55.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중간보다 훨씬 높다	② 중간보다 약간 높다	①+②	③ 중간과 비슷하다	④ 중간보다 약간 낮다	⑤ 중간보다 훨씬 낮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8	8.8	10.6	53.9	28.5	7.0	35.5	100
성별	남자	607	1.7	9.2	11.0	54.4	27.8	6.8	34.7	100
	여자	593	1.9	8.4	10.2	53.4	29.2	7.2	36.4	100
연령별	19~29세	227	3.9	9.2	13.0	59.8	24.9	2.3	27.1	100
	30대	238	1.3	6.3	7.6	60.3	26.7	5.4	32.1	100
	40대	275	1.2	10.4	11.6	58.8	24.0	5.6	29.5	100
	50대	254	2.5	11.6	14.1	49.2	29.9	6.9	36.7	100
	60대 이상	206	0.0	5.7	5.7	39.0	39.0	16.3	55.3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0.0	5.4	5.4	27.6	45.0	22.0	67.0	100
	고졸	493	1.4	6.9	8.3	51.0	32.6	8.1	40.7	100
	대재 이상	584	2.5	11.1	13.6	61.8	21.6	3.0	24.6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0.0	0.0	43.2	35.9	20.9	56.8	100
	자영업	198	2.3	10.7	12.9	50.8	31.4	4.8	36.2	100
	블루 칼라	336	1.4	7.6	9.0	48.1	35.6	7.3	43.0	100
	화이트칼라	276	3.4	11.1	14.5	64.0	18.4	3.1	21.5	100
	전업 주부	243	0.8	6.5	7.3	54.1	28.9	9.7	38.6	100
	무직/기타	127	1.0	9.9	10.8	53.1	25.2	10.9	36.1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0.0	3.5	3.5	17.4	44.8	34.3	79.2	100
	200~299만원	203	0.0	1.5	1.5	44.8	42.4	11.4	53.8	100
	300~399만원	366	0.5	4.1	4.6	58.5	32.6	4.3	36.9	100
	400만원 이상	514	3.8	16.3	20.1	62.5	16.4	1.0	17.4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1	11.6	14.7	54.2	25.2	5.9	31.2	100
	충청권	122	0.6	10.1	10.7	67.5	18.5	3.3	21.8	100
	호남권	118	0.8	4.6	5.3	41.9	39.4	13.4	52.8	100
	영남권	310	0.0	4.2	4.2	55.4	34.4	6.1	40.4	100
	강원	36	4.4	9.3	13.7	30.2	29.0	27.1	56.1	100
	제주	14	0.0	12.6	12.6	50.4	33.9	3.1	37.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0.6	7.9	8.5	56.1	29.4	6.1	35.5	100
	중·소도시	580	3.1	10.2	13.3	53.0	26.1	7.6	33.7	100
	읍/면	66	0.0	4.5	4.5	43.2	42.9	9.5	52.4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3.2	11.2	14.4	55.5	25.1	5.1	30.2	100
	중도	593	1.2	6.3	7.5	57.4	28.5	6.6	35.1	100
	보수적	313	1.7	11.3	13.0	45.7	31.7	9.6	41.3	100
종교별	불교	248	1.0	9.5	10.5	51.3	29.6	8.5	38.2	100
	기독교	245	1.5	9.1	10.6	52.1	31.5	5.7	37.2	100
	천주교	70	0.0	11.4	11.4	48.7	31.2	8.7	39.9	100
	기타	3	0.0	0.0	0.0	65.6	0.0	34.4	34.4	100
	종교없음	624	2.5	8.1	10.6	56.1	26.8	6.5	33.3	100
	모름/무응답	11	0.0	11.2	11.2	51.1	26.6	11.1	37.7	100

표 56.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①+②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③+④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⑤+⑥	계
			%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1.1	6.5	7.6	22.5	44.0	66.5	20.2	5.7	25.9	100
	남자	607	1.2	6.3	7.5	23.7	41.2	64.9	21.2	6.4	27.6	100
연령별	여자	593	1.0	6.7	7.7	21.3	46.9	68.1	19.1	5.1	24.2	100
	19~29세	227	3.6	5.6	9.2	27.1	39.6	66.6	21.0	3.2	24.1	100
연령별	30대	238	1.3	6.6	7.9	21.2	50.1	71.3	15.9	4.8	20.7	100
	40대	275	0.5	7.7	8.1	28.3	42.5	70.8	17.8	3.3	21.1	100
연령별	50대	254	0.2	7.9	8.1	21.1	48.2	69.3	17.3	5.2	22.6	100
	60대 이상	206	0.0	4.0	4.0	12.9	38.7	51.6	30.8	13.6	44.4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0.0	3.3	3.3	9.1	30.1	39.2	39.2	18.4	57.5	100
	고졸	493	0.7	5.5	6.2	17.9	47.3	65.1	22.7	6.0	28.7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1.6	8.0	9.6	29.2	44.2	73.4	14.1	2.9	17.0	100
	농/수/축산업	20	0.0	0.0	0.0	23.1	26.7	49.8	30.1	20.1	50.2	100
직업별	자영업	198	0.2	8.9	9.1	27.9	40.7	68.6	20.1	2.2	22.2	100
	블루 칼라	336	1.1	5.4	6.5	14.4	46.3	60.7	26.6	6.3	32.8	1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76	2.3	8.3	10.5	29.1	43.5	72.6	13.4	3.4	16.8	100
	전업 주부	243	0.3	5.7	6.0	20.0	47.3	67.2	19.0	7.8	26.8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1.5	4.4	5.9	26.0	40.7	66.7	18.6	8.7	27.4	100
	200만원 미만	117	0.0	1.1	1.1	6.9	26.8	33.6	38.3	27.0	65.3	1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0	5.1	5.1	10.4	42.4	52.8	31.6	10.6	42.1	100
	300~399만원	366	0.3	2.5	2.9	18.9	54.6	73.4	21.5	2.2	23.7	100
가구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514	2.3	11.1	13.4	33.5	41.0	74.5	10.6	1.5	12.1	100
	수도권	601	1.9	8.2	10.1	24.7	38.2	62.9	21.2	5.9	27.0	100
지역별	충청권	122	0.6	3.3	3.9	30.1	51.9	82.0	11.4	2.7	14.1	100
	호남권	118	0.0	3.6	3.6	16.8	53.4	70.2	21.0	5.2	26.3	100
지역별	영남권	310	0.0	5.8	5.8	17.6	49.9	67.5	21.8	5.0	26.8	100
	강원	36	2.0	4.6	6.6	22.1	33.2	55.3	15.6	22.5	38.1	100
지역별	제주	14	3.6	3.6	7.2	21.7	43.9	65.6	21.0	6.2	27.2	100
	대도시	554	0.2	5.4	5.6	25.0	47.8	72.8	17.7	3.9	21.6	1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80	2.0	8.1	10.1	21.5	39.0	60.4	22.1	7.3	29.5	100
	읍/면	66	0.7	1.2	1.9	11.0	56.6	67.6	23.7	6.8	30.5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3	7.4	8.7	29.9	41.4	71.3	15.4	4.6	20.0	100
	중도	593	0.9	5.7	6.6	21.5	44.0	65.5	21.5	6.4	27.9	1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313	1.3	7.1	8.4	17.5	46.4	63.9	22.1	5.6	27.7	100
	불교	248	0.5	9.3	9.8	16.6	47.1	63.7	22.3	4.2	26.5	100
종교별	기독교	245	1.8	3.9	5.8	24.7	43.3	68.0	21.0	5.2	26.2	100
	천주교	70	0.7	2.8	3.5	29.4	32.0	61.4	25.9	9.3	35.2	100
종교별	기타	3	0.0	0.0	0.0	28.4	37.1	65.6	0.0	34.4	34.4	100
	종교없음	624	1.1	6.9	8.0	22.9	44.9	67.8	18.4	5.8	24.1	100
종교별	모름/무응답	11	0.0	0.0	0.0	41.0	14.5	55.5	22.1	22.3	44.5	100

표 57.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 졌다	② 약간 좋아 졌다	①+②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 졌다	⑤ 훨씬 나빠 졌다	④+⑤	잘 모르 겠다	계
			%	%	%	%	%	%	%	%	%
성별	전 체	1200	33.2	40.0	73.2	19.2	4.9	1.4	6.3	1.4	100
	남자	607	30.7	40.7	71.5	20.4	4.5	2.1	6.6	1.5	100
연령별	여자	593	35.7	39.2	74.9	18.0	5.3	0.6	5.9	1.2	100
	19~29세	227	29.4	41.6	70.9	20.9	4.7	1.2	5.9	2.2	100
연령별	30대	238	29.4	39.6	69.0	24.0	4.4	1.3	5.7	1.3	100
	40대	275	32.5	41.3	73.8	16.9	5.3	2.0	7.3	2.1	100
연령별	50대	254	34.8	38.6	73.3	19.4	5.4	1.3	6.7	0.5	100
	60대 이상	206	40.7	38.7	79.5	14.5	4.6	0.9	5.4	0.6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34.4	40.6	75.0	16.8	7.4	0.8	8.2	0.0	100
	고졸	493	33.4	37.7	71.1	21.4	5.4	0.9	6.3	1.2	100
교육 수준별	대재 이상	584	32.7	41.8	74.5	17.8	3.9	1.9	5.8	1.8	100
	농/수/축산업	20	29.9	51.7	81.5	12.5	0.0	5.9	5.9	0.0	100
직업별	자영업	198	41.7	42.2	83.9	11.6	2.3	1.5	3.8	0.6	100
	블루 칼라	336	28.3	40.8	69.1	22.4	6.7	1.1	7.9	0.6	100
직업별	화이트칼라	276	31.6	39.8	71.3	20.9	4.6	1.6	6.2	1.5	100
	전업 주부	243	35.8	37.6	73.4	20.1	4.7	0.4	5.0	1.5	100
직업별	무직/기타	127	32.0	37.4	69.4	18.3	6.0	2.4	8.4	3.9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27.3	35.3	62.6	21.2	13.7	2.1	15.8	0.4	100
	200~299만원	203	28.2	35.4	63.6	26.2	5.5	3.4	8.9	1.3	1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6	31.7	41.9	73.7	20.8	4.2	0.5	4.6	0.9	100
	400만원 이상	514	37.6	41.5	79.0	14.8	3.2	1.0	4.2	1.9	100
지역별	수도권	601	30.8	44.1	74.9	17.9	4.2	1.4	5.6	1.6	100
	충청권	122	21.5	50.1	71.7	23.8	3.3	1.2	4.5	0.0	100
지역별	호남권	118	44.0	28.9	72.9	17.9	5.9	2.7	8.6	0.7	100
	영남권	310	36.3	33.6	69.9	21.3	6.9	0.6	7.5	1.3	100
지역별	강원	36	46.6	27.0	73.5	15.5	2.2	4.7	6.9	4.1	100
	제주	14	43.2	41.7	84.9	9.0	2.9	0.0	2.9	3.3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30.8	41.7	72.5	20.5	5.4	1.3	6.7	0.4	100
	중·소도시	580	35.1	39.1	74.2	17.3	4.8	1.3	6.1	2.4	100
지역 크기	읍/면	66	36.1	33.7	69.7	25.0	2.4	2.2	4.6	0.7	100
	진보적	294	32.0	42.5	74.5	17.4	4.8	2.5	7.3	0.8	100
정치적 성향	중도	593	28.8	39.0	67.8	24.0	5.2	1.2	6.4	1.9	100
	보수적	313	42.6	39.5	82.1	11.9	4.5	0.6	5.1	1.0	100
종교별	불교	248	39.0	33.4	72.4	20.1	6.4	0.8	7.2	0.3	100
	기독교	245	34.6	40.2	74.8	18.9	4.0	1.8	5.8	0.5	100
종교별	천주교	70	35.5	49.4	84.9	8.9	1.4	1.3	2.7	3.6	100
	기타	3	28.4	0.0	28.4	71.6	0.0	0.0	0.0	0.0	100
종교별	종교없음	624	30.2	41.8	72.0	19.7	5.0	1.5	6.4	1.9	100
	모름/무응답	11	25.2	33.2	58.4	30.4	11.2	0.0	11.2	0.0	100

표 58.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전 체		1200	13.4	6.0	3.9	4.0	2.3	3.7	0.8	14.8	4.4
성별	남자	607	13.3	5.3	3.8	5.0	2.0	3.7	0.5	15.4	4.0
	여자	593	13.4	6.6	4.1	3.1	2.5	3.7	1.0	14.2	4.8
연령별	19~29세	227	23.3	8.5	5.1	6.7	3.2	2.5	2.2	18.4	2.1
	30대	238	16.5	6.6	4.6	6.6	1.9	4.3	0.6	15.1	4.6
	40대	275	12.6	5.7	3.6	2.6	2.5	4.5	0.2	14.9	4.3
	50대	254	9.4	4.6	3.9	2.8	2.5	2.5	0.6	13.0	4.8
	60대 이상	206	4.7	4.6	2.3	1.4	1.2	4.4	0.3	12.4	6.2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2	2.0	9.0	2.3	0.0	1.4	1.7	0.5	7.1	7.2
	고졸	493	8.4	5.7	2.6	3.2	2.8	3.5	0.7	18.3	4.4
	대재 이상	584	20.0	5.6	5.4	5.6	2.0	4.2	0.8	13.4	3.8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1	5.1	0.0	0.0	0.0	0.0	0.0	12.2	0.0
	자영업	198	13.7	3.0	2.3	3.5	0.7	7.9	0.7	14.2	4.1
	블루 칼라	336	7.6	6.1	4.1	5.5	2.2	3.6	1.1	14.3	5.3
	화이트칼라	276	16.5	5.3	3.8	5.7	2.2	3.3	0.3	17.3	2.7
	전업 주부	243	12.7	7.9	5.6	0.9	2.8	1.4	0.7	16.6	5.4
	무직/기타	127	22.6	8.2	3.8	3.9	4.8	2.9	1.2	8.4	4.8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7	5.2	3.6	3.9	3.3	3.3	0.5	0.0	8.5	10.5
	200~299만원	203	4.0	6.2	2.2	3.7	2.5	2.1	1.1	18.1	6.0
	300~399만원	366	13.9	7.9	3.6	3.9	2.2	3.7	0.6	12.0	3.2
	400만원 이상	514	18.5	5.1	4.9	4.4	2.0	4.9	1.0	16.9	3.2
지역별	수도권	601	25.5	1.2	0.8	7.6	1.4	1.9	0.0	28.7	3.6
	충청권	122	1.3	0.0	1.3	0.7	0.0	26.6	0.0	1.3	0.8
	호남권	118	0.6	2.0	0.0	0.7	16.3	0.0	0.0	0.6	0.0
	영남권	310	1.2	19.9	13.1	0.0	0.0	0.0	2.9	0.3	0.8
	강원	36	0.0	2.0	0.0	2.1	0.0	0.0	0.0	4.0	78.5
	제주	14	6.8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크기	대도시	554	21.2	11.4	7.8	6.5	4.3	6.7	1.6	4.5	2.1
	중·소도시	580	7.2	1.1	0.6	2.1	0.4	1.0	0.0	26.3	7.1
	읍/면	66	1.4	3.1	1.1	0.0	1.4	1.2	0.0	0.0	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4	13.7	5.2	3.9	4.7	5.2	2.3	1.1	18.9	1.5
	중도	593	14.2	7.3	4.1	3.8	1.1	4.1	0.6	14.2	4.8
	보수적	313	11.4	4.3	3.6	3.8	1.8	4.2	0.7	12.1	6.4
종교별	불교	248	8.7	9.5	4.6	2.9	1.4	4.0	1.5	9.1	5.7
	기독교	245	19.9	5.5	1.7	5.3	3.6	4.9	0.7	13.0	1.8
	천주교	70	8.6	3.6	4.3	3.1	4.9	5.8	0.0	26.6	7.1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교없음	624	12.9	5.2	4.6	4.1	1.5	2.9	0.6	16.8	4.4
	모름/무응답	11	33.3	0.0	0.0	0.0	22.4	0.0	0.0	0.0	13.9

표 59.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입니까?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외국	계
		%	%	%	%	%	%	%	%	%
전 체		5.2	7.3	5.9	8.0	9.0	10.1	1.2	0.1	100
성별	남자	4.7	7.0	5.5	8.5	9.1	11.0	1.2	0.1	100
	여자	5.8	7.7	6.2	7.6	8.9	9.2	1.3	0.0	100
연령별	19~29세	2.9	5.2	3.5	3.7	6.9	4.5	1.1	0.0	100
	30대	4.8	4.7	5.1	6.1	8.7	7.8	1.6	0.3	100
	40대	6.3	8.8	6.5	8.3	7.2	10.3	1.4	0.0	100
	50대	6.2	9.1	7.4	10.7	7.9	13.7	0.9	0.0	100
	60대 이상	5.6	8.3	6.5	11.5	15.6	14.0	0.9	0.0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5.8	3.9	7.6	13.2	18.2	19.1	1.0	0.0	100
	고졸	4.7	10.4	5.6	8.2	7.8	12.9	1.0	0.2	100
	대재 이상	5.6	5.5	5.7	6.9	8.2	5.8	1.4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0.0	0.0	7.9	29.0	9.9	20.0	3.8	0.0	100
	자영업	5.6	7.0	3.8	11.8	9.8	9.6	2.4	0.0	100
	블루 칼라	5.6	9.7	5.6	6.2	8.5	13.5	1.1	0.0	100
	화이트칼라	6.3	6.8	4.9	8.1	8.9	7.1	0.6	0.3	100
	전업 주부	5.5	7.5	7.7	7.3	8.0	9.5	0.3	0.0	100
	무직/기타	1.7	3.6	7.9	4.8	11.3	7.6	2.3	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2	1.4	8.0	10.6	22.4	13.4	2.5	0.6	100
	200~299만원	5.7	5.6	3.9	8.4	10.6	17.8	2.1	0.0	100
	300~399만원	7.2	7.4	5.4	9.1	8.9	10.3	0.8	0.0	100
	400만원 이상	4.4	9.3	6.4	6.5	5.5	6.1	0.9	0.0	100
지역별	수도권	4.4	6.2	4.8	7.1	4.3	2.2	0.2	0.0	100
	충청권	28.1	39.2	0.7	0.0	0.0	0.0	0.0	0.0	100
	호남권	0.0	0.6	32.8	44.2	0.7	1.4	0.0	0.0	100
	영남권	0.6	0.3	0.5	0.3	25.5	34.2	0.3	0.0	100
	강원	0.0	2.3	0.0	2.3	6.8	0.0	0.0	2.1	100
	제주	0.0	0.0	0.0	0.0	3.0	0.0	90.2	0.0	100
지역 크기	대도시	2.1	4.0	3.3	8.9	6.3	9.1	0.2	0.0	100
	중·소도시	7.7	10.0	7.8	5.8	10.0	10.8	1.8	0.1	100
	읍/면	9.8	11.9	9.8	20.3	23.7	12.1	4.3	0.0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0	7.1	4.8	8.3	9.5	7.7	1.2	0.0	100
	중도	3.9	6.7	6.7	9.3	7.5	10.1	1.4	0.1	100
	보수적	8.0	8.5	5.3	5.5	11.5	12.2	0.9	0.0	100
종교별	불교	4.4	3.9	4.1	6.4	14.7	17.6	1.5	0.0	100
	기독교	3.9	7.7	11.8	8.3	5.6	5.0	1.1	0.3	100
	천주교	6.2	4.6	6.6	6.2	7.8	2.9	1.8	0.0	100
	기타	0.0	0.0	28.4	0.0	0.0	71.6	0.0	0.0	100
	종교없음	6.1	9.0	4.1	8.8	8.1	9.8	1.1	0.0	100
	모름/무응답	0.0	0.0	0.0	11.2	19.1	0.0	0.0	0.0	100

설문지

SNUIRB No. E1505/001-017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 3702-2100 / FAX [02]3702-2121 / E-mail info@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2015 통일의식조사

Gallup2015-166-009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2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은미 연구원(02-880-5227)**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 □에 √ 표기를 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께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명규

☐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연구 주관 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장 : 박명규 (☎ : 02-880-4052)

2015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장은혜 / 신창석
(☎ 02-3702-2119/2608)
실사연구원 임문정
(☎ 02-3702-2684)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 □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 3. 반반 / 그저 그렇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원 은요?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1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같은 민족이니까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기타 (적을 것 :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부동산투기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범죄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문 13) ○○님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보통이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매우 공감한다
- 대체로 공감한다
- 보통이다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4)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8) ○○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9)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 선군정치	1	2	3	4
㉡ 주체사상	1	2	3	4
㉢ 천리마운동	1	2	3	4
㉣ 고난의 행군	1	2	3	4
㉤ 장마당	1	2	3	4
㉥ 아리랑 축전	1	2	3	4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있다	없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1	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1	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생활수준	1	2	3	4
㉢ 역사인식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활동습(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치관	1	2	3	4

문 23)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험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험을 느낀다', '다소 위험을 느낀다',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험을 느낀다
2. 다소 위험을 느낀다
3.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문 24)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2.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3.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4. 북한 핵종단을 위한 국제협력
5. 평화협정체결

문 26)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7)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8)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9)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책라 실효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북한의 책임	1	2	3	4	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 미국의 책임	1	2	3	4	5
㉣ 중국의 책임	1	2	3	4	5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4)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5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5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1	2	3	5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5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6)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보기카드 9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8)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0) (보기카드 10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 간 협력
2. 한미 간 협력
3. 한중 간 협력
4. 모두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 4·19	1	2	3	4	5
㉡ 5·16	1	2	3	4	5
㉢ 10월 유신	1	2	3	4	5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 6월 항쟁 (1987년)	1	2	3	4	5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 환경파괴	1	2	3	4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 빈부격차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 복지정책 갈등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 부정부패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6)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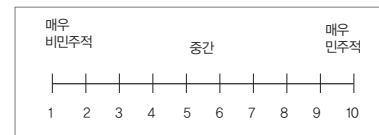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7)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48) (보기카드 11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문 49)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50)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1)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2)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4. 지지정당 없음

문 53)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4)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1	2	3	4	5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지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 9. 가정주부
-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11. 군인/경찰
- 12. 무직
- 13. 기타 (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다가?

-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재학/대학졸업
-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불교
- 2. 기독교 (개신교)
- 3. 천주교 (가톨릭)
- 4. 기타 (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1. 월 49만원 이하 7. 월 300 ~ 349만원
- 2. 월 50 ~ 99만원 8. 월 350 ~ 399만원
- 3. 월 100 ~ 149만원 9. 월 400 ~ 499만원
- 4. 월 150 ~ 1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 5. 월 200 ~ 2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 6. 월 250 ~ 2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택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 3. 중간과 비슷하다
-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가드 12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의 상 4. 중의 하
- 2. 상의 하 5. 하의 상
- 3. 중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훨씬 좋아졌다
- 2. 약간 좋아졌다
- 3. 차이가 거의 없다
- 4. 약간 나빠졌다
- 5. 훨씬 나빠졌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1. 서울 10. 충청북도
- 2. 부산 11. 충청남도
- 3. 대구 12. 전라북도
- 4. 인천 13. 전라남도
- 5. 광주 14. 경상북도
- 6. 대전 15. 경상남도
- 7. 울산 16. 제주도
- 8. 경기도 17. 북한
- 9. 강원도 18. 외국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 2. 휴대폰 ()-()-()				
조 사 일 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